The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Korea

http://www.ynicp.or.kr

제22회 조사연구회

원삼국시대 경주 황성동 유적의 성격

財團法人 嶺南文化財硏究院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제22회 조사연구회 발표자료집

원삼국시대 경주 황성동 유적의 성격

2009. 6. 27

財團法人 嶺南文化財硏究院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제22회 조사연구회 발표자료집

원삼국시대 경주 황성동 유적의 성격

□ 일 시 : 2009년 6월 27일 토요일 09:30~17:30

□ 장 소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 주 최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嶺南文化財硏究院
The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일　　정

【개 회】 사회 : 이석범(영남문화재연구원)

인사말 (09:30~09:40) ..... 이희준(영남문화재연구원장)

【제1부】 유적개요 발표 (09:40~10:00)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의 조사 현황 ..... 한도식(영남문화재연구원)

【제2부】 주제발표 (10:00~14:50)

제1발표 (10:00~10:40)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과 성격 ..... 이재흥(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토론　차순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2발표(10:40~11:20)

경주 황성동유적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 ..... 김나영(울산문화재연구원)

토론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휴　식(11:20~11:30)

제3발표(11:30~12:10)

경주 황성동유적 製鐵遺構의 검토 ..... 김권일(신라문화유산조사단)

토론　손명조(국립제주박물관)

중　식(12:10~13:30)

제4발표(13:30~14:10)

原三國~三國時代 鐵器 副葬樣相으로 본 隍城洞 集團의 性格 ..... 우병철(영남문화재연구원)

토론　김도헌(동양대학교 문화재발굴보존학과)

제5발표 (14:10~14:50)

경주 황성동 와질토기의 편년과 성격 ..... 이제동(영남문화재연구원)

토론　권지영(울산문화재연구원)

휴　식(14:50~15:10)

【제3부】 종합토론(15:10~17:20)

좌　장 : 이희준(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참석자 : 발표자, 토론자

【폐 회】 (17:20~17:30)

목 차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의 조사 현황 ..... 한도식 7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과 성격 ..... 이재흥 45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 차순철 69

경주 황성동유적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 ..... 金羅英 73

「경주 황성동유적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토론문 ..... 최경규 93

경주 황성동유적 製鐵遺構의 검토 ..... 김권일 97

「경주 황성동유적 製鐵遺構의 검토」에 대한 토론문 ..... 손명조 115

原三國~三國時代 鐵器 副葬樣相으로 본 隍城洞 集團의 性格 ..... 우병철 117

「원삼국~삼국시대 철기 부장양상으로 본 황성동 집단의 성격」에 대한 토론문 ..... 김도헌 137

경주 황성동 와질토기의 편년과 성격 ..... 이제동 141

「경주 황성동 와질토기의 편년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 권지영 151

황성동 종합토론 참고 자료 153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의 조사 현황

한도식(영남문화재연구원)

〈 목 차 〉

Ⅰ. 머리말
Ⅱ. 경주 황성동 일대의 유적조사 경과
 1. 유적현황
 2. 발굴조사현황
Ⅲ. 경주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유적조사의 내용
 1. 원삼국시대 분묘유적
 2. 원삼국시대 생산·생활유적
Ⅳ.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
 1. 연구성과
 2. 연구과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경주지역의 원삼국시대 유적은 1980년대에 조양동유적, 구정동유적, 황성동유적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사라리유적, 죽동리유적, 구어리유적과 경주권역의 중산리, 다운동유적과 주변지역의 울산 하대리유적, 포항 옥성리유적, 학천리유적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경주 황성동 일대의 유적은 1975년 2월 5일 최인만이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한 황성동 606번지 출토의 대부장경호 외 9점의 유물이 유적의 존재를 알리는 최초의 근거가 되었다.

황성동 일대 유적의 발굴조사는 1985년 10월 지역주민 배용환의 신고로 전선주 매설공사중에 발견된 매장문화재 출토지를 국립경주박물관이 수습발굴조사한 황성동 583-2번지의 목곽묘 1기의 발굴조사가 최초이다. 1987년 3월 국립경주박물관이 황성동 524-1번지에서 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석실분 1기를 발굴조사하여 각종 인물상과 소, 말 등의 토용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87년 10월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가 황성동 907-2번지 일대를 임대아파트 건설부지로 선정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주조철부 용범이 공반되는 철기제작유구를 포함한 생산유적과 주거지 등 생활유적을 확인하였고 89~90년에 걸쳐 본 발굴이 실시되어 원삼국시대의 철기제작 관련 유구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 후 경주 황성동 일대가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지난 20여 년간 각종 개발공사전 발굴조사가 수십 차례 실시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의 발굴조사 현황을 정리하고 원삼국시대 유적의 발굴조사 내용과 그 성과를 정리하였다. 경주 황성동 일대의 원삼국시대 유적은 주지하듯이 분묘유적과 철기제작 관련 생산유적 및 생활유적 등이 발굴조사된 복합유적으로 이에 대한 금번의 종합적 연구와 검토를 통해 신라초기 고대국가 형성기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경주 황성동 일대의 유적조사 경과

1. 유적현황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은 경주분지의 서북쪽에 위치한다. 이는 경주분지의 서쪽에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형산강의 동편 해발 30m정도의 대체로 평탄한 강안 충적지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지형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가면서 약하게 경사져 있다.

황성동 일대는 斯盧六村 가운데 金山加利村으로 비정되기도 하는데 주변의 두드러진 유적으로는 『三國史記』에 기록으로 전하는 傳 金后稷 諫墓가 봉토분으로 남아 있다. 한편 동쪽으로 좀 떨어진 용강동 원지유적도 현재의 행정구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황성동 일대 유적으로 포함시켜도 될 것 같다. 원지유적은 발굴조사에서 호안석축, 인공섬 2개소, 입수로, 물받이시설, 건물지 2개소, 교각시설, 도로, 구 등이 확인되었다.

경주 황성동 일대의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다양한 유적이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은 〈표 1〉과 같다.

〈표 1〉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 조사현황표

번호	유 적 명		위치(지번)	부지명(공사명)	조사(유구) 내용	시 대	조사년도	조사기관(출전)
1	**매장문화재출토지Ⅰ**		606	발견신고	적석목곽묘(?)	삼국	1975	경주유적지도, 1997
2	황성동고분Ⅰ		583-2	전선주 매설공사	목곽묘1	원삼국	1985	국립경주박물관, 1985
3	황성동 석실분		524-1	우주빌라	석실분1	삼국	1987	국립경주박물관, 1993
4	황성동 유적	경주박물관 (가 지구)	907-2 일대	주공 2차	원삼국주거지19, 용해로9, 단야로6, 폐기장2, 수혈5, 적석유구1	원삼국~삼국	1989~1990	국립경주박물관, 2000 경북대학교박물관, 2000 계명대학교박물관, 2000
		경북대 (나 지구)			청동기주거지14, 원삼국주거지9, 단야로3, 요지2, 우물1, 옹관묘1, 석곽묘1, 수혈, 소토유구, 석열유구	청동기~통일신라		
		계명대 (다 지구)			청동기주거지9, 원삼국주거지19, 폐기장1, 용범폐기장1, 저탄장1, 옹관묘1, 화덕유구1	청동기~통일신라		
					원삼국주거지1, 용해로1, 방형유구1, 우물, 도로			
		동국대 (라 지구)			청동기주거지12, 수혈6, 토광묘1, 구상수혈1, 수혈5, 적석유구1	청동기		
5	매장문화재출토지Ⅱ		521	현대 1차	유물포함층	삼국	199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2
6	철기제작관련유적Ⅰ		886-5	단독주택	철기제작유구	원삼국	1991	국립경주박물관
7	황성동고분Ⅱ		513-3	신흥로얄1차	목관묘1, 목곽묘2	원삼국	1993	국립경주박물관, 2002
8	황성동고분Ⅲ		545	신흥로얄2차	목곽묘(목관계목곽 포함)53, 옹관묘13	원삼국	1994	국립경주박물관, 2002 동국대, 2002 경주대, 2003
9	황성동고분Ⅳ		601-2	단독주택	목곽묘2, 옹관묘1	삼국	199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5
10	황성동 철기제작관련유적Ⅱ		524-9	단독주택	용해로1	원삼국	1996	국립경주박물관, 1999
11	황성동신석기시대유적		267 일대	현대 5차	유물포함층	신석기	1996	동국대학교, 2002

번호	유 적 명	위치(지번)	부지명(공사명)	조사(유구) 내용	시 대	조사년도	조사기관(출전)
12	황성동고분Ⅴ	634-1 일대	제일아파트	목관묘7, 목곽묘7, 토광묘10, 옹관묘5, 제사유구, 불명유구3	원삼국~삼국	199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8
13	**전 김후직간묘**	471	경상북도 기념물 31호	석실분(?)	삼국	1997	경주유적지도, 1997
14	용강동 원지유적	용강동 1181-1 일원	현지보존 (사적 419호)	원지, 도로, 건물지	통일신라	1998~1999	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15	제철관련유적Ⅲ	537-2	대흥임대주택	용해로7, 단야로6, 폐기장6, 석관묘1, 토광묘4, 석실묘4, 도로	청동기~삼국	199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16	제철관련유적Ⅳ	537-4	근린생활시설	용해로1	원삼국	200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17	황성동535-8유적	535-8	단독주택	용해로1, 석실분1, 도로, 석렬유구, 수혈	원삼국~통일신라	200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18	황성동537-1 · 10유적	537-1 · 10	단독주택	적석목곽묘9, 토광묘7, 불명유구2	삼국	200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19	강변로(3-A공구)유적	884-8일대	강변로개설 (3-A공구)	청동기주거지9, 야외노지1, 집석노3, 목관묘4, 목곽묘20, 적석목곽묘25, 석곽묘17, 석실묘2, 옹관묘16, 단야로12, 용해로1, 제철폐기장2, 수혈, 주혈, 도로	청동기~통일신라	2000~200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20	황성동950-1 · 7유적	950-1 · 7	다세대주택	청동기주거지3, 수혈2, 구상유구3, 도로	청동기~통일신라	200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21	황성동535-5유적	535-5	다세대주택	수혈3	원삼국	200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22	황성동886-1유적	886-1	세잔아파트	용해로3, 추정용해로1, 단야로1, 폐기장2, 소성수혈14, 구상유구3, 부석유구1	원삼국~삼국	200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23	황성동석실분	906-2 · 5	현지보존 (사적 476호)	석실분	통일신라	200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24	황성동949-1유적	949-1	다세대주택	청동기주거지1, 도로유구	청동기~통일신라	2006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5	황성동887-8유적	887-8	다세대주택	용해로2	원삼국~삼국	2006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26	황성동899-8유적	899-8	다세대주택	청동기주거지2	청동기	2006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27	황성동881-1유적	881-1	단독주택	적석목곽묘6, 석곽묘3, 옹관묘1, 구상유구1	삼국	2007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8	황성동535-18유적	535-18	단독주택	도로유구	삼국	200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9	황성동 공동주택부지	575	아파트	석관묘1, 목관묘16, 목곽묘74, 옹관묘37, 석곽묘7, 석실묘4, 수혈유구2, 의례유구3, 지진구3, 건물지1	청동기~통일신라	2007	영남문화재연구원
30	황성동 공동주택부지 **(시굴조사)**	590	아파트	목(관)곽묘198, 적석목곽(석곽)묘340, 옹관묘23, 석실묘55, 제철유구10, 수혈유구, 도로 등	청동기~통일신라	2007~8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경문화재연구원
31	황성동 928-17 유적	928-17	단독주택	청동기주거지1	청동기	200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2	황성동 324-1유적	324-1	아파트	옹관묘1, 우물4, 수혈2, 집석유구1, 담장1	통일신라	2008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 발굴조사현황

황성동 일대의 유적은 1985년 10월 국립경주박물관이 조사한 매장문화재 출토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발굴조사된 총 32개소가 있다. 발굴조사는 모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전 구제발굴조사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장보존, 조치된 유적은 2곳이다.

경주 황성동 일대의 선사시대 유적은 신석기시대의 토기 등 유물이 출토된 문화층 유적 1개소와 청동시시대 석관묘가 확인된 분묘유적과 주거지 등의 생활유적이 있다. 원삼국시대 유적은 목관묘, 목곽묘, 옹관묘 등의 분묘유적, 주거지가 대부분인 생활유적, 철기제작과 관련된 생산유적이 발굴조사되었다. 특히 철기제작유구인 생산유적은 주조철부용범이 공반된 용해로와 단야로, 철기생산 관련 폐기장 등의 철기제작과 관련된 일련의 공정을 알 수 있는 유구들이 조사되어 학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삼국시대 유적은 적석목곽묘와 석곽묘, 옹관묘 등의 분묘유적이 조사되었고 통일신라시대 유적은 분묘유적인 석실묘와 생활유적으로 용강동 원지유적과 도로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1) 신석기시대 유적

황성동 267번지 유적은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최초의 신석기시대 유적인데 다만 유구는 확인되지 않은 유물포함층이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유물은 빗살무늬, 압인문, 침선문 등이 시문된 호형과 심발형 등의 신석기시대 토기가 출토되었다.

2) 청동기시대 유적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생활유적인 주거지와 분묘유적인 석관묘가 조사되었다.

생활유적은 황성동 907-2번지 일대로 황성동유적발굴조사단이 연합으로 조사한 유적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나 지구' 에서 14기, 동국대학교가 조사한 '라 지구' 에서 12기가 조사되었고, 계명대학교에서 조사한 '다 지구' 에서는 9기가 조사되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발굴조사한 황성동 905-1 · 7번지 유적에서도 주거지 3기가 조사되었고, 강변로유적의 도로구간에서는 주거지 9기와 청동기시대에 해당되는 야외노지 1기가 조사되었다. 황성동 949-1번지, 899-8번지, 928-17번지 유적에서도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황성동 일대 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방형이 대부분이다. 주거지 내부의 중앙에 원형의 노지를 가지고 장축방향은 주로 북동-남서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대체로 황성동 유적의 남쪽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가 분포한 범위에서는 분묘 등 다른 성격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묘유적인 석관묘는 황성동 537-2번지 유적과 575번지 유적에서 1기씩 2기가 조사되었다. 황성동 537-2번지 유적의 석관묘는 장방형이며 장축은 북동-남서향으로 판석 1매씩을 네벽과 바닥에 깔아서 조립하였다. 마제석촉 6점이 출토되었다.

3) 원삼국시대 유적

원삼국시대 유적은 분묘유적, 생산유적, 생활유적이 각각 군집하여 조성되었고, 시기차이를 두고 이동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묘유적은 목관묘, 목곽묘, 옹관묘가 삼국시대의 적석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등이 각각 분포하고 있다.

목관묘는 황성동 고분Ⅴ유적 7기, 강변로유적의 도로구간유적 4기, 575번지유적 16기 등 모두 27기가 조사되었고, 590번지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의 조사가 완료되면 많은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강변로유적의 목관묘는 판재의 관을 사용한 것으로 장단축비 2:1이상인 것과 이하인 것으로 구별된다. 특히 2호 목관묘에서 확인된 판상철부 10점의 부장양상은 주변지역의 유적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부장유물은 주머니호와 단경호, 철검, 철모, 철촉, 철부, 판상철부 등의 토기류와 철기류이다. 황성동 일대 유적 목관묘의 조성시기는 각 연구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기원전 1세기 후반에서 기원 1세기 중반 정도로 편년된다.

목곽묘는 황성동 583-2번지유적에서 1기가 조사된 이후, 513-3번지유적 2기, 545번지유적 53기, 634-1번지유적 7기, 강변로유적 20기, 575번지유적 74기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진행중인 590번지유적 시굴조사에서 200여기의 목곽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성동 590번지 유적의 조사가 완료되면 분묘유적의 전체적인 양상이 확실하게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황성동 유적의 목곽묘는 목관묘의 전통을 잇는 소위 목관계목곽묘와 경주식목곽묘 혹은 동혈주부곽식으로 불리는 세장방형목곽묘가 있다. 목곽묘는 황성동내에서도 주로 북쪽에 밀집되어 조영되어 있는데, 시기에 따라 군을 이루며 입지가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옹관묘는 황성동 907-2번지 일대 2기, 601-2번지유적 1기, 634-1번지유적 5기, 884-8번지 강변로유적 16기, 545번지유적 13기, 575번지유적 37기가 조사되었고 590번지유적에서 23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옹관묘는 목관묘시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목곽묘와 석곽묘가 조성되는 시기에도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강변로유적의 도로구간에서 조사된 2기의 옹관묘는 목관묘와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가장 선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산유적은 원삼국시대 철기제작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철기제작유구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되었다. 황성동유적조사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황성동 907-2번지일대의 황성동유적에서 '라 지구'를 제외한 조사구역 전체에서 철기제작과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었다. 1차 '가 지구' 조사에서는 용해로 8기, 단야로 1기, 폐기장 2기가 확인되었고, '가 지구' 2차 조사에서 단야로 6기가 확인되었다. '나 지구'의 1차 조사에서는 탄치장 1기, 단야로 3기가 확인되었고 2차 조사에서는 야외노지 2기가 조사되었다. '다 지구'에서는 탄치장 2기와 용범폐기장 1개소, 주거지 내에서 모루돌과 단야와 관련된 노가 확인되었으며, '고가수조구역'에서 용해로 1기와 철기제작과 관련된 방형의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황성동 524-9번지유적에서 용해로 1기, 강변로유적에서 단야로 12기, 용해로 1기, 제철과 관계된 폐기장 2기가 조사되었고, 황성동 537-2번지유적에서 용해로 7기, 단야로 6기, 폐기장 6기가 조사되었으며, 537-8번지유적에서 용해로 1기가 조사되었다. 886-1번지유적에서는 용해로 3기, 추정 용해로 1기, 단야로 1기, 폐기장 2기, 소성수혈유구와 제철과 관련된 수혈유구 14기 등 대규모의 철기제작관

련 유구가 조사되었다.

황성동유적에서 확인된 철기제작 관련 유구는 분묘구역과 구분되어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원삼국시대 황성동일대에서 생산유적과 분묘유적의 유구 조성구역이 구분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른 시기의 철기제작 관련 유구들은 황성동의 남쪽에 조성된 원형 주거지내에서 소규모 단야공방 정도의 규모로 조성되었다가 나중에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공방을 확장해 간 것으로 보인다. 철기제작 기술이 좀더 발전된 집단의 철기제작 관련 유적은 그 북쪽 황성동 537-2번지와 907-2번지, 황성동유적의 '가 지구' 와 ' 나 지구 '의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었다.

생활유적인 주거지는 모두 47기가 발굴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과 방형 혹은 말각방형으로 구분된다. 원형주거지는 907-2번지 황성동유적 '다 지구' 에서 확인된 반면 방형주거지는 황성동유적 '가 지구' 와 '나 지구' 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이른 시기의 원형주거지는 대부분 소형(20㎡전후)이며, 주거지의 한쪽 벽면에 치우쳐 노지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일반적 화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강한 열을 받은 상태로 나타나, 철을 달구거나 녹이는 노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원형계의 주거지 내에서는 철재로 보이는 철기제작과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되어 주거지내부에서 간단한 단야공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늦은 시기의 방형계 주거지는 내부에 바닥다짐, 벽체 외의 별다른 시설은 보이지 않으나 이른 시기의 원형주거지에 비해 많은 양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4) 삼국시대 유적

경주 황성동 일대의 삼국시대 유적은 분묘유적으로 적석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등이 조사되었다.

적석목곽묘는 황성동 537-1 · 10번지유적에서 8기, 강변로유적에서 25기 등 모두 33기가 조사되었다. 적석목곽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향이다. 목곽안은 시신이 안치되는 주공간과 부장공간을 따로 설치하였다. 주공간에는 모두 잔자갈을 이용해 시상을 설치하였고 부장공간은 주로 생토면을 이용하였다. 대부분이 부장공간을 서쪽에 마련하였다. 황성동 537-1 · 10번지 3호 적석목곽묘와 강변로유적 33호 적석목곽묘는 주곽과 부곽을 따로 만들었다. 유물은 토기류가 철기류에 비해 월등히 많다. 강변로유적의 34호 적석목곽묘에서는 금동관이 출토되어 피장자의 신분과 집단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석곽묘는 황성동 강변로유적에서 17기가 확인되었다. 동일 분묘역에 적석목곽묘와 같이 조영되었고, 서로 중복관계도 확인되어 피장자간의 성격을 파악하고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5) 통일신라시대 유적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은 석실묘와 원지유적, 도로유구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석실묘는 황성동일대에서 총 10기가 조사되었다. 537-2번지유적 4기, 535-8번지유적 1기, 524-1번지유적에서 1기, 강변로유적에서 2기, 황성동 906-2 · 5번지에서 1기가 조사되었다.

金后稷墓로 전해지는 분묘 1기는 발굴조사되지는 않았으나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석실묘로 추정하고 있다. 황성동 906-2 · 5번지 석실분은 2005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조사하여 봉분과 연도 등 석실분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양호한 상태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발굴조사 후 현장보존 조치되고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476호)로 지정되었으나 복원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도로유구는 황성동 907-2번지일대 황성동유적의 '가 지구' 고가수조설치구역과 황성동 537-2번지, 강변로유적, 535-8번지유적, 950-1번지유적 등에서 확인되어 왕경내의 도로유구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확인되었다.

원지유적은 용강동 1181-1번지 일원의 용황초등학교 신축예정부지 발굴조사에서 호안석축을 갖춘 연못과 건물지 등의 유구와 귀면와 등 유물이 출토되어 조사 당시에는 제2안압지라 부르기도 하였다. 원지유적은 이 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복원, 정비 등 추가적인 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

Ⅲ. 경주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유적조사의 내용

1. 원삼국시대 분묘유적

경주 황성동 일대의 원삼국시대 분묘유적은 목관묘와 목곽묘가 묘역을 다소 달리하면서 조성되고 옹관묘는 각각의 묘제와 동일시기에 같은 묘역 내에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구는 동일묘제의 경우 조성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중복되거나 선행유구를 파괴하고 조성한 것은 거의 없다.

황성동 일대 분묘유적의 대부분은 철기제작관련 유적의 북쪽에서 확인되었다. 그 중 목관묘가 조사된 황성동 884-8번지 일대 강변로(3-A공구)유적의 도로개설구간에서 확인된 유구는 생산유적인 철기제작관련 유적을 사이에 두고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황성동 583-2번지의 황성동고분Ⅰ, 513-3번지의 황성동고분Ⅱ, 황성동 545번지 황성동고분Ⅲ유적과 황성동 575번지 일원과 590번지 일원의 공동주택부지의 고분군은 황성동 유적을 대표할 수 있는 분묘유적으로 개발사업의 주체가 각각 달라 각각의 발굴조사가 각기 다른 조사기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지만 공동묘역의 범위안에 조성된 유적이다. 황성동 634-1번지 황성동고분Ⅴ유적은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중 가장 북쪽에서 확인되었다.

1) 목관묘

황성동 일대의 목관묘는 현재까지 4개 유적에서 모두 32기가 발굴조사되었다.

황성동 884-8번지 일대 강변로(3-A공구)유적의 도로개설구간에서 확인된 목관묘는 공사범위 내의 한정된 공간에서 나온 유구만 4기이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목관묘는 판재의 목관을 안치하고, 묘광을 흙으로 모두 충전하였다. 그 중 2호 목관묘는 30cm 정도 크기의 냇돌로 목관을

〈표 2〉 경주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분묘유적 현황표

번호	유 적 명	유구와 특징	출토유물	비고
2	황성동고분Ⅰ (583-2번지)	목곽묘(1)	단경호, 대부호, 노형토기, 고배	국립경주박물관
7	황성동고분Ⅱ (513-3번지)	목관묘(1), 목곽묘(2)	연질소호, 철검, 철모, 철촉, 철부, 철겸	국립경주박물관
8	황성동고분Ⅲ (545번지)	목관묘(2), 목곽묘(51), 옹관묘(11)	단경호, 대부호, 양이부호, 철모, 철촉, 철부, 철겸, 도자	국립경주박물관 동국대 · 경주대
12	황성동고분Ⅴ (634-1번지 일대)	목곽묘(9), 옹관묘(5)	노형토기, 단경호, 대부장경호, 철부, 철겸, 철촉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	강변로(3-A공구)유적(884-8번지일대)	목관묘(4), 목곽묘(20), 옹관묘(16)	유개대부호, 대부장경호, 노형토기, 직구호, 판상철부, 철촉, 단조철부, 주조철부, 철검, 철모, 철겸, 경식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9	황성동 공동주택부지 (575번지 일원)	목관묘(16), 목곽묘(74), 옹관묘(37)	청동검파부철검, 팔찌, 유개대부직구호, 주머니호, 단경호, 부엉이모양토기, 오리모양토기, 철부, 철겸, 무경식철촉, 유리제환옥, 곡옥, 다면옥	영남문화재연구원
30	황성동 공동주택부지 (590번지 일원)	목(관)곽묘(198), 적석목곽(석곽)묘(340), 옹관묘(23), 석실묘(55)	시굴조사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경문화재연구원

보강하고 사질점토로 충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목관상부에 토기류와 철기류, 보강토 안에는 철촉 등의 철기류, 목관 내는 철검 등의 철기류와 장신구가 부장되었다. 2호 목관묘에서는 목관 내에 판상철부 10매중 바닥에 6매를 깔고, 네 모서리에 각 1매씩 4매를 세워 부장한 것이 확인되었다.

황성동 513-3번지 황성동고분Ⅱ, 545번지 황성동고분Ⅲ, 575번지 일원 공동주택부지 내 유적과 590번지 일원 등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목관묘는 모두 32기이나 황성동 590번지 일원의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것들이 발굴조사되면 그 수는 훨씬 많고 분포 범위도 넓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영남문화재연구원이 황성동 575번지 일원의 유적에서 조사한 목관묘의 경우 관내부에서는 철겸, 철부, 철검, 철촉 등의 철기류와 유리제경식이 출토되었으며, 장벽 또는 단벽의 충전토 상면에서 주머니호, 우각형파수부호, 소옹 등의 토기류와 철촉, 철모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6호목관묘 관내에서 청동검파부철검이 출토되었고, 15호목관묘에서는 청동팔찌 2점이 출토되었다. 주머니호는 동최대경이 하위에 위치하며, 구연이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단경호는 구연부가 외경하는 형태로 초기 단경호의 요소를 가진다.

2) 목곽묘

황성동 일대의 원삼국시대 목곽묘는 현재까지 7개소에서 모두 157기가 발굴조사되었다.

목곽묘가 가장 많이 확인된 황성동 513-3번지 황성동고분Ⅱ, 545번지 황성동고분Ⅲ, 575번지 일원 공동주택부지 내 유적과 590번지 일원 등의 유적에서 확인된 밀집된 목곽묘는 주체부의 구조와 규모, 평면형태가 다양한데 방형목곽묘, 장방형목곽묘, 주부곽식 장방형목곽묘, 주부

곽식 세장방형목곽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한 황성동 575번지 일원의 목곽묘는 평면형태에 따라 장단축비가 2:1 미만의 방형과 3:1 내외의 장방형, 3.8:1 이상인 세장방형으로 구분된다. 장방형목곽묘는 다시 부곽의 유무에 따라 단곽식과 주부곽식으로 구분되며, 세장방형목곽묘는 주부곽식이다. 방형목곽묘와 장방형목곽묘는 유적 전역에서 확인되며, 세장방형목곽묘는 주로 유적의 동편에서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토기 216점, 금속 248점, 유리 및 옥류 31연 등이 있다.

토기는 대부분 와질토기이며, 주부곽식목곽묘에서는 고식 도질토기가 출토되기도 한다. 기종은 대호, 유개대부직구호, 유개대부호, 양이부호, 주머니호, 장동호, 노형기대, 옹, 파수부배, 단경호 등 다양하며, 13호목곽묘와 59호목곽묘에서 유개복합기형토기가, 20호목곽묘에서 오리모양토기 3점, 수리부엉이를 형상화한 새모양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새모양토기는 대체로 낙동강 이동의 원삼국시대 목곽묘에서 확인되는 대표적 상형토기이다. 특히 부엉이모양토기는 지금까지 출토된 예가 없는 특이한 형태로 20호목곽묘 피장자의 지위가 황성동 분묘조성 집단 내에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철기는 철촉, 철부, 철겸, 철검, 환두도, 도자, 곡도자, 철모, 유자이기, 철극, 따비 등 다양하다. 철촉은 무경식과 유경식철촉으로 구분되며, 무경식철촉은 방형목곽묘에서, 유경식철촉은 그 밖에 목곽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철모는 이단경식과 일단경식, 궐수형 철모로 구분되며, 방형목곽묘에서 이단경식 철모가 출토되었다.

경식류는 유리제환옥, 곡옥, 마노제 및 수정제 다면옥 등이 출토되었다.

3) 옹관묘

황성동 일대의 분묘유적에서 원삼국시대의 옹관묘는 현재까지 5개 유적에서 모두 92기가 발굴조사되었다. 옹관묘는 목관묘와 목곽묘가 조성되는 묘역에 이들과 중복없이 부가적으로 조성되었다.

옹관묘의 구조는 대부분이 합구식이고 단옹식 옹관도 일부 있다. 합구식 옹관묘는 시루, 장동옹 등을 주옹으로 이용하고 단경호, 노형토기 등의 토기를 막음옹으로 사용하여 구연부를 맞대어 합구하였다. 단옹식 옹관묘는 대호를 이용하였다.

황성동 884-8번지일대 강변로(3-A공구)유적에서는 대호를 이용한 단옹식과 합구식이 모두 확인되었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황성동 575번지 일원 분묘유적에서는 옹관묘가 37기 확인되었다. 묘광은 타원형이며, 장축은 동서방향이다. 옹관의 구조는 합구식과 단옹식 두 종류 모두 확인되었다. 합구식 옹관묘는 두 개의 용기로 이루어진 것과 세 개의 용기로 합구된 것이 있다. 옹관묘의 규모는 묘광 길이 92~131㎝, 너비 52~84㎝, 잔존깊이 6~37㎝ 정도이다. 주옹은 장동옹, 단경호, 시루 등을 사용하였고, 막음옹은 장동옹, 단경호, 파수부옹 등을 사용하였다.

2. 원삼국시대 생산 · 생활유적

경주 황성동유적의 생산유적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조철부 용범이 공반된 철기제작유구가 발견되었고 철생산 집단의 공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지와 관련유물이 출토되었다. 조사결과 철기제작과 관련된 공정을 알 수 있는 유구가 조사되었다. 철기제작과 관련된 유구는 용해로, 단야로, 폐기장 등으로 황성동 907-2번지일대의 황성동유적 '가, 나, 다 지구'에서 대규모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인접한 황성동 524-9번지유적, 535-8번지유적, 537-2번지유적, 537-4번지유적, 884-8번지일대 강변로(3-A공구)유적, 886-1번지유적, 886-5번지유적, 887-8번지유적 등의 넓은 범위에서 조사되었다.

1) 생산유적

가) 용해유구

용해로는 황성동 907-2번지 일대의 황성동유적 1차 '가 지구'에서 대규모로 확인된 이 후 주변유적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조사된 유구는 모두 29기이다. 용해로는 단야공정의 유구와 같이 있기도 하고 구분되어 조성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구는 대체로 한변 약 250cm 정도의 방형수혈 안의 한쪽벽에 치우쳐 노를 축조하고 나머지는 작업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조사된 용해로는 모두 파괴된 상태인데 확인된 노의 흔적과 출토

〈표 3〉 경주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생산유적 현황표

번호	유 적 명		유구와 특징	출토유물	비고
4	황성동유적 (907-2번지 일대)	가 지구	용해로(9), 단야로(6), 폐기장(2)	용범, 용범편, 송풍관편, 노벽편, 철재	국립경주박물관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나 지구	단야로(3)	철재, 단조박편	
		다 지구	용범폐기장(1)	용범편	
			용해로(1) ; 고가수조지역	송풍관편	
6	철기제작관련유적 Ⅰ (886-5번지)		용해로(3), 단야로(1), 폐기장(2)	용범편, 송풍관편	국립경주박물관
10	황성동철기제작 관련유적 Ⅱ (524-9번지)		용해로(1)	용범편	국립경주박물관
15	제철관련유적 Ⅲ (537-2번지)		용해로(7), 단야로(6), 폐기장(6)	용범편, 송풍관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6	제철관련유적 Ⅳ (537-4번지)		용해로(1)	용범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7	황성동535-8유적		용해로(1)	용범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	강변로(3-A공구)유적 (884-8번지일대)		용해로(1), 단야로(12), 폐기장(2)	용범편, 송풍관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2	황성동886-1유적		용해로(3), 단야로(1), 폐기장(2)	용범편, 송풍관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5	황성동887-8유적		용해로(2)	용범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30	황성동 공동주택부지 (590번지 일원)		제철유구(10) ; 시굴조사	용범편, 송풍관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경문화재연구원

된 노벽으로 보아 노의 상부가 개방된 원추형 노로 추정된다. 노의 규모는 바닥내부 지름이 약 70cm 정도이다. 노벽은 짚 등을 섞은 점토로 두께 10cm 정도로 만들고 외벽은 점토로 보강하였다. 용해로는 노벽에서 확인된 3차례 이상의 보수흔적과 유구 토층상에서 확인된 재축조 양상으로 보아 적어도 3회 내지 6회 이상의 조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송풍관은 지름 20cm 내외의 대형이며 1개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쪽 끝부분에 단을 만들어 연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송풍관의 형태는 원추형, 원통형, ㄱ자형 등으로 송풍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사용위치에 따라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 썼던 것으로 보인다. ㄱ자형 송풍관은 노의 내부로 들어가는 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끝은 몸통부분보다 지름을 작게 만들었으며 철재가 묻어있고 노에 끼는 부분을 점토로 보강한 흔적이 남아 있어 그 용도를 알 수 있다.

한편 고가수조지역에서 확인된 1기의 노는 그 형태가 타원형이고 낮은 온도를 받은 노벽체와 비교적 소형인 점 등으로 주조철기 제작과정의 파손품 등을 다시 용해하여 단조제품을 만들었던 정련용해로로 추정되었다.

나) 단야유구

단야유구는 대부분이 주거지와 같은 범위에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조사 보고된 유구는 모두 29기이다. 황성동유적 1차 '다 지구' 주거지 내부에서는 철괴, 구상철괴, 모루돌 등이 출토되어 주거지 내에서 단야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는 달리 '나 지구'에서는 주거지 주위에서 단야로시설, 단야재, 단조박편, 숫돌, 모루돌 등이 출토되어 주거지 외부에 단야로 작업장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생활유적

황성동 일대의 유적에서 원삼국시대 생활유적이 조사된 곳은 황성동 907-2번지일대이다. '황성동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모두 47기로 평면형태는 원형, 방형 또는 말각방형으로 구분된다. 원형주거지는 '다 지구' 구역에 무리지어 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방형주거지는 '가 지구'와 '나 지구' 구역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평면형태가 다른 주거지는 원형주거지가 앞선 시기에 조성되었고 위치를 달리하여 늦은 시기의 방형주거지가 조영된 것으로 시기적인 차이와 더불어 기능의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 경주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생활유적 현황표

번호	유 적 명		유구와 특징	출토유물	비고
4	황성동유적 (907-2번지 일대)	가 지구	주거지(19) : 원형주거지(7) 말각방형주거지(10) 방형주거지(2)	노형토기, 장동옹, 단경호	국립경주박물관
		나 지구	주거지(9) : 원형주거지(3), 말각방형주거지(6)	평저발, 장동옹, 단경호, 노형토기, 주머니호편,	경북대학교
		다 지구	주거지(18) : 원형주거지(18)	주머니호, 원저옹, 장동옹, 단경호, 장경호, 시루, 철부, 철겸, 철착, 철촉, 숫돌	계명대학교
			주거지(1) : 원형주거지(1)		

가) 원형주거지

원형주거지는 모두 29기이다. 주거지의 규모는 면적이 20㎡ 정도의 소형 주거지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 내부의 한쪽 벽면에 치우쳐 노지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일반적인 화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강한 열을 받은 흔적이 있어, 철을 달구거나 녹이는 용도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원형주거지 내에서는 철기제작과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되어 주거지내부에서 간단한 단야공정도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성동 907-2번지 일대 황성동유적 1차 조사구역 '나 지구'와 '다 지구'에서 확인된 원형 또는 타원형의 주거지 18기는 내부에서 노지와 모루돌 등이 있는 유구의 양상과 철기를 만드는 재료로 보이는 쇠덩어리와 작은 구슬모양 쇠덩어리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철기제작 집단의 공방용 주거지로 추정되었다.

나) 방형 · 장방형주거지

방형 · 장방형주거지는 모두 18기이다. 방형 · 장방형주거지는 면적이 30㎡ 정도로 원형주거지보다 훨씬 넓다. 내부에 별다른 시설은 보이지 않으나 원형주거지에 비해 많은 수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그 기형은 평저발, 장동옹, 단경호 등이다.

황성동유적 1차 조사구역 '가 지구'와 '나 지구'에서 확인된 방형 또는 장방형주거지는 수혈의 깊이가 얕거나 거의 없는 지상식구조로 추정되었고 내부에서 출토된 벽체편에서 짚을 섞었음이 확인되었다. 방형 · 장방형주거지는 원형주거지보다 발전된 철기생산기술을 가진 집단의 취락지로 보인다.

Ⅳ.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

1. 연구성과

경주 황성동 일대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다양한 성격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특히 원삼국시대 유적은 분묘 · 생산 · 생활유적이 공간을 달리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유적인 주거지는 내부에서 단야공정에 사용된 유구, 유물이 확인되어 단야공정이 주거지 내부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1~3세기대 철기생산 집단의 작업장을 겸한 취락지로 확인되었고 시기는 2기로 구분된다.

1기는 원형주거지에서 단야공정의 철기생산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연대는 주머니호 등의 토기와 무경식양익형 철촉 등 철기류 등의 유물과 유구의 정황으로 A.D. 1세기 초로 보는 견해가 있고, 황성동 분묘유적의 목곽묘 단계 토기와 비교하여 A.D. 2세기 전반에서 후반경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2기는 방형 · 장방형주거지에서 단야공정과 용해공정을 행한 발전된 철기생산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공방취락지로 1기 이후에 이동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와 같이 황성동 유적의 원삼국시대 생활유적인 주거지군에 대한 조사에서는 철기제작집단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취락공간을 이동하여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철생산과 관련된 특수한 집단

의 집단공방취락지의 성격을 밝히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생산유적으로는 1990년 황성동유적에서 국내 최초로 철기제작 관련 단야유구와 용해유구가 발굴조사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황성동일대의 발굴조사는 계속되어 철기제작유구의 대략적인 분포범위를 확인하였다. 생산유적의 연구는 출토된 철재 등 시료의 과학적인 분석으로 원료산지를 추정하는 등 철기생산유적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그 후 조사된 진천 석장리유적의 경우 제련공정에서 단야공정까지 일련의 철생산 공정이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천 석장리유적의 조사를 토대로 두 유적을 비교 검토한 연구에서는 한반도 중 · 남부지방의 철기생산 전개과정을 3기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황성동유적은 2기의 소규모 단야공정과 대규모의 제철생산집단이 출현하는 3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그 시기는 2세기 전반에서 중반으로 2기와 3기는 3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분묘유적은 생산 · 생활유적과 함께 황성동집단의 동시기 묘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분묘유적의 연구는 묘제의 구조와 특징을 묘형별로 구분하여 변화양상과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단계설정과 편년 및 등장배경 등을 제시하였다. 황성동 유적 분묘연구에서 장방형목곽묘가 등장하는 시기를 큰 획기로 보는 견해는 대체로 연구자들 사이에 받아들여지는 듯하나 세부적인 편년에는 차이가 있다. 황성동 분묘유적의 연대는 목관묘는 1세기 전반~2세기 전엽, 목곽묘는 2세기 후반~3세기 후엽 또는 4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

2. 연구과제

1) 향후 연구과제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은 최초의 발굴조사가 있은 지 20년이 더 지났다. 그 간의 발굴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적이 드러났고 개별 유적에 대한 연구성과는 신라가 고대국가로 발전해 나아가는 사회 · 문화상 연구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하겠다.

황성동 일대 유적의 조사내용을 정리한 결과 황성동유적 전체를 성격별로 분류하여 원삼국시대의 생산유적, 생활유적, 분묘유적 등으로 동시대 유적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개별유적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검토가 우선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다음 통시간적으로 각 유적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연구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나아가 황성동유적 집단 전체의 성격과 사회문화상을 규명하기 위해 주변지역 타집단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그것을 토대로 신라의 고대국가 형성과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겠다.

2) 유적보존 및 관리와 현황

황성동 일대 유적의 발굴조사는 모두가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사전 구제발굴조사로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의 중요성과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유적은 석실분 1개소와 용강동 원지유적 등 2개 유적이 있다.

황성동 907-2번지일대의 황성동 유적은 1990년 당시 국내최초로 철기제작유구가 발굴조사되어 학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관련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에서 처음 조

사된 유적이긴 하지만 서민임대주택건립이라는 큰벽에 부딪쳐 부지 중 극히 일부만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유적의 중요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는 정도로 결정되었다.

용강동 원지유적은 발굴조사로 기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유적이 문헌자료의 기록을 방증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되어 관리대상이 되었다.

황성동 906-2 · 5번지 석실분유적은 공사와 관련하여 사전 발굴조사한 결과 현장 보존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 석실분은 1987년 각종의 인물토용이 출토된 '황성동 석실분' 발굴조사시에 주변유적 지표조사를 통해 석실분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었다. 만약 황성동 906-2 · 5번지 석실분유적이 좀더 일찍이 발굴조사되는 계기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점을 감안한다면 그 이후 황성동 일대의 유적은 지금처럼 오로지 개발공사를 위한 구제발굴조사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큰 아쉬움이 남는다.

Ⅴ. 맺음말

경주 황성동 일대의 유적은 각 시대별로 구분된 공간에 다른 성격의 유구들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유적은 분묘유적, 생산유적, 생활유적 등이 일정한 공간 범위에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대규모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현황과 성과를 살피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조사구역의 세부적 조사내용은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대체적인 내용만 정리하였다.

경주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유적은 철기제작과 관련된 특수기능을 가진 집단공방지의 성격을 가진 취락의 유적과 분묘유적이 공간의 범위를 달리하여 조성된 복합유적으로 각 유적의 발굴조사 결과를 근거로 세밀하고 종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 사로국의 형성과정과 신라국가의 발전 양상의 일면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報告書

慶北大學校博物館, 2000,『慶州隍城洞遺蹟 Ⅲ · Ⅳ』.

慶州大學校博物館, 2003,『慶州隍城洞古墳群 Ⅲ』.

啓明大學校博物館, 2000,『慶州隍城洞遺蹟 Ⅴ』.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1992,『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緊急發掘調査報告書Ⅰ)』.

_____, 1995,『慶州 隍城洞 601-2番地 · 皇南洞 192-4番地 發掘調査報告』.

_____, 1998,『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緊急發掘調査報告書Ⅲ)』.

_____, 2005,『慶州 隍城洞 石室墳 906-5番地』.

國立慶州博物館, 1990,「慶州 隍城洞遺蹟 第1次 發掘調査 槪報」『嶺南考古學』8.

國立慶州博物館 · 慶州市, 1993,『慶州 隍城洞 石室墳』.

_____, 1999,『慶州 隍城洞524-9番地 溶解爐蹟』.

_____, 2000,『慶州 隍城洞 遺蹟 Ⅰ · Ⅱ』.

_____, 2002,『慶州 隍城洞古墳群 Ⅱ』.

國立中央博物館, 1985,「慶州隍城洞遺蹟發掘調査報告」『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第17冊.

東國大學校慶州캠퍼스博物館, 2002,『慶州隍城洞古墳群』.

_____, 2002,『慶州隍城洞267遺蹟』.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6,『경주 황성동 949-1번지 일대 건물신축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 약보고서』.

_____, 2007,『경주 황성동 881-1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 약보고서』.

_____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대경문화재연구원, 2008,『경주 황성동 59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부지내 유적발굴조사』지도위원회자료-.

_____, 2008,『경주 황성동 324-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 약보고서』.

_____, 2008,「慶州 隍城洞 899-8番地 遺蹟」『慶州의 文化遺蹟Ⅰ』.

_____, 2008,「慶州 隍城洞 887-8番地 遺蹟」『慶州의 文化遺蹟Ⅴ』.

嶺南文化財硏究院, 2001,『慶州龍江洞 苑池遺蹟』.

_____, 2002,『慶州九於里古墳群Ⅰ』.

_____, 2007,『慶州隍城洞 575番地遺蹟發掘調査』指導委員會資料-.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慶州市隍城洞564-3番地 發掘調査報告書-隍城洞 一帶의 遺蹟-』.

_____, 2001,『慶州市隍城洞537-2賃貸아파트 新築敷地發掘調査報告書』.

_____, 2001,『慶州隍城洞江邊路開設區間(3-A工區)內遺蹟發掘調査』-1 · 2次 指導委員會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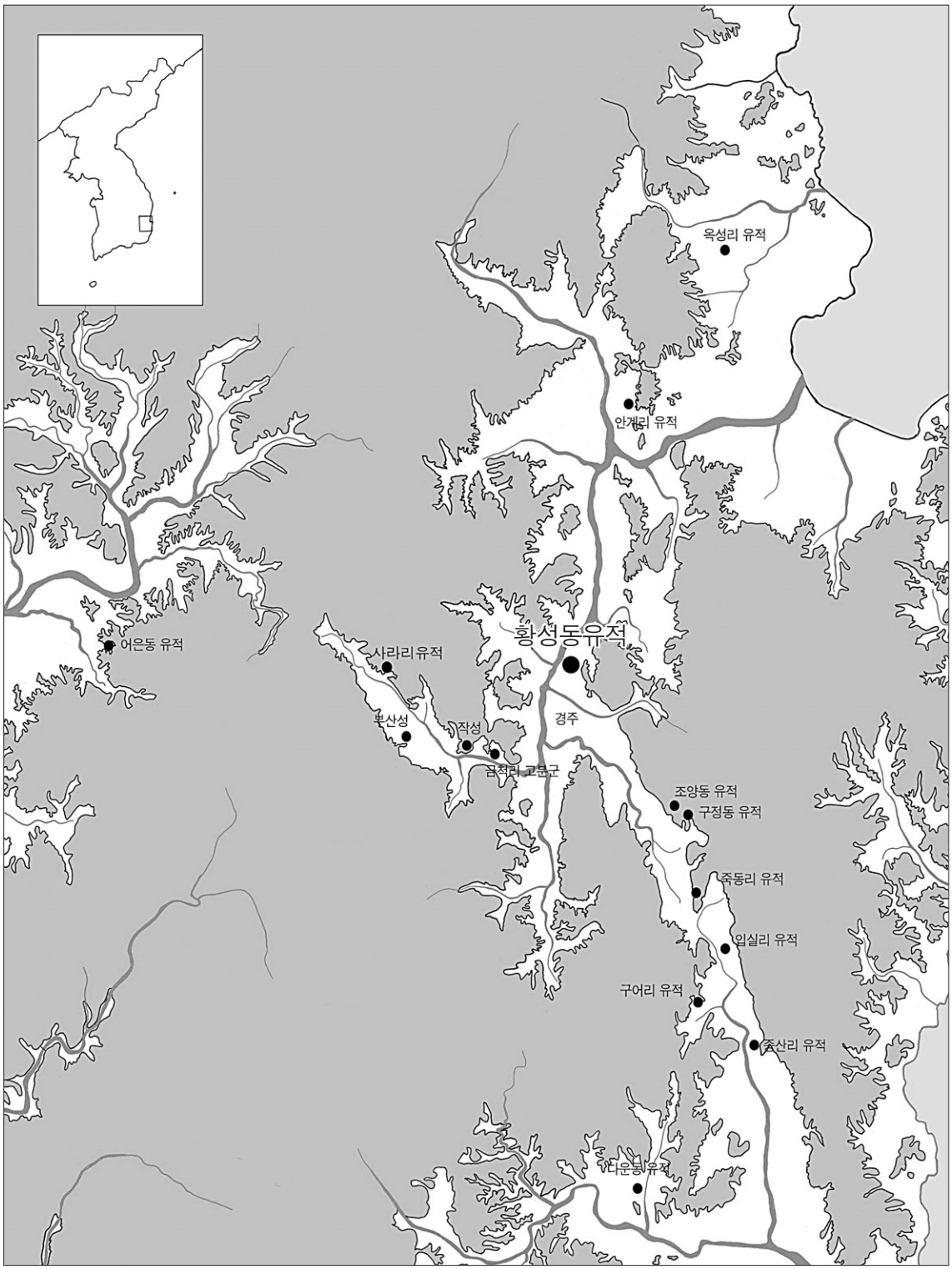
_____, 2002,『慶州 隍城洞 遺蹟 - 537-1 · 10, 537-4 · 535-8, 544-1 · 6番地 發掘調査報告書』.

_____, 2003,『慶州隍城洞遺蹟Ⅰ-江邊路開設區間發掘調査報告書』.
_____, 2004,「隍城洞 535-5番地 共同住宅豫定敷地」『慶州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_____, 2005,『慶州 隍城洞 950-1 · 7番地 共同住宅 新築敷地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5,『慶州隍城洞遺蹟Ⅱ · Ⅲ · Ⅳ-江邊路開設區間發掘調査報告書』.
_____, 2007,『慶州隍城洞遺蹟Ⅴ-隍城洞 886-1番地 共同住宅新築敷地 發掘調査報告書』.
_____, 2008,『경주 황성동 928-17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2. 論 文

權志瑛, 2004,「弁 · 辰韓社會의 發展樣相에 대한 硏究-木棺墓에서 木槨墓로의 轉換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考古學科 碩士學位論文.
金權一, 2003,「南韓地域 古代 製鐵爐에 對한 一硏究」, 한신대학교대학원 國史學科 碩士學位論文.
金世基, 1991,「慶州 隍城洞 遺蹟構」『제34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_____, 1994,「隍城洞 原三國聚落址의 性格」『마을의 考古學』,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金榮珉, 1996,「嶺南地方 三韓後期文化의 特徵과 地域性-洛東江 東西岸地域 比較를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_____, 2004,「三韓後期 辰韓勢力의 成長過程硏究」『신라문화』23.
김일규, 2001,「경주 황성동 강변로 유적」『한국 농경문화의 형성』, 제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金在弘 , 2001,「4~5세기 新羅의 古墳文化와 地方支配 」『韓國古代史硏究』24.
金亨坤, 1996,「新羅 前期古墳의 一考察」, 東義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박장식, 2001,「경주 황성동 537-2 임대아파트 신축부지 출토 철기생산 관련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慶州市 隍城洞 537-2 賃貸아파트 新築敷地 發掘調査 報告書』.
安在晧, 1994,「三韓時代 後期 瓦質土器의 編年」『嶺南考古學』14.
_____, 1996,「慶州 隍城洞古墳群에 대하여-슬라이드 자료를 중심으로」『新羅文化』12.
_____, 2000,「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韓國古代史와 考古學』, 鶴山 金廷鶴博士 頌壽紀念論叢.
윤순옥 · 황상일, 2001,「한국 남동부경주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선사 및 고대의 인간생활」『國家形成期 慶州와 周邊地域』, 한국상고사학회 연구총서 4.
尹溫植, 2001,「3세기대 동해 남부지역토기양식의 형성과 변천」,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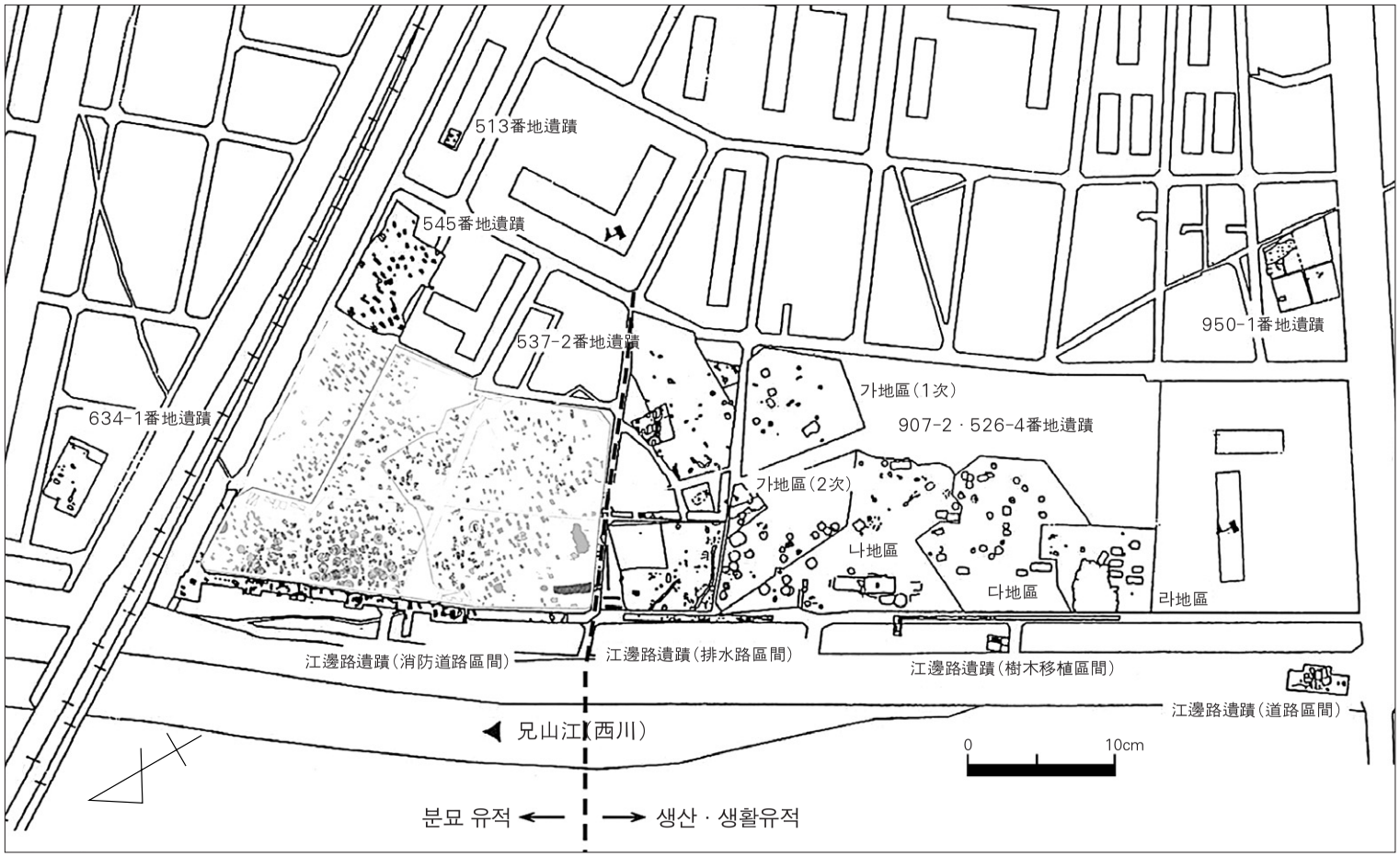
李盛周, 1997,「木棺墓에서 木槨墓로-蔚山 中山里遺蹟과 茶雲洞遺蹟에 대한 檢討」『新羅文化』14.
_____, 1998,「新羅 · 伽倻社會의 政治 · 經濟的起源과 成長」, 서울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_____, 1999,「辰 · 弁韓地域 墳墓 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嶺南考古學』24.
_____ · 金鉉希, 2000,「蔚山 茶雲洞 · 中山里遺蹟의 木棺墓와 木槨墓」, 第9回嶺南考古學會學術發表會.
李榮勳, 1991,「慶州 隍城洞 鐵器製作遺構」『제34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李在賢, 1994,「嶺南地域 木槨墓에 대한 연구 」, 釜山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_____, 1995,「弁 · 辰韓 社會의 발전과정-木槨墓의 출현배경과 관련하여」『嶺南考古學』17.
李在興, 2001,「목관계목곽묘의 등장과 배경」『嶺南文化財硏究』14.
_____, 2006,「慶州地域 木槨墓 硏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_____, 2007,「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출현과정에 대한 일고찰」『嶺南考古學』43.
이한상, 2001,「墳墓資料로 본 4~5世紀代 경주와 주변지역」『國家形成期 慶州와 周邊地域』, 한국상고사학회 연구총서.
李熙濬, 1996,「신라의 성립과 성장과정에 대한 고찰-고고 · 역사 · 지리적 접근」『신라 고고학의 제문제』, 제2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_____, 1998,「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_____, 2000,「삼한 소국 형성 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취락 분포 정형을 중심으로」『韓國考古學報』43.
林東在, 2005,「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硏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孫明助, 1997,「경주황성동제철유적의 성격에 대하여」『新羅文化』14.
_____, 2006,「古代鍛治遺蹟의 諸樣相」『科技考古硏究』12.
井上主稅, 2005,「嶺南地域 출토 土師器系土器의 재검토」『韓國上古史學報』48.
車順喆, 1999,「同穴主副槨式 木槨墓 硏究-洛東江東岸地域을 中心으로」, 慶星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崔景圭, 2004,「1~3世紀 慶州 隍城洞集團에 대한 硏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도면 1. 경주 및 주변 지역 원삼국시대 유적 현황

도면 2. 황성동 유적 위치도

도면 3. 황성동 일대 유적 발굴조사 현황도



도면 4.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유적 분포도

사진 1. 황성동 유적 전경

사진 2. 황성동 267번지 유적 · 유물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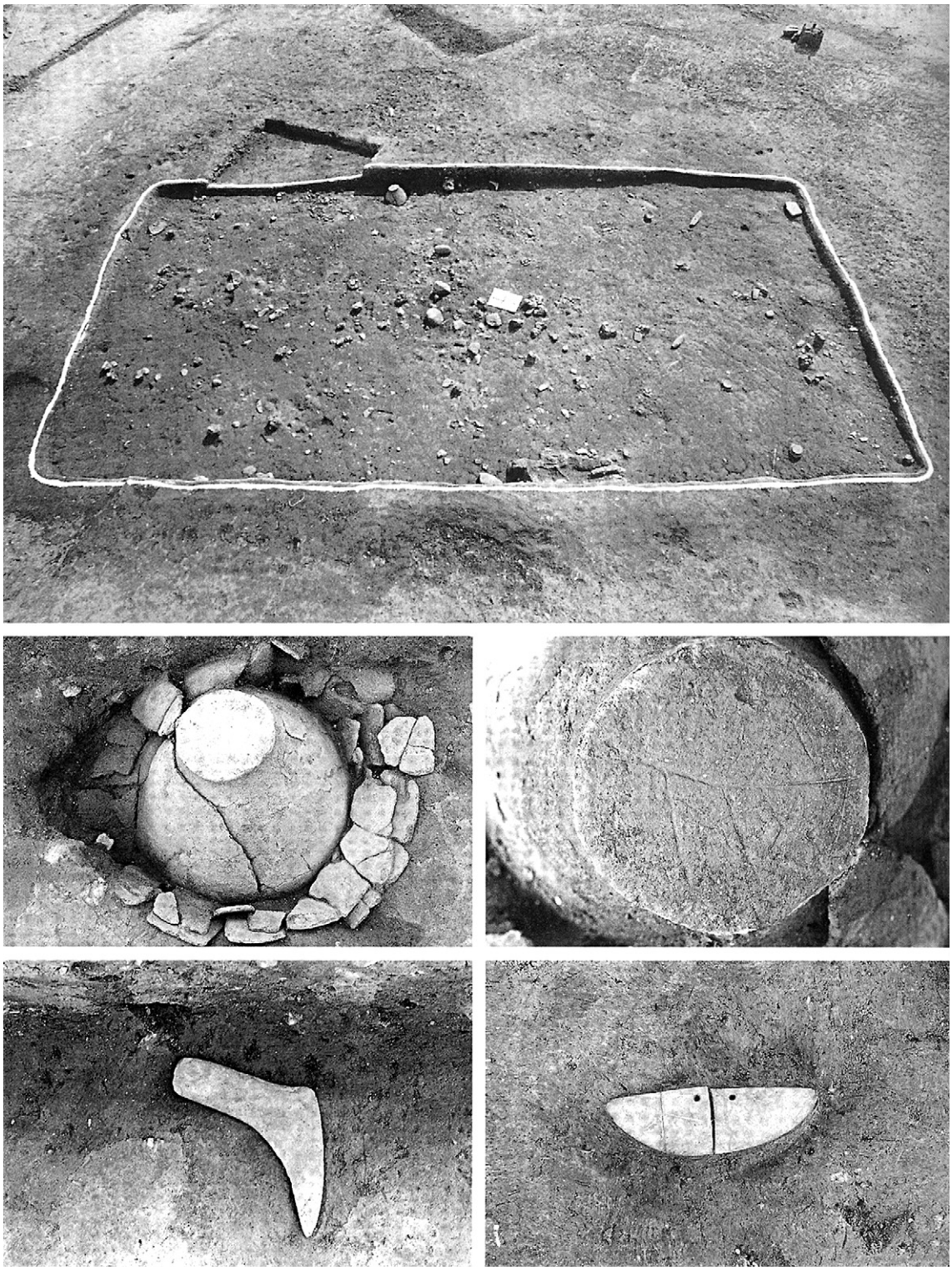


사진 3. 황성동 유적 청동기시대 유구 및 유물(라지구-9호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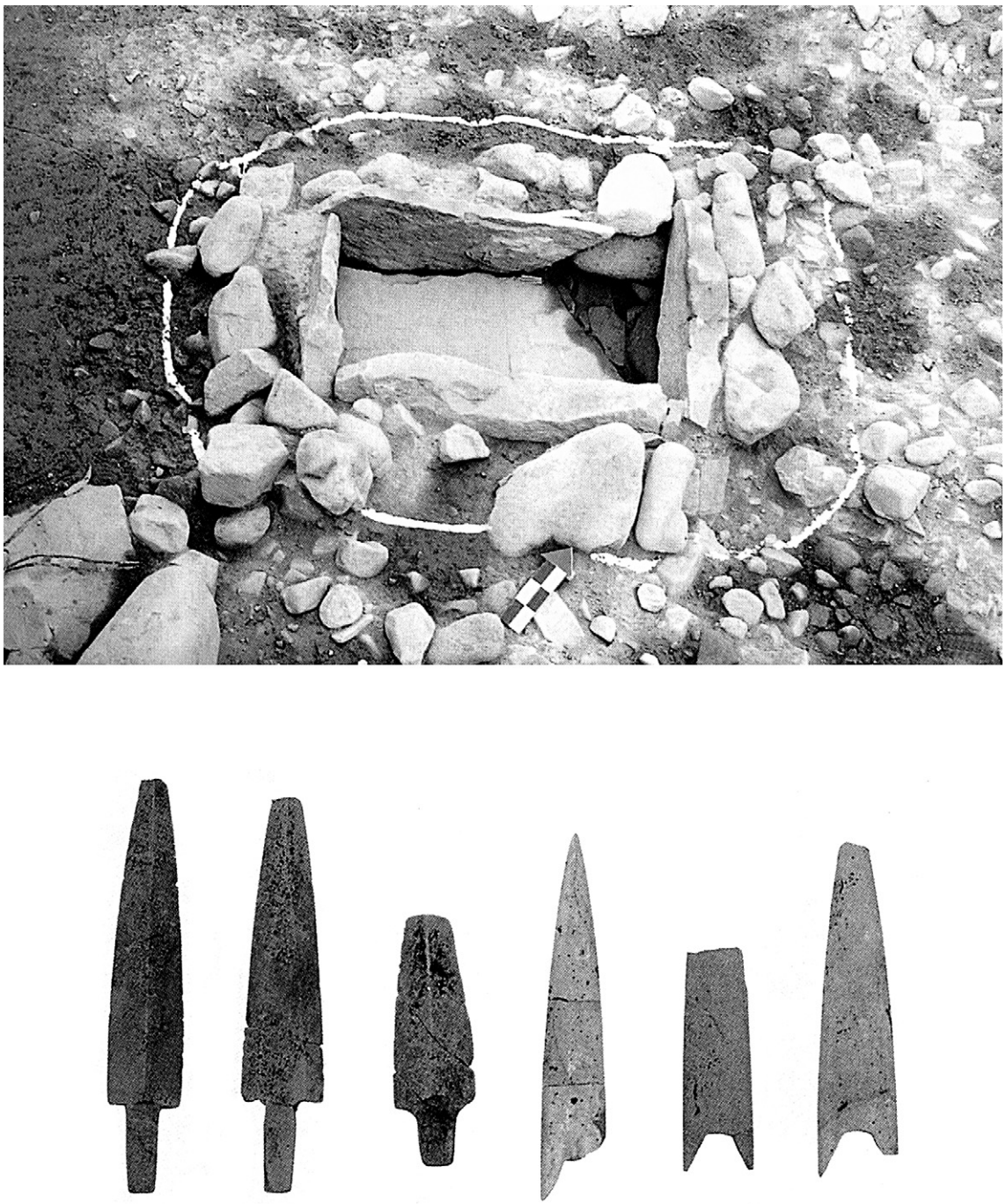


사진 4. 황성동 537-2번지 유적 청동기시대 석관묘 및 출토유물

사진 5. 황성동 575번지 유적 분묘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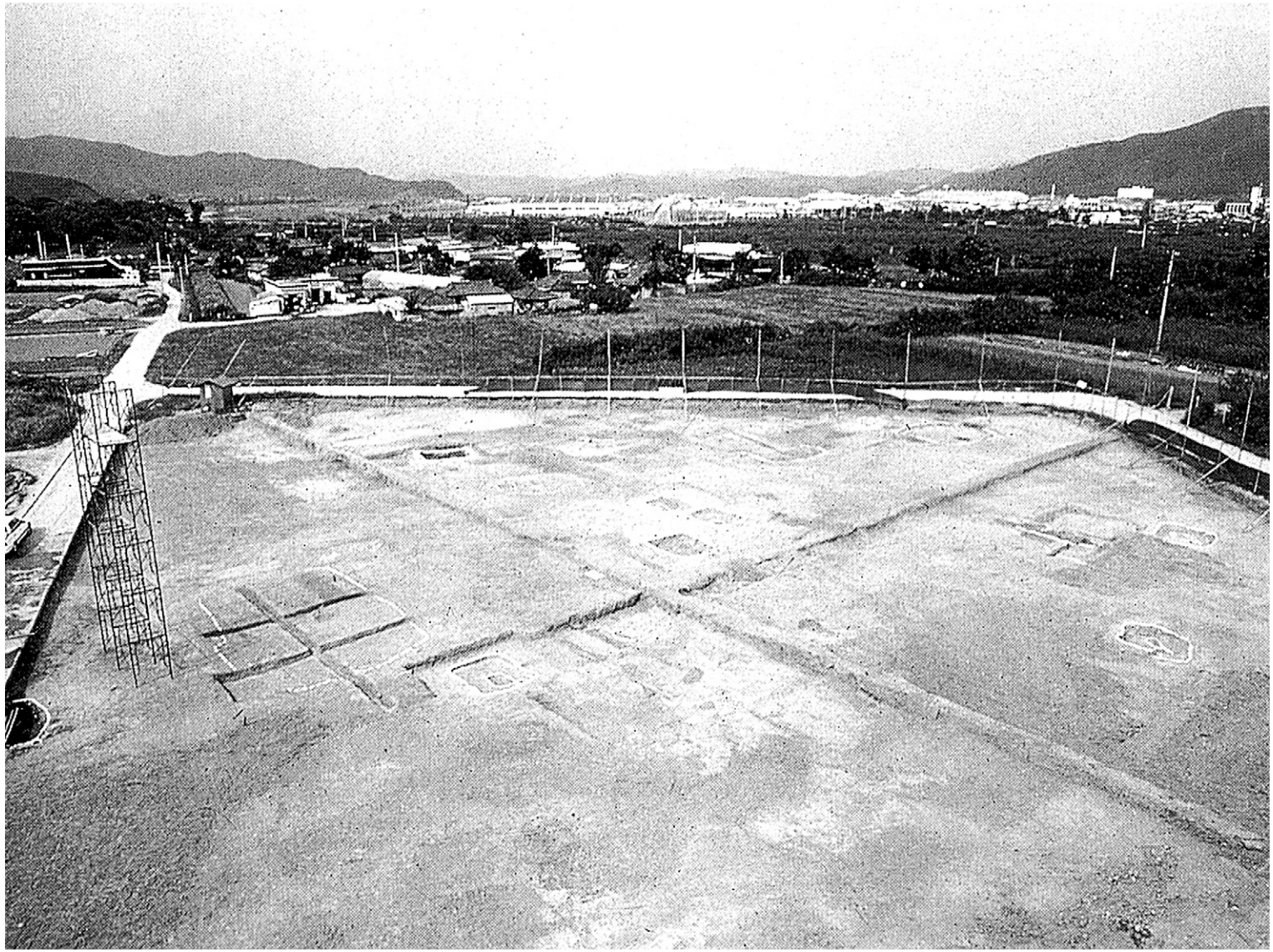


사진 6. 황성동 유적 원삼국시대 철기생산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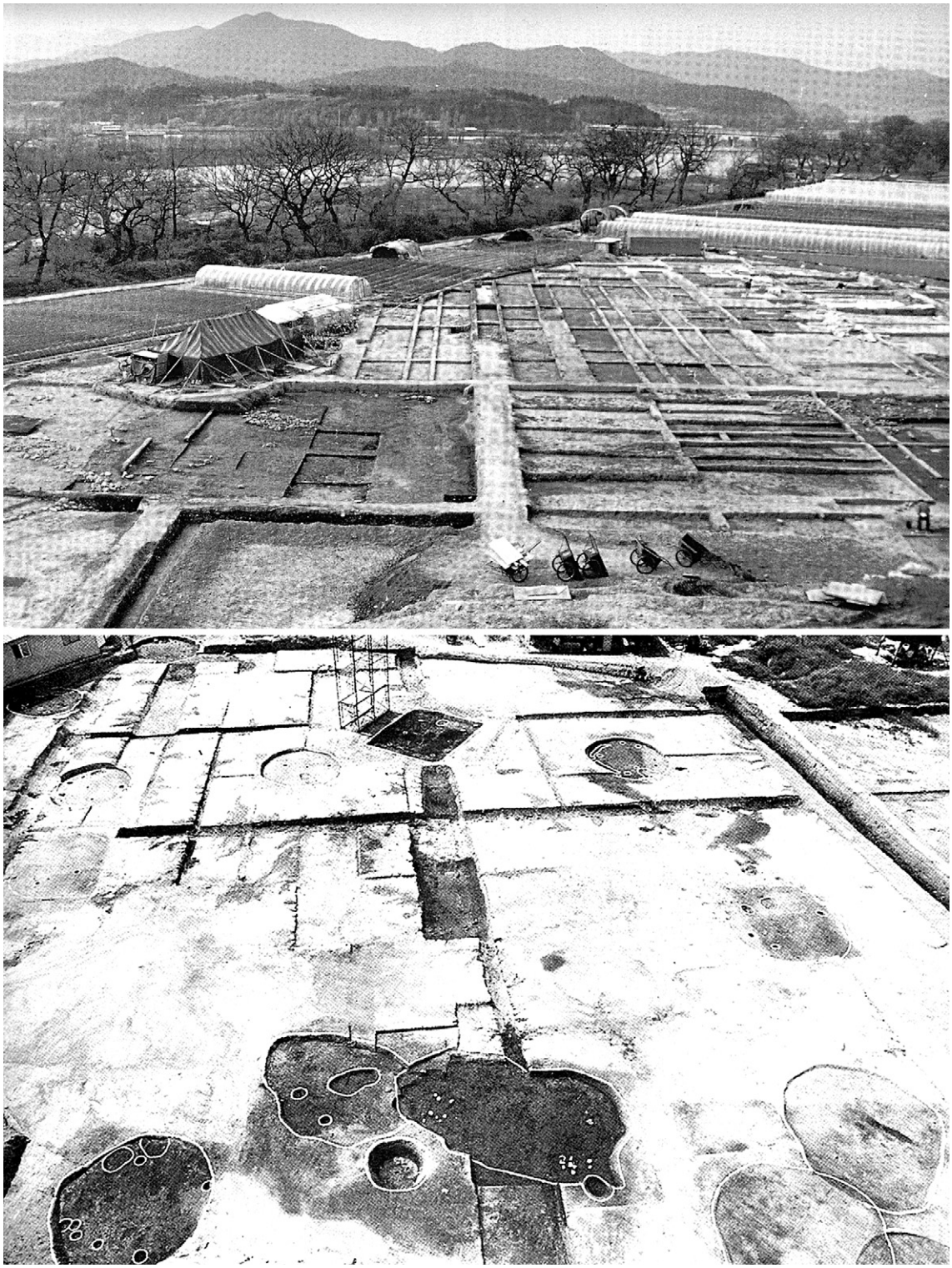


사진 7. 황성동 유적 원삼국시대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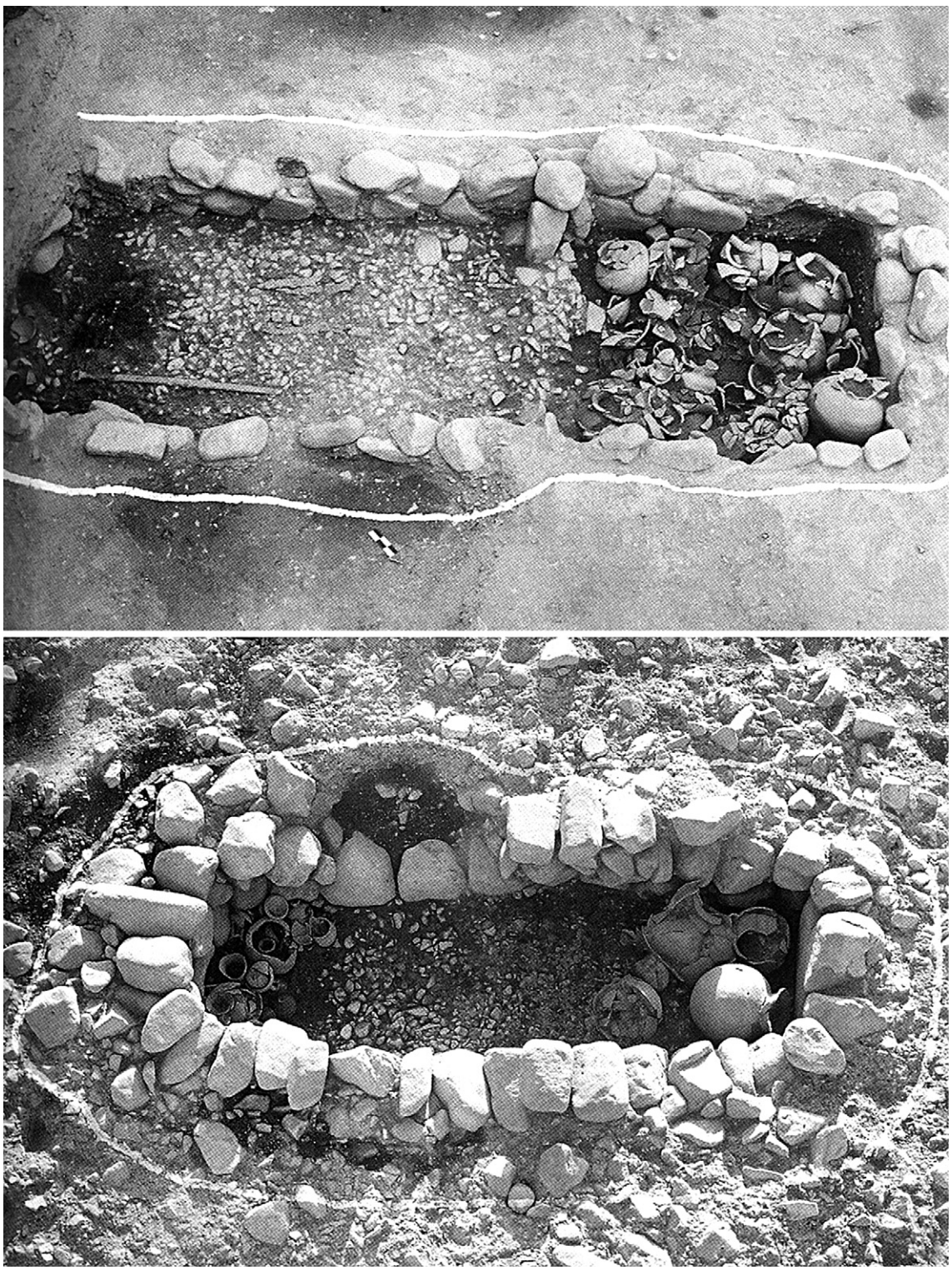


사진 8. 황성동 강변로 유적 적석목곽묘 및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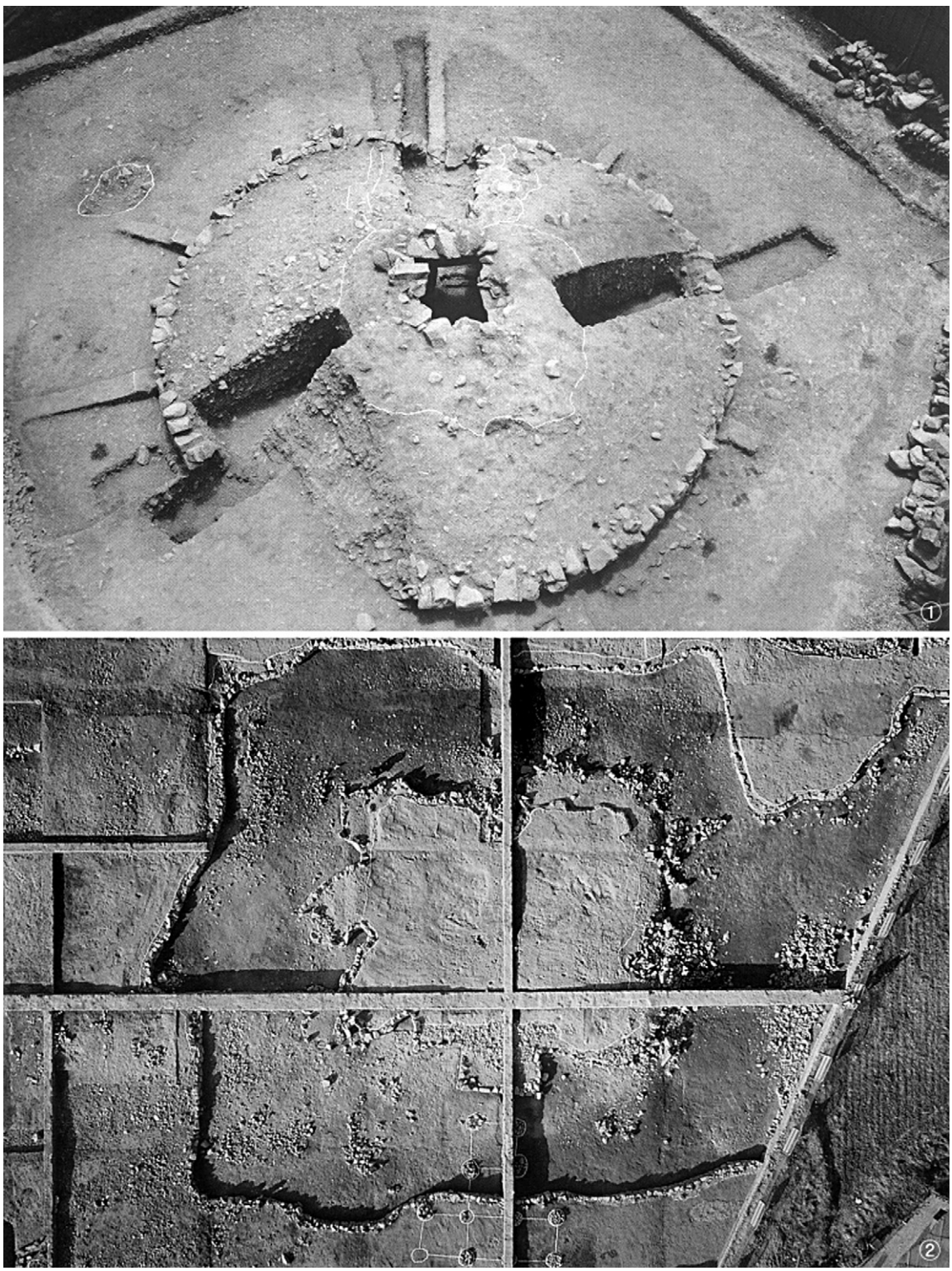


사진 9. 황성동 906-2 · 5번지 석실분(①), 용강동원지 유적(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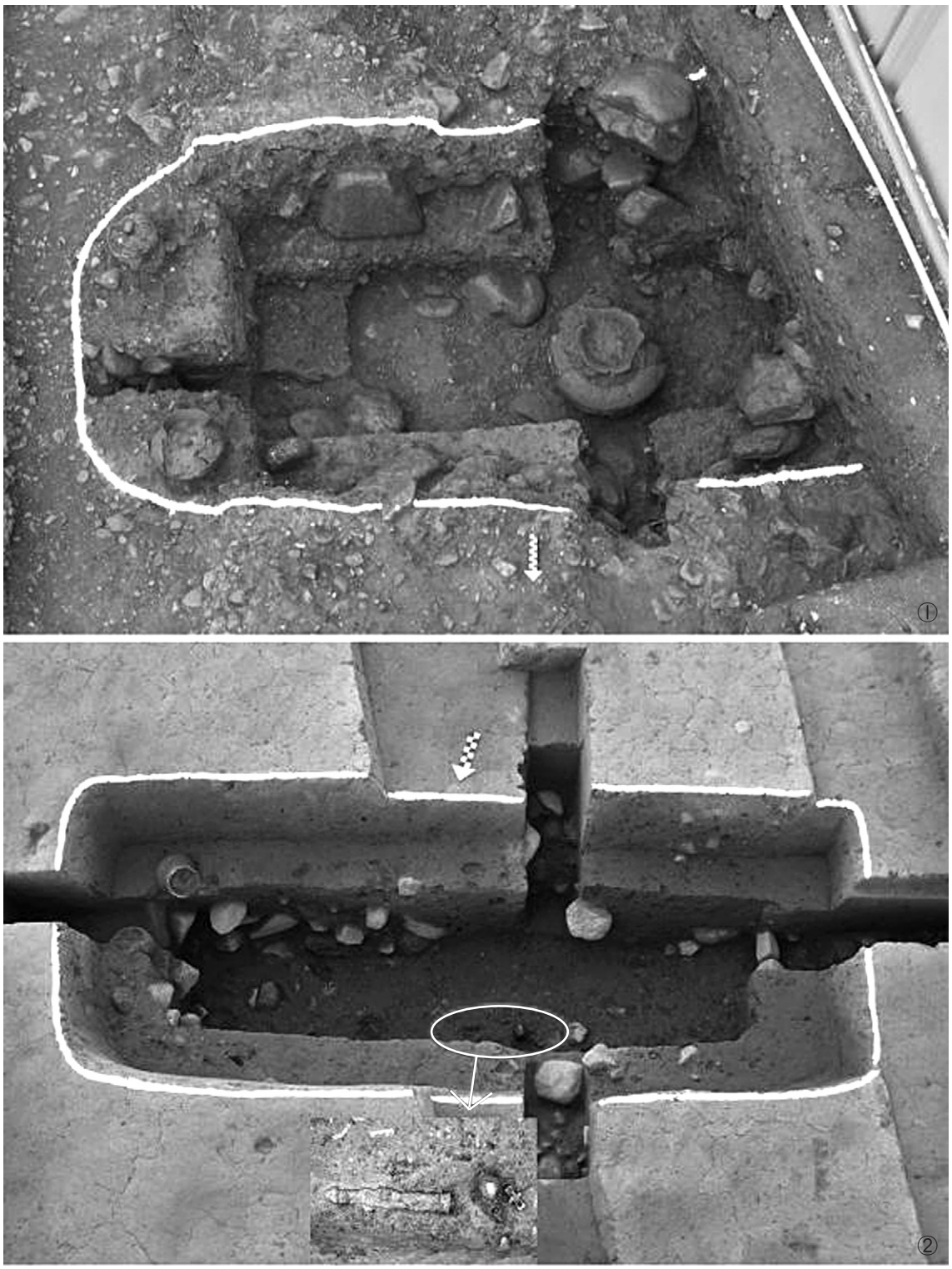


사진 10. 황성동 575번지 유적 목관묘(①1호, ②6호)

사진 11. 황성동 강변로유적 목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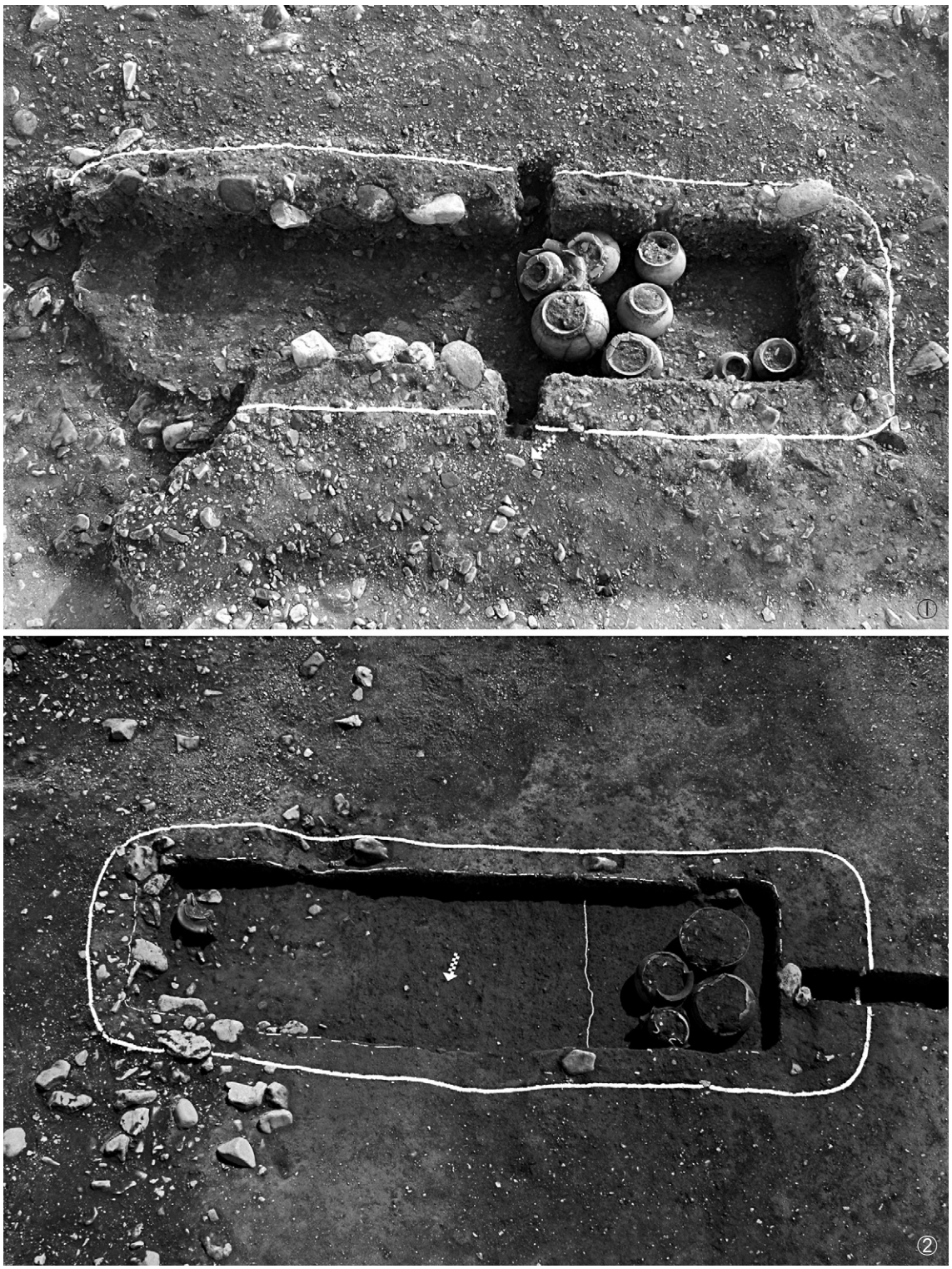


사진 12. 황성동 575번지 유적 목곽묘(①17호, ②3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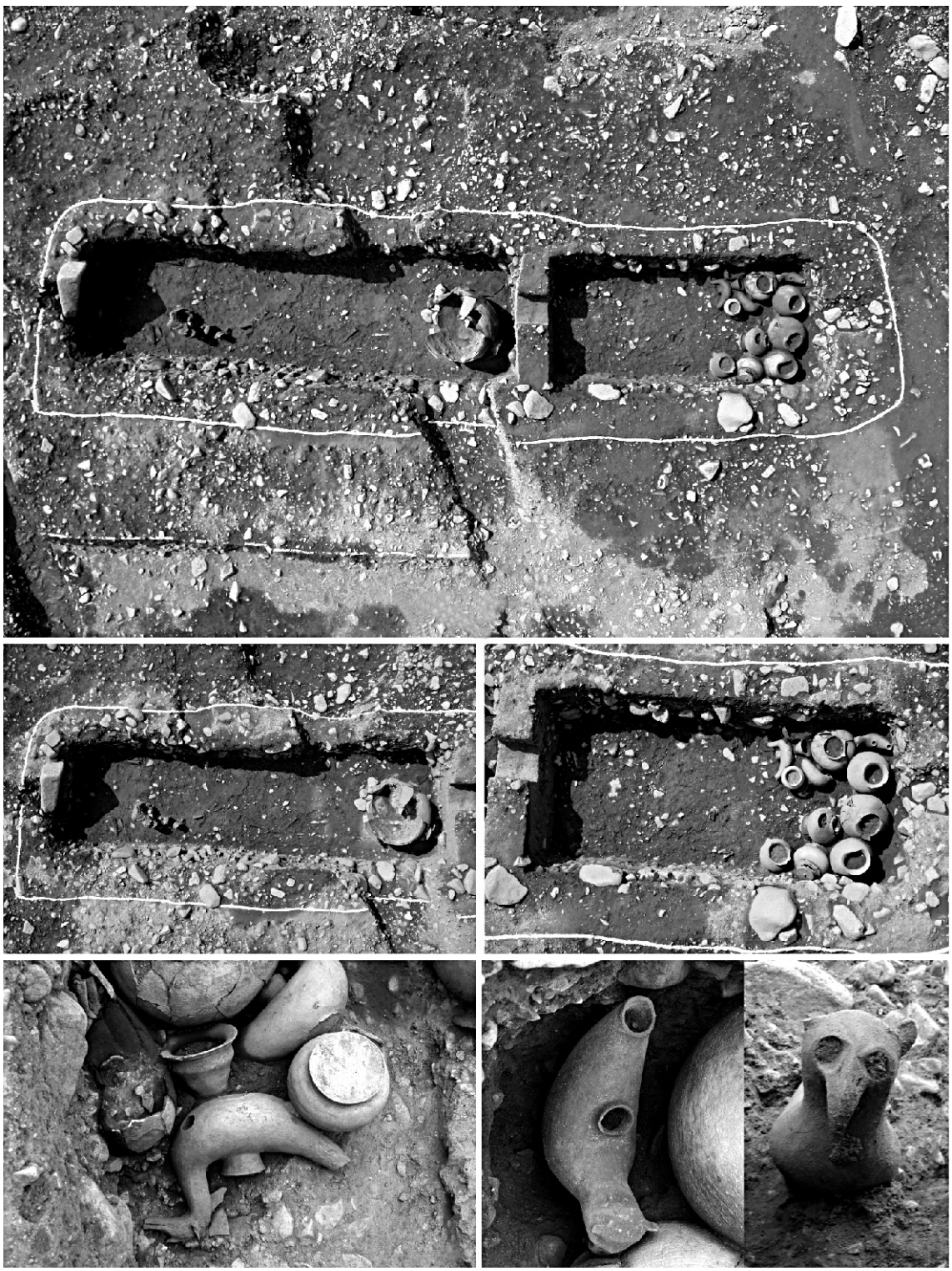


사진 13. 황성동 575번지 유적 목곽묘(20호)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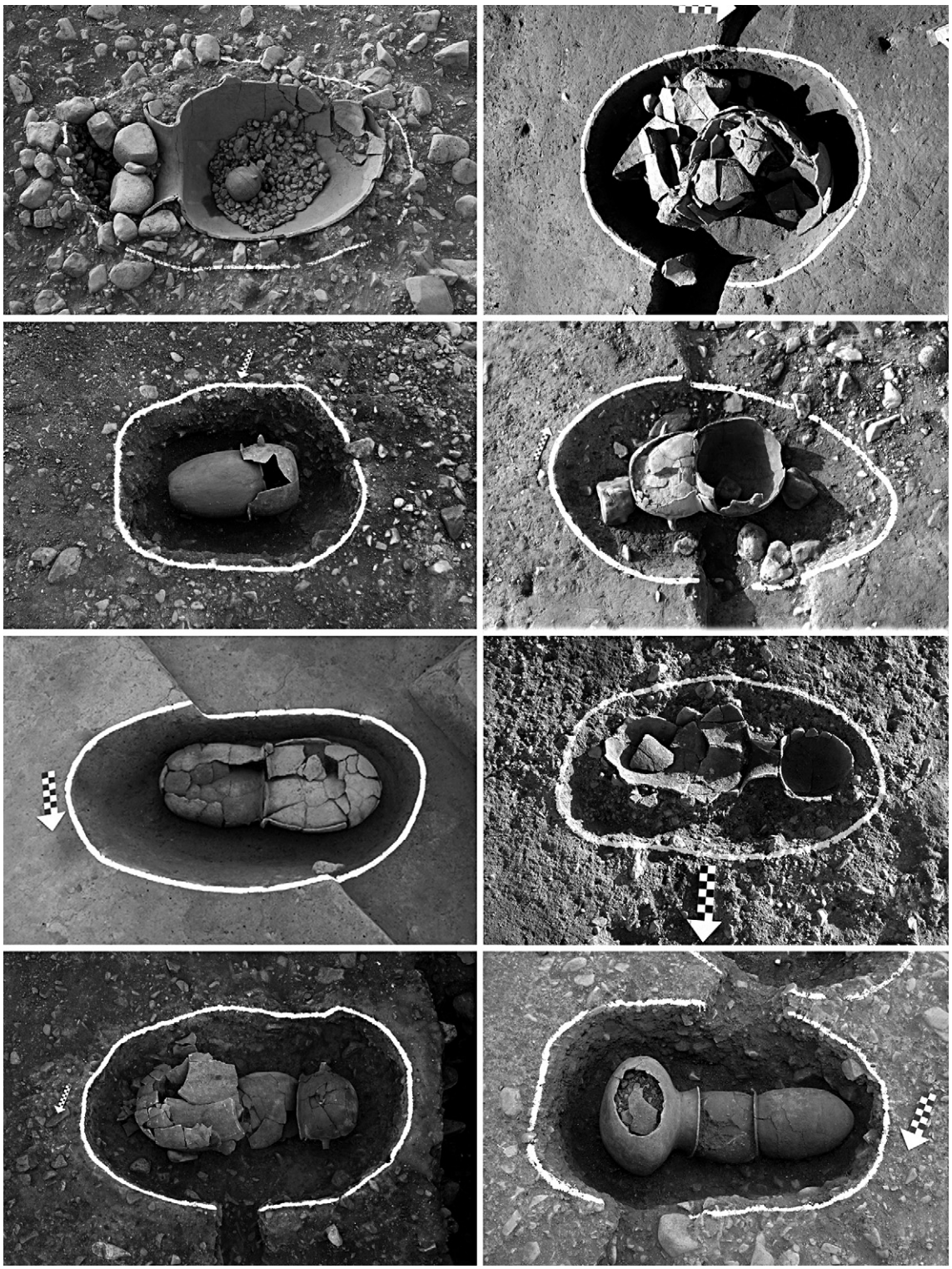


사진 14. 황성동 575번지 유적 옹관묘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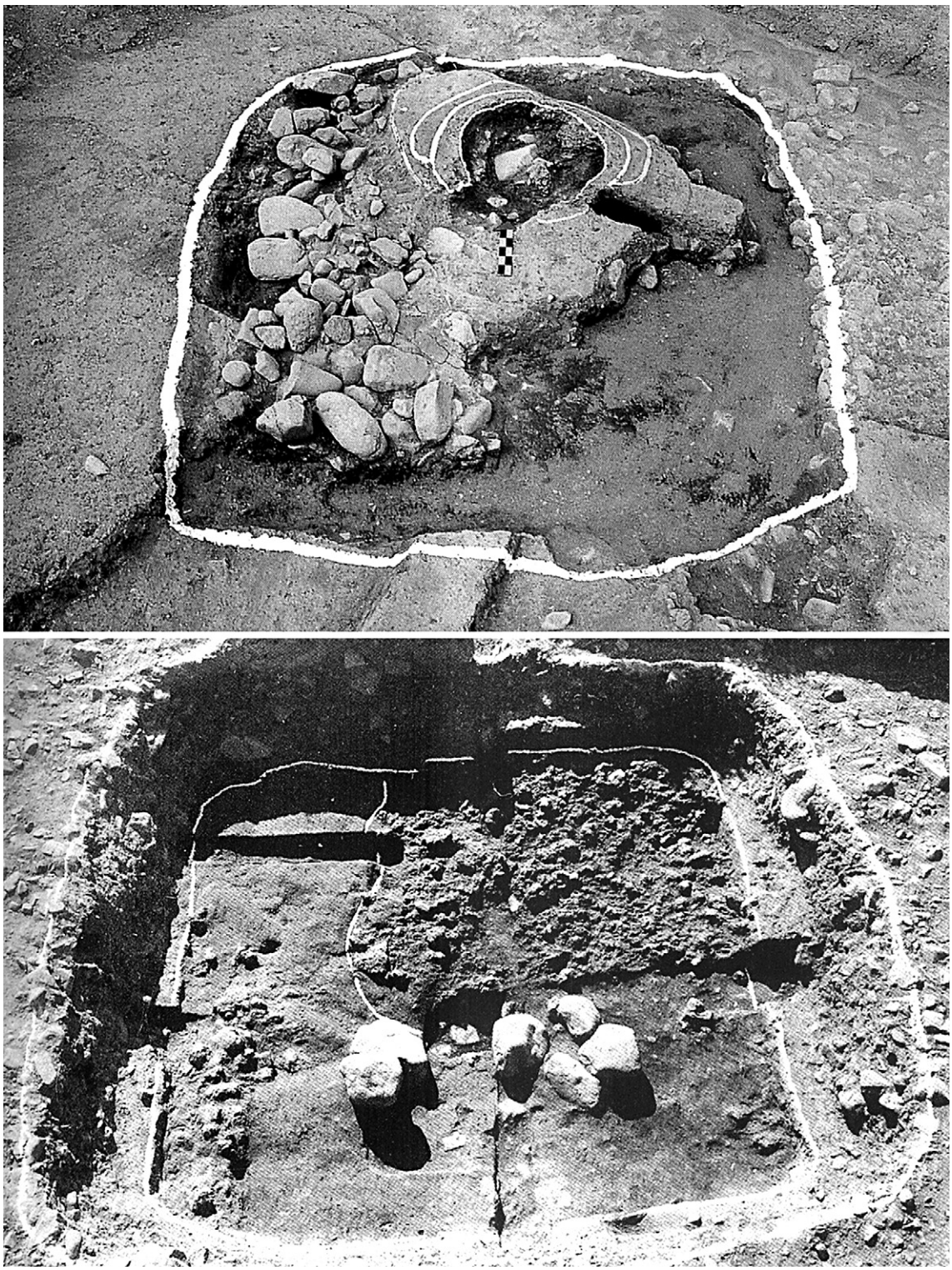


사진 15. 황성동 907-2번지 유적 용해로, 단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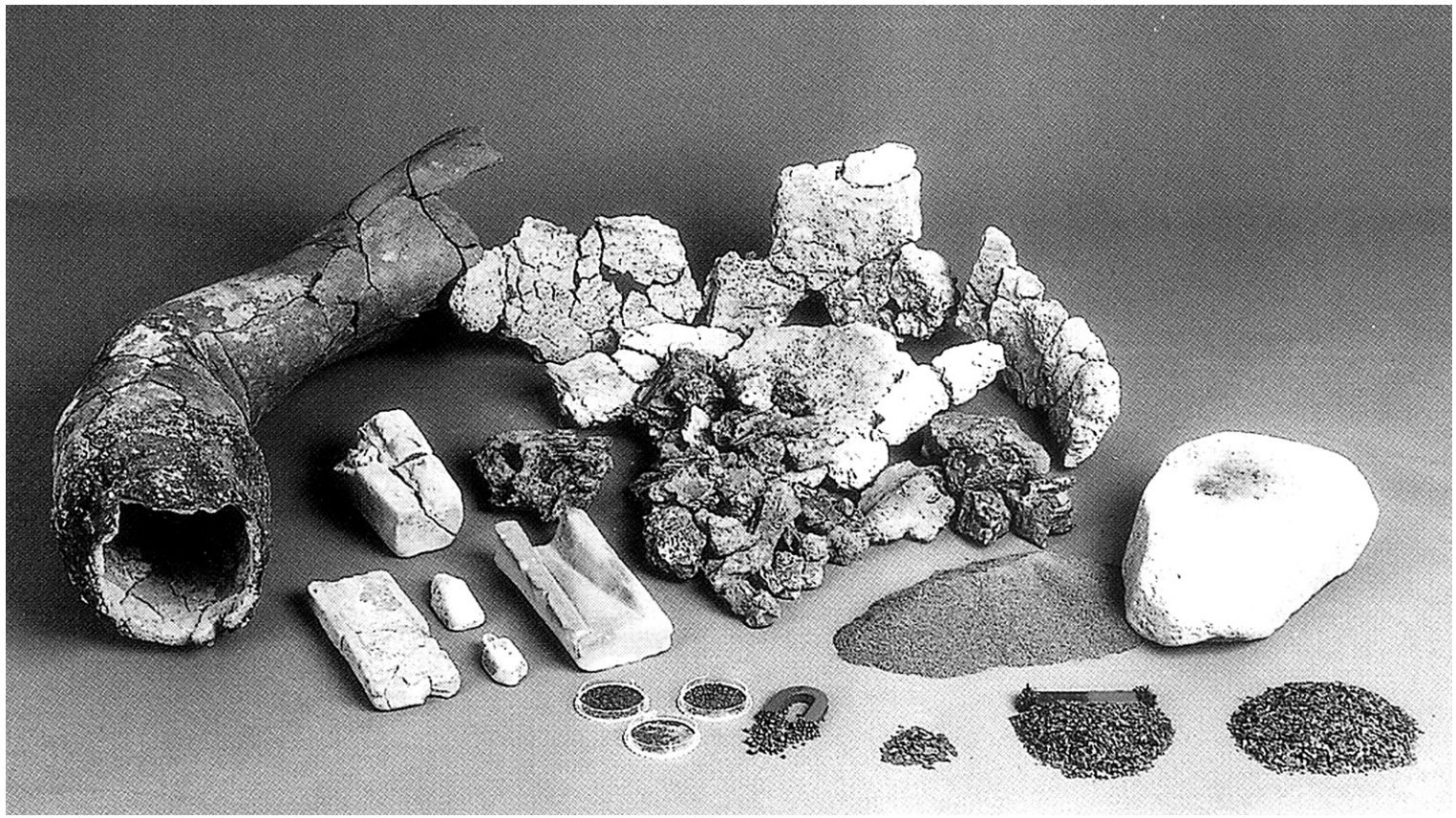


사진 16. 황성동 생산유적 출토유물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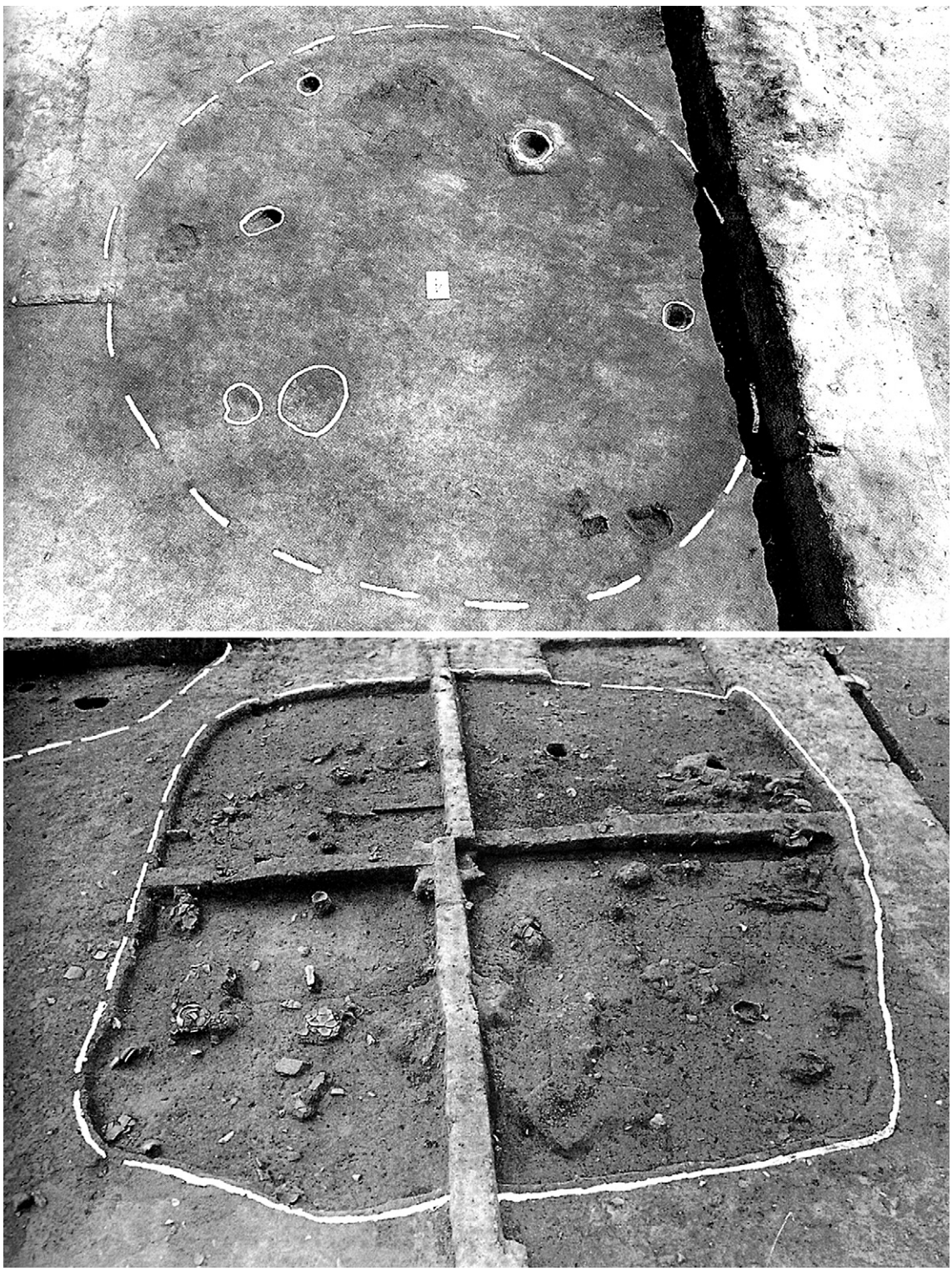


사진 17. 황성동 유적 원삼국시대 주거지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과 성격

이재홍(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 목 차 〉

Ⅰ. 머리말
Ⅱ.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
1. 분묘의 단계별 양상과 편년
2. 시기별 분묘의 분포와 변화
Ⅲ.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성격
1. 주변유적과 비교를 통해 본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특성
2.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성격
Ⅳ. 맺음말

Ⅰ. 머리말

경주 황성동에서는 서기전 1세기 후엽의 목관묘부터 3세기 후엽의 경주식목곽묘에 이르기까지 일부 공백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조영되어 경주지역[1] 분묘의 전반적인 변천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분묘와 동시기의 취락과 제철유구도 인근에서 조사되어 분묘와 함께 취락과 생산시설의 변화 및 특성도 함께 살필 수 있는 유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경주 황성동의 조사와 연구는 경주지역 다른 어떤 유적보다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황성동 원삼국시대 유적의 조사와 연구는 1990년대까지 제철유적을 중심으로 하였으나(金世基 1994 ; 孫明助 1997) 황성동유적(제철유적)의 북편에서 분묘유적이 조사되면서 무덤의 구조에 대한 연구도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2000년대 전반까지는 분묘군의 단계적 변천에 대한 연구(安在晧 1995 ; 車順喆 1999 ; 黃昌漢 2001)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이후에는 분묘를 비롯해 취락과 제철유구의 분포를 중심으로 황성동 분묘와 집단의 성격(崔景圭 2004 ; 林東在 2005),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전환(李在興 2001 ; 權志瑛 2004), 황성동 분묘의 입지적인 특성과 적석목곽묘와의 관련성(李在興 2007)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경주 황성동에서 다수 조사된 목관묘의 전통이 강한 목곽묘(소위 목관계 목곽묘[2])의 존재가 보여주듯이 경주지역의 경우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전환이 다른 영남지방과 달리 단절적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음(安在晧 1995 ; 李熙濬 2001 ; 李在興 2001 ; 權志瑛 2004)이 밝혀졌다. 또한 경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이혈 주 · 부곽식의 경주식목곽묘(황성동고분군 22호)가 조사되어 목곽묘의 지역구분(申敬澈 1992 ; 李在賢 1994)에 대해 새롭게 인

1) 본고에서 사용하는 경주지역은 '原新羅地域'인 斯盧地域에 해당한다. 그 범위에 대해서는 李熙濬 1998, 183쪽에 잘 정리되었으므로 이를 따른다. 필자도 전고(李在興 2006, 9~10쪽)에서 그 범위를 다룬 바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식하는 계기(安在晧 1995)가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주식목곽묘에서 보이는 이혈 주 · 부곽식과 동혈 주 · 부곽식의 차이를 위계적인 차이로 이해(車順喆 1999 ; 이한상 2001 ; 金大煥 2002 ; 李在興 2006)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경주 황성동분묘의 성격은 대체로 황성동유적에 나타나는 제철생산과 관련한 집단의 분묘로 이해하고 그 위계도 하위 위계의 분묘로 파악하는 것이 주된 경향(孫明助 1997 ; 李熙濬 2001)이다. 그러나 강변로 구간에서 조사된 방형목곽묘를 근거로 황성동 분묘의 성격과 위계를 중심집단 혹은 상위 위계로 파악(金大煥 2002)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황성동의 분묘를 비롯하여 취락과 제철생산 유적의 공간구성 변화를 통해 방형목곽묘가 등장하면서 취락과 제철생산유구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대규모 제철생산체제로 변모하였다는 견해(崔景圭 2004 ; 林東在 2005)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 성과로 보면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과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되는 듯하지만 한편으로 많은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먼저 편년의 문제인데 필자가 전고(李在興 2006)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기존 황성동 분묘의 편년이 지닌 문제는 분묘가 연속 획기로 연결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그 변천을 살피고 있는 점이다. 특히 뚜렷하게 공백기가 존재함에도 동일단계로 파악하거나 특정시기의 분묘만 보이는데도 무리하게 연대 폭을 길게 잡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황성동 분묘의 성격과 위계도 제철생산유적의 중요성과 방형목곽묘의 존재를 근거로 해서 중심집단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떠하든 분묘 분포의 변화가 일정 부분 제철유적의 변화와 연동해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제철생산유적의 변화에 치중하는 점도 분묘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본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황성동의 원삼국시대 분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피고, 분묘 축조집단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분묘의 출토유물과 구조를 중심으로 편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황성동 분묘의 분포에서 보이는 정형성을 파악하고 주변유적과 비교를 통해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

본고에서는 평면형태, 묘광 깊이, 유물 부장양상 등과 같은 분묘의 구조와 출토유물의 편년을 토대로 황성동 원삼국시대 변천을 살피고자 한다. 그런데 출토 유물의 경우 속성 검토와 형식설정과 같은 세부적인 편년의 절차는 지면 관계상 다소 장황하므로 본고에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2) 목관계목곽묘는 2세기 중엽 다른 영남지방과 달리 유독 경주 황성동에서 보이는 목관묘의 전통이 강한 목곽묘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安在晧 1995)으로 필자도 전고(李在興 2001)에서 이를 받아들여 사용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하여(이성주 1997) 최근에는 분명히 목관묘단계이고 목관묘인 경우에도 일부 목곽묘적인 요소가 있으면 목관계목곽묘로 표현하여 원래 목관계목곽묘의 개념과 다르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보인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李在興 2006을 참조). 그래서 필자는 여기서 이러한 오해를 없애고 개념상으로 더욱 명확하게 '목관묘의 전통이 강한 목곽묘'로 표현하고자 한다.

(李在興 2006 참조).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서술내용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필자의 절대연대관을 요약해 두기로 한다. 필자의 절대연대관은 기본적으로 목곽묘의 등장을 2세기 중엽, 적석목곽묘와 낙동강 이동 토기양식의 성립을 4세기 3/4분기로 보는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 조양동 38호는 서기전 1세기 후엽설(李熙濬 2002 ; 李在賢 2003)을 지지하고 사라리 130호는 1세기 후엽, 황성동 22호는 3세기 후엽, 월성로 가-13호는 4세기 3/4분기로 설정한다.

1. 분묘의 단계별 양상과 편년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은 크게 고식와질토기가 출토되고 목관묘가 나타나는 Ⅰ단계, 목곽묘가 등장하고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나기 직전인 Ⅱ단계,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나는 Ⅲ단계로 구분된다.

1) Ⅰ기

Ⅰ-1기

황성동에서 처음 원삼국시대 분묘가 등장하는 시기이며 강변로 도로구간 목관묘 1호, 2호, 3호가 이에 해당된다. 1-1기의 목관묘는 규모도 작고 부장유물도 빈약하여 조합우각형파수호도 부장되지 않는다. 연대는 와질토기 주머니호의 가장 이른 형식, 이단경식 철모, 아직 장신화가 진행되지 않은 무경식 철촉 등으로 보아 조양동 38호와 동일한 서기전 1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Ⅰ-2기

경주 황성동에서는 1세기 전엽과 1세기 중엽의 분묘와 취락은 조사되지 않아 현재 공백기로 남아있다. Ⅰ-2기는 1세기 후엽에 해당하며 그 묘역이 1-1기의 목관묘가 위치하는 곳에서 북쪽으로 이동한다. Ⅰ-2기의 목관묘로는 황성동 575번지유적의 목관묘 1호, 2호, 7호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경주지역 목관묘에서 목곽묘적인 요소가 일부 보이기 시작하지만(李在興 2001) 황성동의 경우 아직 목곽묘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1-1기 목관묘에서 출토되지 않던 조합우각형파수부호가 부장되고 묘광의 규모도 다소 커진다. 연대는 구경부의 내만도가 깊어지고 구연이 외반하기 시작하는 주머니호와 구형 동체를 가지고 구경부가 외반하는 조합우각형파수부호로 보아 1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Ⅰ-3기

Ⅰ-3기는 목관묘의 마지막 단계이고 목곽묘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Ⅰ-3기의 목관묘로는 황성동 575번지 목관묘 9호, 10호, 11호, 목곽묘 13호, 59호 등이 있다. 대부분은 순수한 목관묘이지만 일부 목관묘에서 토기를 비롯한 유물을 목관 내부에 부장하여 목곽묘적인 요소가 보이기도 한다[3]. 연대는 고식와질토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호로 보아 2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2) Ⅱ기

Ⅱ-1기

영남지방에서 목곽묘가 등장하는 시기이며 황성동의 경우 목관묘의 전통이 강한 목곽묘(목관계목곽묘)가 나타난다. Ⅱ-1기의 목곽묘로는 황성동고분군 31호, 51호, 55호, 57호, 64호, 68호, 70호 등이 있다. 이러한 목곽묘의 특징은 묘광이 깊고 충전토 내부에 유물이 부장되어 목관묘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으나 매장주체부인 목곽의 규모가 커지고 대부분의 유물은 목곽 내부에 부장된다. 특히 경주지역 특유의 철모 대량부장이 이미 이시기에 이루어지는 점이 주목된다.

연대는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는 출토되지 않지만 조합우각형파수호의 퇴화형식으로 추정되는 파수부호가 부장되고 대부분의 철기가 목곽묘단계이므로 2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Ⅱ-2기

목관묘의 전통은 점차 사라지지고 평면형태가 방형인 목곽묘가 나타난다. Ⅱ-2기의 목곽묘로는 황성동고분군 2호, 3호, 43호, 44호, 45호, 46호, 황성동 강변로 1호, 2호, 4호, 12호, 황성동 634-1번지 1호, 2호 등이 있다. Ⅱ-2기의 목곽묘는 묘광 깊이가 다소 얕아지는 쪽으로 변화되고 철기의 대량부장과 함께 토기도 대량으로 부장되어 평면 'ㄷ' 자 혹은 'ㄱ' 자 형태 부장이 나타난다. 또 신식와질토기의 전형적인 기종인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연대는 역삼각형 동체와 집선문이 시문된 대부광구호와 편구형 동체와 직립하다가 외반하는 구경부를 지닌 노형토기로 볼 때 2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Ⅱ-3기

Ⅱ-3기의 목곽묘는 대형묘의 경우 유물의 부장이 앞 시기 'ㄷ' 혹은 'ㄱ' 자형 부장에서 양단부장이 되면서 평면형태가 방형에서 장방형으로 변화된다. 소형묘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Ⅱ-3기의 목곽묘로는 황성동고분군 40호, 41호, 49호, 53호, 57호, 황성동 강변로 3호, 6호, 황성동 634-1번지 3호~10호 등이 있다. 연대는 마지막 단계의 대부광구호(횡구형동체)와 노형토기(역삼각형 동체, 직립하는 구연) 및 가장 이른 단계의 대부직구호로 보아 3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3) Ⅲ기

Ⅲ-1기

Ⅲ-1기는 중 · 대형목곽묘에서 부장 칸이 설치되면서 평면형태가 세장한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난다. Ⅲ-1기의 목곽묘로는 황성동고분군 5호, 9호, 12호, 14호, 33호, 27호, 황성동 강변로 19호 등이 있다. 연대는 가장 이른 형식의 노형기대와 양이부호 및 횡구형 동체의 대부직구호가 출토되고 철검이 사라지고 대도가 부장되는 것으로 보아 3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

3) 목곽묘 13호 · 59호가 대표적인데 유구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고자는 목곽묘로 이해하고 있지만 필자는 매장주체부가 목곽과 달리 규모도 작고 밀폐된 상자와 같은 구조일 가능성이 크므로 목관묘로 이해한다.

Ⅲ-2기

Ⅲ-2기는 부곽과 부장칸이 상대적으로 커져 주곽과 비슷해지고 이혈 주·부곽의 경주식목곽묘도 출현한다. Ⅲ-2기의 목곽묘로는 황성동고분군 6호, 7호, 8호, 10호, 13호, 16호, 17호, 22호, 25호, 29호, 30호, 35호, 36호, 59호, 69호, 황성동 1호(국립박물관 1985) 등이 있다. 연대는 견부가 뚜렷해지고 대각이 높아지는 노형기대, 구경이 직립하고 구형과 장동형의 동체를 지닌 대부직구호, 평저의 양이부호 등으로 보아 3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2. 시기별 분묘의 분포와 변화

경주 황성동의 원삼국시대 분묘는 분묘끼리 중복 조영되지 않고 그 분포도 시기마다 지점을 달리하면서 일정한 묘역으로 구분되면서 조영된다. 서기전 1세기 후엽에 해당하는Ⅰ-1기에는 취락(황성동유적 다지구)의 남쪽에 목관묘가 분포한다. 또 구조와 유물 부장에서 차이가 보이지 않는 동일한 위계의 목관묘로 구성된다. 그러다가 1세기 후엽과 2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Ⅰ-2기와 Ⅰ-3기가 되면 기존의 목관묘군에서 크게 벗어난 황성동 575번지유적에 목관묘가 위치하게 된다. 또 목관묘 사이에서 규모에 따른 유물 부장차이가 다소 보이지만 동일한 공동묘역에 조영된다. 목곽묘단계에 해당하는 Ⅱ-1기에는 기존의 황성동 575일원에서 동쪽으로 100m정도 떨어진 황성동 고분군 남쪽에 목관묘의 전통이 강한 목곽묘가 조영된다. 앞 시기에 보였던 규모에 따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뚜렷한 묘역 구분은 없이 상위 위계의 목곽묘와 하위 위계의 목곽묘가 혼재한다.

이렇게 Ⅰ-1기부터 Ⅱ-1기까지는 시기마다 지점을 달리하면서 규모와 유물의 부장에 다소의 차이가 보일지언정 동일한 공동묘역에 분묘가 조영된다. 그런데 Ⅱ-2기와 Ⅱ-3기에 들어서면 분묘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구조와 유물의 부장에서 명확한 차이가 보이는 목곽묘가 두 개 지점으로 구분되어 조영된다. Ⅱ-2기와 Ⅱ-3기에는 먼저 기존의 황성동고분군 남쪽에 위치하던 목곽묘군으로부터 그 동쪽에 목곽묘가 조영된다. 여기서 서쪽으로 400m 떨어진 황성동 575번지유적 서쪽과 황성동 강변로 및 황성동 634번지유적 일원에는 이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목곽묘군이 조영된다.

전자(황성동고분군 동쪽의 목곽묘)는 앞 시기의 목곽묘처럼 목관묘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묘광은 여전히 깊은 편이이다. 또 유물도 토기와 장신구는 거의 부장되지 않고 철기를 위주로 부장된다. 이에 반해 후자(황성동 575번지유적 서쪽 외)는 묘광의 깊이도 상대적으로 얕은 편이고 철기뿐 아니라 다양한 토기와 함께 장신구류가 부장된다. 또 철기도 철모의 대량부장은 물론 재갈도 부장된다. 그런데 두 묘역 모두 목곽묘 규모와 유물 부장에서 다소 차이가 보이지만 상위 위계의 목곽묘와 하위 위계의 목곽묘가 동일한 묘역에 같이 조영된다.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나는 Ⅲ기에도 동과 서로 구분되어 경주식목곽묘가 조영된다. 동쪽의 경주식목곽묘군은 현재 황성동 고분군의 서쪽과 황성동 575번지 유적의 동쪽에 걸쳐 위치하고 서쪽의 경주식목곽묘군은 황성동 1호를 포함하여 강변로구간에 산재해 있다.

Ⅲ.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성격

1. 주변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본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특성

1) 분묘의 분포 정형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는 김해 대성동, 울산 하대, 포항 옥성리 등과 달리 분묘끼리 중복 조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특징은 경주 황성동을 비롯하여 경주 사라리, 덕천리, 조양동, 울산 중산리 등 경주지역 원삼국시대 분묘군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복이 없이 분묘가 조영된다는 것은 선대의 분묘를 인식하고 축조하였다는 것으로 별다른 의미를 지닌다. 김해 대성동, 울산 하대, 포항 옥성리 등에서는 목곽묘 및 주·부곽식 목곽묘의 등장기에 선대 분묘를 파괴하면서 중복 조영되는 점(申敬澈1995)을 고려하면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조영은 연속적인 계승관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황성동의 원삼국시대 분묘는 등장기 목곽묘에서 목관묘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고 새로운 방형 목곽묘로의 전환도 영남지방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느리게 진행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분포는 시기마다 지점을 달리하면서 조영되는 분포상 특징을 보인다. 경산 임당유적은 최근에 조사된 신대리유적의 목관묘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무문토기가 출토되는 초기 목관묘로부터 고식와질토기가 출토되는 목관묘에 이르기까지 5~6개의 군집으로 목관묘군이 조영된다. 그러다가 목곽묘단계에 3개의 군으로 결집되어 이전 단계보다 더욱 통합된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목곽군은 고총단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李熙濬 2004).

이와 달리 경주 황성동의 경우는 초기 목관묘부터 지속적으로 조영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고식와질토기의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서기전 1세기 후엽부터 목관묘가 조영된다. 또 시기마다 묘역의 변화는 보이지만 목관묘의 조영 이후 경주 황성동에서 목곽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Ⅱ-1기까지는 하나의 공동 묘역을 유지하다가 방형 목곽묘가 나타나는 Ⅱ-2기부터 경주식목곽묘가 축조되는 Ⅲ기에는 두 개의 묘역으로 분화된다. 이렇게 분묘가 조영되는 초기부터 다수의 집단 혹은 취락이 결집되어 대규모 묘역을 이루는 경산 임당지구와 하나 내지 두 개의 집단 혹은 취락이 결집하여 묘역을 이루는 경주 황성동의 차이는 그 축조집단의 위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경산 임당지구 같은 중심지구와 경주 황성동과 주변지구의 격차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2) 목관묘 단계(Ⅰ기, 서기전 1세기 후엽~2세기 전엽)

황성동 목관묘의 규모는 경주지역의 일반적인 목관묘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고 요갱이 설치되지 않는다. 또 출토유물의 경우도 동경과 대구 같은 청동기류는 차치하더라도 위세품의 성격이 강한 철검과 철모가 모두 복수 부장되는 예가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경주 황성동 목관묘의 규모나 그 출토유물의 양과 질은 경주지역의 목관묘에서 하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목곽묘 단계(Ⅱ기, 2세기 중엽~3세기 전엽)

황성동에서 목곽묘로의 전환은 울산 중산리와 마찬가지로 목곽묘단계에 진입하였음에도 목관

묘를 고수하는 울산 다운동보다는 빠르게 진행된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형목곽묘의 등장은 영남지방의 다른 지역보다 다소 늦다.

황성동의 목곽묘 중에서 규모가 큰 대형묘를 울산 하대와 포항 옥성리의 대형 목곽묘와 비교해보면 규모가 작고 경주 사라리, 경주 조양동, 울산 중산리 등의 대형묘와 비슷한 규모이다. 부장 유물도 철검과 도가 복수 부장되는 경우가 적고 쇠스랑과 따비와 같은 기경구는 거의 부장되지 않는다. 또한 판상철부와 주조철부 같은 철소재의 부장도 현저하게 적고 울산 하대와 포항 옥성리에서는 장신구가 다량으로 부장되지만 황성동 목곽묘에서는 거의 부장되지 않아 그 경제력은 물론이거니와 그 위세적인 성격도 약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묘의 규모와 부장유물을 주변의 목곽묘와 비교한 결과 황성동 목곽묘는 울산 하대와 포항 옥성리의 대형목곽묘와 동일한 평면형태를 가지고 유물의 부장형태도 중대형 방형목곽묘에서 나타나는 'ㄷ'자형으로 유사하지만 그 규모와 부장유물의 내용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울산 하대와 포항 옥성리보다 위계가 낮은 인근 울산 중산리, 경주 조양동, 사라리 등과 유사한 중하위 집단의 분묘로 이해된다. 이러한 황성동 목곽묘의 위계는 그 분포 정형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울산 하대와 포항 옥성리의 대형목곽묘는 구릉의 정선부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배타적인 묘역을 가지는데 반해 황성동의 경우 대형묘와 소형묘가 혼재되고 있어 묘역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는 점도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경주식목곽묘 단계(Ⅲ기, 3세기 중엽~3세기 후엽)

황성동의 경주식목곽묘는 황성동 22호처럼 상위 위계에 속하는 이혈의 경주식목곽묘도 있지만 경주지역의 다른 분묘와 비교하면 구조와 규모 및 부장유물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먼저 황성동의 경주식목곽묘의 규모는 경주 구어리 1호, 경주 구정동 1~3호, 경주 덕천리 120호 등과 같은 상위 위계에 해당하는 경주식목곽묘와 비교하여 작은 편이다. 그 구조도 경주지역의 다른 경주식목곽묘와 달리 동혈의 '주·부곽식 목곽묘'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독립적인 부곽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4]. 또한 경주 구어리 1호 같은 상위 위계의 경주식목곽묘에서 보이는 이중곽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석단 및 역석시상이 보이지 않는다. 유물의 부장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분명한데 경주식목곽묘 특유의 철모부장 양상인 철도침목형의 철모부장과 갑주의 부장이 보이지 않는 점도 황성동 경주식목곽묘 축조집단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2.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성격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는 서기전 1세기 후엽에는 소규모 목관묘군이 남쪽에 위치하다가

4) 경주식목곽묘 중에서 동혈 주·부곽식의 경우 실재적인 목곽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주곽과 부곽의 구조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주곽과 부곽이 서로 간격이 없이 말착하여 설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곽과 별도의 부곽이 사용된 경우와 주곽의 한쪽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한 부장칸은 구별가능하다. 경주 황성동의 경주식목곽묘는 이혈의 주·부곽식목곽묘를 제외하고 세장한 목곽을 중간에 목판으로 분할하여 한쪽에 피장자를 안치하고 나머지 공간에 유물을 부장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커서 유물 부장을 위한 독립적인 목곽인 부곽이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세기 후엽부터 분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조영된다. 이러한 황성동 분묘조영의 변화는 황성동 집단의 성격과 변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1세기 후엽부터 분묘의 조영이 기존 취락의 북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선 이 시기에 이미 경주 황성동 집단 혹은 취락의 공동묘역이 이곳에 고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주 황성동에서 새로운 방형의 목곽묘와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나고 생산유구도 대규모 분업화된 철기 생산체제로 변모하는 2세기 후엽 이후에는 동일한 묘역에서 다소 성격이 차이가 있는 두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고 분묘의 수도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황성동집단의 분화 혹은 계층의 분화로만 이해되지는 않고 이 시기에 들어 황성동을 비롯해 인근에 위치한 복수의 취락이 결합하여 대규모 공동묘역을 조영한 결과(李賢惠 2008)로 이해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로국내 읍락의 통합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하위 취락의 경우 2세기 후엽 이전에는 다소 병렬적으로 개별 취락마다 소규모로 공동묘역를 조영하다가 사로국의 국내통합력이 점차 증대되는 2세기 후엽 이후 복수의 취락이 결집하여 한층 규모가 커진 공동묘역을 조영하면서 취락의 규모 자체도 확대될 뿐 아니라 취락과 취락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져 읍락의 통합이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 시기에 황성동에서 대규모의 제철생산체제가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

삼국시대의 고총군과 달리 원삼국시대의 분묘군은 개별 분묘의 차이보다는 분묘군 전체의 집단성이 더욱 강조(李熙濬 2007)되는 계층화된 집단의 묘역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황성동의 분묘는 방형목곽묘와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나는 2세기 후엽~3세기 후엽, 그 발전의 정점을 이루는 시기에도 경주지역의 다른 원삼국시대 분묘군과 비교하여 결코 두드러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주 황성동과 마찬가지로 일부 공백기는 있지만 서기전 1세기 후엽부터 지속적으로 원삼국시대 분묘가 조영되는 경주 덕천리와 비교하면 후자는 개별 분묘의 경우 황성동의 분묘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분묘군 전체의 규모와 내용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 황성동 집단은 1세기 후엽 이후 지속적으로 분묘를 조영하기는 하지만 그 위상은 하위 위계에 속하였다고 이해된다.

Ⅳ. 맺음말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는 서기전 1세기 후엽에 소규모 목관묘가 조영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다. 1세기 후엽부터 목관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공동묘역이 고정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분묘가 조영된다. 2세기 중엽에는 목관묘의 전통이 강한 목곽묘가 등장하고 2세기 후엽에는 본격적으로 목곽묘가 조영되면서 성격이 판이한 두 개 구역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묘역의 구분은 경주식목곽묘가 축조되는 3세기대에도 지속된다. 이는 이 시기에 들어와 황성동을 비롯해 인근에 위치한 복수의 취락이 결합하여 대규모 공동묘지를 조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황성동 분묘조영의 변화는 황성동 집단의 성격과 변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사로국내 읍락의 통합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위 취락의 경우 2세기 후엽 이전에는 다소 병렬적으로 개별취락마다 소규모로 공동묘역을 조영하다가 사로국의 국내

통합력이 점차 증대되는 2세기 후엽 이후에는 복수의 취락이 결집하여 대규모의 공동묘역을 조영하면서 취락의 규모도 확대된다. 또한 취락과 취락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져 읍락의 통합이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문헌

國立中央博物館, 1985,「慶州隍城洞遺蹟發掘調査報告」『國立博物館 調査報告』第17冊.

權志瑛, 2004,「弁·辰韓社會의 發展樣相에 대한 硏究-木棺墓에서 木槨墓로의 轉換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考古學科 碩士學位論文.

金大煥, 2002,「지배층묘를 통해 본 新羅 중심지역의 형성」『科技考古硏究』8.

金世基, 1994,「隍城洞 原三國 聚落址의 性格」『마을의 고고학』,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孫明助, 1997,「경주황성동제철유적의 성격에 대하여」『新羅文化』14.

_____, 2006,「古代鍛治遺蹟의 諸樣相」『科技考古硏究』12.

申敬澈, 1992,「金海禮安里 160號墳에 대하여 -古墳의 發生과 관련하여」『伽倻考古學論叢』.

_____, 1995,「三韓·三國時代의 東萊」『東萊區誌』東萊區誌刊行委員會.

安在晧, 1995,「木棺墓에서 木槨墓로-슬라이드 자료를 중심으로」『新羅文化』12.

李盛周, 1997,「慶州 隍城洞古墳群에 대하여-蔚山 中山里遺蹟과 茶雲洞遺蹟에 대한 檢討」『新羅文化』14.

李在賢, 1994,「嶺南地域 木槨墓에 대한 연구 」, 釜山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_____, 2003,「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硏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李在興, 2001,「목관계목곽묘의 등장과 배경」『嶺南文化財硏究』14.

_____, 2006,「慶州地域 木槨墓 硏究 」,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_____, 2007,「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출현과정에 대한 일고찰」『嶺南考古學』43.

이한상, 2001,「墳墓資料로 본 4~5世紀代 경주와 주변지역」『國家形成期 慶州와 周邊地域』, 한국상고사학회 연구총서.

李賢惠, 2008,「고고학자료로 본 斯盧國 六村」『한국고대사연구』52.

李熙濬, 2001,「新羅の墳墓」『東アジアと日本考古學Ⅰ(墓制①)』, 後藤直·茂木雅博編(同成社).

_____, 2002,「초기 진·변한의 고고학적 논의」『진·변한사 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_____, 2004,「경산지역 고대정치체의 성립과 변천」『嶺南考古學』34.

_____, 2007,『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서울).

林東在, 2005,「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硏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車順喆, 1999,「同穴主副槨式 木槨墓 硏究-洛東江東岸地域을 中心으로」, 慶星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崔景圭, 2004,「1~3世紀 慶州 隍城洞集團에 대한 硏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黃昌漢, 2002,「第Ⅳ章 考察」『慶州隍城洞古墳群』,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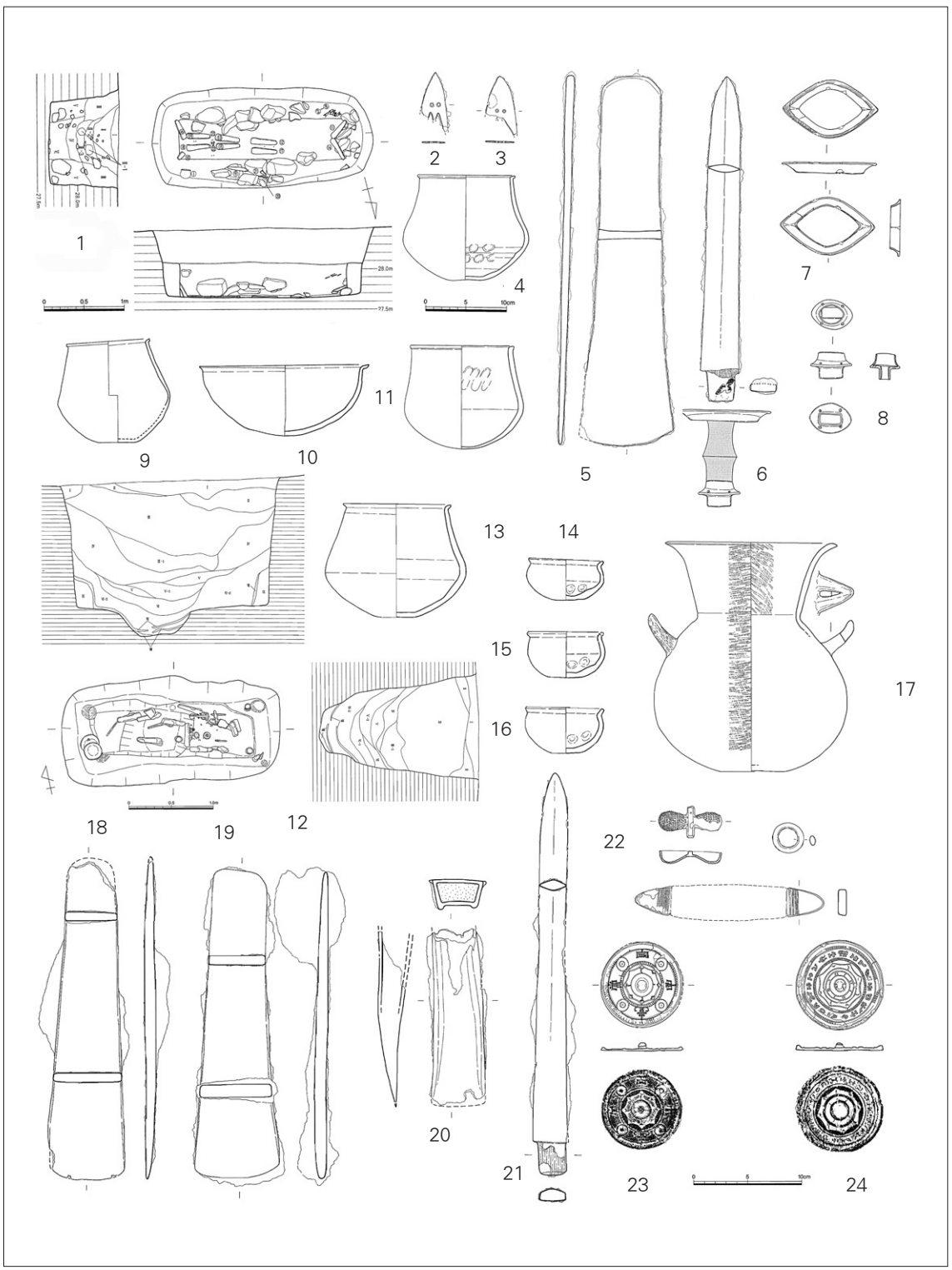


그림 1. Ⅰ-1기 유구와 유물 및 조양동 38호(1~5 : 강변로 1호목관묘, 6~8, 11 : 강변로 3호목관묘, 9 · 10 : Ⅱ-다-5호 주거지, 12~24 : 조양동 38, 축척 : 유구-1/80, 토기-1/8, 금속-1/6)

그림 2. Ⅰ-2기(1 · 4 : 575번지 7호목관묘, 3 : 2호목관묘)와 Ⅰ-3기(2 : 575번지 13호목곽묘, 5 : 9호 목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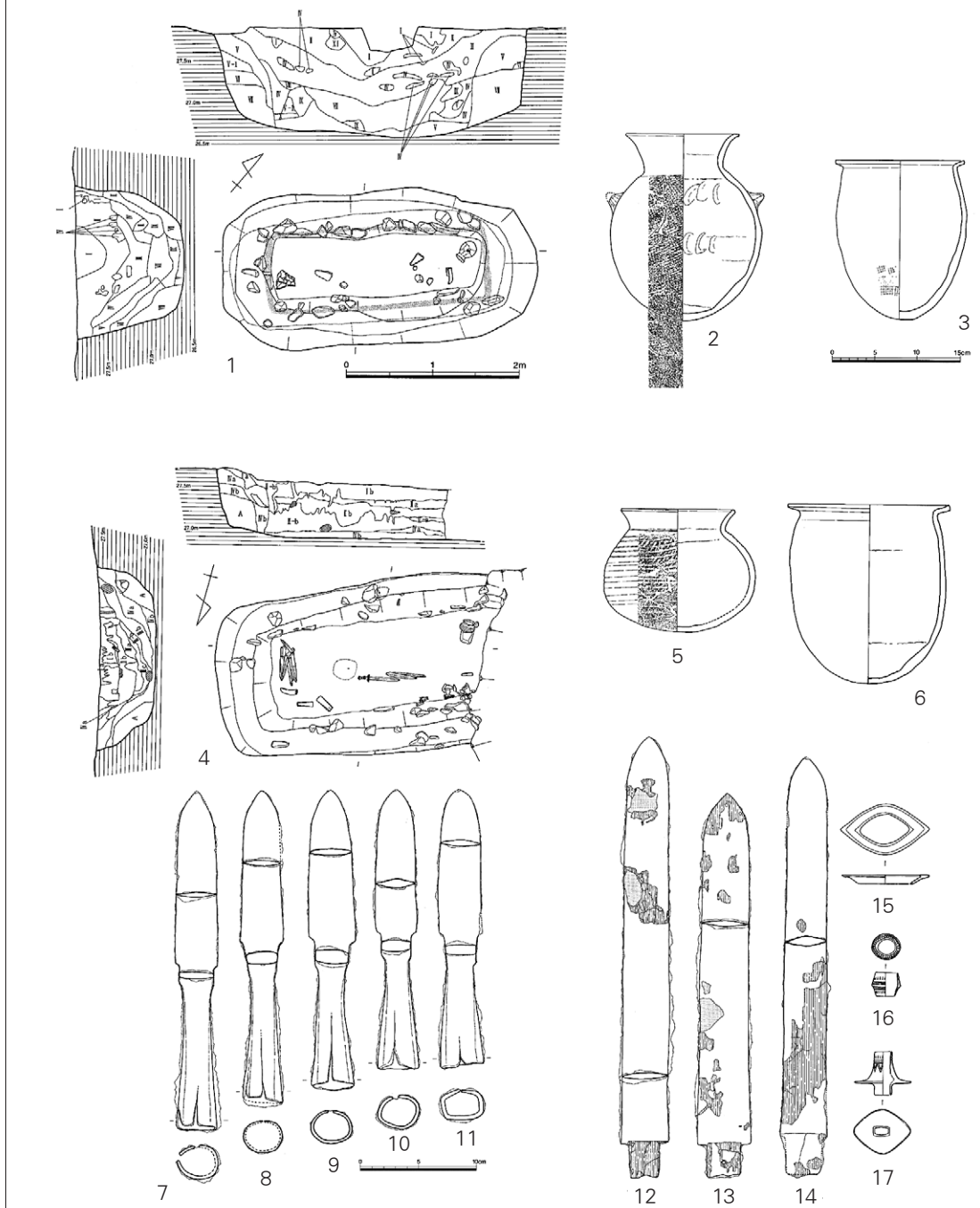


그림 3. Ⅱ-1기 유구와 유물 (1~3 : 황성동 31호, 4~17 : 황성동 68호, 축척 : 유구-1/80, 토기-1/8, 금속-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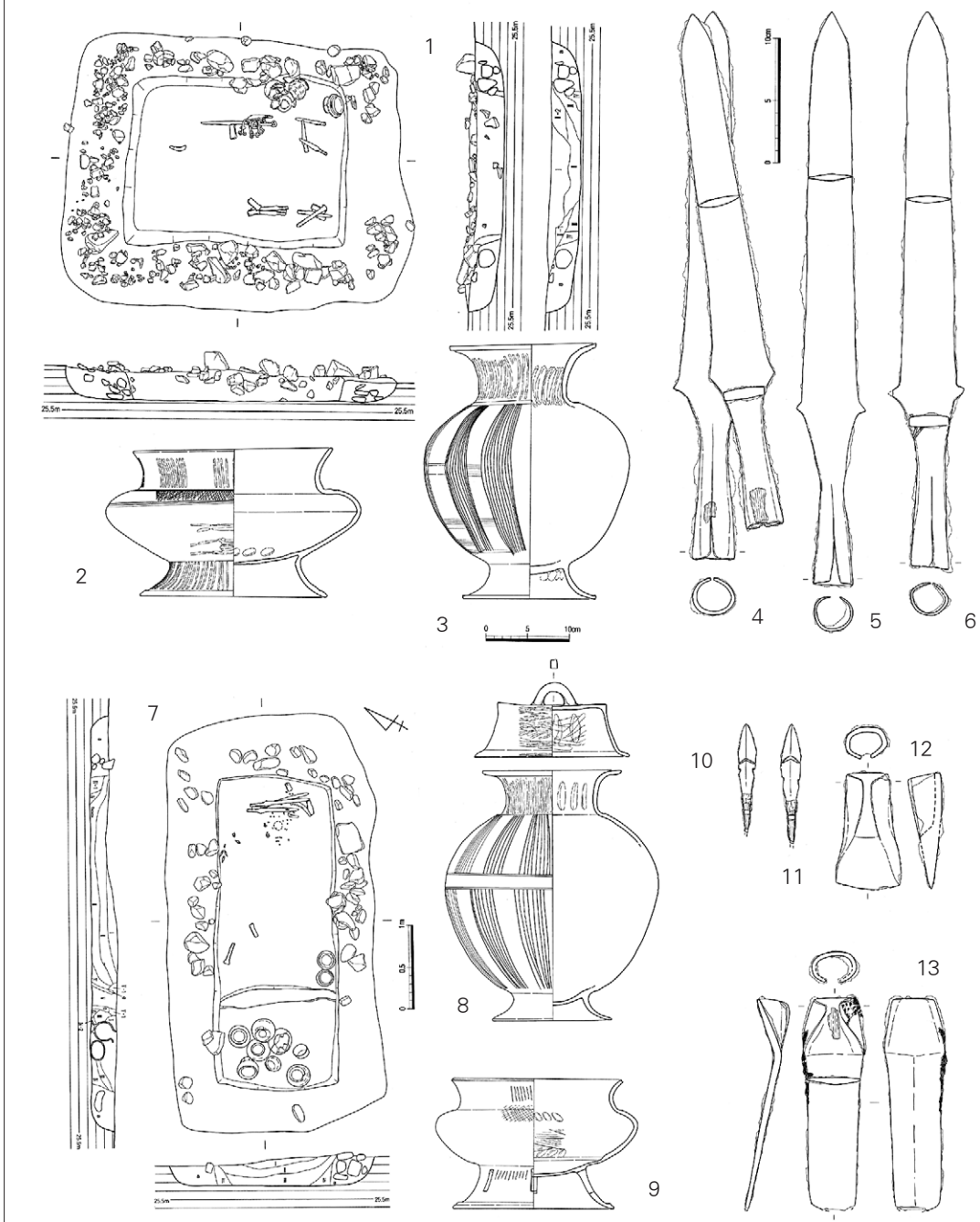


그림 4. Ⅱ-2기(1~6 : 강변로 1호 목곽묘)와 Ⅱ-3기(7~13 : 강변로 3호 목곽묘) 유구와 유물(축척 : 유구-1/80 토기-1/8, 철기-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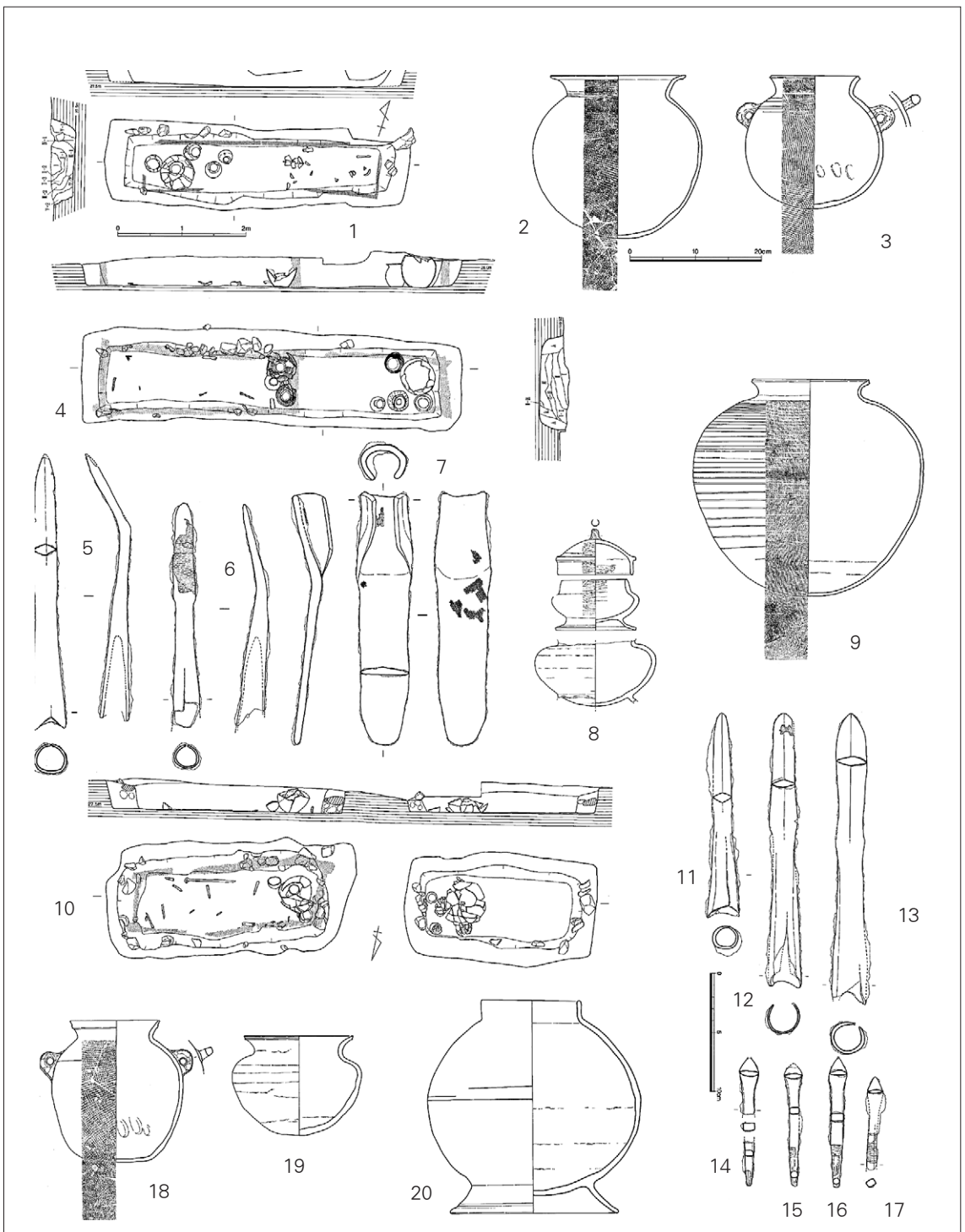


그림 5. Ⅲ-1기(1~3 : 황성동 27호)와 Ⅲ-2기(4~9 : 황성동 33호, 10~17 : 황성동 22호) 유구와 유물(유구-1/100, 토기-1/8. 철기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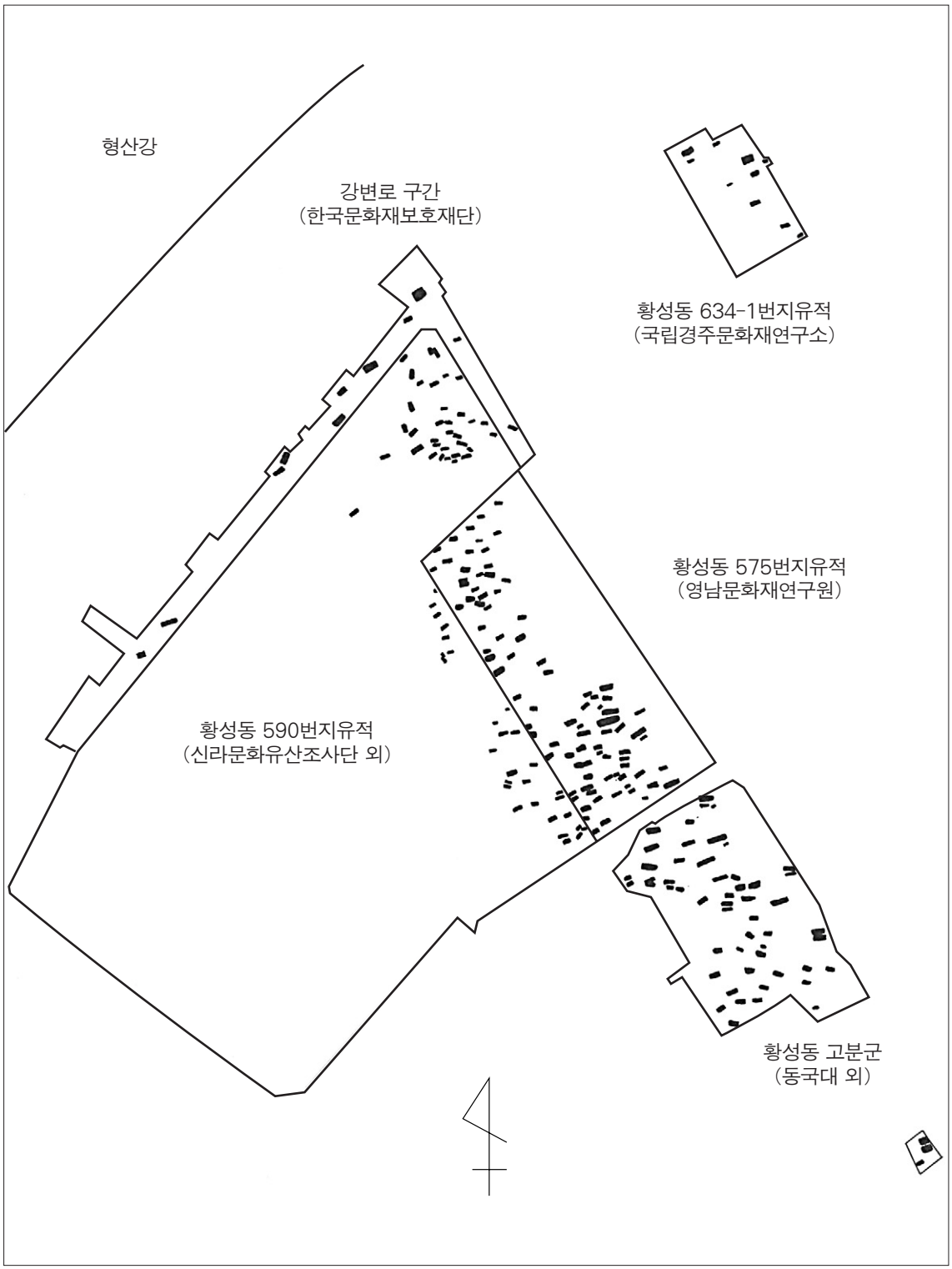


그림 6.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분포(축척 : 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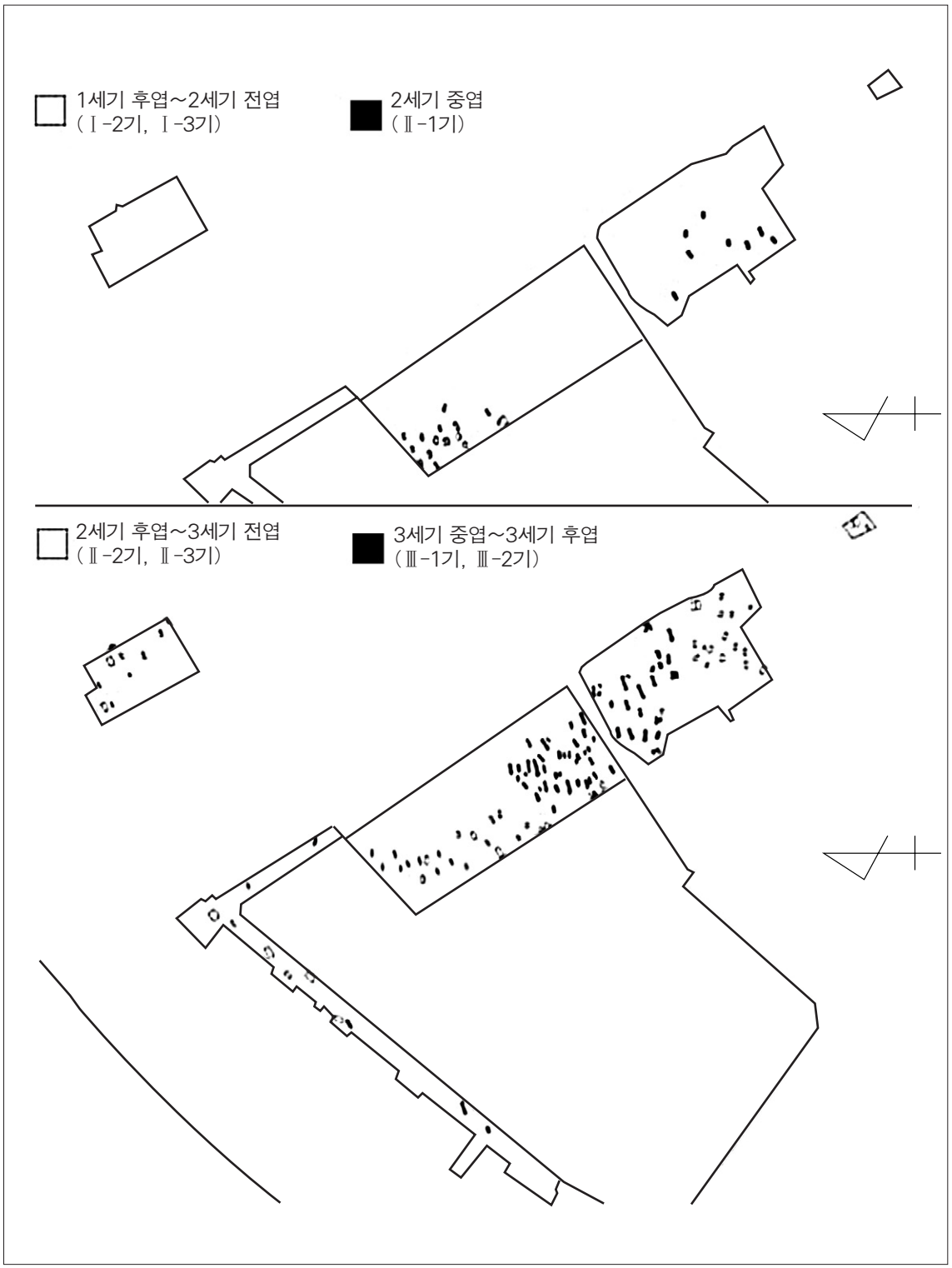


그림 7.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 분포의 변화(축척 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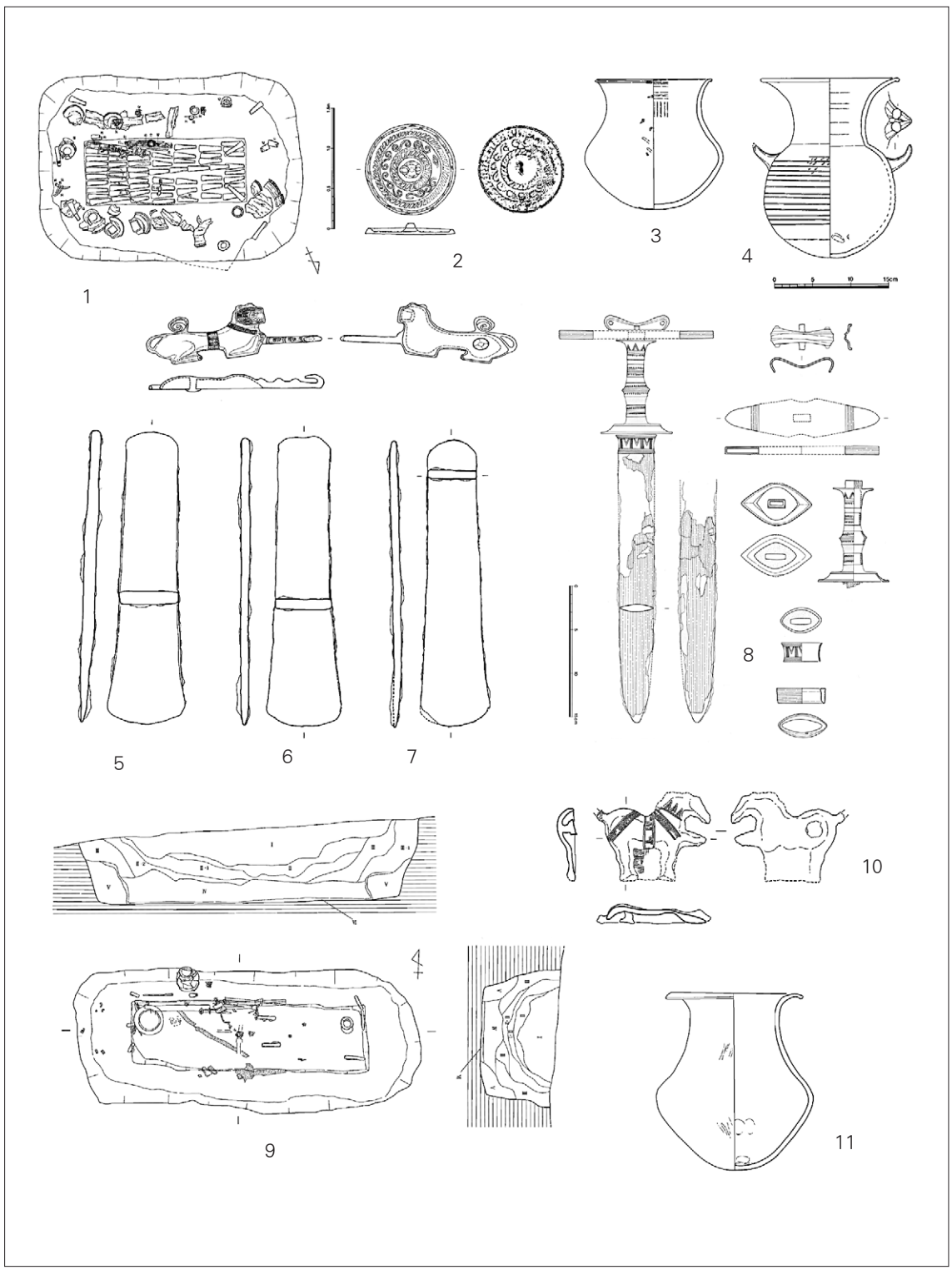


그림 8. 사라리 130호(1~8)와 조양동 60호(9~11, 축척 : 유구-1/80, 토기-1/8, 금속-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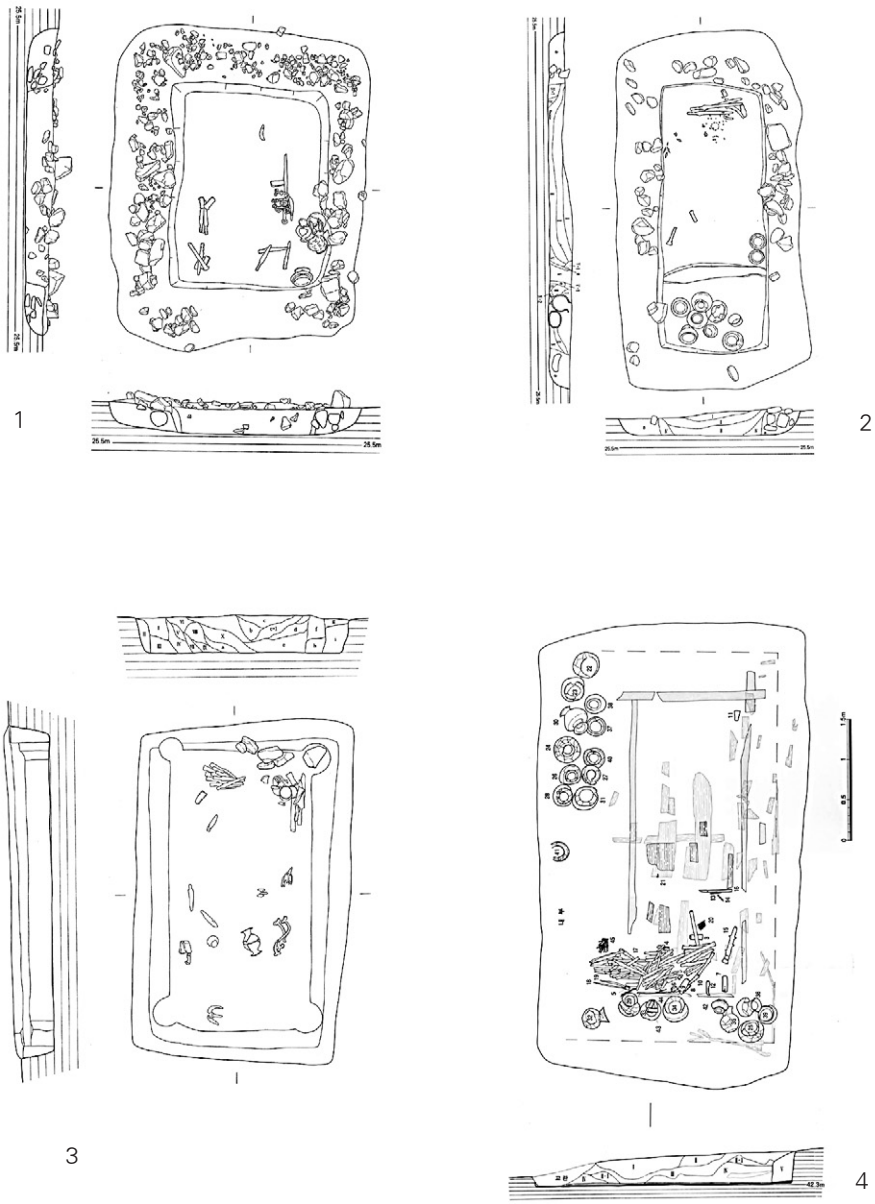


그림 9. 황성동과 주변지역의 Ⅱ기 목곽묘(1 : 강변로 1호, 2 : 강변로 3호, 3 : 중산리 Ⅷ-4호, 4 : 옥성리 78호, 축척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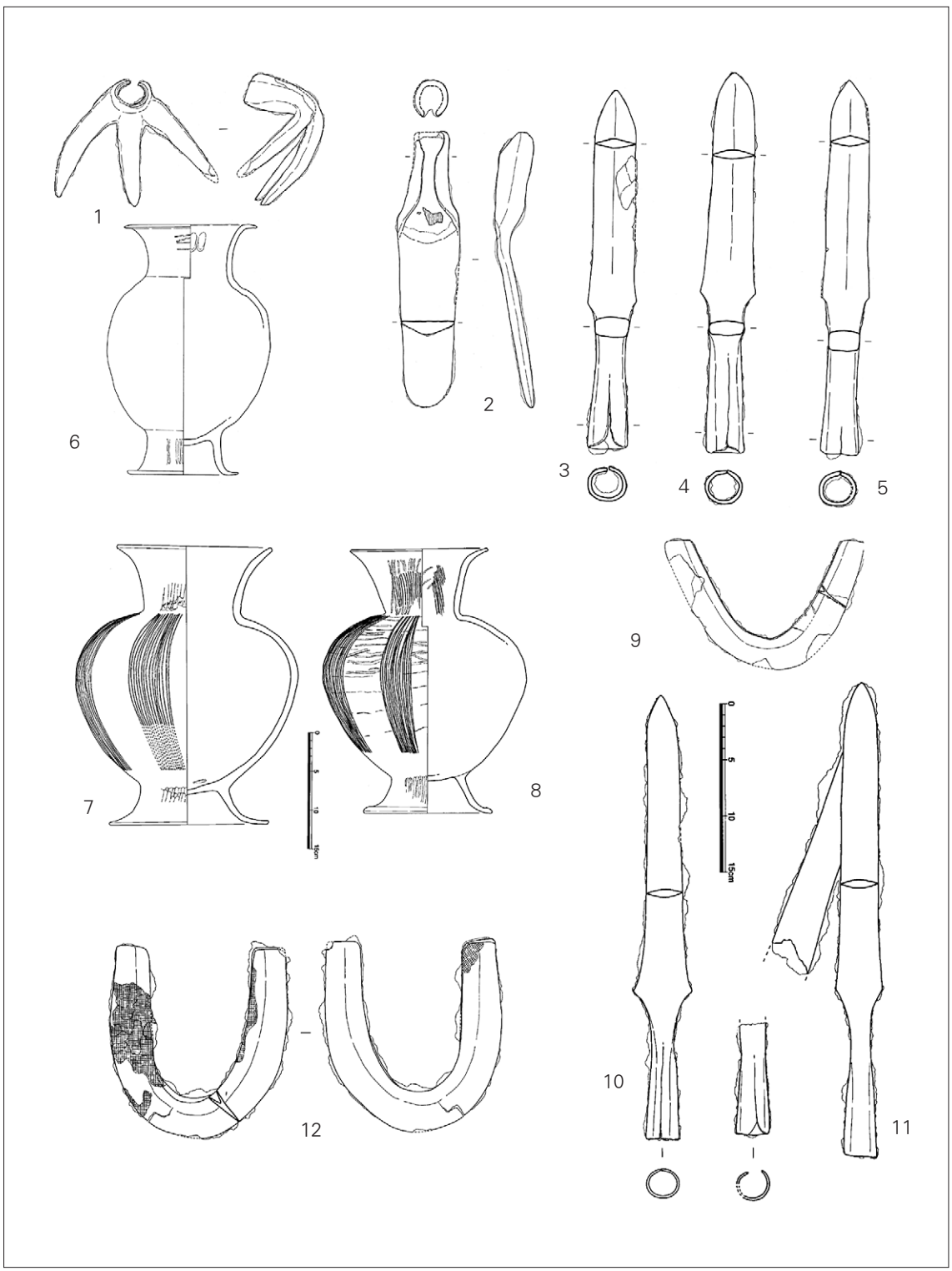


그림 10. 주변지역 Ⅱ기 목곽묘 출토유물 (1~6 : 중산리 Ⅷ-4호, 7~11 : 옥성리 78호, 12 : 옥성리 74호, 축척 : 토기-1/8, 철기-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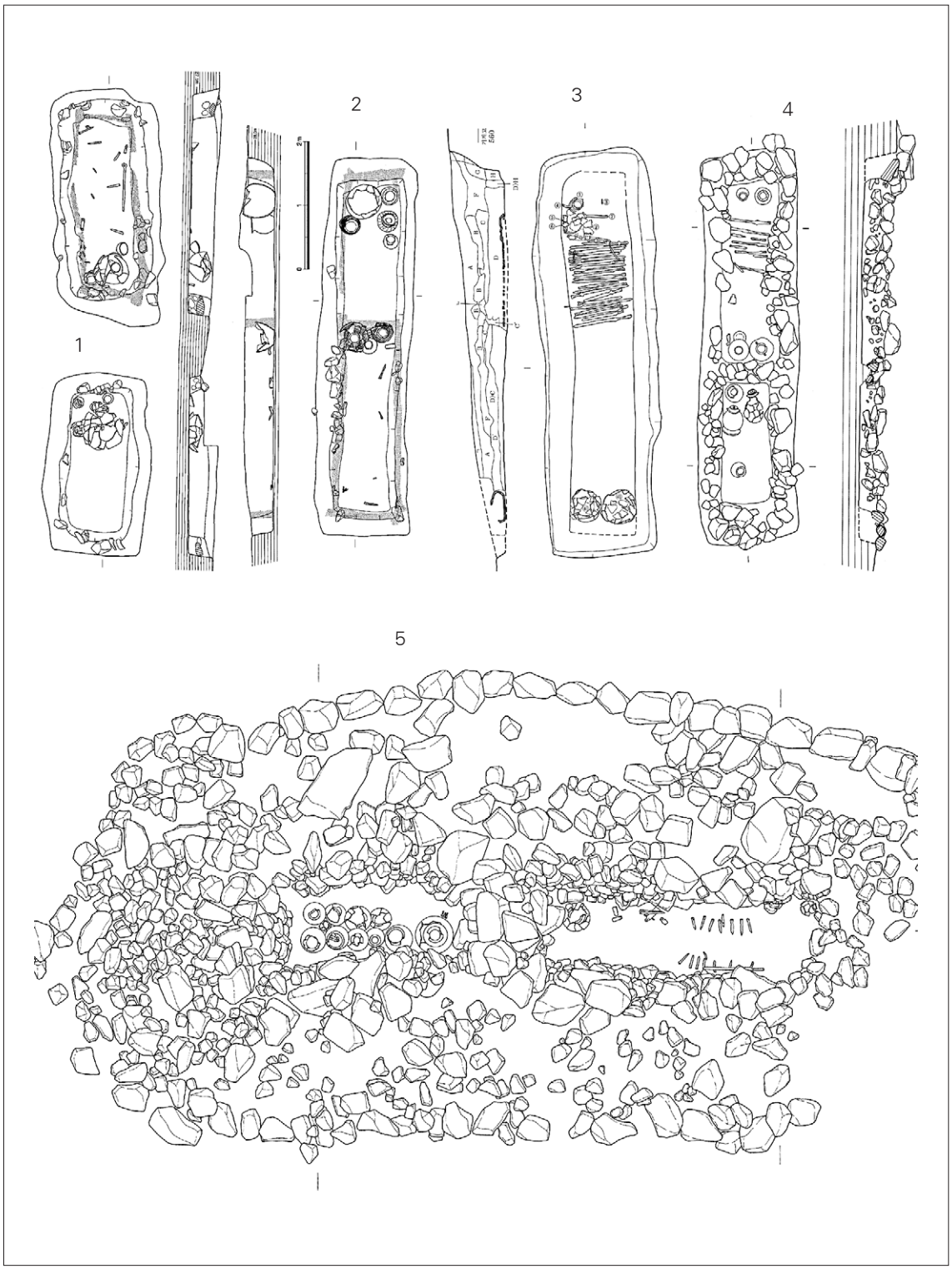


그림 11. 황성동과 주변지역 Ⅲ기 목곽묘(1 : 황성동 22호, 2 : 황성동 33호, 3 : 구정동 2호, 4 : 중산리 Ⅰ A-23호, 5 : 중산리 Ⅰ A-26호, 축척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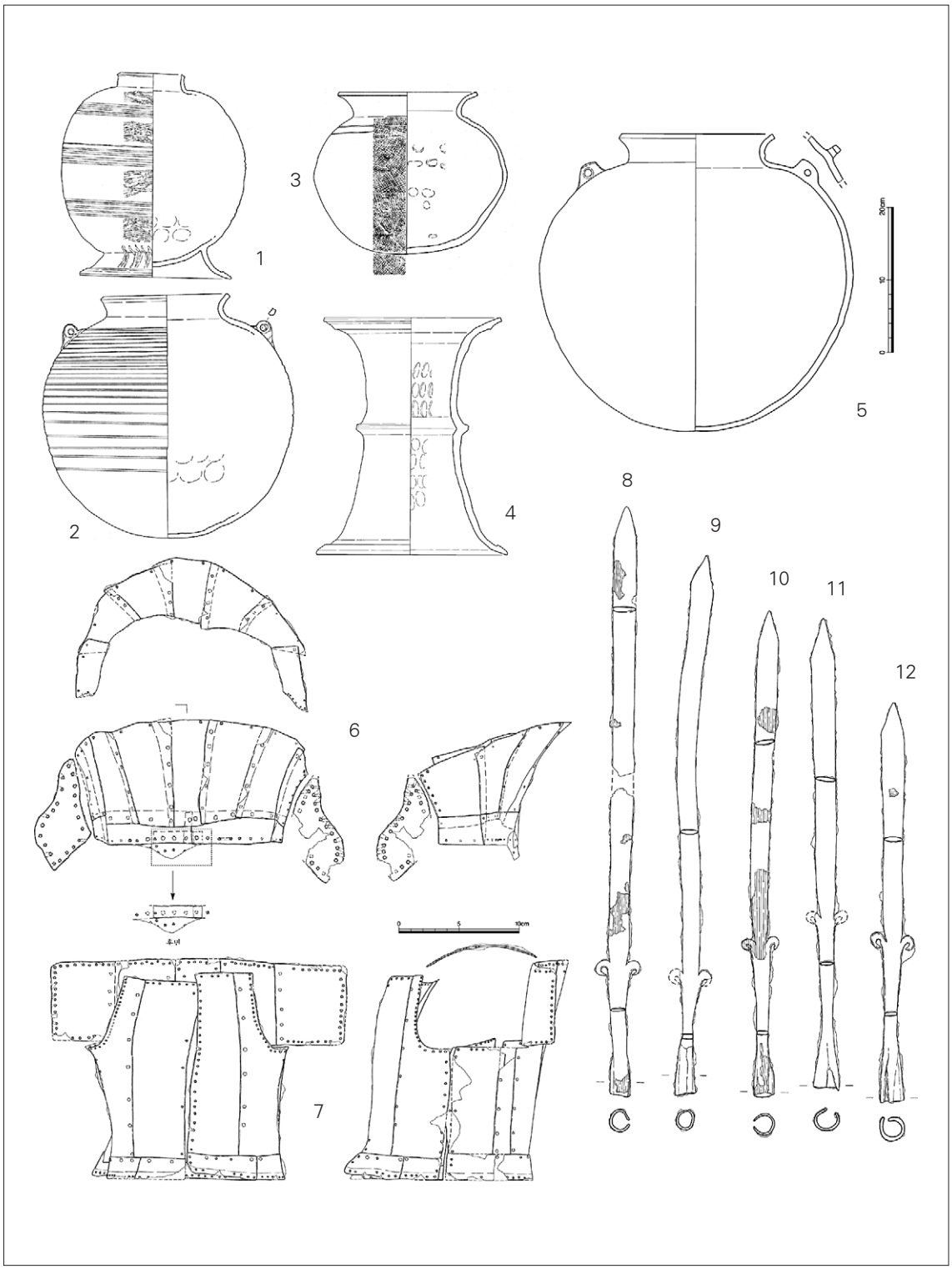


그림 12. 주변지역 Ⅲ기 목곽묘 출토유물(1,2 : 중산리Ⅰ A-23호, 3 : 중산리Ⅰ A-26호, 4와 8~11 : 구정동 2호, 5~7 : 구정동 3호, 토기-1/8, 축척 : 철기-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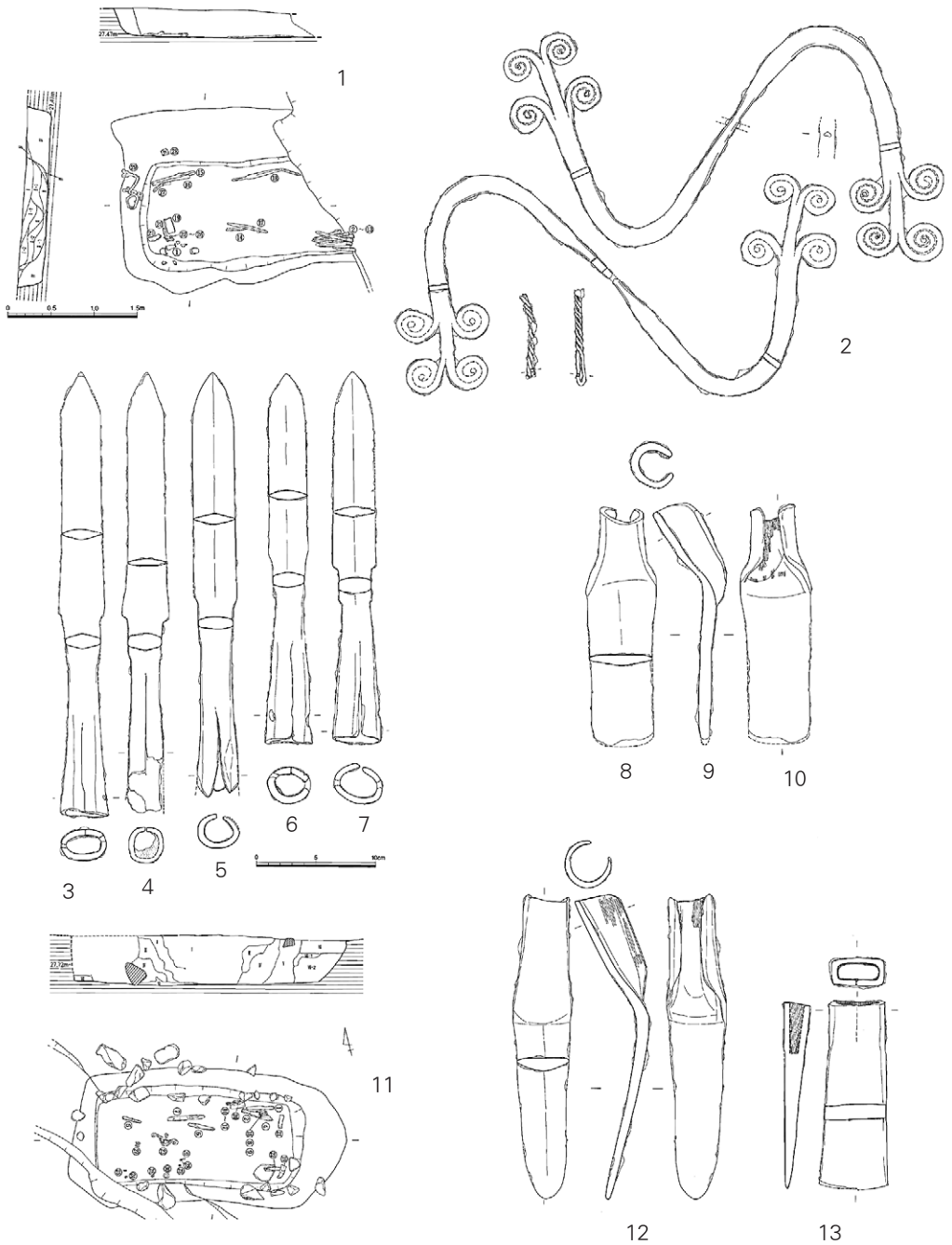


그림 13. 황성동 Ⅱ-2 · 3기의 동쪽 목곽묘(1~10 : Ⅱ-2기 황성동 2호, 11~13 : 황성동 46호, 축척 : 유구-1/80, 철기-1/6)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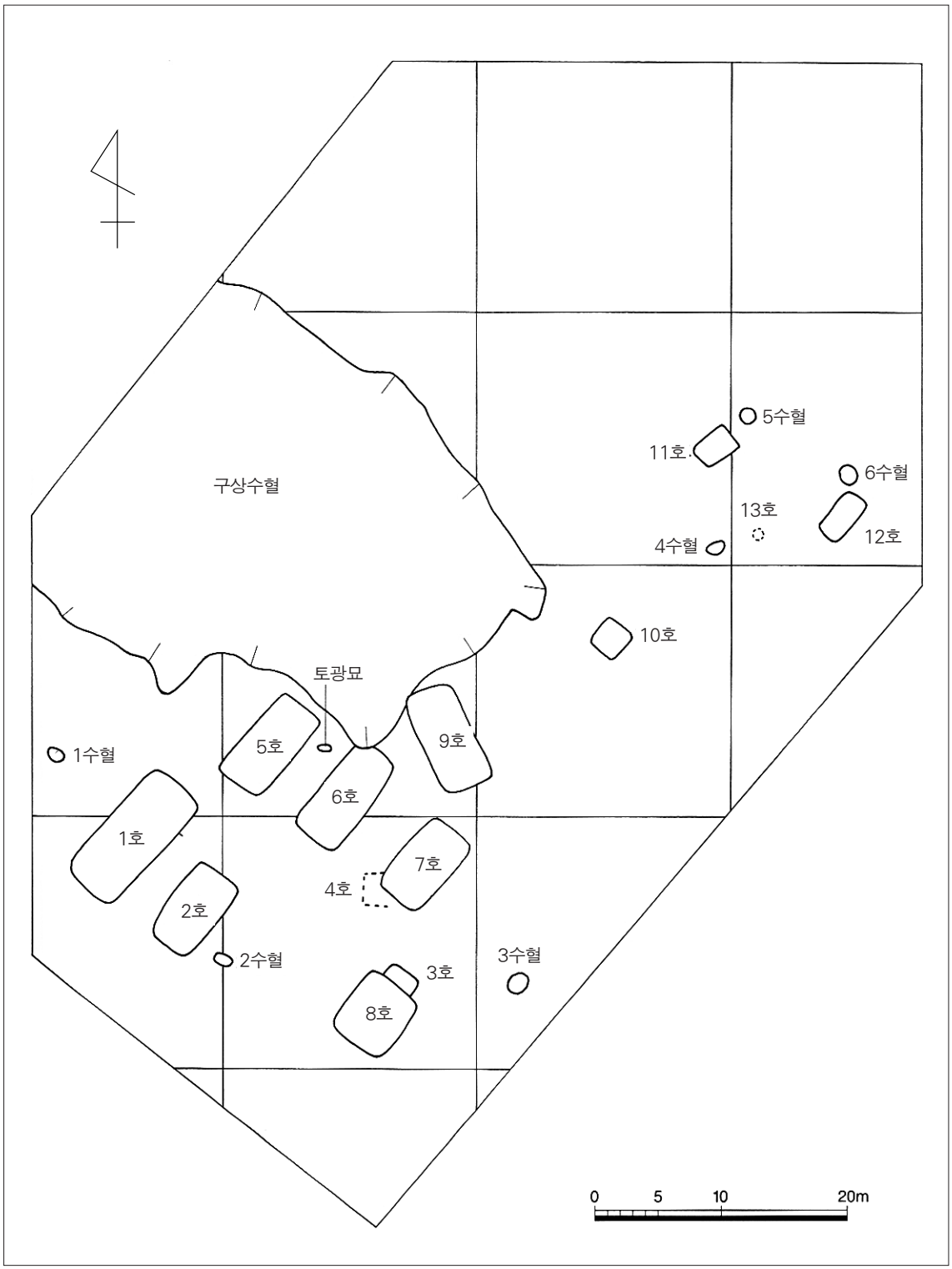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차순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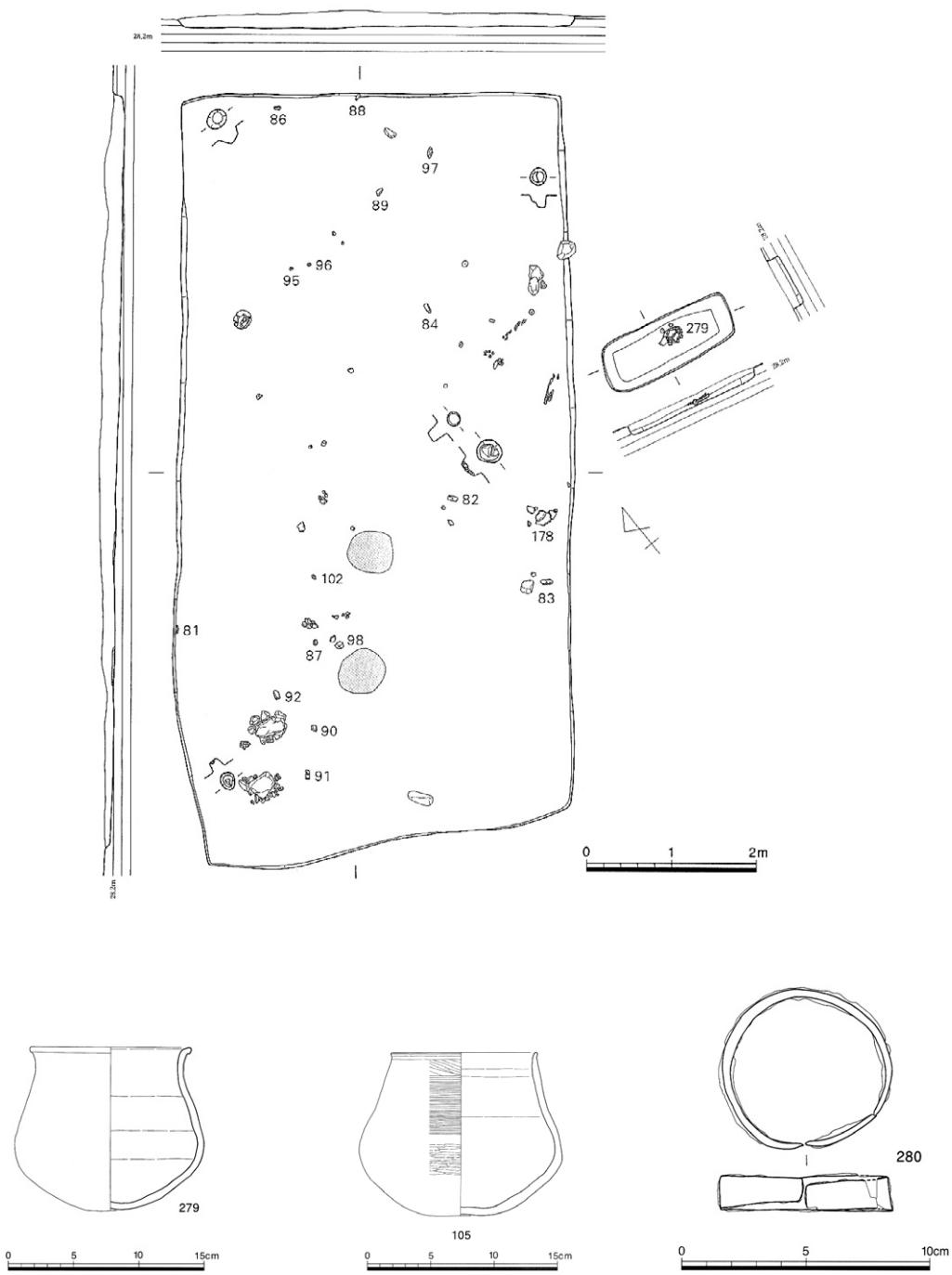
경주 황성동유적은 경주지역에서 가장 조밀하게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역 중 하나로, 마을과 분묘 그리고 생산유적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유적이다. 유적의 존속 시기는 사로에서 고대국가인 신라로 사회구조가 발전해 나가던 삼한시대부터 통일기로 신라의 역사가 본 유적 내에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발표자는 경주 황성동유적 내 분묘유적에 대해서 개별 단계를 구분하고 분묘의 성격을 규정지우면서, 유적의 성격을 “복수의 취락이 결합하여 대규모 공동묘역을 조성한 것”(이현혜 2008)이란 의견을 따르고 있다. 또한 본 발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수 취락의 존재를 상정하고 황성동고분군 내에서 보이는 묘역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 “사로국내 읍락의 통합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자의 의견에 대해서 토론자는 단일 유적에 대해서 통시적인 견해를 밝힌 발표자의 노고와 개진한 의견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을 갖게 되거나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황성동유적을 구성하는 취락이나 분묘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발표자의 의견 중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발표자의 분기 중 목관묘 단계(Ⅰ기)에 속하는 분묘를 살펴보면 강변로 도로구간과 황성동 ‘라’지구 목관묘, 황성동 535번지 목관묘 등이 알려져 있다. 이들 목관묘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취락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서 구분된다. 남쪽의 경우 발표자의 Ⅰ-1기에 속하는 분묘가 중심을 이루며 그 분포양상으로 볼 때, 현 계림고등학교 부지일대를 포함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의 경우 발표자의 Ⅰ-2기와 Ⅰ-3기에 속하는 분묘들로 황성동 545번지, 575번지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발표자가 분묘의 성격을 구분하는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의 존재를 기준할 때, 황성동 575번지가 중심인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황성동 545번지에서도 동 유물의 존재가 확인(경주대학교 조사 71호 불명유구)되며, Ⅰ-2기와 Ⅰ-3기에 속하는 원형주거지(‘다’지구)에서 출토된 주머니호는 이 시기의 분묘들과 연결된다. 따라서 황성동 Ⅰ기의 분묘에서 확인되는 묘역의 변화는 취락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단일취락 내에서 이러한 묘역의 이동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특히 묘역의 이동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나타내는데 발표자의 의견처럼 ‘황성동 집단의 성격과 변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지, 그렇다면 Ⅰ기에 속하는 분묘군들 사이에서 이러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Ⅱ기 목곽묘의 경우 발표자는 황성동 513번지에서 조사된 Ⅱ-1기 목곽묘의 존재에 주목하고



도면 1. Ⅱ-라지구 유구배치도



도면 2. Ⅱ-라-5호 주거지와 토광묘

있지만, 인접한 575번지에서 확장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발표자는 이 시기부터 묘역이 2개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에 조성된 분묘가 황성동 545번지와 575번지에 위치한 점을 고려한다면 분묘의 중복현상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황성동 유적의 특성상 이는 기존의 묘역을 피해서 새로운 묘역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황성동 유적의 가장 북쪽지역인 634-1번지에서 남쪽으로 Ⅱ-1기의 묘역이 만들어지면서 강변로지역과 황성동 545번지에 2개의 묘역이 존재한 점은 기존 묘역을 피하면서 새롭게 묘역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발표자는 복수의 취락을 상정하고 있는데, 강변로지역과 황성동 545번지의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만약 대형묘의 존재나 묘광의 깊이 차이를 기준으로 분묘를 구분하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복수의 취락 존재를 상정했다면 황성동 유적의 구지형을 너무 평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Ⅱ기 분묘군 사이에서 복수 취락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발표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목곽묘 단계인 Ⅲ기에 들어서면서 분묘의 계층화가 나타나며 소위 경주형목곽묘(동혈주부곽식목곽묘)와 이혈주부곽식목곽묘가 출현하게 된다. Ⅲ기의 분묘군 역시 강변로지역과 황성동 545번지, 575번지 두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이외에도 2기의 장방형 목곽묘가 나란하게 병렬식으로 배치된 분묘 등 다양한 목곽묘가 확인된다. 발표자는 목곽묘의 부장품과 철모의 대량 매납, 갑주의 부장 유무를 근거로 분묘 축조집단의 위상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경주 외곽의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유력자의 분묘가 황성동 유적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은 동 유적이 이미 사로국의 정치체제 안에 포함되어 하나의 사회구성체로 존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취락의 묘역 안에 특출한 대형 분묘를 조성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황성동 유적의 성격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된다. 결국 황성동 유적은 철기제작을 중심으로 한 생산유적과 공인들로 이루어진 취락으로 분묘의 규모로 볼 때, 발표자의 Ⅱ기에 잠시 유력 개인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이후, 기존 사로국 정치체제에 편입되면서 낮아진 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집단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로 판단된다. 그리고 단일 취락 내에서도 복수의 묘역이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취락 내부의 성장에 따라서 분묘 피장자간의 묘역 구분으로 인식된다. 결국 묘역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지만 황성동 유적처럼 상하간의 위계가 구분되지 않는 채 분묘가 혼재된 점은 오히려 취락 내 개별 집단의 묘역이 유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결국 분묘의 위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못한 채 혼재된 모습은 황성동 유적이 보다 상위에 위치한 정치체(국가)에 의해서 통제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경주 황성동유적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

金羅英(울산문화재연구원)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주거지의 출토유물 양상과 구조
Ⅲ. 단계 및 변천양상
Ⅳ. 주거양상을 통해서 본 황성동 취락의 성격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경주 황성동유적은 1~4세기대에 걸쳐 형성된 주거지와 분묘, 그리고 철 생산과 관련된 단야로, 정련로, 용해로, 제강로, 폐기장 등이 조사된 대규모 철 생산 취락지이다. 유적 내에서는 철 생산역을 중심으로 분묘와 주거역이 공간적 배치를 이루고 있어, 당시 특수 기능 취락의 형성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그동안 황성동유적의 분묘(안재호 1995, 차순철 1999, 이재흥 2001, 김일규 2002, 황창한 2002, 최경규 2006 등)와 제철유구(이영훈 1991, 윤동석 1992, 김세기 1996, 손명조 1997, 최경규 2006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황성동 취락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인 주거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황성동 주거지와 관련된 연구는 김세기와 최경규에 의해 검토되었다.

김세기[1]는 황성동유적 다지구의 원형 주거지에서 확인된 爐址의 경도와 철기 제작과 관련된 모룻돌, 구슬형 철괴 등의 출토유물을 통해 주거지내 소규모 단야공방이 행해졌고, 아울러 다지구 원형주거지군의 성격을 동질성이 강한 철기 제작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철기제작마을로 파악하였다. 김세기의 연구는 삼한시대 개별 주거의 성격과 취락연구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근 경주 황성동집단의 공간구성과 성격을 검토한 최경규[2]는 주거지를 크게 A · B 2단계로, 분묘는 Ⅰ · Ⅱ · Ⅲ · Ⅳ 4단계로, 제철유구는 가 · 나 · 다 · 라 4단계로 각각 설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황성동유적의 시기를 크게 1기와 2기로 구분하였다. 주거지 A단계는 김세기의 다지구 원형주거지군 단계와 동일한 양상으로 파악하여 주거지내 소규모 단야공정이 이루어졌을 것으

1) 김세기, 1994,「황성동 원삼국 취락지의 성격」『마을의 고고학』,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한국고고학회).
2) 최경규, 2006,「삼한시대 경주 황성동집단의 공간구성과 성격」『영남고고학』39(영남고고학회).

로 보았다. 주거지 B단계는 가 · 나지구에서 확인된 주거지에 해당하며, 새롭게 방형주거지가 출현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 주거지 구조로는 면적의 확대, 온돌시설과 지상식 구조 등의 특징을 들어 A단계의 단야공방의 성격과 달리 전용주거의 성격으로 파악하였다. 최경규는 황성동 집단의 성격을 밝히는 연구에 있어서 개별 유구의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취락내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정리 · 분석하여 집단의 성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고에서는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황성동유적 주거지의 구조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주변 취락유적과의 비교, 검토하고 황성동 취락의 성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Ⅱ. 주거지의 출토유물 양상과 구조

황성동유적의 주거지는 행정구역상 경주시 황성동 907-2번지, 526-4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국립경주박물관[3], 경북대학교박물관[4], 계명대학교박물관[5]에서 연합으로 발굴조사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곳에서 확인된 황성동 주거지의 출토유물과 구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1. 출토유물의 양상

황성동유적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양상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유물은 토기, 철기, 석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토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토기류는 크게 무문토기, 와질토기, 연질토기, 도질토기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와질토기로 주거지내 생활토기로서 주종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무문토기는 주로 다지구 주거지군에서 전기 와질토기와 함께 공반되어 출토되었다. 옹과 소형발의 기종에서는 구연부에 퇴화된 삼각형점토대가 부착되어 있다. 점토대의 형태는 대체로 점토대 하단부를 지두나 물손질 등으로 밀착시켜 동체부와 연결된 거의 홑구연에 가까운 퇴화된 양상이다. 이 외에도 두형토기와 컵형토기 등도 일부 확인되었다.

와질토기는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단경호, 옹, 완, 발, 노형토기, 시루, 양이부호, 대부호 등의 기종이 출토되었다. 주머니호는 I다-1호 · 8호 · 12호 · 15호 · 16호 · II다-5호 주거지에서 총 7점이 출토되었다. 주머니호의 형태는 원저의 저부에 동최대경이 중하위에 있고 동최대경에서 살짝 내만하여 구연부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다 구연단에서 짧게 외반한다. 다호리 31호 · 32호 · 37호 묘 등에서 출토된 부장품과, 황성동 강변로유적의 1호 · 2호 · 3호 목관묘 출토품과 同 형식이다.

단경호는 다지구 Ⅰ-다-2호 주거지 출토품이 가장 이른 형식이며 문양이 없는 소문단경호이

3) 국립경주박물관, 2000,『경주 황성동유적 Ⅰ · Ⅱ』.
4) 경북대학교박물관, 2000,『경주 황성동유적 Ⅲ · Ⅳ』.
5) 계명대학교박물관, 2000,『경주 황성동유적 Ⅴ』.

〈표 1〉 출토유물 현황표

연번	호수	토기																				철기							석기	기타
		무문토기			와질토기											연질토기				도질토기											
		점토대토기		기타	주머니호	단경호	옹		완	발	노형토기	시루	양이부호	대부호	기타	옹		단경호	기타			철부(단·주조)	철촉	철겸	철착	도자	철괴	기타		
		옹	발				소옹	장동옹								소옹	장동옹													
1	Ⅰ다-1호		1	2	1										12								2	1		1	1	연석1	방추차1
2	Ⅰ다-2호					1									8														
3	Ⅰ다-3호														7														용범편1,방추차1
4	Ⅰ다-4호			1(두형)											2														
5	Ⅰ다-5호			1											2														
6	Ⅰ다-6호			2																								연석1, 석기2	
7	Ⅰ다-8호			1	1										3														
8	Ⅰ다-9호											1			14							1(단)	1	1			1		지석1	
9	Ⅰ다-10호			1				1							1													1		방추차1
10	Ⅰ다-11호		1	1(두형)											18				3			2(단)					101	3	모룻돌1, 지석3	방추차1
11	Ⅰ다-12호		1	4	1			3							9								1			1			지석3, 박편2	
12	Ⅰ다-15호			1	1										15															
13	Ⅰ다-16호			1	1										14														1	
14	Ⅰ다-17호	3		8		1		4	2						20							1(주)	3	1			7	2	모룻돌1, 석착1, 지석5	방추차2
15	Ⅱ다-4호			2			1								5														모룻돌1	
16	Ⅱ다-5호			2	2			1	1						2									1					모룻돌2, 지석3, 석기1	
17	Ⅱ다-6호			3											9															방추차1
18	다-고가수조-1호				1							1			1				1											
19	Ⅱ나-7호				1	1			1							9														방추차2
20	Ⅰ나-5호															2		1												
21	Ⅰ나-6호										1						1													土球1
22	Ⅰ가-1호							4	1	1					2				3										지석1	
23	Ⅰ가-4호					2	1	1				1			3													철재1		토제품1, 방추차3
24	Ⅰ가-13호						1	1							4		1	1												

연번	호수	토기																					철기							석기	기타
		무문토기			와질토기												연질토기				도질토기	철부(단·주조)	철촉	철겸	철착	도자	철괴	기타		
		점토대토기		기타	주머니호	단경호	옹		완	발	노형토기	시루	양이부호	대부호	기타	옹		단경호	기타											
		옹	발				소옹	장동옹								소옹	장동옹														
25	Ⅱ가-1호					1	9	3					1		5	3	3		1										지석2	방추차2
26	Ⅱ가-2호					1	2								4	1														
27	Ⅱ가-3호						3	4		3									1							1			유리제 구슬1
28	Ⅱ가-4호						1	3		1	2	1																	지석1	유리제 구슬1
29	Ⅱ가-5호							2		1	1				4															土球1
30	Ⅱ가-6호					2	3		1	1		1			2															
31	Ⅱ가-7호						1	3							5				2											
32	Ⅱ가-8호					2	4	9	4	10	12	1			4	1			2						1				지석2	녹각도자1, 원판형토제품5
33	Ⅱ-가-9호									2	2				1	1									1					
34	Ⅱ가-11호					3	1								3															송풍관편2
35	Ⅱ-가-13호					1													2											방추차2
36	Ⅱ가-14호						1	4							2													1		
37	Ⅱ-가-15호							1																						
38	Ⅱ가-18호							1							2															방추차
39	Ⅱ가-20호									1	2					1														
40	Ⅱ나-1호							1	1		1					1														
41	Ⅱ나-2호								2			2	1		6	7		1	3											
42	Ⅱ나-3호					1	2	3							1				2										지석1	유리제 환옥1, 어망추1
43	Ⅱ나-4호					1	2			1				4	2				4	단경호3									지석1	송풍관편3
44	Ⅱ나-5호							3		2	1					1			1											
45	Ⅱ나-6호					2		1				1				2			1						1				방추차1, 어망추1, 박자1, 도가니편1	
합계		3	3	30	9	19	32	53	13	23	22	9	2	4	192	29	5	3	26	3	4	5	5	1	4	111	9	20	26	

다. 동최대경은 중위에 있으며 구연은 직립 외반하여 구연단이 수평으로 꺾여 있는 형태이다. 반면 가 · 나지구에서 확인되는 단경호는 외면에 격자 · 평행타날되었으며, 동체부의 형태가 구형, 타원형, 역삼각형을 띠고 있다. 노형토기는 경주 황성동유적의 I나-6호 주거지 출토품이 가장 이른 형식으로 동체상부에 2단의 침선을 돌려 문양대를 구획하여 삼각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구경부와 대각부에서는 종방향의 암문풍을 시문한 것이 특징이다. 하대 44호 목곽묘 출토품과 유사하다. 이 외의 노형토기는 문양은 사격자문과 무문양이, 동체는 주판형과 역삼각형이, 대각경은 점차 넓어지는 형태의 것이 출토되었다. 옹형토기는 소옹과 장동옹의 기종이 확인되는데, 주거지내 생활토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지구에서 출토된 장동옹은 저부의 형태가 원저나 바닥이 좁은 말각의 평저이며, 동체상부에서 완만하게 내만하다가 구연에서 수평에 가깝게 짧게 외반한다. 정면기법은 목리나 회전물손질이 관찰된다. 이러한 형태의 장동옹은 황성동 545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황성동 18호 · 31호 분묘 출토품과 同 형식으로 추정된다. 반면 가 · 나지구의 장동옹은 원저의 저부에 동체부가 점차 길어지며, 정면기법은 격자와 평행 타날되었다. 구연부는 '〈' 形과 2단으로 외반(Ⅱ나-2호 · 6호 주거지)하는 형태가 확인되었다. 시루는 5점이 확인되었는데, 와질제이다. 기형은 구연이 외반하는 옹형의 형태이며, 저부는 원저로 동체상부에 우각형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증기공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길게 짼 미세孔이다.

연질토기는 가 · 나지구의 주거지군에서 대체로 옹과 호의 기종이 확인되는데, 기형은 와질토기의 옹과 호의 기형과 크게 차이점은 없다. 이 밖에도 도질토기 발생기에 주로 확인되는 대부호와 양이부호, 그리고 도질 단경호 등이 나지구 주거지군에서 확인되었다.

철기류는 다지구 주거지군에서 단조 · 주조철부, 무경식 삼각형철촉, 철겸, 철착, 도자, 철괴 등이 확인되었으며, 가 · 나지구의 주거지에 비해 수량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석기류는 지석의 출토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출토유물의 양상은 분묘의 출토품과 대비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후기무문토기(종말기무문토기)의 잔존양상과 전기 와질토기가 출토되는 단계로 시기는 대략 기원후 1세 중 · 후엽~2세기 전 · 중엽, 둘째는 후기 와질토기와 연질토기 등이 주종을 이루는 단계로 기원후 2세기 후엽~3세기 중 · 후엽, 셋째는 도질토기가 출현하는 단계로 시기는 기원후 3세기 후엽~4세기 전엽으로 판단된다.

2. 주거지의 구조

황성동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총 45기이며, 각 주거지의 속성은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황성동유적의 가 · 나 · 다지구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후대 경작 등으로 유실이 심해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주거지의 구조적 특징을 비교적 잘 나타내주는 요소라고 판단되는 평면형태, 면적, 노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 주거지 속성표 (* : 추정)

연번	호수	평면형태			장단축비	규모(㎝)			면적(㎡)	노시설					주혈	비고
		원형	방형	부정형		長軸	短軸	深		무시설	부뚜막	온돌		위치		
												A형	B형			
1	Ⅰ다-1호	●			1.1:1	430	380	20	12.8		●*			서쪽벽	7	화재
2	Ⅰ다-2호			●	1.3:1	525	393	23	23	●				중앙부	2	
3	Ⅰ다-3호			●	2.0:1	710	360	40	20						1	
4	Ⅰ다-4호		●*		1.1:1	540	480	15	22		●			남쪽벽	3(외주)	
5	Ⅰ다-5호		●*		1:1	450	448	15	19	●				동쪽		
6	Ⅰ다-6호	●			1.1:1	500	450	15	17.7							
7	Ⅰ다-8호	●			1.1:1	520	460	15	18.8	●				남서쪽(2기)	3	
8	Ⅰ다-9호	●			1.1:1	480	435	20	16.4		●*			동쪽벽	10(벽주식)	배수구, 화재
9	Ⅰ다-10호	●			1.1:1	440	410	20	14.2	●				동쪽	5	화재
10	Ⅰ다-11호	●			1.3:1	458	355	30	12.8		●*			서쪽벽	8	화재
11	Ⅰ다-12호	●			1.1:1	420	400	20	13.2	●				서쪽벽	5	
12	Ⅰ다-15호	●			1.2:1	480	410		15.4						2	
13	Ⅰ다-16호	●			1.1:1	440	400		13.8							
14	Ⅰ다-17호	●			1.1:1	535	510	23	21.4		●*			서쪽벽	9(벽주식)	출입구
15	Ⅱ다-4호	●			1.1:1	570	530	5	23.7						3	
16	Ⅱ다-5호	●			1:1	452	450	10	16	●				서쪽		
17	Ⅱ다-6호	●			1.2:1	540	470	5	19.9		●*			서쪽벽	2	
18	다-고가수조-1호	●			1.1:1	450	400	5	14.1		●			서쪽벽		
19	Ⅰ나-5호	●			1.1:1	430	390	25	13.2		●			동쪽벽	5(4주식)	화재
20	Ⅱ나-7호	●			1:1	400	400	20	12.6							
21	Ⅱ가-1호	●			1:1*	750*		10	44.2			●		서→북동쪽		
22	Ⅱ가-7호	●			1:1	590		20	27.3			●		서→북동쪽	5(외주)	
23	Ⅱ가-11호	●			1:1*	520		10	21.2							화재
24	Ⅱ가-14호	●			1:1	495		8	19.2							
25	Ⅱ가-20호	●*				560	500		16*			●		서→북동쪽		
26	Ⅱ가-6호	●			1.2:1	580	500	40	22.8				●*			
27	Ⅰ나-6호		●		1.1:1	760	670		50.9				●*	북서→동쪽	14(벽주식)	화재
28	Ⅰ가-1호		●		1:1:1	565	557	20	31.5		●			서쪽		점토둑(토단시설)
29	Ⅰ가-4호		●*			510	(400)	25								
30	Ⅰ가-13호		●		1.1:1	440	410	9	13							
31	Ⅱ가-2호		●		1.1:1	560	500	20	22						5	화재
32	Ⅱ가-3호		●		1.23:1	530	430	10	22				●	서→북동쪽		
33	Ⅱ가-4호		●		1.1:1	560	520	10	29.1				●*	서→북동쪽	5	
34	Ⅱ가-5호		●		1.2:1	430	370	10	15.9							
35	Ⅱ가-8호		●		1.16:1	520	450	25	19							
36	Ⅱ가-9호				1.2:1*	700*	600	15	42*				●*			
37	Ⅱ가-13호		●*			440	410	15			●			서쪽	3	
38	Ⅱ가-15호		●		1.1:1	480	450	12	21.6				●*	동→남쪽	4	화재
39	Ⅱ가-18호		●			470	(360)	10								
40	Ⅱ나-1호		●		1.1:1	730	650		47.5							화재
41	Ⅱ나-2호		●		1.1:1	610	540	20	32.9							
42	Ⅱ나-3호		●		1.1:1	600	530		31.8				●*	서→북동쪽	1	화재
43	Ⅱ나-4호		●		1.1:1	600	550	10	33.0							화재
44	Ⅱ나-5호		●*			780	650		55							화재
45	Ⅱ나-6호		●		1:1	600	580	10	34.8				●*?			

1) 평면형태

평면형태는 주거의 상부구조와 주거체계 및 출자[6] 등을 반영하는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이다.

황성동유적에서 확인되는 평면형태는 크게 원형, 방형, 부정형이다. 부정형은 2동으로, 이 중 Ⅰ다-3호 주거지는 부정형한 평면형태와 요철이 심한 바닥 등의 양상을 미루어 볼 때 주거지가 아닌 다른 성격의 유구일 가능성도 있다. 대체로 다지구에서는 평면형태가 원형인 주거지가 확인되나, 가지구에서는 원형과 방형 주거지가 혼재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반면 나지구에서는 대체로 방형 주거지만 확인되고 있다. 특히 가 · 나지구에서 수혈주거의 지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정형하지 않거나 뚜렷하지 않는데[7], 대체로 방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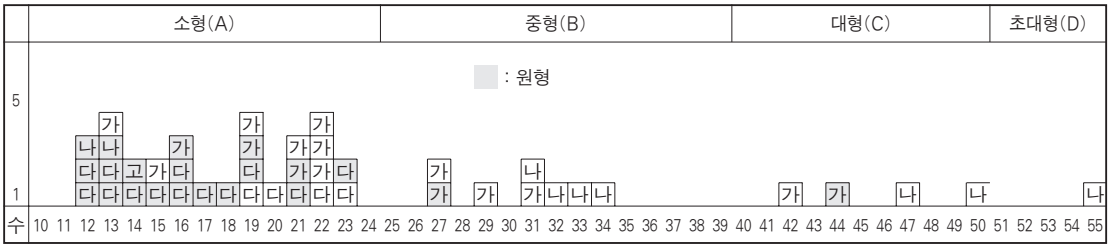
원형 주거지는 총 45동의 주거지 중 21동이 확인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장단축비가 1.1인 것이 대부분이다. 다지구 주거지 중에서 Ⅰ다-4호 · 5호 주거지는 말각방형을 띠고 있는데,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다지구 주거지들과 시기 차이가 크지 않거나 동시기에 형성된 주거지로 추정된다.

방형주거지는 주로 가지구와 나지구에서 확인되며, 장단축비가 1.3을 넘지 않는다. 방형주거지의 평면의 모서리처리는 직각형보다는 말각형에 가까운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 면적

면적은 주거구조의 변화 뿐만 아니라 거주 인원수의 산정을 통해 거주형태 및 취락내 인구수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 도면 1은 황성동유적 주거지의 면적을 도수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도면 1. 주거지 면적 도수분포

분석을 통해 황성동유적 주거지의 면적은 크게 24㎡ 미만인 소형, 24㎡이상~42㎡미만인 중형, 42㎡이상~51㎡미만인 대형, 51㎡이상인 초대형으로 분류된다.

---

6) 김도헌 · 김윤경, 2000,「청동기시대 수혈주거의 평면형태 검토」『과기고고연구』, 제12호, 아주대학교 박물관.

7) 실제로 삼한 · 삼국시대의 지상식 주거지를 발굴조사할 때에는 주거지 내부에 노시설이나 기둥 등의 시설물이 남아 있지 않거나, 지붕이나 벽체시설의 가구재가 화재 등으로 복잡하게 폐기되었을 시에는 주거지의 정확한 윤곽을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대체로 면적이 24㎡미만인 소형은 이른 시기의 다지구 원형주거지에서 확인되고, 중형과 대형은 가 · 나지구에서, 그리고 초대형은 이보다 시기가 늦은 나지구 주거지에서 나타난다.

또한 평면형태에 따라서 주거지 면적에 차이가 나는데, 도면 1을 보면 대체로 원형보다 방형 주거지의 면적이 넓다. 이는 원형 주거지보다는 방형 주거지가 주거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당시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 인원수의 변화 등이 상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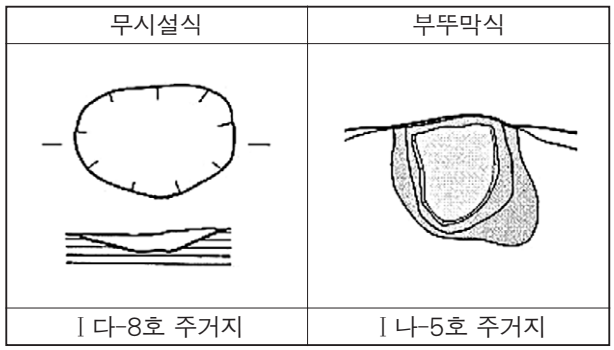
이러한 주거지의 면적 변화는 당시 주거 건축 기술의 변화인지, 거주형태 즉 세대분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당시 전반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노시설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노시설을 다음 도면 2 · 3과 같이 크게 무시설식, 부뚜막식, 온돌식으로 분류하였다.

무시설식은 특별한 시설 없이 주거지 바닥이나 얕은 수혈을 파고 설치한 형태로 주로 다지구의 원형 주거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는데, 대부분 벽쪽에 치우쳐 있다.

부뚜막식은 주거지의 벽체에 연결되어 취사용기를 걸 수 있는 구조이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Ⅰ가-1호, Ⅰ나-5호, Ⅰ다-4호, 다-고가수조-1호, Ⅱ가-13호 주거지에서 부뚜막의 잔존양상이 확인되었다. 부뚜막의 재료로는 점토, 돌, 점토+돌을 사용하여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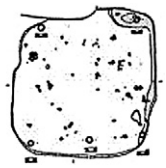
도면 2. 무시설식과 부뚜막식 노시설

보고에 의하면 다지구의 원형 주거지에서 확인된 爐址를 특별한 시설 없이 간단한 단야 공정을 했던 수혈식 爐址로 보고 있다.[8] 그러나 단야공정을 위한 爐址라고 하더라도 주거의 용도상 취사와 난방의 기능을 배제할 수 없다. 爐의 위치가 바닥 중앙이 아닌 벽가에 연접하거나 치우쳐 위치하고 있고, 주거지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 또한 취사와 관련된 장동옹과 시루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노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는 다지구 원형 주거지의 벽쪽에 밀착되어 있는 爐址를 소규모 단야공정과 취사 및 난방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부뚜막식 盧의 잔존양상[9]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다지구 Ⅱ다-4호 주거지와 Ⅰ다-16호 주거지 사이의 空地에서는 원형 주거지에서 확인된 爐의 구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뚜막식 野外盧[10]가 확인되었다. Ⅱ다-13호 화덕유구는 길

8) 계명대학교, 2000,「Ⅳ. 고찰」『경주황성동유적Ⅴ』.

9) 본고에서 사용하는 부뚜막식은 취사의 의미가 강한 용어로 황성동유적의 다지구 원형주거지에서 확인된 爐址와는 분명 기능과 구조 등에서 적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나 원형주거지에서 확인되는 爐址는 주거라는 기능, 취사용기, 爐의 위치, 구조 등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차이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크게 부뚜막식으로 분류하였다.

A형(弧狀)	B형(‘ㄱ’字形)
	
Ⅱ가-7호 주거지	Ⅱ가-4호 주거지

도면 3. 온돌식 노시설 유형분류

쭉한 냇돌 5개를 ‘ㄷ’자형으로 두른 형태로 내부에서 대형 옹기편과 와질토기 시루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Ⅰ다-4호·5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盧시설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추정된다.

온돌식은 취사와 난방을 위한 부뚜막과 연기가 나가는 고래, 그리고 굴뚝부가 결합된 구조이다. 황성동 주거지에서 이러한 형태의 노시설은 가·나지구의 원형과 방형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온돌의 재료는 대체로 황색이나 적갈색 점토를 사용하였다. 온돌의 형태는 도면 3과 같이 원형주거지와 방형주거지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원형주거지에서는 부뚜막과 고래 부분이 수혈 벽면을 따라 弧形(A형)으로, 방형 주거지에서는 ‘ㄱ’字形(B형)으로 나타난다. 한편 Ⅰ나-6호와 Ⅱ나-3호 주거지에서는 내부에 수혈 벽가에 인접하여 소토와 점토들이 일정폭으로 소결 면을 띠며 집중 분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점토벽체와 출입구 시설이라기보다는 부뚜막과 고래가 결합된 온돌시설의 잔존양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방형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온돌시설의 위치는 가지구와 나지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지구 주거지에서 온돌의 위치는 수혈 벽면과 밀착되어 있는 반면, 이보다 시기가 늦은 나지구 주거지에서는 대체적으로 벽면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시설의 위치는 대체로 부뚜막은 서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고래는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11]

Ⅲ. 단계 및 변천

이상을 통해서 황성동유적 주거지의 단계는 출토유물과 주거지의 내부구조로 볼 때 다음 〈표 3〉과 같이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이 장에서는 각 단계별 주거지의 특징과 변천양상을 살펴보고 아울러 주변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양상과 비교검토해 보겠다.

---

10) 부뚜막은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크게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고정식은 다시 주거지에 붙여서 설치한 실내형과 주거지 밖에 별도로 설치한 야외형으로 나눌 수 있다.
취락연구회, 2004,「Ⅲ. 수혈건물지의 각종 부속시설」『수혈건물지 조사방법론』 62쪽.

11) 공봉석(2008)은 평지와 구릉지에서 나타나는 유적의 구들 위치를 검토하였는데, 대체적으로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는 유적의 구들 위치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평지에 입지하고 있는 유적의 구들 위치는 비교적 정형성을 띠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즉 구들의 위치선정은 유적의 입지에 따른 기후와 지형적인 특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충적평지에 입지하고 있는 황성동유적은 부뚜막과 구들의 위치가 비교적 정형성을 띠는데, 이 역시 평지라는 기후 및 지형적인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봉석, 2008,「경남서부지역 삼국시대 수혈건물지의 구들연구」『한국고고학보』, 제56집(한국고고학회).

〈표 3〉 각 단계별 주거양상

단계	주거지 호수	구조 및 특징				출토유물
		평면형태	면적	노시설	기타	
1단계	Ⅰ다-1호~6호,8호~12호, 15~17호, Ⅱ다-4~6호	원형	소형	무시설식, 부뚜막식	무주식	삼각형점토대토기, 와질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단경호, 단· 주조철부, 무경식 삼각형철촉, 철괴 등
2단계	다-고가수조-1호, Ⅰ나-5·6호, Ⅱ나-7호, Ⅰ가-1호, 4호, 13호, Ⅱ가-1~9호, 11호, 13호, 15호, 18호, 20호	원형, 방형	소형, 중형, 대형	온돌식 (A· B形)	수혈 주거지의 지상화	와질 노형토기, 단경호, 장동옹, 시루, 연질 장동옹 등
3단계	Ⅱ나-1~6호	방형	중형, 대형, 초대형	온돌식 (B形)	지상식 주거지	와질 대부호, 양이부호, 장동옹, 연질옹, 도질 단경호 등

1단계에 속하는 주거지는 다지구에 확인된 17동의 주거지이다. 유물은 후기 무문토기(종말기 무문토기)의 잔존과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 파수부호 등의 전기 와질토기, 그리고 무경식 삼각형철촉과 단조·주조철부 등 다양한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 출토유물로 보아 연대는 기원후 1세기 중·후엽에서 2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유적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대체로 주거지간 중복 없이 중앙에 공지를 두고 분포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 말각방형, 부정형 등이 확인되는데, 주류는 원형이다. 내부시설로는 주거지 벽가에 치우쳐 소규모 단야 공방 및 취사 등과 관련된 무시설식과 부뚜막식 노시설이 확인되며, 면적은 24㎡ 미만의 소형이 주류를 이룬다. 기둥배치는 Ⅰ다-9호·11호·17호 주거지에서 수혈 벽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어 벽주식으로 추정되는 주혈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 기둥구멍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Ⅰ다-9호 주거지에서 탄화 목재의 양상으로 보아 기둥은 주거지 바닥 위에 바로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며, 불규칙적으로 확인되는 주혈들은 아마도 보조 기둥이나 다른 용도의 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단계 주거지 내부에서는 단조·주조철부, 삼각형 무경식 철촉 등의 다양한 철기류와 철기를 만드는 재료인 철괴와 구슬형철괴(Ⅰ다-9호·11호·17호 주거지), 그리고 철기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룻돌(Ⅰ다-11호·17호, Ⅱ다-4호·5호 주거지) 등이 확인되고 있어 주거지내에서 소규모 단야 공정[12]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성동유적의 1단계 주거지군과 동시기로 추정되는 유적으로는 울산지역의 사연리 늠네유적[13]과 명산리 314-1번지유적[14] 등이 있다. 두 유적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계이며 벽가에 밀착되거나 치우쳐 부뚜막과 온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주거지내 유물은 후기무문토기와 전기와질토기 및 연질토기 등이 공반되어 출토되었다.

2단계는 1단계 주거지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 속하

12) 김세기, 앞의 논문.
최경규, 앞의 논문.
13) 울산문화재연구원, 2003,『울산 사연리늠네유적』.
14)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09,『울주 명산리 314-1유적』.

는 주거지는 다-고가수조-1호 주거지, 가지구에서 확인된 17동의 주거지, Ⅰ나-5호[15] · 6호, Ⅱ나-7호 주거지가 있다. 주거지내 유물은 와질의 노형토기, 장동옹, 소옹, 시루, 연질의 장동옹, 단경호 등 다양한 기종들이 출토되고, 토기 기면에 격자, 평행타날 등의 정면기법이 나타난다. 연대는 기원후 2세기 후엽에서 3세기 중 · 후엽에 걸친 시기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유적의 북쪽과 동쪽으로 확산되어 분포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새롭게 방형 주거지가 출현하며, 원형 주거지와 혼재하는 양상이다. 면적은 새롭게 24~50㎡ 사이의 중형과 대형 주거지가 나타나는데, 방형 주거지가 원형 주거지보다 규모가 큰 편이다. 내부시설로는 주거지 벽가쪽으로 밀착되어 점토로 만든 온돌시설이 새롭게 확인된다. 원형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온돌시설은 부뚜막과 고래 부분이 벽면을 따라 弧形(A형)으로, 방형 주거지에서는 부뚜막과 고래부분이 'ㄱ'字形(B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둥배치는 무주식, 외주식, 벽주식이 확인되는데, 주류는 벽주식으로 추정되나 정형하지는 않다. 기둥 구멍(주혈)은 대체로 확인되지 않는데, 화재주거지의 양상으로 보았을 때 수혈을 파지 않고 바닥 위에 바로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혈 주거의 지상화로 벽체시설도 더욱 견고해지는데, 주거지 내부에서 가는 목탄과 잔 가지나 짚 등이 섞인 소토가 다량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벽체는 토벽의 구조로 추정된다.

3단계에 속하는 주거지는 Ⅱ나-1~6호 주거지가 있다. 유물은 노형토기가 점차 사라지고 새롭게 양이부호, 대부호, 도질 단경호, 연질 장동옹, 시루 등이 출토되며, 연대는 기원후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나지구의 주거지군은 유적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단계의 가지구 주거지군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가는 양상이다. 평면형태는 방형이 주류를 이루며, 면적은 중형과 대형이 주류를 이루고, 새롭게 50㎡ 이상의 초대형이 나타난다. 내부시설로는 점토로 만든 'ㄱ'자형 온돌시설(B형)이 확인되는데, 벽가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었다. 기둥 구멍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데, 나지구의 주거지 역시 기둥은 수혈을 파지 않고 바닥 위에 바로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도 내부에 목탄과 잔가지나 짚 등이 섞여 있는 소토나 점토들이 다량으로 폐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벽이 주거지 폐기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3단계 주거지는 주거지 내부에 기둥구멍이 확인되고 않고, 토벽으로 추정되는 소토와 점토들이 다량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수혈 주거지의 지상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황성동유적의 2 · 3단계의 주거지군과 동시기 유적으로는 양산 평산리유적, 경산 임당유적, 포항 호동유적 등이 있다.

양산 평산리유적[16]은 환호안에 원형과 방형주거지가 혼재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부뚜막이나 온돌시설로 추정되는 노시설과 벽주식의 기둥배치가 확인된다. 주거지 내부 유물은 후기 와질토기단계의 유물들과 장동옹, 시루, 발 등의 연질토기가 공반되어 출토되었다. 평산리유적은 주거지와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황성동 2단계의 주거지군과 비슷한 시기

15) 필자는 Ⅰ나지구에서 확인된 5호 주거지를 다지구의 원형주거지군 단계(1단계)와 동시기로 추정한 바 있다(김나영, 2007). 그러나 부뚜막 내부와 주변에서 출토된 격자 타날된 적갈색 연질 단경호와 경질토기편 등의 유물양상으로 보아, Ⅰ나-5호 주거지의 단계는 1단계 주거지보다 시기가 늦은 2단계로 추정된다.

16)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양산 평산리유적』.

에 형성된 취락으로 추정된다.

경산 임당유적[17]은 Ⅰ지구와 최근 조사된 임당동 건립부지내 유적에서 3~4세기대 걸쳐 형성된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3세기대에 조성된 주거지는 임당동 건립부지내 유적에서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원형과 방형의 주거지가 혼재하고 있으며, 원형 주거지 내부에 점토로 만든 온돌시설이 벽가에 밀착되어 설치되어 있다. 황성동유적 2단계의 주거 양상과 동시기로 추정된다. 반면 3세기 후엽에서 4세기대에 조성된 주거지들은 대부분 지상식구조이며 내부에 벽주식의 기둥배치와 주거지 안쪽에 점토로 만든 온돌시설이 확인된다. 황성동 3단계 주거양상과 동시기로 추정된다.

포항 호동유적[18]은 3~5세기에 걸쳐 형성된 취락지로 281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방형계를 띤다. 주거지의 구조 및 특징은 대부분 지상식 구조로 내부 주혈은 확인되지 않으며, 보고에 따르면 기둥은 수혈을 파지 않고 지면에 바로 세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거지 내부에는 벽체시설로 추정되는 잔가지나 짚 등이 혼입된 소토 및 점토와 탄화재들이 다량으로 폐기되어 있는데, 토벽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내부 시설로는 주거지 안쪽에 점토로 만든 온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황성동 3단계 주거지 양상과 유사하다.

이상과 같이 황성동유적의 주거지를 크게 3단계로 나누고 변천양상을 살펴보고, 주변 취락유적과 황성동 유적의 각 단계별 주거지의 변화양상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최근 경주황성동집단의 공간구성을 연구한 최경규(2006)[19]는 유적내 분묘, 제철, 주거지의 공간구성과 성격을 검토하였는데, 이 중 주거지군을 크게 A와 B단계로 설정하였다. 본고는 최경규의 황성동유적 주거지 단계와 큰 차이는 없으나, 다만 B단계를 주거지와 출토유물의 양상을 토대로 다시 2단계로 세분하였다.

Ⅳ. 주거양상을 통해서 본 황성동 취락의 성격

취락(마을)의 기능과 성격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유적의 입지, 유구의 분포와 배치, 취락내 기반시설, 출토유물 등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취락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의 예가 많지 않아 취락의 기능과 성격을 유추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나, 황성동유적에서는 주거지 뿐만 아니라 분묘와 제철유구, 그리고 제철과 관련된 기타 부속유구(수혈, 구상유구, 부석유구, 주혈군) 등 취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이러한 성격을 달리하는 각 유구들은 시기에 따라 분포와 공간배치에 있어서 일정

17) 장용석, 2001,「경산 임당유적의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용석, 2000,「경산 임당 삼한시대 생활유적 발굴조사」『삼한의 마을과 무덤』, 제9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영남고고학회).
영남문화재연구원, 2008,『경산 임당동 원룸건립부지내 유적』, 지도위원회자료집.
1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포항 호동유적 Ⅰ, Ⅲ~Ⅷ』.
19) 최경규, 앞의 논문.

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설정한 각 단계별 주거양상을 중심으로 취락 내 구성요소의 분포와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 황성동 취락의 성격을 검토해 보겠다.

먼저 황성동 취락은 경주분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북천과 형산강이 합류하는 곳에 형성된 해발 30m 내외의 강변 충적대지에 입지하고 있다. 지형은 대체로 평탄하나 남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그리고 동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약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충적 대지상에 주거지와 분묘, 제철, 제철과 관련된 부속 유구들이 입지하고 있다.

1단계의 원형 주거지군은 중앙에 많은 공지를 두고 대체로 주거지 간 중복 없이 배치되어 있는 양상이다. 중앙의 공지는 공동체의 공공 집회나 의례, 공동 생산물 분배, 공동 취사 등이 이루어진 광장으로 추정된다. 一例로 Ⅱ다-4호 주거지와 Ⅰ다-6호 주거지 사이의 空地에서는 부뚜막식 野外爐가 확인되었는데, 아마도 공동의 취사가 이루어졌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내부에서는 철기를 만드는 재료인 철괴와 구슬형철괴, 그리고 철기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룻돌, 그리고 취사와 관련된 유물 등이 확인되고 있어, 주거지 내에서 생산 활동과 주거의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거지 간에 규모나 내부 구조, 그리고 유물간 격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마을 공동체적인 생산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세기 1994, 권오영 1996). 이 단계의 분묘는 목관묘, 옹관묘, 목관계목관묘가 확인되며, 분묘는 주로 강변로유적[20] 일대와 황성동 545번지유적 일대[21]에 분포하고 있다. 분묘역은 주거 및 생산역과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양상을 보인다.

2단계의 주거지군은 다지구 원형주거지군에서 점차 북쪽과 동쪽으로 확산되어 이동해 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방형주거지가 새롭게 출현하여 원형주거지와 혼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1단계 원형 주거지군에서는 주거지 내부에서 철생산과 관련된 소규모 단야공방의 흔적이 확인되어 주거내에 생산의 기능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단계 주거지군에서는 철생산과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주거지 내부에서 난방 및 취사와 관련된 온돌시설과 취사관련 출토유물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아마도 이 단계 주거지들은 생산시설이 주거지 외부로 분리됨에 따라 전용주거로써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최경규 2006). 제철관련 생산시설은 주거지 내에서 분리되어 크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1단계 주거지군에서는 중앙의 공지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배치되어 있으나, 2단계 주거지군은 제철 생산역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배치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2단계 주거지군의 북서편 524-9번지[22] 일대에서는 제철 관련 용해로, 소성유구 외에 주변 부속시설로 추정되는 탄치장, 폐기장, 구상유구, 부석유구, 수혈유구, 주혈군이 확인되어 철생산 구역내의 다양한 작업시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단계의 분묘역시 큰 변화를 보이는데, 다량의 유물이 부장된 (장)방형의 목곽묘가 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분묘역은 주거역에서 북동쪽의 634-1번지와 583-2번지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3단계 주거지군은 2단계의 가지구 주거지군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가는 양상이나, 황성동유적

2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경주 황성동유적Ⅰ-강변로 개설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1) 국립경주박물관, 2002,『경주황성동고분군Ⅱ-513 · 545번지-』.
2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경주 황성동 유적Ⅴ』.

에서 이 단계에 해당하는 주거지의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아 정확한 분포양상은 알 수 없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만 확인되며, 수혈주거의 지상화가 두드러지는 단계이다. 생산역은 유적의 동쪽편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주로 537-2번지 일대[23]에 분포하고 있다. 분묘는 주거지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주로 54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세장방형 목곽묘(경주식목곽묘) 단계와 同 시기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각 단계별 주거양상을 중심으로 황성동 취락을 구성하고 있는 분묘와 제철유구의 분포와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취락의 기능과 성격에 관련하여 살펴볼 문제는 취락의 설치나 조성시 의도성의 여부일 것이다. 취락은 성격과 기능에 따라 크게 일반취락과 특수기능취락(목적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취락은 인간의 거주가 중심이 되는 자연발생적인 취락을 말하고(이성주, 2009), 특수기능취락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가령 중심취락의 지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말한다(유병록 2009). 여기에서 특수기능취락은 기능에 따라 교역취락, 방어취락, 생산취락, 의례취락, 교통취락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황성동 취락을 이루고 있는 내부 구성요소는 주거지, 분묘, 제철, 제철관련 기타 부속시설 등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제철 관련 유구인데, 분묘 공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역들이 제철유구가 중심이 되어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황성동 취락에서는 각 시기에 따라 이 제철 관련 생산역이 더욱 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황성동유적 취락의 성격은 취락의 내부 구성요소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제철 관련 유구의 양상으로 보아 철 생산과 관련된 특수기능취락으로 판단되며, 이곳 취락 내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철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집단 거주지로 추정된다.

Ⅴ.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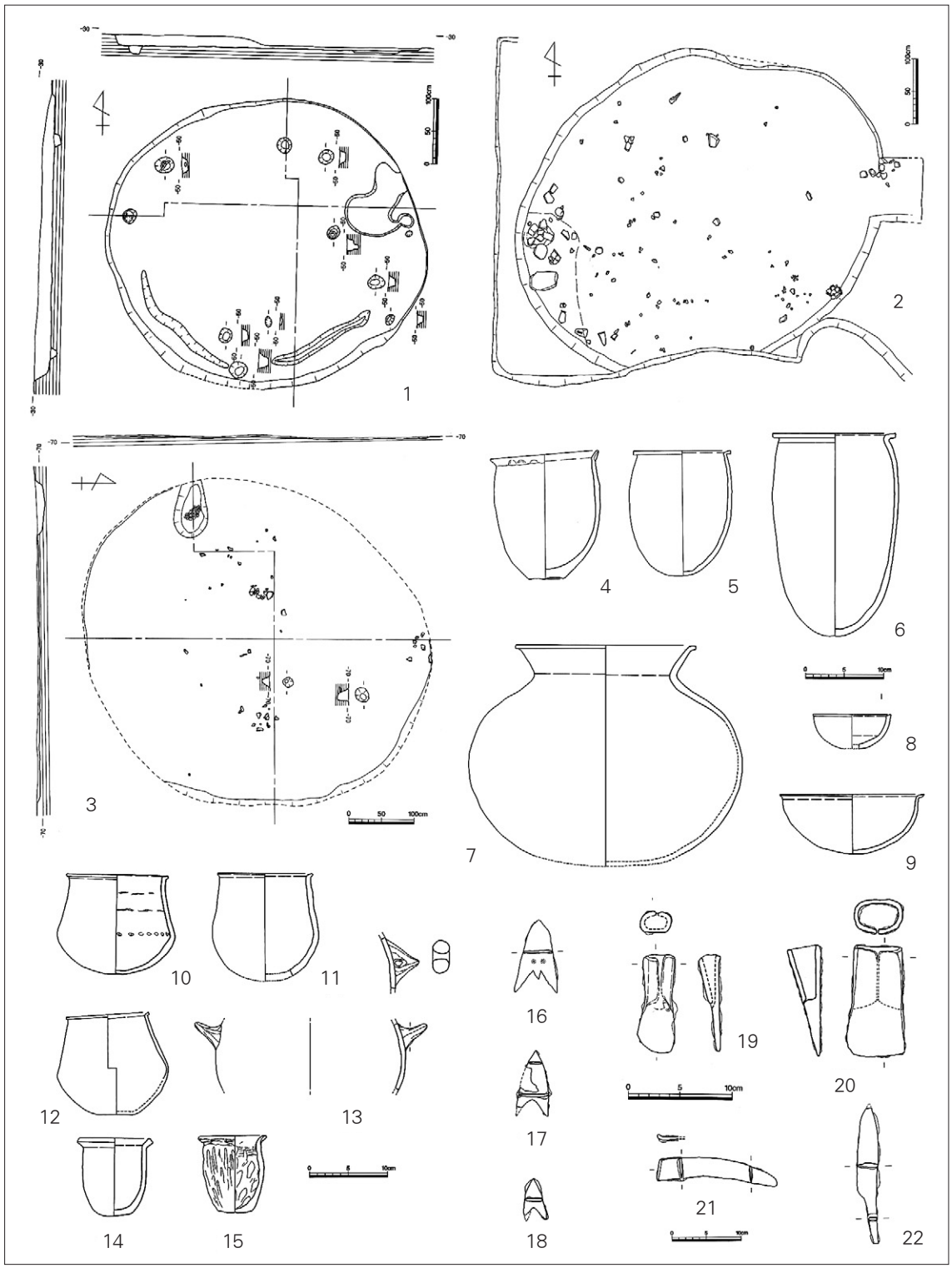
이상으로 황성동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출토유물과 구조를 분석하여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아울러 취락을 구성하고 있는 분묘와 제철유구와의 분포 및 변화양상을 검토하여 황성동 취락의 성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본고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황성동유적의 취락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분묘 및 제철유구 등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이번 조사연구회에서 보다 구체화 될 황성동유적의 분묘와 제철 그리고 출토유물의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아 보완해 나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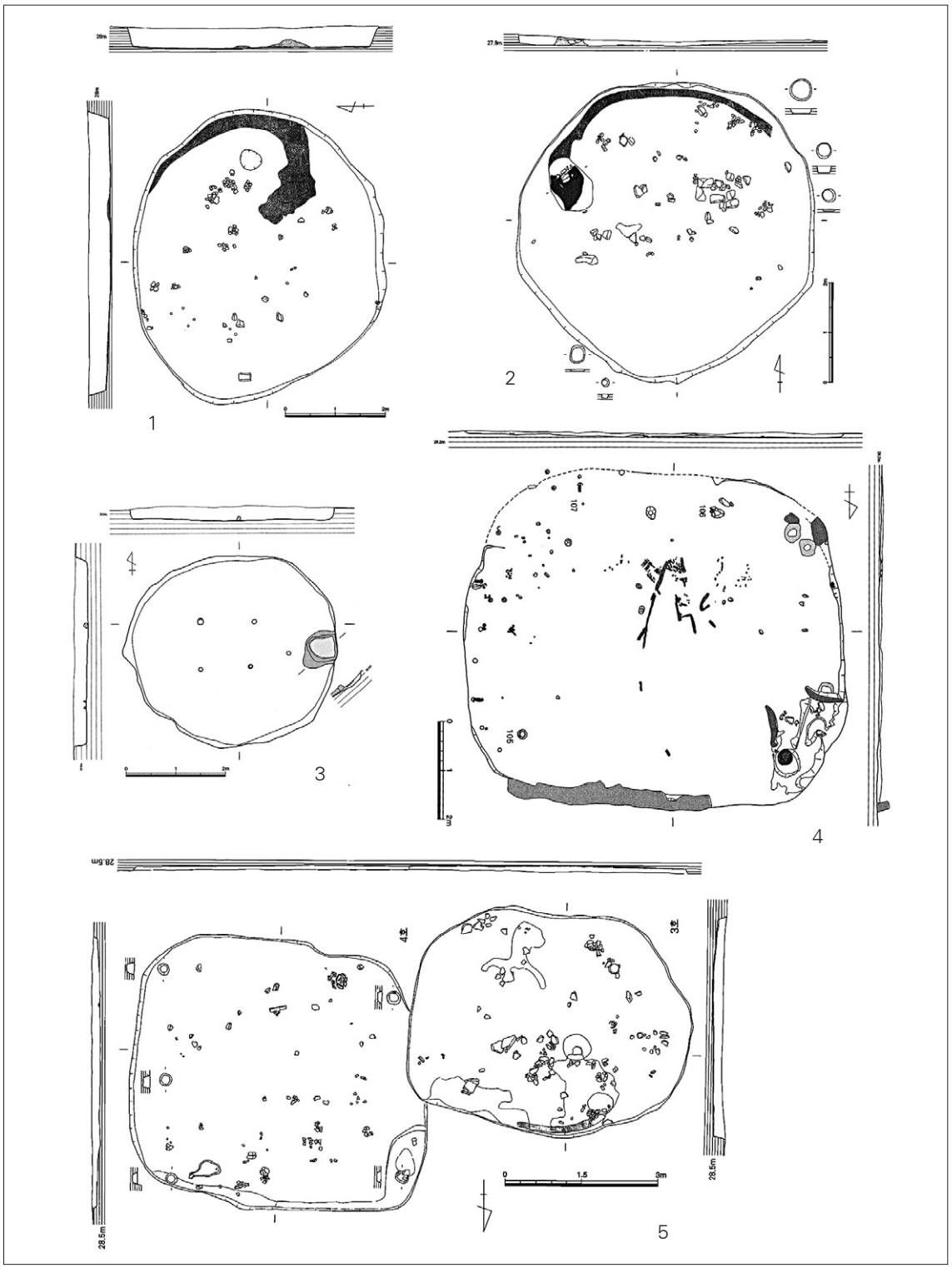
---

2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경주시 황성동 537-2 임대아파트 신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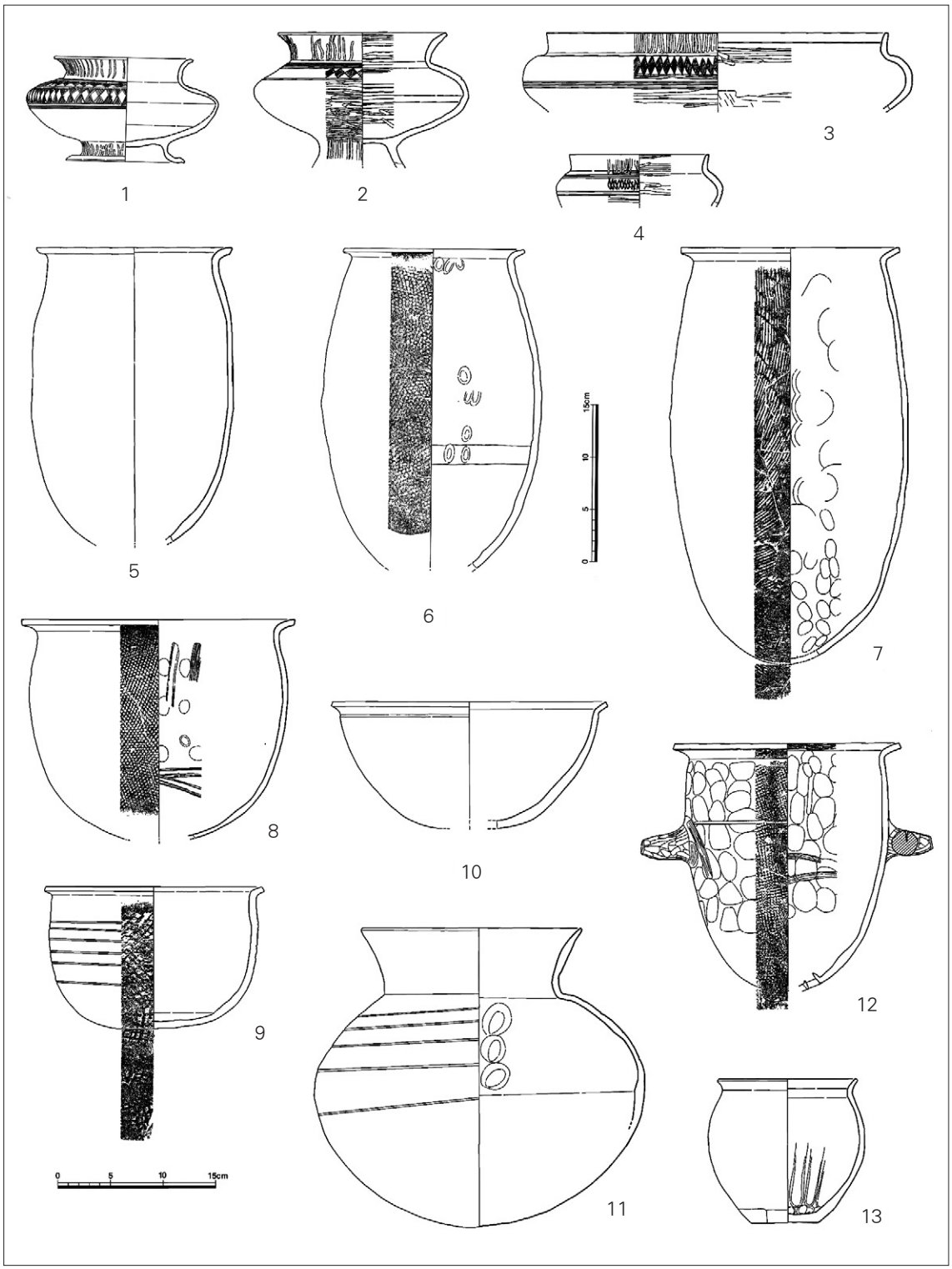
도면 4. 각 단계별 주거지 분포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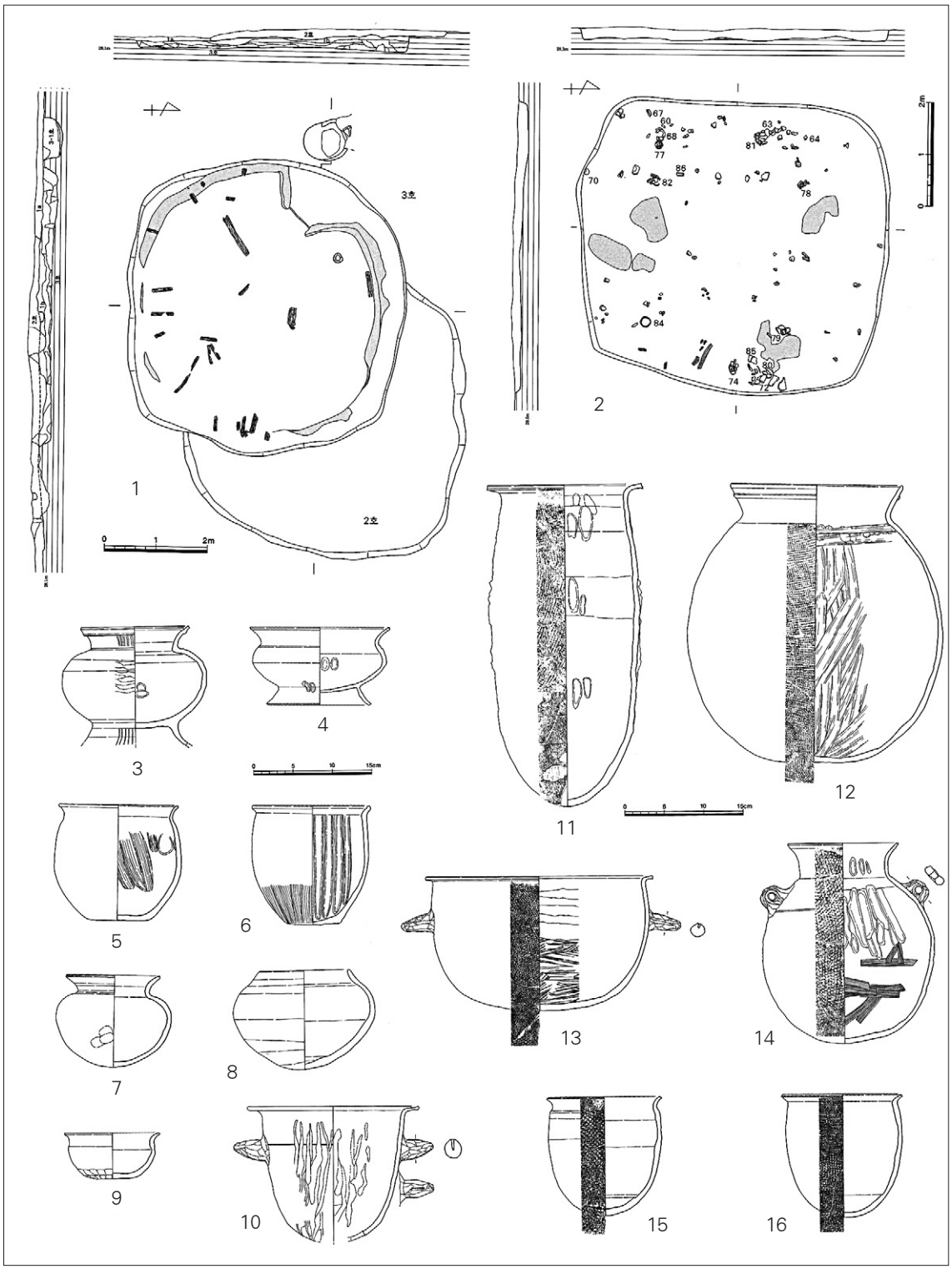
도면 5. 황성동 1단계 주거지와 출토유물(1 · 13 · 16 · 19 · 22: Ⅰ다-9호 주거지, 2 · 4 · 5 · 8 · 17 : Ⅰ다-17호 주거지, 3 : Ⅱ다-6호 주거지, 6 · 11 · 18 : Ⅰ다-12호 주거지, 7 : Ⅰ다-2호주거지, 9 · 12 : Ⅱ다-5호 주거지, 10 · 14 · 21 : Ⅰ다-1호 주거지, 15 · 20 : Ⅰ다-11호 주거지)



도면 6. 황성동 2단계 주거지(1 : Ⅱ가-6호 주거지, 2 : Ⅱ가-7호 주거지, 3 : Ⅰ나-5호 주거지, 4 : Ⅰ나-6호 주거지, 5 : Ⅱ가-3 · 4호 주거지)



도면 7. 황성동 2단계 주거지 출토유물(1 · 6 : Ⅰ나-6호 주거지, 2 · 3 · 12 : Ⅱ가-8호 주거지, 4 · 13 : Ⅱ가-20호 주거지, 5 : Ⅱ가-7호 주거지, 7 : Ⅱ가-5호주거지, 8 · 9 : Ⅱ가-3 · 4호 주거지, 10 : Ⅰ가-1호주거지, 11 : Ⅰ가-4호 주거지)



도면 8. 황성동 3단계 주거지와 출토유물(1 · 15 · 16 : Ⅱ나-2 · 3호 주거지, 2 · 3 · 5 · 7 · 12 : Ⅱ나-4호주거지, 4 · 6 · 9 : Ⅱ나-1호 주거지, 8 · 10 · 11 · 13 · 14 : Ⅱ나-2호 주거지)

토론

「경주 황성동유적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토론문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영남지역의 원삼국시대 취락유적 중 대부분이 발굴조사되어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 황성동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황성동유적은 잘 알려진 것처럼, 1~3세기대의 복합유적으로 주거, 분묘, 생산유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조영된 특수취락유적이다. 따라서 황성동유적의 성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취락을 구성하고 있는 상기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본 발표회의 취지도 개별 요소에 대한 정치한 분석과 접근을 통해 황성동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신라가 고대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사회상을 유추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삼국시대의 취락유적은 청동기시대와 비교해 볼 때, 전문적인 생산 · 방어 · 교역 등 다양한 특수기능유적으로의 분화 · 발달로 설명될 수 있는데, 황성동유적은 철을 생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제철장인들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1] 결과적으로 주거지의 성격 및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철공정과 연계해서 검토해야만 할 것이며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가 주거지의 구조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원삼국시대 주거유적의 연구진행은 주거의 형태와 주거 내의 시설물을 분석하여 이를 형식분류 하는 것을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삼고 있으며, 지역간 비교를 통해 당시 주거지의 변천과 지역성을 논하고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연구의 선상에서 유적을 분석하여 황성동 취락의 성격에 접근하고 있는데 논지 전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황성동유적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검토하고 분묘 출토품과 대비해 3단계로 단계설정한 후, 주거지의 구조적 특징을 평면형태, 면적, 노시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황성동유적의 주거지는 본문의 〈표 3〉과 같이 3단계로 변화된다고 하고, 2 · 3단계의 주거지군과 동시기 유적인 양산 평산리, 경산 임당동, 포항 호동유적과 비교 · 검토하여 황성동 주거지군의 변화양상이 당시 영남지역 주거지의 변화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 황성동 취락의 성격을 1단계 : 생산활동과 주거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주거형태, 2단계 : 전용주거형태, 3단계 : 전용주거형태(?)[2]로 파악하고, 황성동유적 취락의 성격을 철생산과 관련된 특수기능취락으로 철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집단 거주지로 추정하였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는 바이며, 발표문을 읽으면서 의문나는 몇 가지에

1) 李盛周, 2009,「原三國 · 三國時代 嶺南地域 住居와 聚落硏究의 課題와 方法」『嶺南地方 原三國 · 三國時代 住居와 聚落』1, 第18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토론자도 황성동유적을 검토하면서 의문을 가졌음에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다. 황성동유적의 원삼국시대 주거지간의 중복양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뚜렷하게 주거역이 분묘역과 구분되어 조영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연구자간의 편년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기원전 1세기 후반에서 기원후 3세기까지의 약 300년간 조영된 취락으로 볼 수 있으며, 발표자의 '3단계' 단계설정에 의하면, 각 단계별로 100년 정도는 주거(집)로서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황성동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수는 45동 정도에 불과하며, 면적 또한 24㎡의 소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황성동유적에서 조사된 분묘유적이 1단계와 대응되는 목관묘(목관계목곽묘)가 30여기, 2~3단계와 대응되는 목곽묘가 400여기[3]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주거지의 수는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본문에서 비교한 포항 호동유적의 경우는 3~5세기에 해당되는 주거지 281기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양상과 비교했을 때, 과연 45동의 주거지가 300년간의 제철장인의 상시주거로서 충족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두 번째는 황성동주거지의 면적을 크게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구분하였다. 도면 1의 도수분포도를 보면, 초대형주거지는 나지구에 1기만 존재하며, 대형의 가장 큰 주거지와는 4㎡ 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통 주거지의 1인당 평균소요 면적을 5㎡(1.6평)로 보는 견해를 따른다면 초대형과 대형주거지의 구분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발표자는 전고[4]에서 영남지역 주거지의 면적이 50㎡ 이상되는 주거지를 초대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영남지역 주거지에 있어서 초대형주거지가 가지는 기능적 혹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보완설명을 듣고 싶다.

세 번째는 황성동유적의 주거지가 단계별로 이동해 가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1단계 주거역에서 2단계 주거역으로 이동할 시에 1단계 주거지는 폐기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단야공방으로서의 기능으로 계속 영위되는 것인지? 2단계에 원형과 방형주거지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가 단계내의 시기적인 차이인지 기능적인 차이인지를 영남지역 주거지와의 비교를 통한 발표자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

네 번째는 최근 황성동유적과 동일한 특수기능취락으로 볼 수 있는 김해지역 최초의 제철유적인 여래리유적[5]과 국내 최초의 삼국시대 산성 축조 채석장유적인 진해 자은3지구 유적[6]에서 고

2) 본문에서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2단계의 주거형태와 유사한 점과 수혈주거의 지상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때, 발표자는 전용주거형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경주 황성동 590번지에서 확인된 목곽묘를 포함한 수이다.
4) 金羅英, 2007,「嶺南地域 三韓時代 住居址의 變遷과 地域性」,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김해 진영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내 문화재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및 현장설명회 자료집.

상건물이 다수 조사되었다. 특히 여래리유적은 황성동유적과 동일한 제철유적으로 고상건물지, 지상건물지와 다양한 수혈, 목탄요, 도로 등 생활유구 및 생산운반시설까지 조사되어 매우 주목할 만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황성동유적에서는 고상건물로 추정되는 Ⅰ-다-7호 주거지를 제외하면 고상건물은 확인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다양한 제철공정을 보이며, 장기간 조영된 황성동유적에서 유독 수혈주거지만 축조된 이유와 원삼국~삼국시대의 취락유적에서 주로 조영된 고상건물과 수혈주거의 기능적 차이에 대해 발표자가 갖고 계신 견해를 듣고 싶다.

토론자의 주거지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지로 두서없는 질문이 되고 말았다. 금번 토론이 앞으로의 학문적 증진의 계기로 삼고자 하며, 이상으로 발표문에 대한 토론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한다.

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진해 자은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유적 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집. 진해 자은동유적에서 삼국시대의 구산성(신라성)의 축조와 관련된 채석장과 당시 동원된 부역인들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상건물이 30동 조사되었다. 시기는 대략 6세기로 편년되며, 고상건물은 4개의 군을 이루며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채석작업과 관련된 도구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군(A)과 중앙에 공지를 두고 주거용의 고상건물이 원형으로 배치된 군(B), 등고선과 나란하게 열상 배치된 주거용의 고상건물군(C), A · B · C군과 좀 떨어져 창고와 주거용의 고상건물이 복합설치된 군(D)으로 이루어져 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하에 공간배치가 이루어진 특수취락으로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에 있어 좋은 자료라고 판단된다.

경주 황성동유적 製鐵遺構의 검토

김권일(신라문화유산조사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제철로의 유형분석
Ⅲ. 제철유구의 공간분석
Ⅳ. 제철유구의 편년
Ⅴ. 황성동 제철유적의 생산시스템
Ⅵ. 맺음말

Ⅰ. 머리말

본 발표는 최근 증가된 경주 황성동유적 製鐵遺構[1]의 고고학적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초기신라 제철문화의 발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철과 철기의 확보는 여러 읍락들을 하나로 묶어 「國」을 형성시키고, 또 그 공간적 경계를 결정짓는 강력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權五榮 1996), 초기국가의 정치 · 경제 · 군사적 문화의 이해에 있어 철기생산기술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주 황성동유적에 대한 연구는 발굴조사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제철유구의 성격과 편년에 있어서는 아직 일치된 견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제철유구 자체의 성격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② 공반된 주거 및 분묘유적과의 관련성 검토가 정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③ 제철관련 유물의 금속학적 분석연구가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④ 이러한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황성동유적에서는 단야주거지를 비롯하여 단야로, 용해로, 정련(단야)로[2], 초강로 등 다양한 제철로가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부속유구와 관련유물이 확인되었다. 이는 제철공정의 복합성 및 다변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채광에서 단조 · 주조에 이르는 유기적인 생산시스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각 유형별 제철로는 일정한 공간적 분포영역을

1) 제철유적이란 일반적으로 철의 생산 및 철기의 제작과 관련된 유적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製鐵과 製鍊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 제철은 철광석이나 사철을 제련하여 鐵塊를 얻는 공정을 말하는 좁은 의미와, 제련에서 단야 · 용해까지의 全 工程을 통칭하는 넓은 의미의 2가지 개념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前者를 제련의 용어로 칭하여 後者의 제철과 구분하기도 하고(孫明助 1996 ; 尹鍾均 1998 ; 金權一 2003), 소재의 생산과 철기의 제조를 아우르는 모든 작업을 제련으로 보고, 괴련철 · 선철 등 철소재 자체를 생산하는 1차적 공정을 제철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이남규 2008). 본고에서는 채광에서부터 용해 · 단야에 이르는 전 공정을 제철로 보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며, 따라서 철의 생산 및 철기의 제작과 관련된 모든 유구를 통칭하여 製鐵遺構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가지고 있으며, 특히 원삼국시대 분묘와 취락의 조사성과는 제철유구의 편년에 있어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경주 황성동 제철로의 유형을 분석하여 그 성격과 편년 및 황성동유적의 종합적인 철 및 철기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제철로의 유형분석

황성동유적에서는 다수의 제철관련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그중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속성의 일부라도 알 수 있는 제철로는 약 47기이다. 또한 단야의 흔적이 인정되는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12동 정도이고, 그 외에 수기의 거푸집 · 철재 · 송풍관 폐기장, 저탄장, 주혈건물지, 구상유구, 소성유구 등의 관련유구가 있다. 철의 생산과 철기의 제조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은 제철로이며, 다른 유구들은 대부분 노의 부속 혹은 파생시설이기 때문에 유적의 성격파악을 위한 본 발표에서는 製鐵爐를 유형분석의 1차적 대상으로 하고, 그 외 부속유구는 노의 유형분석에 필요한 세부항목으로 이용하였다.

채광에서 단야 · 용해에 이르는 철기의 제조공정 중 고온 가열을 위해 爐가 필요한 공정으로는 ① 원광의 焙燒를 위한 배소로, ② 배소된 원광의 제련을 위한 제련로, ③ 제련된 철괴의 정제(1차 성형)를 위한 정련(단야)로, ④ 단타와 성형을 위한 단야로, ⑤ 주조를 위한 용해로, ⑥ 소재의 鋼化를 위한 초강로의 6가지가 있으며, 이를 구분짓는 기준은 다음의 5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3].

〈표 1〉 황성동 제철유구의 조사현황과 관련시설

연번	유적명		내용		출전
			주요 유구	부속 · 부대시설	
1	907-2 유적	가 지구	주거지, 용해로, 폐기장, 단야로	(노벽 · 철재)폐기장 2	국립경주박물관, 2000
		나 지구	주거지, 단야로, 가마, 저탄장	저탄장 1, 주혈건물지 1, 가마 2	경북대 박물관, 2000
		다 지구	주거지, 저탄장, 폐기장, 단야로?	저탄장 1, (용범)폐기장 1	계명대 박물관, 2000
		고가수조	정련로	작업장 1	계명대 박물관, 2000
2	524-9유적		용해로	주혈건물지 1	국립경주박물관, 1999
3	537-2유적		용해로, 정련(단야)로, 폐기장	(거푸집, 송풍관, 철재)폐기장 6, 작업장 6, 주혈건물지 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4	535-8유적		용해로, 수혈유구	수혈 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5	강변로유적		용해로, 초강로, 폐기장	(거푸집, 철괴)폐기장 2, 작업장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6	886-1유적		용해로, 소성 · 수혈 · 구상유구, 저탄장	저탄장(수혈 2호) 1, 구상유구 3, 소성유구 8, 수혈 1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7	887-8유적		용해로	-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1. 노의 구조

제철로의 구조는 평면형태와 규모, 축조방법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평면형태

원　형 : 황성동유적의 제철로는 모두 원형

타원형 : 7기 가운데 Ⅰ-가-5호[4]를 제외하고는 최초 원형→후 · 개축 및 조업 후 파쇄 · 보수 등에 의해 평면형태가 변형

-황성동 제철로는 평면형태에 의한 분류 불가능[5]

＊규　모[6] : Ⅰ군 - 30～50㎝ 사이에 집중

Ⅱ군 - 50～70㎝ 사이에 집중

Ⅲ군 - 50～80㎝ 사이

Ⅳ군 - 40～110㎝ 사이

小		中			大			
	가-1-1							Ⅰ군
	Ⅰ-나-16							
Ⅰ-나15	Ⅱ-가-E			Ⅰ-나-16				
Ⅱ-가-F	Ⅱ-가-A	Ⅱ-가-B		Ⅱ-가-D				
		강변로-4		강변로-9				Ⅱ군
		강변로-2		강변로-7				
		강변로-8	강변로-3	Ⅰ-가-5				
		537-2-7						Ⅲ군
		537-2-4	고가수조					
537-2-6		537-2-2	537-2-2	537-2-5				
			Ⅰ-가-16					Ⅳ군
		886-1-2	Ⅰ-가-9					
		Ⅰ-가-15	886-1-2	886-1-3				
	537-2-12	Ⅰ-가-7	886-1-2	537-2-10		524-9	537-2-3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그림 1. 황성동유적 제철로의 外徑에 따른 도수분포[7]

---

2) 정련은 제련공정에서 생성된 철괴를 재차 정제하는 순수정련과 정제과정에서 단타를 통해 불순물을 타출시키고 일정한 규격으로 성형하는 정련단야의 2개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선철, 후자는 연철 정련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제련과정에서 製銑을 생산할 정도의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더 이상 선철의 정련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성동유적의 정련로는 높은 노내온도를 의미하는 노벽철재와 단조박편, 소철괴 등 단야유물이 검출되는 작업장이 공반된다. 이러한 특징은 황성동유적 단야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정련의 기능에 더 비중을 두어 정련(단야)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3) 본 발표자는 최근 4가지의 제철로 유형분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金權一 2009), 본고는 그 내용을 소략하여 제시하고 여기에다 부속유구의 성격을 小考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제철로의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의 분류방법은 순전히 필자의 자의적인 것임을 밝혀둔다.

4) Ⅰ-가-5호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보고자는 이를 기 조사된 수혈식 용해로와 같은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으며(啓明大學校博物館 2000, 203쪽), 손명조 선생은 고가수조 노와 함께 용해로에서 생성된 이물질이 많은 주철이나 파손품을 다시 용해하여 단조용 소제를 생산하기 위한 재용해로로 추정한 바 있다(孫明助 1996, 27쪽).

* 수혈의 굴착양상 : 지상식(A), 반지하식(B), 반지상식(C), 수혈식(D)→이를 기준으로 한 황성동유적 제철로의 분류→〈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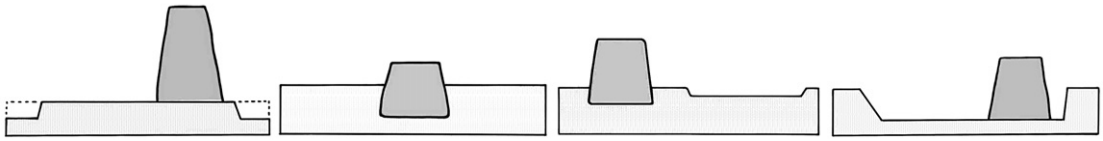


그림 2. 노의 구축방법에 따른 분류 모식도

〈표 2〉 노의 구축방법에 따른 제철로의 분류

분 류	해당 유구	비 고
지상식	Ⅰ-나-15 · 16 · 17호, Ⅱ-가-A · B · C · D · E · F	대부분 삭평
반지하식	Ⅰ-가-5호, 강변로 2 · 3 · 4 · 6 · 7 · 8 · 9호	잔존 양호
반지상식	537-2-2 · 4 · 5 · 6 · 7 · 8호, 고가수조 노	단타작업장
수혈식	Ⅰ-가-3 · 7 · 8 · 9 · 10 · 12 · 15 · 16호, 강변로 5호, 886-1-1 · 2 · 3호, 537-2-1 · 3 · 9 · 10 · 11 · 12 · 13호, 524-9 용해로, 535-8 용해로, 887-8-1 · 2호	단야공방지 용해로

2. 철재의 용착양상

제철로는 공정에 따라 焙燒爐, 製鍊爐, 鎔解爐, 精鍊(鍛冶)爐, 鍛冶爐, 製鋼爐 등이 상정될 수 있으며, 온도 차이 등 각기 다른 노내 환경으로 인해 조업시 벽체 안쪽에는 다양한 형태의 철재가 부착된다. 따라서 황성동유적 제철로 노벽 내면에 용착되는 철재의 양상은 노의 성격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1형 : 철성분이 많은 적갈색 철재가 노 하부에만 소량 부착(정제된 소재의 사용에 의해 불순물 함량이 매우 적고 조업시 노내 온도가 낮을 경우)
* 2형 : 철성분이 없는 청회색 환원염소성 철재가 고르게 용착(정제된 소재의 불순물이 표면으로 용출되어 노벽에 부착)
* 3형 : 철성분이 많은 적갈색 산화염소성의 철재가 노벽에 凹凸狀으로 부착(소재에 어느 정도의 불순물이 포함)

---

5) 황성동 제철로에서는 분류기준으로서 큰 의미가 없으나 동시대의 진천 석장리유적과 고려~조선시대 제철로에서는 원형로와 함께 장방형로가 다수 확인되기 때문에, 이 경우 평면형태가 제철로의 분류기준이 될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6) 규모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어 필자가 상정한 임의의 유형을 Ⅰ~Ⅳ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하였다.

7) 노의 규모는 벽체가 남아 있어 지름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타원형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조업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최초 원형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형로의 경우를 상정하여 단축의 길이를 대입하였다. 또한 보고문에 따라 노의 외경이나 내경만을 기술하는 등 계측치가 일치하지 않지만 대부분 외경을 기준으로 기술되어 있고, 노의 내벽을 점토로 덧발라 보수하면 내경이 좁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경의 계측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차후 발굴조사시 노의 계측에 있어서 일치된 방법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노의 외경과 벽체의 두께를 계측 ·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4형 : 철성분이 없는 옅은 청회색의 환원염소성 철재가 凹凸面 없이 고르게 용착

3. 공반유물의 성격

철 및 철기생산의 각 공정에서 출토될 수 있는 유물의 개략은 〈표 3〉에 나타냈으며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8].

* 제련 : 고대의 노천에서 채광된 광석은 철 함유량이 30% 내외에 불과(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1998) → 나머지 불순물들은 모두 철재로 분리 → 많은 양의 유출재는 제련유적의 가장 큰 특징, 제련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사철의 출토 역시 제련의 중요한 증거

* 정련(단야) : 椀形滓의 검출은 확연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유리질철재나 철괴형철재도 출토→철성분이 많은 철괴 · 철재, 단조박편 등 출토

* 단야 : 단타를 통한 성형과 열처리, 날내기가 주요 작업 → 단조박편 · 입상재 등의 단야재와, (소)철괴 · 철기편 등 성형 부산물, 모루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타격흔 · 피열흔의 석재 출토

* 용해 : 성형과 용선의 주입을 위한 거푸집과 도가니 필요 → 도가니가 출토되지 않을 경우 황성동유적의 경우와 같이 出湯具를 이용해 용탕 주입[9] → 불순물의 분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造滓劑로서 석회석 · 패각류 · 동물뼈 등이 검출

* 초강 : 탈탄제로서 사용된 철광석(분말), 사철이 검출될 수 있으며, 성형과 압출을 위한 단타작업이 공반될 수 있으므로 모루, 단조박편, 입상재, 臺石 등 출토

〈표 3〉 공정에 따른 관련유물

공정	관련 유물
제련	다량의 유출재, 철괴형철재, 대구경송풍관, 철광석, 사철, 철괴, 단야구
정련	椀形滓, 대구경송풍관, 단야구
단야	소구경송풍관, 단조박편, 입상재, 모루 · 망치 · 집게 등의 단야구
용해	유리질철재, 대구경송풍관, 거푸집, 도가니, 出湯具, 석회석 · 패각 · 동물뼈(造滓劑), 단야구
제강	소량의 유리질철재, 대구경송풍관, 철광석 분말 · 사철(탈탄제), 단조박편, 단야구

황성동유적에서 고온의 노내온도가 필요한 제련≥용해≥초강≥정련공정에서는 강한 송풍을 위한 대구경송풍관이 사용되었으며, 낮은 온도에서도 조업이 가능한 단야공정에서는 소구경송풍관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구경송풍관은 출토되지 않았다. 일련공정시스템이 갖추어진 공방에서는 장착 및 분리가 용이한 풀무와 대구경송풍관을 필요시마다 해당 노에 장착하

8) 황성동유적 제철로 공반유물은 그 출토위치가 불분명하여 절대적인 속성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 따라서 공정별 파생가능한 유물의 특징을 기술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지만 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9) 出湯具는 경주 황성동유적의 용해로에서만 1~2점씩 출토되었으며, 용도미상 토제품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용해된 쇳물의 湯道로 보는 견해(孫明助 1996 ; 國立慶州博物館 1999)와 봉상철기의 거푸집으로 보는 견해(東潮 2000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가 있다. 발표자의 소견으로는 ① 후자의 경우 쇳물이 고여야 하는데 양쪽 모두 끝부분이 트여져 있다는 점, ② 상면이 고르지 않아 범저와 범개가 결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 ③ 이들이 용해로에서만 1~2점 출토된다는 점, ④ 한쪽 가장자리 가까이에 단이 진 것이 있어 결합의 구조를 보여주는 점 등으로 보아 前者와 같이 용해로의 노벽에 부착하여 거푸집에 쇳물을 흘려보내는 湯道로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여 송풍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야구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삼국시대 분묘 부장예가 많은 점으로 보아 공인의 신분과 관련된 적극적인 자료로 볼 수 있다(金銀珠 2006). 다만 타격흔과 피열흔이 있는 천석이 출토되어 모루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 금속학적 분석결과

제철관련 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황성동 제철유구에서는 5개소의 발굴조사에서 6건의 제철관련 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조사보고가 있었으며, 그 현황은 〈표 4〉와 같다[10].

* 가군 : 고탄소의 선철계 소재 사용 → 비소(As) 성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료의 공급지가 울산 달천광산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윤동석 · 大澤正己) → 용해 · 정련(단야) · 초강공정에서는 모두 비소가 검출 → 독립공방지에서는 저탄소계의 소재를 사용
* 나군 : 철광석을 이용해 선철을 탈탄시켜 강을 생산하는 초강법(탈탄강)의 공정(大澤正己 · 長家伸 2005)과 순철을 침탄시켜 강을 생산하는 강엿쇠둑(침탄강)의 기능(권혁남 · 유혜선 2005)이 동시에 제시(강변로 3호 노)
* 다군 : 철광석 혹은 철산화물(상당부분 철광석의 원형을 유지하거나 철성분이 높음), 고탄소강
* 라군 : 달천광산의 원료를 사용한 소재를 이용하여 주조철부를 생산 → CaO의 검출을 통해 용매제(조재제)로 석회석이 사용(윤동석 · 大澤正己 2000 ; 신경환 외 2007) → 용해로에서 관강기능 상정(박장식 2001) → 灌鋼法이 중국 위진남북조시대에 개발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신경환 외 2007)

〈표 4〉 황성동 제철유구의 금속학적 분석연구 사례

연번	유적명	분석자	내 용	출 전
1	524-9번지유적	大澤正己	**철광석(탈탄제의 가능성)에 비소 포함(달천광산)**, 벽체-점토+짚+5㎜ 이하의 돌가루, 내화도 1,200℃ 정도	국립경주박물관, 1999
2	537-2번지유적	박장식	용해로-유리질철재, **관강법**, 단야로-철광석 혹은 철산화물, 고탄소강, 용해로 생산의 철강소재를 마무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3	강변로유적	大澤正己 長家伸	3호 노-자철광, 단조박편, 입상재, 자철광은 산화탈탄제, 철괴계유물 · 흑연화목탄→**초강법**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권혁남, 유혜선	전철량 50%, Si · Al · Ca 등 조재성분 평균 10% 미만의 고순도 철광석 사용, 순철로 강을 생산하는 **강엿쇠둑**	
4	907-2번지유적	윤동석 大澤正己	단야주거지-As 거의 없음, 구상소철괴-백주철 또는 회주철조직의 고탄소 **선철계**, 용해로-**선철**(백주철 또는 회주철조직), CaO · MgO의 용매제 성분 및 As 함유, **저탄소계**의 소철괴 및 截頭圓錐鋼	국립경주박물관, 2000
5	886-1번지유적	신경환, 이남규 장경숙, 이재용	반환원괴-FeOx가 주성분인 wustite조직, 금속철성분 60~70%, SiO2 · CaO 검출(조재제 사용), 철재-칼슘 성분 1.08~5.14 조재제로 석회 사용, **선철** 생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10) 분석결과가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철조업공정에서는 다양한 과정의 생산 · 파생품이 생성될 수 있지만 시료의 선별 및 동일시료 내에서의 분석부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 같은 결과라 할지라도 분석자의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공정이 상정되는 점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 시료의 선별과 결과의 해석에 대한 관련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제철관련유물의 금속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반되기도 하지만 원삼국~삼국시대 철기유물의 금속분석에서 초강제품이 다수 확인된 점(尹東錫 1985 ; 權香阿 1999, 85쪽 ; 신경환 · 장경숙 1998 ; 崔鍾澤 외 2001, 311쪽)을 감안한다면 황성동유적에서는 종류를 불문한 강 제품을 생산하는 제강의 공정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5. 관련유구의 성격

황성동유적에서 조사된 제철관련유구 현황은 〈표 1〉과 같다. 폐기장 11기, 저탄장 3기, 소성유구 8기, 구상유구 3기, (단타)작업장 8곳, 주혈건물지 5곳 등이 제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구이며 이들의 성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폐기장-용해로 등 용도를 다한 수혈을 폐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당시 생활면에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 → 용해로에는 거푸집 및 유리질철재, 초강로에는 노저괴, 철괴계 유물, 碗形滓, 정련로에는 철괴, 단조박편 등이 출토되는 폐기장이 확인되어 인접한 제철로의 부산물이 자연스럽게 폐기 → 주변에 제철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규모가 크고 서로 다른 공정의 유물이 혼재된 경우 종합폐기장으로 판단.
* 저탄장-얕은 수혈형태의 유구 내부에서 천석이나(Ⅱ-다-7, 886-1-수혈 2호) 소토가(Ⅰ-나-12) 확인 → 일정한 방습시설을 한 후 저탄장으로 사용 → 목탄은 모든 제철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므로 노의 성격과는 관련이 없음.
* 소성유구-유구 주변의 피열흔, 주혈 내부의 목탄, 철녹 및 타격흔이 있어 모루돌로 추정되는 천석 등 출토 → 단야와 관련된 유구로 추정 → 단조박편, 입상재, 철편 등의 적극적인 단야 증거가 없어 검토 필요.
* 구상유구-유적의 규모에 비해 확인된 수가 적음 → 황성동 제철유구가 대부분 역석층에 형성되어 있어 배수가 용이하다는 것에서 기인.
* 단타작업장-단조박편, 입상재, 철편 등이 검출되며 모두 정련(단야)로와 초강로에 부속 → 이른 시기의 독립공방지 단야로에는 이러한 양상이 파악되지 않음 → 지상식이라는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노와 마찬가지로 삭평되고 남아 있지 않음.
* 주혈건물지-단야로는 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며, 용해로는 노와 연하여 따로 공간을 마련 → 지붕이 설치되었다고 본다면 단야로는 낮은 온도로 인해 노의 위쪽에 지붕 설치가 가능하지만 용해로는 높은 온도로 인한 화재의 위험 때문에 노 위쪽의 지붕설치가 어려움 → 조업시 각종 작업공간으로 이용.

이 외에도 성격미상 가마, 수혈유구, 소토유구, 도로, 우물, 주혈군, 부석유구 등이 다수 조사되었으나, 시기와 성격을 알 수 없거나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어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황성동유적 제철로의 유형을 분류하면 〈표 5〉와 같다. 단야주거지는 원형 혹은 방형의 주거지내에 소규모의 노를 설치한 것으로, 삼국~조선시대 얕은 수혈식 단야공방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철재, 소철괴, 단조박편, 모루돌 등이 출토된다. 단야

공방지는 주거지내의 조업에서 벗어나 독립된 공방지가 형성된 것으로, 소형의 노와 바닥부에 철성분이 많은 鐵塊系의 철재가 소량 남는 것이 특징이다. 파생된 시료에서는 고탄소계와 저탄소계가 모두 확인되어 소재가 불명확하지만, 단조의 소재가 鍊鐵이라는 기술사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鍊鐵塊가 소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초강로는 반지하식의 구조를 가지는데,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조업방식은 많지 않다. 다량의 유출재와 철재가 파생되는 제련 · 정련공정에서는 불가능한 구조이며, 단야로와 용해로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西漢代에 개발된 초강로의 조업방식이 주목된다[11]. 초강로의 생산품은 塊狀인데, 조업시 소재의 불순물이 덩어리의 표면으로 용출되어 노벽에 부착되므로 용해로와 유사한 자성이 없는 청회색 환원염소성 철재가 고르게 용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12]. 공반 출토 유물로는 철광석편과 단조박편, 입상재가 있어 각각 탈탄제와 단타작업을 상정할 수 있다. 금속분석 결과는 〈표 4〉에서 보듯 초강법과 강엿쇠둑(정련단야) 기능이 각각 제기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같은 공정이라도 소재의 특성이나 조업진행과정의 차이, 분석부위 등에 따라 파생품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술한 제특징들을 참고하여 초강로로 판정한다.

〈표 5〉 황성동유적 제철로의 유형

연번	유 구 명	속 성				개수	노의 유형		생산품
		노 구조	철재 용착	공반 유물	금속 분석				
1	Ⅱ-가-4 · 5 · 8 · 9 · 11 · 13호 Ⅰ-다-1 · 9 · 11 · 12 · 17호, Ⅱ-다-5호	D	-	단야	가	12	단야로	주거지	단조철기 판상철부
2	Ⅰ-나-15 · 16 · 17호, Ⅱ-가-A · B · C · D · E · F	ⅠA	1			9		공방지	
3	Ⅰ-가-5호, 강변로 2 · 3 · 4 · 6 · 7 · 8 · 9호	ⅡB	2	초강	나	8	초강로		강 소재 무기, 공구
4	537-2-2 · 4 · 5 · 6 · 7 · 8호, 고가수조 노	ⅢC	3	정련 단야	다	7	정련(단야)로		철정 단조철기
5	Ⅰ-가-3 · 7 · 8 · 9 · 10 · 12 · 15 · 16호, 강변로 5호, 886-1-1 · 2 · 3호, 537-2-1 · 3 · 9 · 10 · 11 · 12 · 13호, 524-9 용해로, 535-8 용해로, 887-8-1 · 2호	ⅣD	4	용해	라	23	용해로		주조철부

정련(단야)로는 排滓口 설치를 위한 반지상식의 구조를 가지며, 철성분이 많은 적갈색 산화염소성 철재가 용착된다. 철괴 · 철재 · 단조박편이 검출되는 단타작업장이 공반되며, 시료에서는 철광석이나 철산화물 형태의 조직이 확인되었다. 용해로는 (타)원형 혹은 (말각)방형의 수혈 한쪽에 노를 설치하는 구조이며, 노의 크기는 중형이 많지만 소형 · 대형도 확인된다. 용선 형성시 철재의 일부는 상층에 부유하고 일부 철성분이 전혀 없는 청회색 환원염소성의 철재는 노벽에 용착된다. 주조철부 거푸집과 출탕구는 조업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11) 노의 구조는 대부분 지하식이며, 선철을 반용융상태에서 계속 휘젓고 탈탄제를 첨가하여 공기 중의 산소와 소재에 포함된 탄소를 攪拌시켜 탈탄하는 공법이다(楊寬 1992, 279~288쪽 참조).

12) 원료의 불순물함량이 높을 경우에는 유리질철재가 부착될 수도 있을 것이며, 진전 석장리 B-7호의 경우 그 구조로 보아 초강로로 판단되며 노벽의 내면에는 유리질철재가 용착되었다.

Ⅲ. 제철유구의 공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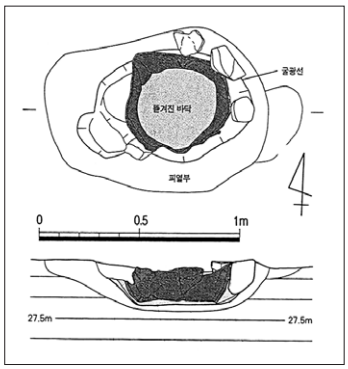
황성동유적 제철유구의 분포범위를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현재 발굴조사가 중지된 '황성동 59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부지유적'의 남서쪽 일부를 포함하는 황성동 618번지, 남쪽으로는 계림고등학교가 있는 황성동 898번지, 동쪽으로는 주공2차아파트 동쪽 담장을 포함하는 황성동 536번지, 서쪽으로는 강변로 3-A공구를 포함하는 524-3번지를 경계로 한다.

즉 황성주공2차아파트와 세잔베르체아파트, 강변로의 일부구간, 대흥임대아파트의 서단부를 포함하는 남-북 방향 타원형의 형태를 띤다. 노를 중심으로 한 유구의 유형에 따라 일정역을 가지며 이를 A~F의 6개 구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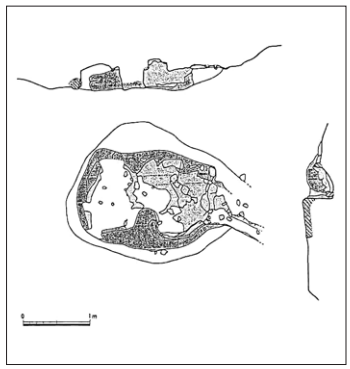
* A구역-단야주거지 a군(원형 혹은 타원형의 주거지) 입지→원삼국시대 주거지역의 남쪽부에 해당 → 내부에서 타격 · 피열흔이 있는 석재가 출토되어 모루돌로 추정 → 점토대구연무문토기,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무견식단조철부, 무경식양익철촉 등의 유물 출토 → 다른 유형의 제철유구와는 범위가 중복되지 않음
* B구역-단야주거지 b군(방형 혹은 말각방형의 주거지) 입지 → 원삼국시대 주거지역과 단야로군의 범위내에 포함 → 주거지의 깊이가 얕고 철괴, 단조박편, 숫돌 등 제철관련 유물 확연 → 노형토기, 고배, 단경호, 장란형옹 등의 와질토기 출토
* C구역-독립단야공방지 입지 → 단야주거지내 조업을 벗어나 독립공방 형성 → B구역에서 남동쪽으로 범위가 2배 정도 확대 → 전문공인집단의 등장
* D구역-용해로 a군 입지 → 황성동 525번지를 중심으로 한 일대와 그 주변 → 제철유구의 유형별 단위공간 중 가장 넓은 범위 → 방형 혹은 장방형의 수혈을 굴착하고 내부에 노 설치 → 용해로 b군에 비해 수혈의 크기가 비교적 작음
* E구역-용해로 a군의 범위가 중앙부로 축소되며 용해로 b군과 정련로 입지 → 용해로 a군에 비해 규모가 크고 장방형과 타원형의 수혈 구축 → 용해와 정련(단야)조업의 유기적 시스템을 통해 각각 주조철기와 단조철기 생산
* F구역-초강로 입지 → 북동쪽의 삼국시대 분묘유구와 겹치며, 남쪽의 용해로 D구역과 연접

〈표 6〉 공간구분에 따른 제철로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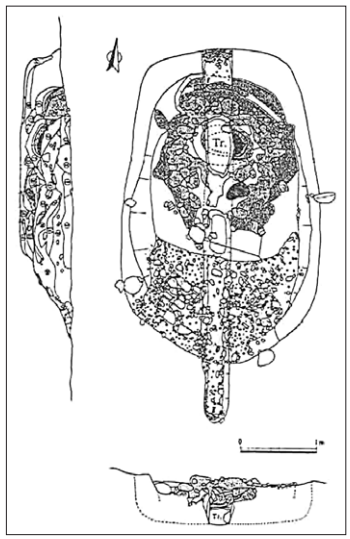
제철로의 유형	분포 범위	면적(㎡)	위 치
단야주거지 a군	A 구역	829	가장 남쪽, 원삼국시대 (타)원형 주거역의 중심부
단야주거지 b군	B 구역	417	중앙부 남쪽, 원삼국시대 방형 주거역에 포함
단야공방지	C 구역	1,192	B구역을 대부분 포함하면서 남동쪽으로 확대
용해로 a군	D 구역	2,502	중앙부에 해당, 제철유구 중 가장 범위가 넓음
용해로 b군, 정련로	E 구역	831	D구역의 중앙부에 해당, 단타작업 동반
초강로	F 구역	1,041	가장 북쪽, 삼국~통일신라시대 분묘와 겹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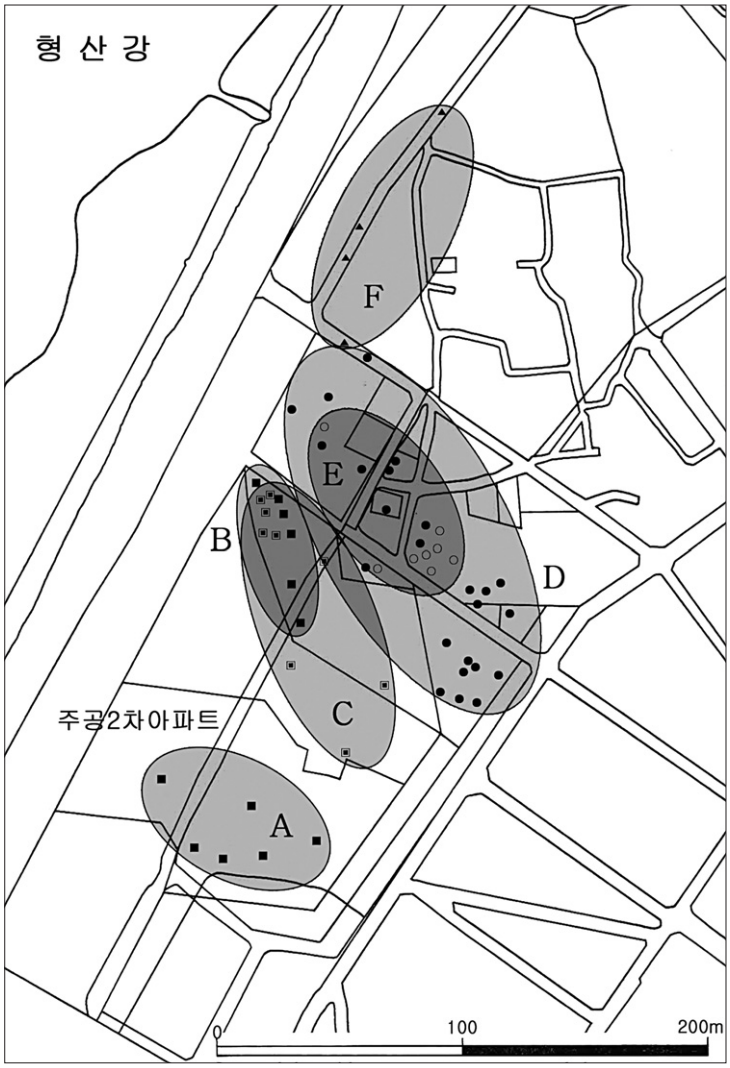
F-초강로(강변로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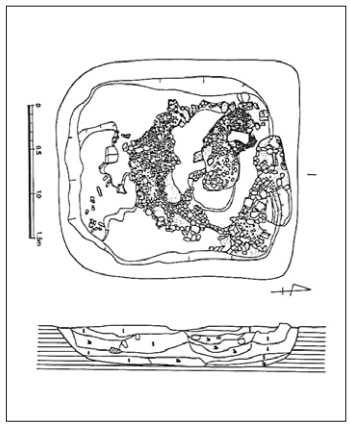
E-정련(단야)로(537-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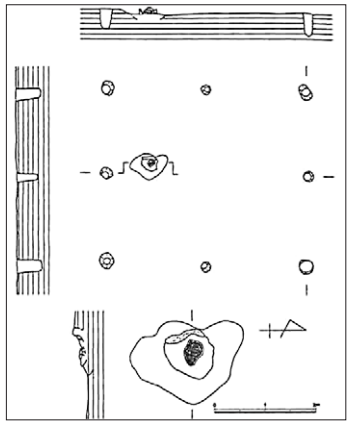
E-용해로 b군(537-2-3호)



■ 단야주거지 ▣ 단야로 ● 용해로 ○ 정련로 ▲ 초강로



D-용해로 a군(Ⅰ-가-8호)



C-단야로(Ⅰ-다-15호)

그림 3. 황성동 제철유구의 공간구분과 노의 유형

Ⅳ. 제철유구의 편년

황성동유적 제철유구의 편년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제철유구에서는 안정적인 유물의 출토예가 드물고, 관련유물 또한 편년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성동유적에서는 제철유구의 유형에 따른 공간구분이 확인되고, 단야주거지에서 편년의 단서가 되는 토기와 철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제철로와 동시기의 주거지 및 분묘가 다수 조사되었으며, 특히 용해관련 유구에서 출토된 주조철부 거푸집은 분묘출토 주조철부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철유구의 편년에 대해 一考하고자 한다.

1. 공간구분과 시기

황성동유적 제철유구의 유형과 공간성의 상관관계를 통해 각각의 제철로는 일정한 영역을 가짐을 알 수 있으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배열할 수 있다.

① 전기와질토기가 출토되는 원형 혹은 타원형 단야주거지의 영역인 A구역(단야주거지 a군 : 원삼국시대 전기)이 북쪽으로 옮겨가면서 ② 후기와질토기가 출토되는 방형 혹은 말각방형의 단야주거지가 분포하는 B구역을 형성(단야주거지 b군 : 원삼국시대 후기)된다. 이후 기술의 축적 혹은 새로운 기술의 유입으로 인해 전문공인이 양산되면서 ③ 주거지 내의 철기생산시스템에서 벗어나 분리된 단야공방지 C구역과 용해공방지 D구역(용해로 a군 : 2세기 후반~3세기)을 형성한다. 이후 F구역에서 鋼소재를 생산함에 따라 C구역의 단야공방지는 서서히 사용하지 않게 되고 용해로도 E구역(용해로 b군 : 3세기 후반~4세기)으로 범위가 축소된다. 용해로 b군 · 정련(단야)로 · 제강로에서 강소재의 생산과 함께 이를 이용한 주조 · 단조철기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즉 황성동 제철로의 공간구분으로 본 시기배열은 A → B → C · D · (F) → (F) · E로 요약할 수 있다.

2. 단야주거지와 유물

＊단야주거지 a역

A구역 단야주거지-(타)원형 평면형태; 점토대토기, 주머니호 등의 전기와질토기 ; 소형의 무견식 단조철부(안재호의 B式-安在晧 2000, 226~228쪽), 결속공이 있는 평면 삼각형 逆刺式 철촉(강변로유적 목관묘 및 사라리 130호, 대구 팔달동 92호 목(관)곽묘 출토품과 유사), 신부보다 경부의 폭이 넓은 철겸

＊단야주거지 b역

B구역 단야주거지-(말각)방형의 평면형태; 대각이 넓고 사격자문이 시문된 노형토기, 시루, 옹 등의 후기와질토기 ; 길이에 비해 신부의 너비가 넓고 만곡도가 약한 철겸

3. 주조철부와 거푸집

경주와 울산, 포항 등 주변지역의 분묘에서 출토된 주조철부와 황성동유적 제철유구 출토 주

조철부 거푸집의 속성비교→주조철부의 형식은 길이에 따라 Ⅰ～Ⅴ식의 5개 형식으로 분류 가능.

① 주조철부

경주 황성동유적에서 생산된 주조철부는 기경구와 地金의 가치로서 널리 유통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중심소비지역으로 생각되는 경주지역과 포항, 울산지역 분묘출토 주조철부와의 속성비교를 통해 편년의 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출토품 중 잔존상태가 양호한 59점을 속성분석하여 편년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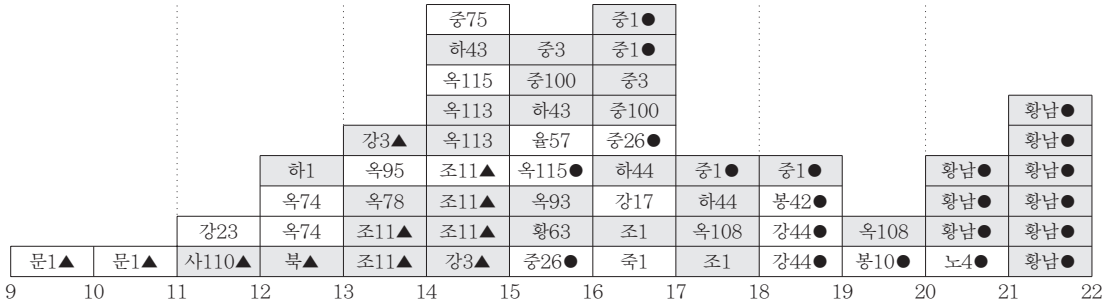


그림 4. 주조철부 길이의 도수 분포

(단위 ㎝ ; ▲ 목관묘 출토 ● 세장방형 ▒ 능이 있는 것 ; 문-문산리, 강-강변로, 사-사라리, 북-북토리, 하-하대Ⅰ, 옥-옥성리, 조-조양동Ⅱ, 율-율동, 황-황성동, 죽-죽동리, 봉-봉길리, 노-노동리, 황남-황남대총 남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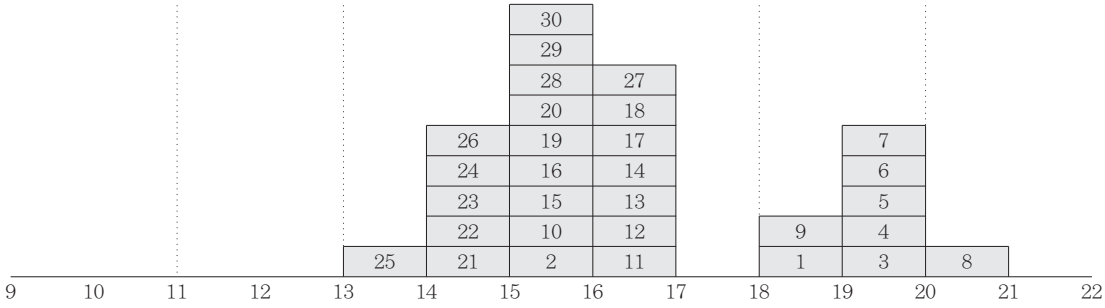


그림 5. 주조철부 거푸집 내강 길이의 도수 분포(단위 ㎝)

＊길이

Ⅰ식 : 9～11㎝ 사이에 분포(기원전 1세기)

Ⅱ식 : 11～13㎝ 사이에 분포, 1식에 비해 크기가 조금 더 커지고 능이 형성되기 시작, 인부의 폭이 넓고 공부의 단면이 낮음, 목관묘의 마지막 단계에서 장방형목곽묘단계에 걸쳐 유행,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가까운 연대

Ⅲ식 : 13～18㎝ 사이에 분포, 출토품 중 가장 많은 수 차지, Ⅱ식에 비해 길이는 확연히 길어지고 등면의 능이 성행, 대체로 전반은 목관묘, 후반은 목곽묘에서 출토, 옥성리 Ⅰ기부

터 적석목곽묘 직전단계

Ⅳ식 : 18～20㎝ 사이에 분포, 크기가 훨씬 커지고 가운데가 오목한 평면형태, 능은 여전히 성행, 적석목곽묘의 이른 단계

Ⅴ식 : 20㎝ 이상,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 가장자리의 능 외에 중앙부에도 2조의 능이 나란한 방향으로 형성

* 평면형태 : 길이대 최대너비의 비율에 따라 3.5 : 1 이하를 장방형-a식, 그 이상을 세장방형-b식, a식은 4세기 대까지, b식은 5세기 이후의 적석목곽묘와 석곽묘에서 주로 출토(양측면의 중앙부가 오목), a식→b식으로 변화
* 능의 유무 : 등면에 능이 없는 것(1식-23개체), 능이 있는 것(2식-36개체[13]), Ⅱ식 단계에 출현하여 Ⅲ식 단계까지 꾸준히 채용되다가 Ⅳ식부터는 대부분 능을 가진 주조철부로 교체, Ⅴ식은 裝飾化의 현상
* 공부형태 : 모두 梯形, 이른 시기 단면 세장방형은 없음, 공부 높이는 Ⅰ식이 3～3.5㎝ 사이, Ⅱ식은 모두 3㎝ 미만, Ⅲ식에서는 2.3～4.1㎝ 사이에 집중 분포, Ⅳ식은 1.8～4㎝로 다양화, Ⅴ식은 2.6～4.4㎝로 길이에 비례해 공부도 높아짐

② 거푸집

위의 주조철부와 직접적인 속성비교가 가능한 황성동유적 출토 거푸집 중 수치를 알 수 있는 30점의 속성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문에 내강(철부)의 크기가 명기된 것은 그대로 따랐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막대 축척을 이용한 비율계산방식으로 수치를 측정하였다.

* 길이 : 1군-13～17㎝ 사이-Ⅲ식(22개체)
  2군-18～21㎝ 사이-Ⅳ식(8개체)
* 평면형태 : a식
* 능의 유무 : 2식
* 공부형태 : 단면 사다리꼴의 단합범, 공부 높이-Ⅲ식-1.8～4㎝, Ⅳ식-2.0～4.3㎝

이상의 3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황성동 제철유적의 조업시기는 다음의 4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1단계는 단야주거지 a군의 시기로, 전기와질토기와 철기유물의 속성으로 보아 원삼국시대 전기인 기원후 1세기대를 중심연대로 설정한다.

2단계는 단야주거지 b군의 시기로, 후기와질토기를 대표유물로 들 수 있으며 원삼국시대 후기에 해당된다. 1단계와 2단계의 획기는 출토유물의 속성을 기준으로 2세기 전반대로 잡고자 한다. 또한 분포범위와 기술사적 측면을 고려하여 3세기 전반을 하한으로 설정한다.

3단계는 용해로에서 Ⅲa2식의 주조철부를 생산하기 시작한 단계로, 거푸집의 속성으로 보아 2세기 말부터 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중심연대는 3세기로 편년된다.

---

13)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300여점의 주조철부가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1994), 본고에서는 이 중 보고서에 수록되어 수치 등의 속성을 알 수 있는 9점만 인용하였다. 나머지 주조철부도 Ⅴ식의 속성일 가능성이 높다.

4단계는 용해로에서 Ⅳa2식의 주조철부가 생산되는 단계인데, 이른 시기의 적석목곽묘 단계에 성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3세기 후반~4세기 중반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정련(단야)로와 초강로의 시기는 편년자료가 너무 빈약하여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기술사적인 특성상 순수 단야기 이후로 위치지울 수 있고, 초강의 소재가 용해로와 같은 선철임을 감안한다면 3세기 후반대가 중심연대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황성동 제철유적의 단계설정과 편년

단계 \ 편년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1단계 - 단야1기	1기			
2단계 - 단야2, 단야3기		2-1기	2-2기	
3단계 - 용해1기, (정련기, 초강기)			3기	
4단계 - (정련기, 초강기), 용해2기			4기	

Ⅴ. 황성동 제철유적의 생산시스템

황성동유적 제철유구의 유형에 따른 공간적 분포범위의 차이와 시기적 변화양상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들의 조업시기가 국가형성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황성동 제철유적의 철 및 철기생산시스템을 단계별로 검토하면 다음의 특징들로 요약된다〈표 8 참조〉.

1단계는 황성동유적에서 처음 단야조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소재(괴련철)를 공급받아 개별 주거지내에서 철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각종 단조철기를 제작하여 집단 내와 주변지역에 공급하였을 것이며, 왕경 내에 입지하지만 정치체의 우월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2단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재(괴련철)를 공급받아 주거지내에서 단조철기를 생산하지만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차 전문공인그룹이 형성된다. 열처리를 통한 철기의 재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완성된 형태의 철기와 함께 판상철부가 생산되어 주변지역으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내수공업을 벗어난 공인그룹의 형성은 전문화, 분업화, 집단화를 촉진시킨다.

3단계는 황성동유적에서 용해조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가장 큰 획기로 설정할 수 있다. 용해조업은 대량화 · 규격화가 특징이므로 소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달천광산과 소재의 유통망을 장악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후반부에 정련(단야)과 초강공정이 도입되면서 주조 · 단조철기뿐만 아니라 鋼材의 대량생산도 가능해진다. 주조철부와 철정의 주변지역 공급은 경제적 · 정치적 우월성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鋼材로 생산된 강철제무기는 정치체 내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하여 타지역과의 군사적 차별화를 도모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철소재 및 철기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주변지역을 통합해가는 강력한 정치체의 출현과 함께 일부가 月城을 중심으로 한 세력집단에 移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단계에는 용해조업의 범위가 축소되고 정련(단야) 및 초강공정을 통한 소재와 고급철기의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정치력의 성장으로 인해 일련의 목표를 달성한 신라가 주변지역의 제철문화를 모두 흡수 및 재분배하여 황성동에서는 소재와 고급철기만을 생산한다.

〈표 8〉 황성동 제철유적의 철 및 철기생산 시스템

단계	철 및 철기생산 시스템	비 고
1단계	소재 수급(괴련철)→취락내 개별주거지 원삼국시대 일반적 양상, 제한적 유통, 소비	단조철기
2단계	소재 수급(괴련철)→취락내 공인집단 형성 열처리를 통한 철기의 鋼化, 철기생산 증대	판상철부, 단조철기
3단계	소재 수급(선철, 괴련철)→官에서 생산과 유통 관리 강철제 무기 제작, 달천철장 확보, 철기생산 극대화	철정, 단조철기, 주조철부
4단계	소재 수급(선철)→국가에서 생산과 유통 관리 강철제 무기 대량생산, 철기생산의 거점지역 확보	철정, 주조철부

Ⅵ. 맺음말

경주 황성동의 제철유적은 1~4세기 영남지역 최대의 철 및 철기생산 복합시스템을 보여준다. 제철로의 각 공정별 유형분석이 가능하고 그 공간적 분포범위가 구분되며, 공반된 분묘 출토유물 등을 통해 전반적인 제철문화의 양상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초기신라가 황성동유적에서의 철 및 철기생산 발달을 토대로 주변 정치체들을 통합하여 고대국가로 성장해가는 일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국가형성기 판상철부, 철정 등의 소재와 핵심기경구인 주조철부 및 강철제 무기의 확보와 통제는 경제 ·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면 황성동유적의 중요성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분석자료의 객관적 판정에 어려움이 있고 기술사적 특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만큼 본 발표의 문제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황성동유적 제철유구의 큰 특징으로 생각되는 素材의 판정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정련(단야)로 및 초강로의 편년에 있어서는 분포의 공간적인 특징과 기술발달사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차후 철기유물에 대한 정교한 편년작업과 금속분석이 추가된다면 이에 대한 검증작업도 자연히 병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황성동유적에서 생산된 철소재 및 철기의 유통과 소비에 대한 연구와 주변지역인 가야와 백제를 비롯하여 고구려 및 낙랑의 생산시스템과의 비교연구도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발표문을 맺고자 한다.

참고문헌

건혁남 · 유혜선, 2005,「황성동 江邊路遺蹟出土 鐵滓에 대한 硏究」『慶州 隍城洞 遺蹟Ⅲ-江邊路 3-A工區 開設區間內 發掘調査 報告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權五榮, 1996,『三韓의「國」에 대한 硏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權丙卓, 1993,「古代 鐵生産의 一硏究-隍城洞 冶鐵遺蹟址를 中心으로-」『국사관논총42』.

權香阿, 1999,「韓國 古代의 金屬材料」『한국공예논총 제2집 1권』.

慶北大學校博物館, 2000,『慶州 隍城洞遺蹟Ⅲ』, 學術調査報告 第26冊.

啓明大學校博物館, 2000,『慶州 隍城洞遺蹟Ⅴ』, 遺蹟 調査報告 第10輯.

國立慶州博物館, 1999,『慶州 隍城洞 524-9番地 鎔解爐蹟』.

_____, 2000,『慶州 隍城洞 遺蹟Ⅰ · Ⅱ』.

_____, 2003,『慶州 朝陽洞 遺蹟Ⅱ-본문-』.

國立中央博物館, 2000,『慶州 路東里 4號墳』.

金權一, 2003,「南韓地域 古代 製鐵爐에 對한 一硏究」, 한신大學校 碩士學位論文.

_____, 2009,「製鐵爐의 類型分類 試論」『동북아 고대철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金度憲, 2002,「三韓時代 鑄造鐵斧의 流通樣相에 대한 檢討」『嶺南考古學』31.

金世基, 1994,「慶州隍城洞原三國聚落址의 性格」『마을의 고고학』, 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發表要旨.

金銀珠, 2006,「三國時代 鍛冶具 硏究-嶺南地方을 中心으로-」,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金一圭, 2006,「隍城洞遺跡の製鋼技術について」『七隈史學』第7號 拔刷.

盧泰天, 2000,『韓國古代 冶金技術史 硏究』, 學硏文化社.

大澤正己 · 長家伸, 2005,「隍城洞((江邊路遺跡) 出土의 鑄造 · 鍛冶關係遺物의 金屬學的調査」『慶州 隍城洞遺蹟Ⅲ-江邊路 3-A工區 開設區間內 發掘調査 報告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1994,『隍南大塚(南墳)』.

박장식, 2001,「경주 황성동 537-2 임대아파트 신축부지 출토 철기제작 관련 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慶州市 隍城洞 537-2 賃貸아파트 新築敷地 發掘調査 報告書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釜山大學校博物館, 1997,『蔚山下垈遺蹟-古墳Ⅰ』.

孫明助, 1996,「韓半島 中 · 南部地域 古代鐵器生産技術과 發展過程의 硏究를 위한 試論 -鐵器生産遺蹟을 中心으로-」, 東義大學校 碩士學位論文.

_____, 1998,「韓半島 中 · 南部地方 鐵器生産遺蹟의 現狀」『嶺南考古學22』.

_____, 2005,「原三國時代의 鐵器-嶺南地域-」『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제2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宋應星 지음 · 崔炷 주역,『天工開物』, 傳統文化社.

신경환 · 장경숙, 1998,「浦項玉城里古墳群 出土 鐵器의 金屬學的 分析」『浦項玉城里古墳群Ⅱ-

나地區-』, 嶺南埋藏文化財硏究院.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7,「경주 외동 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Ⅰ구역)내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2차) 자료집.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7,「경주 외동읍 북토리 55-1번지 일원 공장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安在晧, 2000,「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學硏文化社.
楊寬 著 · 盧泰天 · 金瑛洙 共譯, 1992,『中國古代冶鐵技術發展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嶺南文化財硏究院, 2001,『慶州舍羅里遺蹟Ⅱ-木棺墓, 住居址』.
尹東錫, 1985,『韓國初期鐵器遺物의 金屬學的 硏究』, 高麗大學校 出版部.
尹東錫 · 大澤正己, 2000,「隍城洞遺蹟 製鐵關聯遺物의 金屬學的 調査」『慶州 隍城洞遺蹟Ⅱ』, 國立慶州博物館.
_____, 2000,「隍城洞遺蹟 製鐵關聯遺物의 金屬學的 調査」『慶州 隍城洞 遺蹟Ⅰ · Ⅱ』.
李南珪, 2005,「韓半島 西部地域 原三國時代 鐵器文化-地域性과 展開樣相의 特性-」『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제2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_____, 2008,「鐵器 生産 프로세스의 이해」『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4』,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영훈, 2000,「우리나라의 古代 鐵文化」『2000년 춘계문화강좌』, 국립경주박물관.
林東在, 2005,「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硏究」, 東義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崔景圭, 2004,「1～3世紀 慶州 隍城洞集團에 대한 硏究」,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崔鍾澤 · 長恩晶 · 朴長植, 2001,『三國時代 鐵器硏究-微細組織分析을 통해 본 鐵器 製作技術體系-』, 서울대학교박물관.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慶州市 隍城洞 537-2 賃貸아파트 新築敷地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2,『慶州 隍城洞遺蹟 -537-1 · 10, 537-4 · 535-8, 544-1 · 6番地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5,『慶州 隍城洞 遺蹟Ⅲ-江邊路 3-A工區 開設區間內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7,『慶州 隍城洞 遺蹟Ⅴ-隍城洞 886-1番地 共同住宅新築敷地 發掘調査 報告書-』.

토론

「경주 황성동유적 製鐵遺構의 검토」에 대한 토론문

손명조(국립제주박물관)

慶州 隍城洞遺蹟에는 시기별로 다양한 遺構들이 조사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제철과 관련한 유적의 발굴은 국내 鐵文化硏究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며, 또한 토론자도 당시 발굴참여자의 일원으로 개인적으로 제철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조사 당시 製鐵遺構에 대한 지식이 全無한 상태에서 발굴하였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많은 오류를 범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이후 보다 충실한 조사가 진행된 계기가 되었고 그나마 그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황성동 제철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진행되지 않았고 또한 개별적인 연구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고고학적 자료를 통한 고대 제철기술의 복원이란 大命題에 맞는 연구방법과 自然科學的인 分析과 연계된 학제간의 연구 역시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표자가 정리한 황성동유적에 대한 발표문은 그동안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이며 향후 우리가 풀어가야 할 내용으로 본다. 발표문 중 의문이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 간단히 질문하고자 한다.

1. 먼저 제철로의 類型分析을 하였는데 유형분류방법과 用語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엄연히 제철유구안에 각종의 爐가 있으며 그것이 생산되는 내용에 따라 제련로, 용해로, 단야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제철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분류를 혼돈시키는 결과만 가져오며, 또한 이것이 각 제철공정이나 기술상 爐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제철로를 유형분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오히려 각 공정상의 爐는 분리하여 개별적인 유형분석이나 구조분석, 금속학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2. 爐의 분류에서 초강로를 하나의 공정으로 보고 있는데 초강로의 원의미는 철광석을 녹이는 제련과정에서 별도의 정련공정 없이 바로 鋼을 만들어내는 中國漢代의 기술인데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또한 국내에서 확인된 제련로 중 이러한 초강로로 볼 수 있는 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초강로라고 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정련로와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

3. 분류내용에 단야공방지에서 軟鐵의 소재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이 시기(단계분류상 2단계, 시기적으로 3세기 중반까지) 제련공정에서 銑鐵이 아닌 塊鍊鐵을 생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 한반도 남부지방의 초기제철을 괴련철제련로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4. 황성동 제철유구들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형성되었고 操業의 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作業空間을 구획하고 있다. 발표자가 시도한 공간분석의 내용은 6개의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적 흐름이나 조업내용상의 구분이 애매하다. 특히 구분된 6개 공간내에서도 중복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5. 生産遺蹟의 특징은 단순한 하나의 조업만으로 형성되지 않고 대개의 경우 관련조업이 연계되어 형성되며, 특히 제철관련유구는 황성동 같은 조직적인 집단체계는 동시기에 다양한 조업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이 타지역의 小規模 生産과는 구분되는 특징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발표자는 황성동 조업시기를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 구분은 곧 황성동제철유적에서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조업별로 鍛造→溶解라는 조업공정이 시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인데 특히 2단계와 3단계를 구분지울 수 있는 標式遺物이나 遺構가 있는지 알고 싶다. 이는 3단계에서는 단야공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과연 공정상으로 단계구분이 가능한가? 또한 3단계와 4단계는 조업내용도 동일한데 과연 단계를 구분할 만큼의 生産力의 차이나 유구의 集積度 등이 보이는 것인지, 어떤 차이에서 단계를 구분하였는지 시기 차이를 볼 수 있는 관련유물이나 유구에 대해 알고 싶다.

끝으로 본 발표내용을 보면 아직 유구나 유물에 대한 개별연구가 깊이 진행되지 않았고 시기검토, 분석내용에 대한 검토 등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 각 분석과 편년설정에 아무런 비판이 없이 받아들여 상호 연계성의 부족과 자의적인 단계설정이 이루어져 있다. 오히려 이보다는 단위적인 분석을 보다 충실히 하고 각각의 유구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분석,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原三國~三國時代 鐵器 副葬樣相으로 본 隍城洞 集團의 性格

우병철(영남문화재연구원)

〈 목 차 〉

Ⅰ. 머리말
Ⅱ. 황성동 분묘 출토 철기의 변천
Ⅲ. 철기부장 양상과 황성동집단의 성격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걸친 시기의 鐵器에 대한 연구는 철기의 기원과 수용, 생산 및 분배, 지역성, 철제 농공구 사용에 따른 사회 변화 등을 주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계기가 된 유적 중 하나가 이번에 검토하게 될 경주 황성동 유적으로서 제철유적을 비롯한 분묘유적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특히 황성동유적의 제철유구는 고대 철기의 생산과 유통체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로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황성동유적의 철기 생산과 유통체계 연구만으로는 고대 황성동집단의 성격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본고는 황성동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왕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경주 황성동 분묘 유적[1] 출토 기원전 1세기부터 5세기의 철기를 대상으로 기종별 형식변화와 조합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때 이 유적 출토 철기만을 다룰 경우 영남지방 내에서의 황성동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황성동 분묘 출토 철기를 기종별로 나누고 먼저 영남지방의 진·변한 혹은 신라권역 내 주변 유적 출토 철기의 변화 흐름을 파악한 후 그 틀 속에서 황성동 분묘 출토 철기의 변화 과정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영남지방 전체 철기문화의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황성동 분묘유적 출토 철기의 단계별 특징과 변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황성동 집단의 단계별 성격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Ⅱ. 황성동 분묘 출토 철기의 변천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되는 철기는 시기에 따라 기종이 다양하다. 그렇지만 이 장에서는 여러

1) 황성동 분묘 유적은 동국대학교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경주대학교박물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영남문화재연구원 등의 기관이 조사하였다. 유구의 명칭에서 일부 혼동이 생기므로 기관별로 동국대학교박물관은 (동), 국립경주박물관은 (경박), 경주대학교박물관은 (경),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한)으로 표기하였다.

종류의 철제품 가운데 그 변천양상을 잘 보여주는 철검, 철도 등 무기를 중심으로 하고 철부, 마구를 보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鐵劍, 鐵刀

한반도에서 철검은 세형동검을 모방 제작하면서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출현 단계의 철검은 형태적으로 세형동검의 신부와 유사하고 칼집과 자루, 병부에 부착되는 검파두식 등 검부속구 또한 세형동검의 그것과 동일한 청동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 기원은 중국 중원 및 동북아지방이 아니라 위만조선 기술의 이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2].

세형동검을 모방해서 제작된 철제단검은 기원전 1세기경에 출현하여 3세기대에 환두대도가 유행할 때까지 주요 수장급묘에서 출토된다. 철제단검은 경주 사라리 130호 단계인 1세기까지는 세형동검과 공반하여 출토되다가 이후부터 단독으로 수장급묘에 부장된다.

한편 철제장검은 중국 한(漢)나라의 영향으로 출현하여 대도와 환두대도, 철제단검이 일정 기간 병행하다가 철제단검이 먼저 소멸한다. 환두대도[3]는 목곽묘단계 이후에 출현하는데 4세기대 이후 환두부에 삼엽문, 삼루문, 용봉문 등이 장식되는 등 위세품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주요 수장급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철검과 철도는 장식 환두대도[4]가 출현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병존하는데 신부의 길이가 주된 변화르 겪는 속성으로서 전반적으로 길이가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변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두대도는 일반적으로 소환두도에서 변화한 것이다. 환두부와 신부의 제작기법 변천을 통해서도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일체형에서 결합형으로 변화한다.

황성동 강변로 목관묘 3호에서는 철제단검 2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1점에 청동제 검부속구와 검파두식이 부착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이 철제단검은 세형동검의 기술적 전통을 계승하여 제작되어 영남지방 철검의 변천 양상과 그 궤를 같이 한다 하겠다. 이후 황성동 목곽묘단계 출현기에는 철제단검의 신부가 점차 세장화된다.

황성동 목곽묘 46호(경박)에서는 철제단검 2점이 출토되었는데 하나는 전장이 31.9㎝, 다른 하나는 42.7㎝이다. 이전 시기의 목관묘 2호(한) 출토 철제단검의 전장이 27.6㎝, 3호(한) 출토 2점 전장이 각각 27.5㎝ 32.0㎝이며, 목곽묘 46호(경박)의 다음 단계로 판단되는 목곽묘 68호(동) 출토 단검의 전장이 36.0㎝, 39.0㎝, 41.5㎝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단검의 길이는 27.5㎝, 27.6㎝, 32.0㎝(목관묘 2호, 3호) → 31.9㎝, 42.7㎝(목곽묘 46호) → 36.0㎝, 39.0㎝, 41.5㎝(목곽묘 68호)로 변화한다.

3세기대에 이르면 漢의 영향으로 철제장검이 출현하는데 세장방형 주부곽식 목곽묘인 황성동 목곽묘 2호(한) 출토 장검 2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황성동 목곽묘 2호(한) 출토품에서 주목

---

2) 이청규, 2007,「石劍, 銅劍, 그리고 鐵劍」『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記念 天馬考古學論叢』, 석심 정영화 교수 정년퇴임논총 간행위원회.

3) 장식 환두대도에 대한 연구는 철제 무기 중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다양한 연구성과가 있지만 황성동 유적에서의 출토 예가 극히 적기 때문에 장식대도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겠다.

4) 우재병, 1998,『國家形成期武器の武裝』, 大阪大學校博士學位論文.

되는 것은 초기 형태의 소환두도가 철제 장검 2점과 함께 출토된다는 점이다. 2호 출토 소환두도는 신부의 길이가 짧고 환두부와 신부가 일체형으로 제작되는 등 이른 시기 소환두도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후 시기에는 목곽묘 1호(한), 22호(동) 출토 환두대도와 같이 신부의 길이가 현격히 길어지고 있다. 세장화된 환두대도는 적석목곽묘 33호(한) 출토품에서도 확인되듯이 목곽묘단계부터 적석목곽묘단계까지 지속적으로 부장이 이루어지지만 4~5세기대 위세품으로 잘 알려진 장식 환두대도는 출토되지 않았다.

2. 鐵鉾

한반도에서는 원삼국시대 초부터 소위 전국계 철모가 유입[5]된 후 다양한 형태의 철모가 제작·사용되고 있다. 영남지방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철모가 확인되는데 각 시기를 대표할 만한 표지적인 철모가 있어서 그 변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즉 전국계 철모 혹은 낙랑의 영향으로 보는 장신형철모(기원전 2세기 후엽~)의 출현, 장신형철모를 모티브로 제작된 단신형철모(기원전 1세기 중엽~), 이단관식철모[6]의 유행(1세기 후엽~), 관부돌출형철모의 출현 및 다수부장(2세기 중엽~), 궐수문철모[7] 등 의기성이 강한 철모의 유행(3세기 전엽~), 삼국시대의 주요 실전용 철모로 사용되는 직기형 및 연미형철모의 출현과 유행(3세기 후엽~), 위세적 성격이 강한 고구려계 반부철모의 출현(4세기 중엽~) 등과 같은 철모의 전반적 변천 양상을 설정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목곽묘 출현 이후 경주지역 중심으로 확인되는 관부돌출형 철모의 다수부장 현상이다. 경주지역에서는 판상철부의 다수부장이 관부돌출형 철모로 대체되는 현상이 뚜렷이 확인된다. 이는 기왕에 경제적 수단으로 인지되어 온 판상철부의 다수부장 현상과 유사한데 역시 철모가 무기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판상철부와 함께 정치·경제적 수단으로도 쓰인 듯하다[8].

황성동유적에서는 전국계 혹은 낙랑계 철모인 장신형철모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단신형철모[9] 1점이 황성동 강변로 3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이후 원삼국시대의 대표적 철모인 이단관식철모[10]가 강변로 1호 목관묘에서 출토되기 시작하여 목곽묘(강변로 목곽묘 2호)가 출현하는 시점인 2세기 중엽까지 유행한다. 특히 목곽묘 68호(동)까지 이단관식철모가 일색을 이루다가 목곽묘 2호(경박)의 철모 구성을 보면 이단관식철모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이후 유행하는 관

5) 高久健二, 1992,「韓國出土 鐵鉾의 傳播過程에 대한 硏究」『考古歷史學志』第8輯, 東亞大學校博物館.
6) 흔히 이단병식철모로 불리는 철모로서 그 용어는 이단병식 석검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철모는 병부없이 공부만 있으므로 이단병식철모라는 용어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이단관식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7) 원삼국시대 낙동강 이동지역에서만 유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지역성 구분에 유효한 자료이다.
8) 申東昭, 2008,「嶺南地方 原三國時代 鐵斧와 鐵矛의 分布定型 硏究」, 慶北大學校 文學碩士學位論文.
9) 단신형철모의 경우 삼국시대에 유행한 직기형철모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하지만 단면 형태를 보면 단신형철모의 경우 장타원형이고 단면 두께가 얇지만 직기형철모의 경우 단면의 형태가 마름모형이고 두께가 두꺼운 것이 특징적이다.
10) 영남지방 특유의 이단관식철모는 1세기 후엽의 경주 사라리130호 등에 출현하여 장기간에 걸쳐 유행하고 있는데, 김해 양동리162호 등의 상위 위계 대형목곽묘에 부장되는 예가 많다.

부돌출형철모가 2점 부장되고 있다. 목곽묘 2호(경박)의 철모 구성은 이단관식철모와 관부돌출형철모의 병행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목할만 하다.

이후 강변로 목곽묘 1호(한)와 같이 개인유력묘로 평가받고 있는 장방형계 목곽묘를 중심으로 관부돌출형철모가 다수 부장되고 있으며 중하위급 묘에서도 1~2점 정도 확인되고 있다. 관부돌출형철모의 경우 신부가 단신에서 장신으로 형식변화를 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강변로 목곽묘 1호(한)에서는 단신의 관부돌출형철모 1점과 장신의 관부돌출형철모 6점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관부돌출형철모가 3세기 후엽까지 유행하는 가운데, 이 시기부터 삼국시대 일반적인 철모인 직기형 및 연미형철모가 세장방형 주부곽식목곽묘에서 출토되기 시작하여 이후 적석목곽묘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한다. 그 예로 이혈주부곽식목곽묘로 주목을 받았던 황성동 목곽묘22호(동)에서 4점 출토된 연미형철모를 들 수 있다. 한편 위세적 성격이 강한 고구려계 반부철모는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바 없다.

3. 鐵鏃

원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에 걸친 시기의 철촉은 크게 莖部가 없는 無莖式에서 有莖式으로, 頸部의 길이가 짧은 短頸式에서 中頸式, 長頸式으로 변천한다. 無莖式철촉은 기원전 1세기부터 출현해서 목곽묘단계인 3세기 전엽까지 장기간에 걸쳐 유행한다. 전장, 신부의 투공위치 등 일부 속성은 시간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어서 분류의 기준으로 부적합하다. 그런데 무경식철촉의 부장양상을 살펴보면 경주 사라리130호와 김해 양동리162호 같이 개인 유력묘에서 다수 부장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목곽묘 출현 이후 2세기 후엽 즈음에는 無莖式철촉과 공반하여 有莖式철촉이 출현하고 있다. 유경식철촉은 이른 시기에는 세형계 역자형철촉에 莖部가 형성된 것이 등장하고 이후에는 세형계 철촉을 중심으로 유엽형, 유공식유엽형, 단면역V자식골촉형 등이 주류를 이룬다. 2세기 후엽 이후 철촉 조합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無莖式철촉 1점 내지 2~3점과 새롭게 출현한 有莖式철촉이 다량 출토하고 있다. 그리고 3세기 중 · 후엽에는 한반도 이북의 선비족(연), 고구려와 낙랑지역 등에서 유행하는 광형계 및 세형계 능형철촉이 포항, 경주를 중심으로 한 남동해안지역 전역에서 출현한다.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철촉은 위에서 살펴본 영남지방 철촉 변화 양상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無莖式철촉 5점이 출토된 강변로 목관묘 3호(한)를 비롯하여 목관묘 2호(한), 목곽묘 46호(경박), 68호(동) 등 유력 개인묘를 중심으로 무경식철촉이 다수 부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후의 강변로 목곽묘 3호(한)에서 단면역V자식골촉형 4점과 함께 有莖式 철촉이 등장한 후 유행한다. 세장방형의 동혈주부곽식목곽묘가 조영되는 3세기 후엽에는 황성동 목곽묘 33호(동) 단계에 蛇頭形철촉이 등장하여 다수 부장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장경식철촉이 출현하는 5세기 중엽까지 그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황성동유적은 경주의 주변 유적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철촉의 종류나 부장수가 극히 적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4. 鐵斧

철부는 제작방법에 따라 주조철부와 단조철부로 나뉘며 단조철부는 공부가 형성된 有銎단조철부와 공부가 형성되지 않은 판상철부로 나눌 수 있다. 주조철부와 판상철부는 그간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내 철기의 도입과 생산, 유통체계, 계층 분화의 심화 등의 연구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철부를 주조철부, 판상철부, 有銎단조철부로 나누어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변천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주조철부

영남지방 주조철부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주조철부의 형식 변화, 분포정형, 부장양상 등을 통해 철기의 생산과 유통체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둔 듯하다[11]. 주조철부는 특히 한반도 남부지방의 철기문화 도입 한반도 남부지방의 철기문화 도입[12]과 관련하여 주된 논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더욱이 경주 황성동유적을 비롯한 여러 철기생산 유적에서 다수의 주조철부 용범이 출토됨에 따라 철기 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영남지방 주조철부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다른 철기 연구에 부수적으로 다루어져 왔을 뿐이고 주조철부의 종합적인 검토는 김도헌과 신동조의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연구들은 세부적으로는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13]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공부의 형태를 주된 속성으로 설정하고 크게 공부 단면 장방형, 육각형, 제형의 3가지로 분류하여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장방형, 육각형, 제형(梯形) 형식의 철부는 일정기간 공존하는 단계를 거치지만 전반적으로는 장방형 → 제형 → 육각형 형식으로의 상대적 출현 시기가 설정되어 있다. 한편 제형의 주조철부는 원삼국시대에 출현하여 삼국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황성동유적은 타 유적에 비해 주조철부 부장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주조철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반도 남부지방 철기문화의 도입과 관련된 공부단면 장방형 주조철부는 황성동유적에서는 출토된 바가 없다. 다만 제형 주조철부가 소수 출토되었는데 황성동 강

---

11) 金度憲, 2002,「三韓時期 鑄造鐵斧의 流通樣相에 대한 檢討」『嶺南考古學報』31號 1-29쪽.

12) 시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당진 소소리, 부여 합송리, 장수 남양리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일괄유물을 기준으로 영남지방에는 기원전 2세기 전반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李健茂, 1990,「夫餘 合松里遺蹟 出土 一括遺物」『考古學誌』第2輯.
박진일. 2007,「점토대토기, 그리고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청동기학회.

13) 김도헌과 신동조 연구의 큰 차이점은 유통체계의 중심를 어디로 보는가라는 점이다. 김도헌의 경우 유통체계의 중심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구 · 경산→경산 · 경주 · 김해→경주 및 주변지역으로 변화하고 유통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신동조는 경주를 중심으로 경주→경주 · 김해→경주 및 주변지역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金度憲, 주 11의 논문.
申東昭, 주 8의 논문.

변로 목관묘 3호(한)와 목관묘 63호에서 나팔상의 돌대가 형성된 제형의 주조철부가 각각 2점과 1점이 출토되었다. 시기는 목관묘 3호 출토 일괄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BC 1세기 후엽으로 편년될 수 있겠다. 다음 단계의 목곽묘에서는 주조철부가 부장되지 않다가 적석목곽묘에서 일부 부장된다.

2) 판상철부

판상철부는 주조철부와 마찬가지로 철기의 생산 및 유통체계 연구에 중요한 유물로서 두 가지 유물을 동시에 연구하는 경향이 짙다. 김도헌과 신동조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판상철부는 평면형태 속성에 따라 장방형, 제형, 봉상, 팔자형의 형식으로 나뉘며 주조철부처럼 어느 정도 일부 형식이 병존하는 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장방형식 → 제형식 → 팔자형식 · 봉상철부의 상대적 출현 시기가 설정되는데 팔자형식의 판상철부는 원삼국시대에 출현하여 삼국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4]. 판상철부의 변천이나 분포정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3세기 전 · 중엽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장 양상을 보이다가 3세기 후엽부터 4세기 전엽까지는 김해와 부산지역은 판상철부의 부장양상이 지속되는 반면 경주와 주변지역은 철모 부장중심으로 변하는 지역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4세기 중엽 이후에는 의기성이 강한 궐수문 철모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지역까지 부장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성이 복잡하게 나타난다.

황성동유적에서는 판상철부가 황성동 강변로 목관묘 2호에서 총 10점이 출토되었다. 그 형식분류에 연구자 간에 미세한 견해차가 있는데, 김도헌은 팔자형식으로, 신동조는 제형식의 판상철부로 설정하고 있다. 목관묘 2호는 일괄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BC 1세기 후엽으로 편년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팔자형식과 제형식이 병존하는 단계로서 양 연구자의 견해차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주조철부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만 부장되며 이후 시기의 분묘에서는 출토된 바 없다.

3) 유공 단조철부[15]

단조철부의 출현시기는 주조철부보다 다소 늦지만 기원전 · 후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작 ·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단조품은 형태적인 변화가 적다는 특징 때문에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한 듯하다. 그래서 단편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최근 황성동 출토 단조철부에 대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조성윤은 황성동유적 출토 단조철부의 주된 속성을 제작기법이라 보고 공부 분리형과 공부 일체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후 단조철부의 몇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형식을 설정하였는데 철부 측면의 단이 형성된 유견철부에서 단이 없는 무견철부로, 공부의 단면형태는 방형 → 타원형

---

14) 목곽묘 출현시기(2세기 중 · 후엽)에 일시적으로 일반적 형태인 장방형식, 제형식, 팔자형식이 소멸하고 봉상철부가 유행한다.
金度憲, 2004,「고대의 판상철부에 대한 검토-영남지역 분묘출토품을 중심으로-」『韓國考古學報』53.

15) 단조인 판상철부와 구분하기 위한 용어이나 일반적으로 단조철부로 명명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단조철부라는 명칭으로 서술하겠다.

→ 원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16].

5. 기타

분묘 출토 철제품은 이상에서 논의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출토 시기가 일시적이거나 형식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둔감하여 생략하겠다. 다만 궐수문 표비는 출토 수는 적으나 목관묘 및 목곽묘단계의 주요 수장급묘에서만 출토되는 특징이 있어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궐수문철기는 경주 조양동 11호 단계에서 初現하여 2~3세기에 집중 출토되고 4세기 이후가 되면 궐수문의 말린 횟수가 줄어들면서 유자(有刺)의 형태를 띠는 것이 보통이다. 표비는 목관묘 단계에는 재갈멈치가 프로펠러형이고 銜이 3조 꼬임기법인 것이 대부분이다가 사라리130호에서 궐수문 표비가 출현한 이후에는 재갈멈치가 에스자형의 궐수문 장식으로 바뀌고 함의 제작기술도 다양해지고 있다[17]. 궐수문 표비는 포항 옥성리(113호, 115호)를 비롯하여 경주 조양동(63호), 사라리(130호), 울산 중산리(Ⅶ-1호, Ⅶ-4호) 및 하대(1호, 43호), 김해 양동리(162호)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궐수문 유자이기와 마찬가지로 영남지방 주요 수장급묘에서 출토되고 있다[18].

황성동유적에서는 목곽묘 2호(한)와 46호(경박) 출토품이 있다. 양 출토품은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는 본체를 오려서 2회 이상 말았고 후자는 본체를 늘려서 2회 이상으로 말아 제작하였다. 이러한 제작방법은 시간성을 반영하지는 않고 목곽묘단계에서 함께 유행하는 것이다.

Ⅲ. 철기부장 양상과 황성동집단의 성격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황성동유적 출토 철제품의 변천 양상을 토대로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주변유적에서 나타나는 철제품 부장양상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황성동집단의 성격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기왕에도 황성동유적 중심으로 한 단계설정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19] 이처럼 단일 유적의 단계설정은 그 유적 자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영남지방 전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그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고의 목적이 황성동집단의 성격을 추론하는 데 있으므로 영남지방 전체를 단계 설정한 후 그 속에서 황성동 출토 철기의 단계별 특성을 이해하

16) 조성윤, 2006,「慶州 隍城洞 原三國時代 墳墓 出土 鍛造鐵斧에 대하여, 新羅形成의 秘密 -慶州 隍城洞 遺蹟의 最近 硏究成果-」『第5回 古墳硏究會 學術세미나』, 古墳硏究會.

17) 諫早直人, 2005,「原三國時代における鐵製轡製作技術の特質」『朝鮮古代硏究』第6號, 朝鮮古代硏究刊行會.

18) 우병철·김민철, 2009,「궐수문철기로 본 진·변한 정치체의 상호작용」, 제4회 철문화연구회 학술 세미나 발표요지.

19) 安在晧, 1995,「慶州 隍城洞墳墓群에 대하여 : 슬라이드 자료를 중심으로」『新羅文化』제12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崔景圭, 2004,「1~3世紀 慶州 隍城洞集團에 대한 硏究」, 東亞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林東在, 2005,「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硏究」, 東義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고자 한다. 단계는 일정한 시기 폭을 두고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철기의 경우 그 특성상 형식변화가 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목관묘단계에는 철기의 형식변화와 기종 조합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에 변화의 정도가 커서 명확히 분별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그 획기를 설정하고자 한다.

1. 영남지방 철기문화의 단계별 특징

1) 1단계(기원전 2세기 후엽~기원전 1세기 전엽)

경산 임당동 FⅡ-34호 출토 주조철부, 대구 팔달동 90호, 성주 예산리 31호, 영천 용전리, 덕천리 130호에서 출토된 장신형철모 등 전국계 혹은 한식계의 표지적인 유물들이 영남지방으로 이입되어 주요 철제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특히 영남지방은 중국 동북지방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후 자체적인 철기문화를 형성하는데 주요 기종으로는 영남지방 주요 목관묘에서 출토되는 철검, 주조철부(장방형, 제형), 단조철부(유견철부, 판상철부), 철모(장신형 및 단신형), 철촉(無莖式), 철착, 철사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황성동 분묘 출토품 중에는 이 시기까지 소급되는 철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2) 2단계(기원전 1세기 중엽~2세기 전엽)

흔히 영남지방의 원삼국시대 중에서 목관묘가 유행하는 목관묘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유행하던 주요 철기 기종이 계속해서 유행하는 가운데, 별도로 재지에서 주조철부를 자체 제작하게 된다[20]. 또 영남지방 원삼국시대의 표지적인 유물 중 하나인 이단관식(이단병식)철모가 출현하여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한다. 그리고 경주 사라리 130호 출토 표비처럼 평양 정백리 127호, 알타이 아크알라하 1호(얼음공주묘)에서 출토되어 동북지방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궐수문 표비가 출현한다.

3) 3단계(2세기 중엽~3세기 전엽)

이 단계는 주지하듯이 목곽묘가 유행하는 단계로 묘광이 넓어짐에 따라 유물 부장량이 증가하고 기종의 다변화와 철기의 형식변화도 뚜렷이 확인된다. 특히 상위 위계의 분묘로 인정되는 장방형 목곽묘에서 그 변화를 엿볼 수 있는데 황성동유적에서는 강변로 목곽묘 2호(한)가 그 예에 해당한다. 유물에서는 궐수문 표비가 상위의 분묘에서 부장되는 양상이 활발해지고 소환두도도 출현한다. 또한 경주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판상철부를 부장하는 현상이 점차 소멸한다.

기종별 철기의 형식 변화도 확연히 구분되는데 먼저 철검을 살펴보면 기왕의 철제단검이 유행하던 것에서 장검이 출현하여 유행한다. 그리고 철모는 앞 단계에 이단관식(이단병식)철모가 유행하는 데 비해 이 단계부터는 관부돌출형철모가 출현하여 유행하는데 관부돌출형철모의 다수 부장은 판상철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의기적 성격이 강한 철기가 다수 출현하는데 유자이기를 비롯한 각 기종의 철기에 궐수문이 장식된 것이 유행한다.

---

20) 金度憲, 주 10의 논문.

4) 4단계(3세기 중엽~4세기 전엽)

1~3단계까지 영남지방 각 지역의 철기 부장양상에 공통성이 강했던 데 반해 이 단계부터는 그 공통성이 해체되고 철기 기종의 지역성이 부각되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특히 위세적, 의기적 성격이 강한 철기를 중심으로 그 특성이 관찰된다.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경주와 그 주변지역에서는 판상철부 대신 관부돌출형철모의 다수 부장이 유행하고 김해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는 판상철부의 부장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4세기 이후에는 낙동강 이동지역(부산지역 포함)을 중심으로 의기적 성격이 강한 궐수문 철모, 곡도, 철겸이 유행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성이 확인된다.

5) 5단계(4세기 중엽~5세기)

지역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단계로 경주지역과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위세품적 성격이 강한 철기 부장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권역 내에서는 고구려 무기체계의 영향으로 광형계 착두형 철촉, 삼익형 철촉을 비롯하여 반부형 철모, 가지형 철모 등이 출현한다. 또 중앙 및 지방의 수장급묘를 중심으로는 환두대도, 철모, 철촉 등의 위세품적 성격이 강한 철제 무기가 부장된다. 한편 철제 무기 외에 고구려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철솥, 살포 등도 신라권역 주요 수장급묘에서 확인되고 있다.

2. 황성동유적 철기문화의 단계별 특징

1) 철기문화 공유 단계

황성동유적에서는 전국계 혹은 한식 유물이 이입되는 시기의 철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철기가 부장되는 것은 2단계부터로 강변로 목관묘 2호, 3호(한)와 목곽묘 63호, 68호(동)가 대표적인 유구이다. 전반적으로 부장품에 있어서는 단조철검, 이단관식(이단병식)철모, 無莖式철촉, 주조철부, 판상철부, 유견철부, 철착, 철사, 철겸 등이 보이고 있어서 영남지방 원삼국시대 부장 패턴과 동일하다 하겠다.

차이점이라 할 만한 점은 황성동유적에서는 경주 조양동 38호, 사라리 130호 출토품처럼 영남 각 지역의 수장급묘에서 확인되는 한경 및 방제경 등의 거울류는 출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황성동유적에서는 제철유구와 관련된 주조철부 용범이 다량 출토되었으나 실제로 원삼국시대의 주조철부는 목관묘 3호(한), 목곽묘 63호(동)에서 출토된 3점이 전부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 단계는 역시 황성동유적에서 주조철부의 생산이 본격화되는 시기(4단계)가 아닌 2단계에 해당하는데 영남지방 전역의 주요 목관묘에 주조철부가 1~2점 정도 부장되는 현상과 공통된다.

3단계가 되면 목곽묘가 출현해서 유행하고 분묘에 부장된 유물의 질적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황성동유적의 목곽묘 46호(경박), 강변로 2호(한)를 비롯하여 포항 옥성리 나78호, 경주 덕천리 19호, 울산 중산리 Ⅷ-1호, 하대 43호 44호, 김해 양동리 162호 등 동남해안지역 각지의 주요 대형 목곽묘(방형)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비단 철기뿐만 아니라 토기류 등

유물 전반에서 확인된다. 이재현은 대부호나 노형토기 등에 시문되어 있는 문양 분석을 통해 특정 문양이 시문된 대각 달린 후기 와질토기의 부장은 2세기 중엽 목곽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상장의례의 채용, 사회내부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21].

철기 역시 유자이기를 비롯한 의기적 성격이 강한 궐수형 철기가 출현하면서 철기 부장수의 증가, 의기적 성격이 강한 철기부장 공유화 등 각 지역 집단에서 경쟁적으로 부장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궐수문이 장식된 표비, 철모, 도검, 겸 등 각종 의기성 철제이기들은 2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각 지역의 대형 목곽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초기 대형 목곽묘들은 주로 경주와 김해를 포함한 포항, 울산 등지에서 확인되는데 각 지역 분묘들 간의 유물 질과 양을 살펴보면 질적 · 양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위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고고자료의 정황은 정치적으로 중심지역과 종속지역이 아니었음을 추론하게끔 한다. 이는 기왕의 연구에서 진 · 변한의 성격이 정치적 연맹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교류나 교역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환망이었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는[22]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3단계 초기 대형 목곽묘에서 나타나는 유물 부장 양상은 진 · 변한 각 지역 정치체의 엘리트들이 하나의 상호작용권역인 영남지역(진 · 변한지역)을 내집단으로 하여 동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23].

2) 철기문화 확산 단계

4단계인 3세기 중후엽에 이르면 분묘의 구조와 일부 유물에서 지역성이 확인된다. 즉 묘제에서는 경주식(동혈주부곽식) 목곽묘와 김해식(이혈주부곽식) 목곽묘가 등장하는 한편 토기류에서도 지역성[24]이 확인된다.

또 철기의 경우 무기류에서는 크게 지역성을 구분할만한 차이가 없지만 의기적 성격을 가진 철제품에서는 지역성을 찾을 수 있다. 그 예로 경주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이동지역에서는 궐수형철모를 중심으로 한 궐수형 곡도(경주 황성동 17호, 부산 복천동 57호), 철겸 등의 부장이 두드러진다. 특히 경주 구정동 2호와 3호에서 출토된 다수의 궐수형 철모는 포항 옥성리(나5호, 56호, 65호), 학천리(33-2호, 43호, 89호, 90호, 100호), 포항 마산리(8호), 울산 중산리(Ⅰ A78호, 1D-15호), 부산 복천동(38호, 60호), 밀양 월산리(1호) 등 낙동강이동지역에서만 확인되는 지역성이 강한 유물이다. 이것은 사로국이 점차 신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5단계(4세기 중엽 이후)의 두드러진 특징은 앞 장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신라에서의 고구려

---

21) 李在賢, 2006,「영남지역 후기와질토기의 문양 성격」『石軒鄭澄元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22) 李賢惠, 1984,『三韓社會形成過程硏究』, 一潮閣.
權五榮, 1998,「『三國志』弁 · 辰韓 기사와 고고자료의 비교검토」『弁 · 辰韓의 世界』, 제2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학술발표대회요지.
주보돈, 2002,「辰 · 弁韓의 成立과 展開」『진 · 변한사 연구』, 경상북도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3) 우병철 · 김민철, 2009,「궐수문철기로 본 진 · 변한정치체의 상호작용」『제4회 철문화연구회 학술 세미나 발표 요지』, 한국철문화연구회.

24) 윤온식, 2002,「영남지방 원삼국시대 토기 〈樣式〉論의 제기」『영남고고학』31, 영남고고학회.

무기체계의 수용과 관련되고 신라권역 내에서 간접지배의 산물로 평가되는 삼엽문 환두대도, 반부형 · 가지형 철모, 착두형 · 삼익형 철촉, 철솥, 살포 등 위세적 성격을 지닌 철제품들이 신라의 중앙과 지방의 주요 수장급묘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을 시 ·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주를 중심으로 그 분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4~5단계에서는 영남지방의 신라권역을 중심으로 분묘의 철기 부장양상에서 지역성이 확인된다. 특히 궐수형 철기의 부장, 위세품적 성격을 지닌 철제품의 부장 등의 현상은 각 지역의 수장급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황성동유적에서는 그러한 특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유적 출토 철기의 변천으로 본 황성동집단의 성격 추이

이상의 검토에서 영남지역 철기문화와 황성동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들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변화의 획기를 설정하여 단계를 나누고 그 변천양상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위의 검토를 바탕으로 황성동고분군을 축조했던 집단의 대외적 위상과 그 변천에 대해 추론해보고자 한다. 사실, 고고자료를 통해서 특정 정치체가 지녔던 과거 어느 시점의 대외적 위상을 추론하고자 한다면 문헌사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큰 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석의 전제가 되는 방법론의 정치한 검토 역시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를테면 철제품의 부장양상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추론이 타당한 설명이 되고자 한다면 유구의 구조와 규모, 유물의 질과 양, 그리고 위세품적 성격을 띠는 유물의 검토 등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된 검토대상이 철제품이므로 그러한 종합적인 검토는 후일을 약속하고 황성동유적 분묘군에 부장된 철기유물 자체의 변화, 부장패턴의 변화를 동시기 영남지역 자료들과 비교함으로써 경주 및 인접한 지역 정치체들과의 관계에서 황성동 집단이 차지했던 대외적 위치 혹은 위상을 추론한다.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철기의 특징을 주요 수장급묘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3단계에는 전반적으로 철기 부장양상이 각 지역의 분묘군 별로 공통적인 면모가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얼마간 특징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동시기 여타 지역의 수장급묘에서 자주 출토되는 銅鏡을 위시한 위세품적 성격이 강한 청동제품이 출토되지 않은 점이나 3단계 이후 주조철부의 부장이 소멸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는 특기해 둘 만한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 황성동유적의 분묘군 역시 인근지역의 경우와 유사하게 3단계에 이르면 대형의 방형 목곽묘가 축조되고 장식성이 두드러진 소위 후질와질토기가 부장된다. 이렇듯 유구와 유물에서 공통적인 면모를 강하게 보여주는 2~3단계의 철제품의 부장양상을 살피면 궐수문 표비의 부장이 특기해 둘 만한다. 황성동 분묘군에서 유물의 질과 양이 뚜렷한 낙차를 보여 수장묘로 추론할 수 있는 분묘들(1호, 2호, 46호)에서는 궐수형 표비가 확인되는데 이는 포항 옥성리(나113호, 115호), 경주 조양동(63호), 사라리(130호), 울산 중산리(Ⅶ-1호, Ⅶ-2호), 하대(43호, 44호), 김해 양동리(162호) 등 동시기 타지역 수장급묘들에서 확인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철제품 부장패턴은 당시 분묘자료와 함께 영남 각 지역의 수장묘들 중에서 中核으로 설정할 만한 위계를 지닌 곳이 없으며 그러한 중핵이 될 만한 지역 정치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다는 것에서 적어도 고고자료를 통해서는 당시 각 지역의 정치체들이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철제품의 부장 양상으로 본다면 영남지방 전체적인 맥락에서 특출난 지역 정치체의 존재는 상정하기 어렵고 황성동 집단 역시 상호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집단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4단계 이후 황성동유적 철기의 부장양상을 보면 앞 단계와는 대별된다. 4단계는 황성동유적에서 본격적으로 주조철기가 생산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분묘에서 주조철부가 부장되지 않고 이전 단계부터 유행한 단조철부가 계속해서 부장된다는 점[25], 주요 무기중 하나인 철촉이 타 유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부장된다는 점, 그리고 의기적 성격이 강한 궐수형 철모가 낙동강이동지역의 주요 수장급묘에서 출토되는데 반해 황성동유적에서 그 출토 예가 없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또한 경주 외곽지역에 위치한 경주 구어리 1호, 3호, 구정동 2호, 3호의 철기 부장 양상과 견줄 만한 분묘 역시 황성동유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사로국이 광역의 신라국가로 점차 발돋움하기 시작하는 시기에도 황성동유적에서는 위세품적 성격이 강한 유물로 잘 알려진 관, 관식, 환두대도(삼엽문, 삼루문, 용봉문), 철모(반부형, 가지형), 철촉(착두형, 삼익형) 등의 유물은 거의 출토된 바 없다.

이러한 전반적인 자료의 변천양상은 황성동집단의 대외적 위상의 통시적 변화상을 일부나마 유추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3단계까지는 타지역 집단과 상호 대등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4단계부터는 그 위상이 변모한다. 특히 당시 철기 생산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주변 정치체들 사이에서 황성동 집단의 위상은 그리 낮지 않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묘에 부장된 유물 양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로국의 중심집단은 황성동 집단이 아니며 경주지역내 다른 어딘가에 있을 중심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게끔 한다. 그 중심세력집단이 4단계 이후 정치적으로 황성동 집단을 자신들에게 종속적인 위치로 만들었고 이러한 배경이 4단계 이후 황성동유적의 분묘들에서 나타나는 부장 양상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사로국 중심세력의 이러한 움직임은 3세기 중엽 이후 광역의 신라국가로 성장해 가는 데 필수적인 과정임에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부연하자면, 경주지역 내부 정치체들을 정치적으로 종속시키고 평정하는 것이 외부로의 진출에 당연히 앞서야 될 과업이었을 것임이 확실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황성동 집단의 위상이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라의 영역 확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주 주변 각 지역의 철기 부장양상은 당시 정치체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한다. 이를테면 분묘에 부장된 철제 무기류의 수량, 조합관계 등이 시간과 지역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 · 군사적 해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황성동유적과 같이 위계가 떨어지는 지역이 나타나는 반면, 포항 옥성리, 경주 구정동 · 구어리, 울산 중산리유적과 같이 4세기대에 대외 확장을 위한 주요 거점지역 혹은 신라 중심부의 방어 전선과 같은 성격을 지닌 지역은 그 위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4세기 후엽 이후 경산, 부산지역 등이 신라 지방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변화하고, 이 역시 5세기 중엽 이후에는 대구(화원, 문산), 창녕, 양산, 의성, 상주, 강릉지역 등으

25) 이에 반해 황성동유적의 근거리에 위치한 경주 월성로유적에서는 가29호를 비롯한 여러 분묘에서 주조철부의 부장이 지속되고 있다.

로 변화한다[26].

한편 황성동유적에서는 제철유구 및 유물(용범)에서 확인되듯이 다량의 철제 주조품이 생산되었지만 분묘에서 집게, 망치, 모루 등의 단야구는 출토 예가 적은 것으로 보아 철기 생산품 가운데에서도 주조품을 중심으로 작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황성동유적에서 일차적으로 생산된 철소재는 경주지역 내 타지역, 지방 각 지역의 철기 공방소에 분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신라권역 내 철기 생산과 유통구도로, 생산의 경우 경주지역(황성동유적)에 집중되지만 분묘에 부장되는 각종 철기류는 지방마다 형태적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결국 황성동집단은 경주의 어떤 상위 정치체에 소속되었던 철기(주조품 중심) 생산 전문 집단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황성동집단을 관리하고 통제한 경주지역의 중심 정치체는 어디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탈해집단과 관련하여 중심 집단의 존재와 중심지역을 추론한 연구[27]가 일부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최근 연구에서도 울산지역 철생산지를 장악한 탈해집단이 황성동집단을 통제[28]했다고 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고고학적 근거는 희박하다.

그와는 달리 최근 신라의 중앙 집단에 대한 연구로서 토성, 주거지군, 분묘군을 대상으로 검토한 연구[29]가 참고가 된다. 경산과 대구지역의 중심지에서 확인되는 '토성 - 주거지군 - 분묘군'이 한 조를 이루어 축조되는 것을 근거로 신라의 중앙인 경주 역시 월성을 중심으로 하여 중심 정치체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렇다면 황성동집단은 그에 소속된 하위집단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Ⅳ. 맺음말

이 글은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영남지방 철기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황성동유적 출토 철기를 기종별로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영남지방 철기문화와 황성동유적의 철기문화를 단계별로 비교하여 황성동유적 축조 집단의 성격을 추론해 보았다.

영남지방의 철기문화는 크게 중국 동북지방의 철기문화를 수용하여 그 문화를 강하게 공유했던 시기와 자체 철기문화를 형성하면서 그런 철기문화의 공통성이 해체되는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변화의 획기는 3세기 중후엽 즈음으로 판단되는데 이 시기에는 철기문화 뿐만 아니라 분묘

---

26) 신라영역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양한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 사료 등의 심도 깊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히 언급하고 다음의 연구에서 기약하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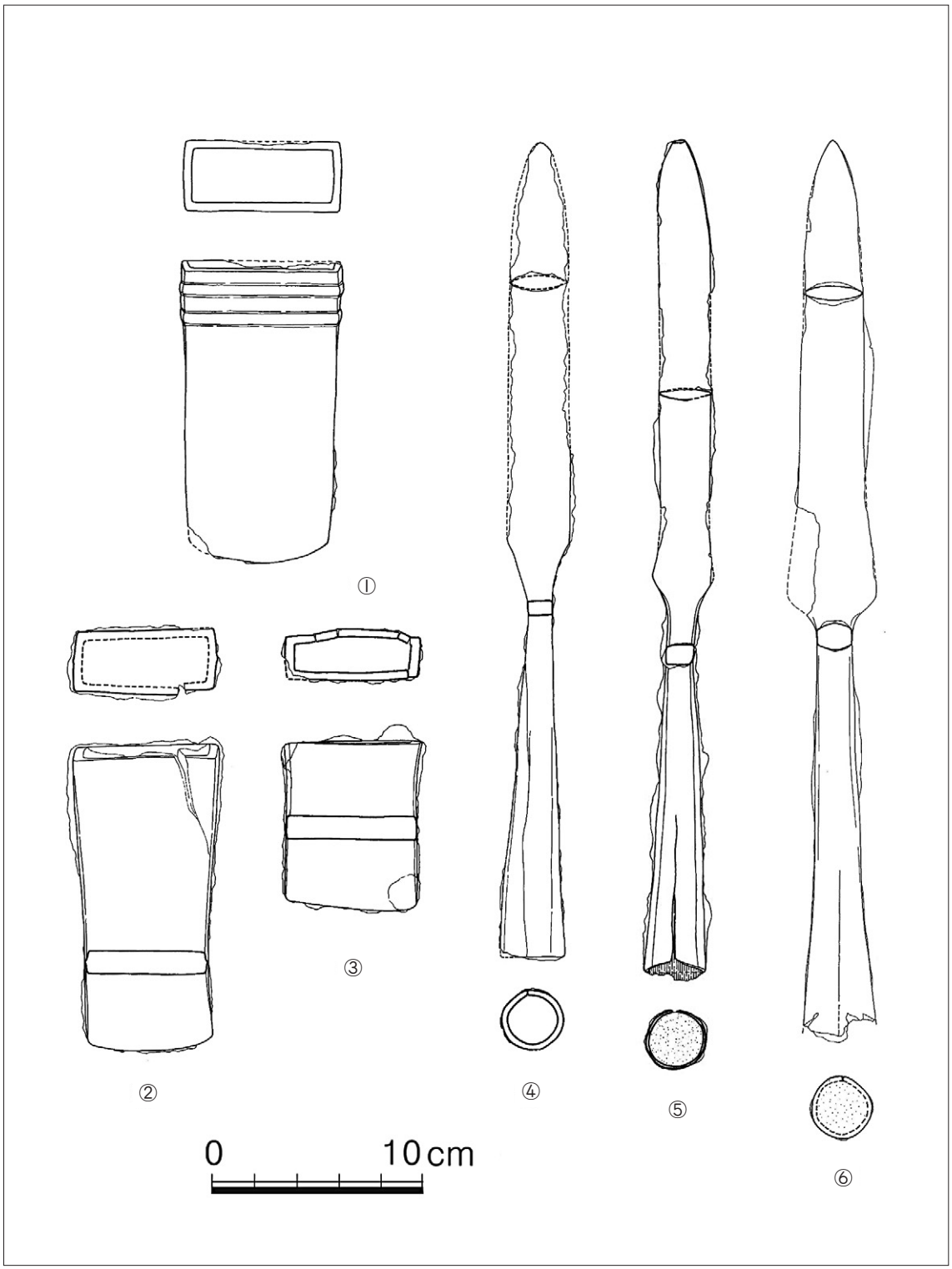
27) 김영민, 1996,「영남지역 삼한후기문화의 특징과 지역성」, 釜山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崔景圭, 주 18의 논문.

28) 崔景圭, 주 18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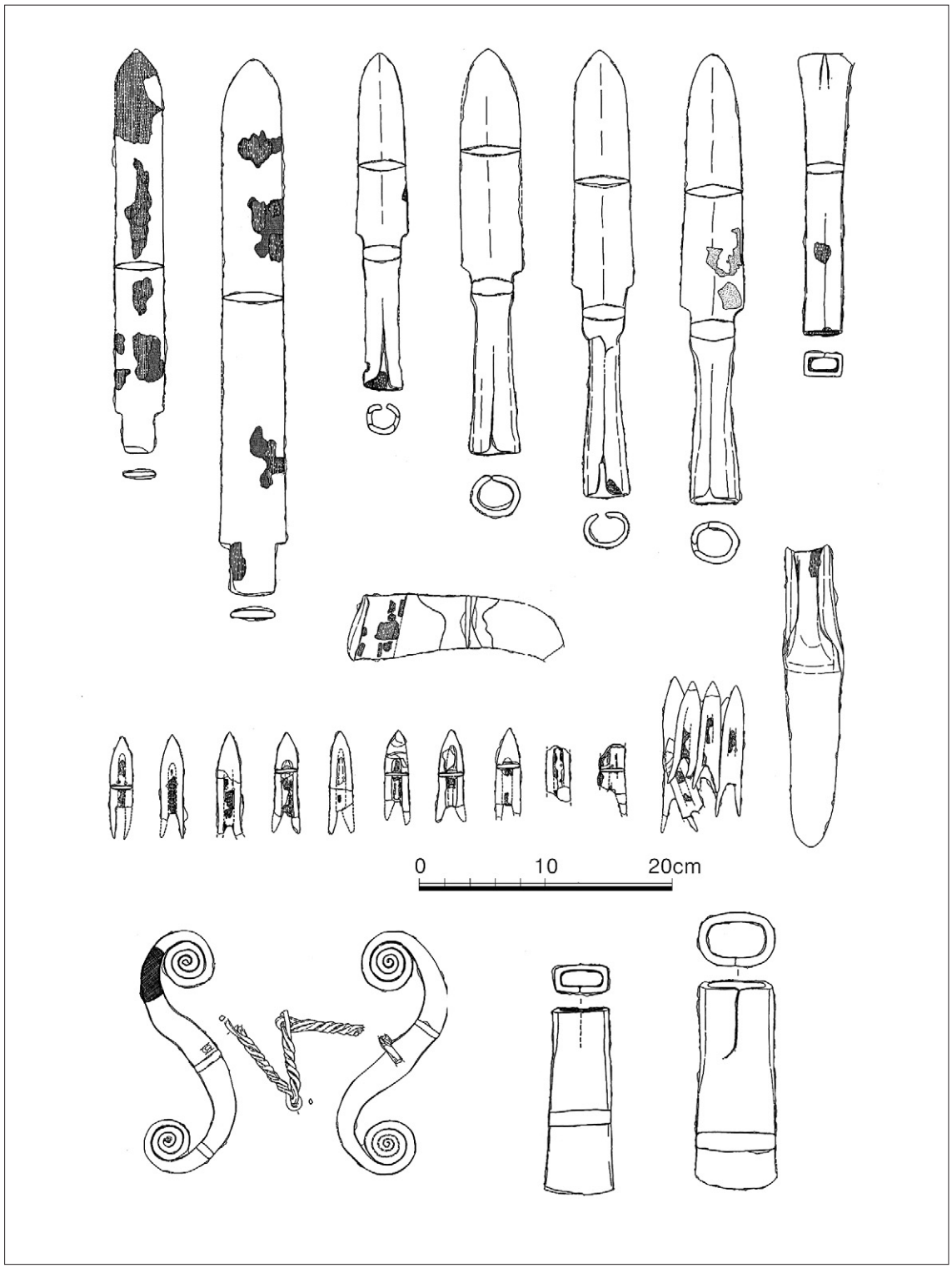
29) 張容碩, 2008,「4世紀新羅의 土城築造背景 -達城과林堂土城의例를 통하여-」『嶺南考古學』第46號, 嶺南考古學會.
李在興, 2009,「경주와 경산지역의 중심지구 유적으로 본 4~5세기 신라의 변모」『韓國考古學報』제70집, 韓國考古學會.

구조, 토기류 등 고고학적 자료에서도 지역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남지방의 주요 지역 엘리트 집단들이 대등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후 종속적인 관계로 변화한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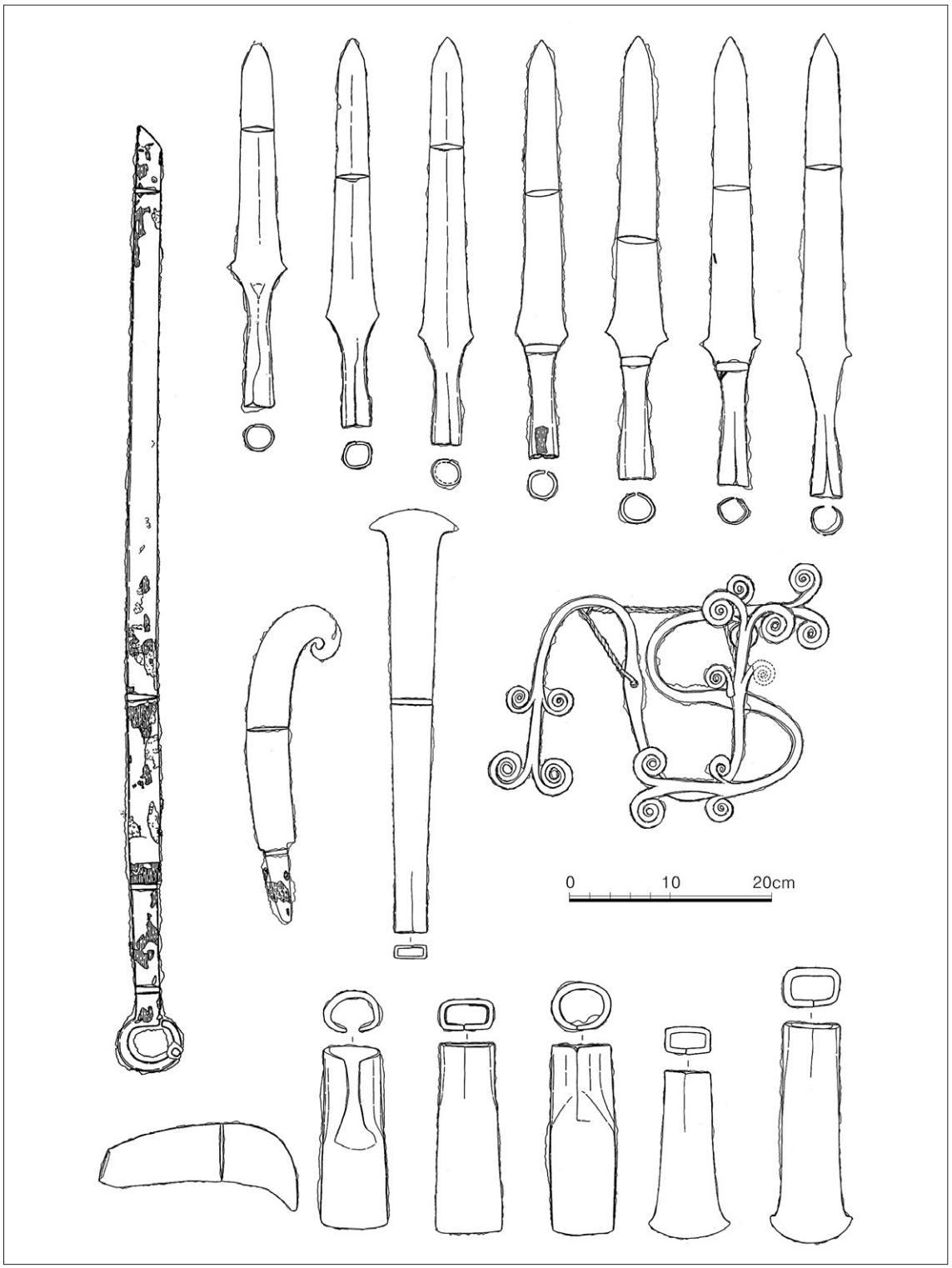
황성동유적은 주조철부 용범이 다량 출토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철기를 대량 생산하는 전문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분묘에서 주조철부가 거의 출토되지 않고 단조철부가 주로 부장되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철기문화의 공통성이 해체되는 3세기 중후엽부터 경주의 주변지역에서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권역 확대과정에서의 간접지배를 반영하는 위세품적 성격의 유물이 지속적으로 부장되지만 황성동유적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사라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황성동유적에서 원거리 전투에 필요한 철촉의 부장이 급감하는 것은 황성동집단이 전쟁의 수행이나 방어를 목적으로 한 집단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황성동집단은 당시 국가 단계로의 이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철기를 대량 생산한 집단으로서 주변유적에 비해 그 권위는 오히려 쇠퇴되어 있다. 이는 황성동집단이 신라의 상위 정치체에 속하였던 철기생산 전문 하위집단이라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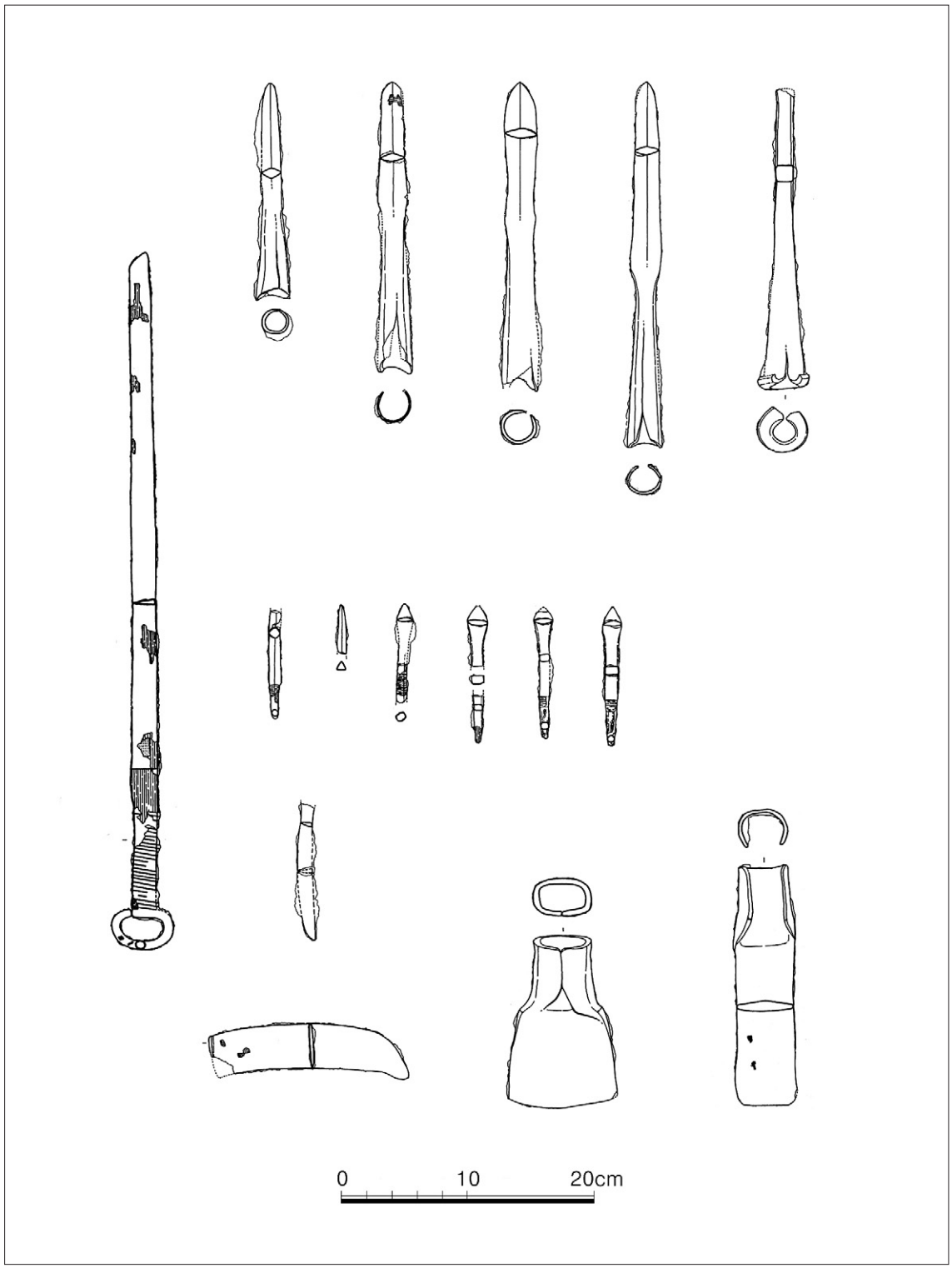
도면 1. 영남지방 철기 1단계 한식 유물(①경산임당동FⅡ-34호, ②대구팔달동77호, ③팔달동49호, ④팔달동90호, ⑤경주덕천리138호, ⑥성주예산리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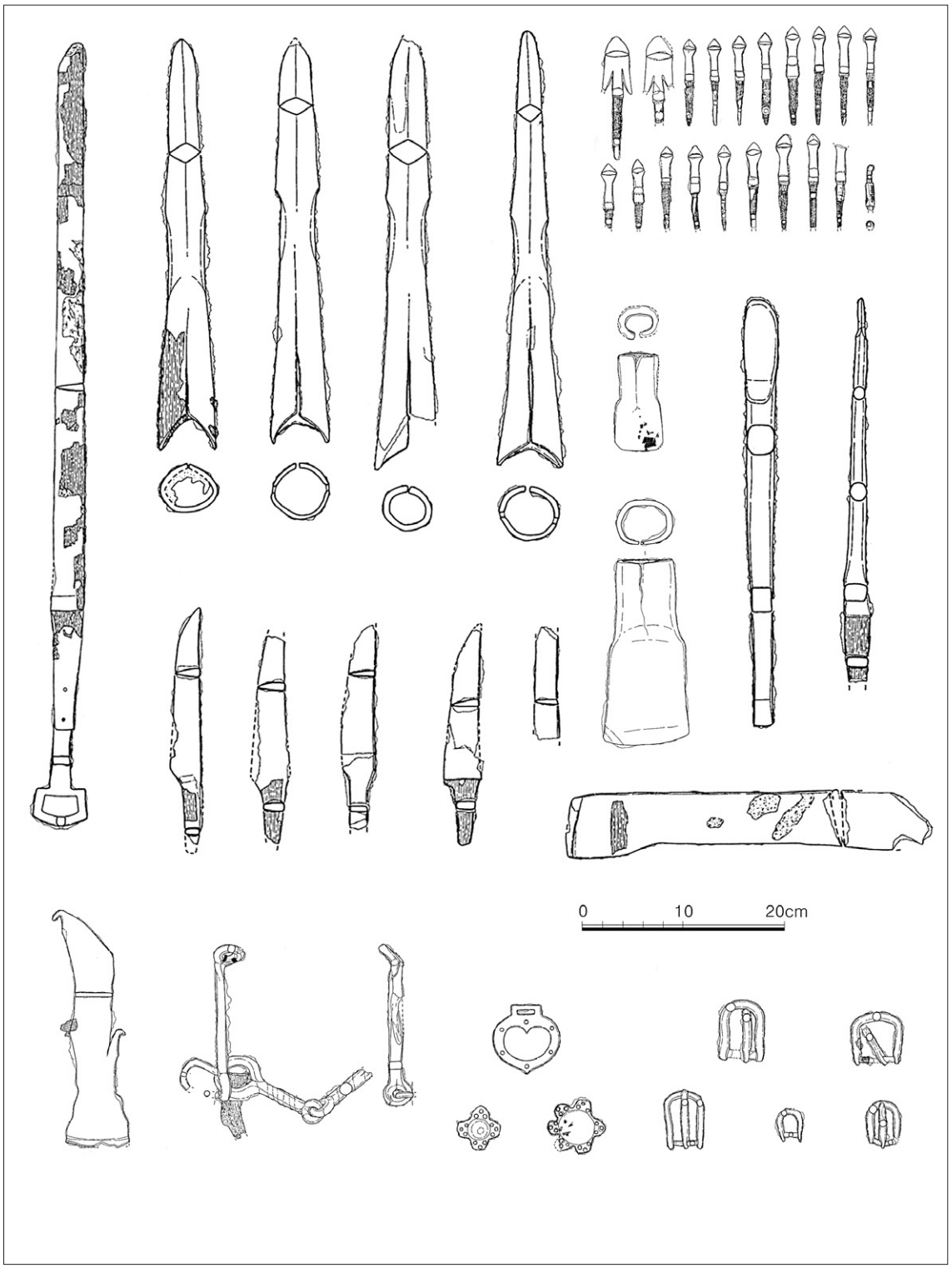
도면 2. 경주 황성동유적 철기 2단계 유물 조합(황성동 46호)



도면 3. 경주 황성동유적 철기 3단계 유물 조합(황성동 강변로 1호)



도면 4. 경주 황성동유적 철기 4단계 유물 조합(황성동 목곽묘 22호)



도면 5. 경주 황성동유적 철기 5단계 유물 조합(황성동 적석목곽묘 33호)

토론

「원삼국~삼국시대 철기 부장양상으로 본 황성동 집단의 성격」에 대한 토론문

김도헌(동양대학교 문화재발굴보존학과)

발표자의 논고는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를 통해 황성동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내용과 논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표자는 우선 황성동유적 출토 철기 가운데 대표적인 기종(철검과 철도, 철모, 철촉, 철부, 표비 등)의 변화상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영남지방 철기문화를 5단계로 구분한 다음, 황성동유적의 철기문화 변화상을 크게 2단계(공유단계와 확산단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철기문화의 변화상에 기초하여 황성동 집단이 3단계(2세기 중엽~3세기 전엽)까지는 신라권역 내에서 다른 유적 축조 집단과 대등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4단계(3세기 중엽~4세기 전엽)부터는 상대적으로 위계가 약해졌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단야구의 출토사례 등을 근거로 황성동 집단이 신라의 상위 정치체에 속했던 철기생산(주조품 중심) 전문집단으로 추정하였다.

발표자의 논지는 큰 틀에서 보면 대체로 공감할 수 있고 완성된 논문이 아니라 발표문이라는 점에서 지엽적인 질문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의 책무가 있고 추후 논문 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도에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생각한 몇 가지 의문점에 관해 질문하고자 한다. 혹, 토론자의 이해력 부족과 짧은 지식 때문에 발표자의 의중을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또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편의상 주를 생략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양해를 바란다.

첫 번째는 영남지방 철기문화의 단계 구분에 관한 것으로, 발표문에 기술된 내용을 통해 분기의 기준을 파악하기는 다소 곤란한 것 같다. 예를 들면, 발표자는 2단계(기원전 1세기 중엽 ~ 2세기 전엽)의 특징으로 ①재지에서 주조철부의 생산[1], ②이단관식(이단병식) 철모가 출현하여 유행, ③궐수문 표비의 출현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단관식 철모와 궐수문 표비는 사라리 130호 출토품(1세기 후엽 또는 2세기 전엽)이 가장 빠른 시기로 편년된다.[2] 따라서 이단관식

1) 영남지방에서 주조철부를 생산한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형부의 출현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2) 이단관식 철모에 대해서는 禹炳喆, 2008,「鐵鏃과 鐵鉾로 본 新羅, 加耶 그리고 倭」『嶺南考古學』47, 119쪽, 궐수문 표비에 관해서는 李尙律, 2006,「三韓時代 鐮彎의 展開 -南部地方을 中心으로」『石軒 鄭澄元敎授 停年退任記念論叢』, 釜山考古學硏究會. 514~519쪽 및 김두철, 2009,「변진한의 철기문화」『考古學誌』特輯號, 국립중앙박물관, 74쪽의 도면 16 참조.

철모와 궐수문 표비의 출현을 2단계의 특징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양자의 출현이 중요한 변화였다면 오히려 1세기 후엽 또는 2세기 전엽을 획기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영남지방 철기문화의 단계 구분의 기준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길 바란다.

또한, 발표자는 별고에서 철촉과 철모의 변화상을 6단계(Ⅰ단계 : BC 1C 전엽~AD 2C 중엽, Ⅱ단계 : 2C 후엽~3C 전엽, Ⅲ단계 : 3C 중엽~후엽, Ⅳ단계 : 4C 전엽~중엽, Ⅴ단계 : 4C 후엽~5C 전엽, Ⅵ단계 : 5C 중엽~6C 전엽)로 설정한 바 있다.[3] 그런데 이전에 제시한 단계와 발표문에 제시된 영남지방 철기문화의 단계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부탁한다.

두 번째는 황성동유적 철기문화의 단계별 특징에 대한 것이다. 발표자는 황성동유적 철기문화의 단계별 특징을 '철기문화 공유 단계'와 '철기문화 확산 단계'로 항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런데 기술된 내용은 영남지방 철기문화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목과 내용이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황성동유적 철기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토론자가 이해한 바로는 3단계까지는 황성동유적 철기문화가 대체로 영남지방의 철기문화의 흐름과 유사하지만, 4단계부터 신라권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철기 부장양상의 지역성이 황성동유적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다. 다시 말해 발표자는 4~5단계에 궐수형 철기와 위세품적 성격을 지닌 철제품의 부장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황성동유적 철기문화의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5단계에 해당하는 40호 적석목곽묘(한)에서 1점이지만 삼엽문환두대도가 출토되었고 17호 · 33호 · 39호 적석목곽묘(한)에 표비와 행엽, 운주, 등자 등의 마구류가 부장되었다. 따라서 황성동유적에서 위세품적 성격을 지닌 철제품의 부장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또한, 궐수문 철기가 2~3세기에 집중적으로 부장된 것[4]으로 알려졌으므로 황성동유적에서 궐수문 철기의 부장이 확인되지 않는 현상을 4~5단계(3세기 중엽~5세기)의 특징으로 파악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황성동유적 철기문화의 특징에 대한 보완 설명을 부탁한다.

세 번째는 정치체의 위계에 관한 것으로 발표자는 궐수형 표비의 부장양상을 통해 3단계에 황성동 집단의 위계가 영남지방의 다른 집단(포항 옥성리, 경주 조양동, 사라리, 울산 중산리, 하대, 김해 양동리)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궐수형 표비가 집단의 위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이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발표자의 견해대로 궐수형 표비에 기초하여 사라리 130호와 황성동 1호(한) 목곽묘, 하대 43호 등을 동일한 위계로 분류한다면, 개개 유구에서 확인되는 부장품의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

3) 禹炳喆, 2008,「앞의 글」, 114~120쪽.

4) 우병철 · 김민철, 2009,「권수문철기로 본 진 · 변한 정치체의 상호작용」『제4회 철문화연구회 학술 세미나 발표 요지』. 122~123쪽.

이와 관련하여 하나 더 질문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궐수형 표비의 부장양상에 기초하여 2~3단계로 편년되는 황성동 1 · 3[5] · 46호 목곽묘(한)와 포항 옥성리 나113호 · 115호, 경주 조양동 63호, 사라리 130호, 울산 중산리 Ⅷ-1호 · Ⅷ-2호, 하대 43호 · 44호, 김해 양동리 162호 등의 대등한 위계로 분류하였다. 또한, 4단계의 황성동유적에서는 경주 구어리 1호 · 3호와 구정동 2호 · 3호에 비견할 수 있는 분묘가 없으므로 다른 집단에 종속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황성동유적에서 4단계로 편년되는 분묘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22호(동)에서 확인되는 부장품은 발표자의 지적처럼 구어리 1호 · 3호 및 구정동 2호 · 3호와는 일정한 격차가 있다. 그런데 황성동유적 22호(동)와 구정동 2호, 황성동 1호 목곽묘(한)와 하대 43호를 비교하면 발표자의 견해에 다소 의문이 생긴다. 즉, 구정동 2호는 황성동 22호(동)보다 부장품은 다소 많지만, 묘광면적은 오히려 작다. 그리고 하대 43호는 황성동 1호 목곽(한)보다 부장품도 많으면서 묘광면적도 넓다. 개개 분묘의 위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대 43호와 황성동 1호 목곽묘(한)를 동등한 위계로 분류하면서 황성동 22호(동)와 구정동 2호를 다른 위계로 구분하는 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묘의 위계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

유구	묘광 면적	부장품	
		철기	토기
황성동 1호 목곽(한)	14.0㎡	18점(환두대도1, 철모7, 표비1, 곡도1, 겸1, 단조철부5, 이형1)	4점(유개대부장경호, 노형토기 등)
하대 43호	25.1㎡	31점(환두대도1, 철검4, 철모4, 표비1, 곡도1, 철창1, 철겸1, 철착1, 철촉8, 쇠스랑1, 쇠삽날1, 따비1, 단조철부3, 주조철부2, 이형1)	6점(대부광구호, 대호 등)
황성동 22호(동)	14.1㎡	총 17점(환두대도1, 철모4, 철촉6, 따비1, 겸1, 단조철부1, 도자1, 기타2)	8점(유개대호, 단경호, 대호 등)
구정동 2호	10.7㎡	총 37점(철모27, 철촉6, 철겸1, 유자이기1, 곡도자1, 도자1)	4점(단경호, 통형기대, 양뉴부대호)

네 번째는 사실 확인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자는 4단계 이후 황성동유적에서 위세품적 성격이 강한 유물로 알려진 관과 환두대도(삼엽문, 삼루문, 용봉문) 등의 유물은 거의 출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5세기대로 편년되는 40호 적석목곽묘(한)에서 1점의 삼엽문환두대도가 출토되었고 34호 적석목곽묘(한)에서는 금동관 1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4단계 이후 황성동유적에서 위세품적 성격의 유물이 부장된 사례가 없다는 내용은 오류가 아닐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을 부탁한다.

다섯 번째는 황성동 집단의 성격에 관련된 자료의 해석에 대한 것으로 발표자는 단야구의 출토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황성동 집단은 주조품 중심의 철기 생산 전문집단으로 파악하였다. 영남지방에서 출토된 단야구의 대부분이 분묘 부장품[6]이므로 황성동유적에서 단야구의 출토사례

5) 발표문에는 2호로 되어 있는데, 3호의 오류로 생각한다.

가 적다는 현상은 부장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황성동유적에서는 용범 등의 주조 관련 유물의 부장사례 역시 확인된 바 없으며 주조철부의 부장사례도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단야구의 부장사례가 적다는 현상을 근거로 황성동 집단이 주조품 중심의 철기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다. 실제로 황성동유적에서 조사된 용해로는 31기, 단야로는 24기[7]로 단야로의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격한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여섯 번째는 황성동 집단의 위계 변화에 관한 것으로, 발표자는 황성동 집단이 3단계까지는 영남지방의 다른 집단과 대등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4단계부터 그 위계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발표자의 견해를 수용하면, 2~3세기에 제철기술을 보유하였던 황성동 집단이 점차 쇠퇴하면서 다른 집단의 통제를 받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알고 싶다. 왜냐하면, 당시 제철기술은 첨단기술이므로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였던 집단이 점차 쇠퇴하였던 현상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철은 기술적인 조건과 함께 노동력을 조직하고 생산을 독점하여 교역할 수 있는 정치권력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8] 따라서 황성동 집단이 2~3세기에 다른 집단과 대등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철기술을 보유하였다면, 영남지방의 어느 정치체보다 강력한 집단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황성동유적 분묘에서 확인되는 양상은 그렇지 않으며 특히 황성동유적의 2~3세기 분묘에서 주조철부의 부장사례가 드물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히려 2~3세기 황성동 집단은 다른 정치체와 동등하였던 것이 아니라 경주의 중심 집단의 통제를 받았던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여기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이상으로 발표문에 대한 토론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한다.

---

6) 金銀珠, 2006,「三國時代 鍛冶具 硏究 -嶺南地方을 中心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41쪽 참조.

7) 이 수치는 林東在, 2005,「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硏究」,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8) 李盛周, 1993,「1~3세기 가야 정치체의 성장」『韓國古代史論叢』5, 韓國古代社會硏究所. 102쪽.

경주 황성동 와질토기의 편년과 성격

이제동(영남문화재연구원)

〈 목 차 〉

Ⅰ. 머리말
Ⅱ. 황성동 와질토기의 편년
Ⅲ. 황성동 와질토기의 성격
1. 황성동 와질토기의 출토양상과 특징
2. 와질토기를 통해 본 황성동집단의 성격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와질토기단계의 황성동유적은 제철생산유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지와 분묘가 확인 조사되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철생산과 관련된 유구는 황성동집단의 특수성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게 하리라 본다.

황성동유적에 대한 연구는 제철관련 유적과 묘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능적인 공간구획과 시간적인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본고와 관련한 황성동 토기에 대한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재호[1]는 황성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분묘의 형태와 출토유물을 근거로 하여 3기로 편년하였다. 1기는 평면 장방형인 목관계목곽묘와 장방형의 목곽묘가 병행하는 시기, 2기는 장방형의 목곽묘가 일반화 되는 시기, 3기는 세장방형의 목곽묘가 주체를 이루는 시기로 구분하였다. 토기의 경우 1기는 고식와질토기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우각형파수부호와 단경호로 보아 2세기 후엽, 주로 철기가 부장되는 Ⅱ기는 3세기 전엽~3세기 중엽, 도질토기, 대부직구호, 양이부호가 출토되는 Ⅲ기는 3세기 후엽~4세기 전엽으로 편년하였다.

황창한[2]은 안재호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목곽묘의 구조와 평면형태를 분류하고 타날문단경호를 중심으로 하는 유물분석을 통해 5기로 세분하였다.

최경규[3]는 분묘유적, 주거지유적, 제철유적은 유기적인 관계하에서 변화한다는 전제로 단계를 설정하고, 각 유적간의 공간구획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묘는 4단계, 주거지는 2단계, 제철은 4단계로 개별적인 단계를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황성동유적 단계를 크게 2기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전반·후반으로 소분류를 하였다. 1기의 전반은 목관묘가 조성

1) 안재호, 1995,「慶州隍城洞 古墳群에 대하여」『신라문화』1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 황창한, 2002,「考察」『隍城洞古墳群』,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3) 최경규, 2004,『1-3世紀 慶州 隍城洞集團에 대한 硏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되고 주머니호와 단경호가 출토된다. 주거지는 평면 원형으로 내부에서 철기를 제작한다. 1기의 후반은 목관계목곽묘가 조성되고 단경호, 양뉴부장경호, 소옹이 출토된다. 주거지는 평면원형으로 철기의 제작이 분리된다. 2기의 전반은 방형의 대형목곽묘가 등장하고 대부광구호, 유개대부직구호, 고배 등 신기종이 등장한다. 주거지는 평면 방형이고 생산구역이 크게 확대되고 단치공정이 완전한 생산체계가 갖추어진다. 2기 후반은 세장방형의 동혈주부곽식묘와 이혈주부곽식묘가 등장하는 시기로 경질토기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생산구역이 전 단계의 주거지구역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임동재[4]는 생활유적, 생산유적, 매장유적의 시기별 특징과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 4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주거지 내부에서 철기를 제작하고 묘형은 목관묘, 토기는 전기와 질토기인 주머니호를 표지로 한다. 2단계는 주거와 철기제작소가 분리되는 단계로 목관계목곽묘가 나타나고 토기는 소옹이 부장된다. 3단계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이 분리되고 방형계목곽묘가 나타나고 신식와질토기가 부장된다. 4단계는 주거지와 제철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장방형 및 세장방형의 목곽묘가 나타나는 시기로 초기에는 장방형의 이혈주부곽식과 경질토기가 출현하고 늦은 시기에는 세장방형의 동혈주부곽식이 출현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토기를 비롯하여 묘제와 주거지의 변화양상은 충분히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황성동 와질토기의 편년과 특성을 중심으로 황성동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황성동 와질토기의 편년을 설정하는데 속성의 검토와 형식분류는 지면관계상 다소 장황하기도 하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그 편년에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속성과 형식을 중심으로 바로 편년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주변유적과 비교를 통해 황성동 와질토기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황성동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Ⅱ. 황성동 와질토기의 편년

경주 황성동유적 토기의 편년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Ⅰ단계는 고식와질토기가 출토되고, Ⅱ단계는 신식와질토기가 출토되고, Ⅲ단계는 신식와질토기와 고식도질토기가 출토된다. 이를 다시 토기의 출토양상에 따라 Ⅰ·Ⅱ단계를 3단계로 Ⅲ단계는 2단계로 세분이 가능하다.

1) Ⅰ단계

Ⅰ-1단계

황성동에서 처음 목관묘가 등장하고 가장 이른 형식의 고식와질토기가 출토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Ⅰ-1단계에는 조합우각형파수부호가 출토되지 않아 공반관계를 통한 연대의 설정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렇지만 여기서 출토되는 주머니호는 내만하는 구연과 굽은 없지만 평저이거나 평저에 가까운 저부의 형태로 보아 조양동 38호와 동일한 단계로 이해되어 연대는 서기전 1세

4) 임동재, 2005,『三韓時代 慶州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硏究』,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기 후엽으로 설정한다.[5)]

그런데 주거지 출토품의 경우 대부분 조양동 38호와 동일한 단계이지만 점토대토기 같은 이른 형식과 사격자문이 타날된 단경호 같은 늦은 형식도 보여 편년의 설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다지구 주거지와 인근의 목관묘는 동일한 단계로 보는 견해[6)]를 따라 서기전 1세기 후엽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강변로 도로구간 목관묘 1호 · 2호 · 3호, 황성동유적 라지구 토광묘 1호, 황성동유적 다지구 주거지(원형주거지)의 출토품이 이에 해당된다.

Ⅰ-2단계

경주 황성동에서는 다지구 주거지에서 출토된 사격자문이 타날문단경호와 소옹 같은 시기 폭이 긴 토기를 제외하고는 1세기 전엽과 1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고식와질토기는 출토되지 않아 현재 공백으로 남아있다. Ⅰ-1단계 목관묘에서 출토되지 않던 조합우각형파수부호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연대는 구경부의 내만도가 깊어지고 구연이 외반하기 시작하며 원저의 저부를 지닌 주머니호와 구형 동체를 가지고 구경이 외반하기 시작하는 조합우각형파수부호로 보아 2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황성동 575번지유적의 목관묘 1호 · 2호 · 7호 등의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Ⅰ-3단계

Ⅰ-3단계는 고식와질토기의 마지막 단계로 격자타날과 같은 신식와질토기 요소도 확인된다. 연대는 구연의 외반이 심화되는 주머니호와 장동형의 동체와 구경부의 외반이 심화되어 수평으로 구연이 벌어지는 조합우각형파수부호로 보아 2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황성동 575번지유적 목관묘 9호 · 10호 · 11호 등의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2) Ⅱ단계

Ⅱ-1단계

영남지방에서 목곽묘가 등장하고 신식와질토기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런데 황성동의 경우 신식와질토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 시기에는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 같은 신식와질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은 출토되지 않고 조합우각형파수호의 퇴화형식으로 추정되는 파수부호와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이 남아 있는 단경호 및 소옹이 출토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에 격자타날 같은 신식와질토기적인 요소가 보이므로 연대는 2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황성동고분군 31호 · 57호 · 67호 · 68호 · 70호 등의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

5) 안재호, 2000,「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한국고대사와 고고학』
이재현, 2003,「弁 · 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硏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6) 이재홍, 2006,「慶州地域 木槨墓 硏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Ⅱ-2단계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은 사라지고 평면형태가 방형인 목곽묘가 나타난다. 신식와질토기의 전형적인 기종인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연대는 신식와질토기의 가장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는 출토되지 않고 역삼각형 동체와 집선문이 시문된 대부광구호와 편구형 동체와 직립하다가 외반하는 구경부를 지닌 노형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3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황성동고분군 2호 · 43호 · 45호 · 46호, 황성동 강변로 1호 · 2호 · 4호 · 12호, 황성동 634-1번지 1호 · 2호 등의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Ⅱ-3단계

연대는 횡구형 동체의 대부광구호와 역삼각형 동체에 직립하는 구연을 지닌 노형토기 및 가장 이른 단계의 대부직구호로 보아 3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황성동고분군 40호 · 49호 · 53호 · 57호, 황성동 강변로 3호 · 6호, 황성동 634-1번지 3호 · 4호 · 5호 · 9호 등의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3) Ⅲ단계

Ⅲ-1단계

Ⅲ-1단계는 경주식목곽묘가 등장하며 노형토기와 대부광구호는 사라지고 앞 시기부터 보이던 대부직구호를 비롯해 노형기대와 양이부호 같은 새로운 기종과 고식도질토기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연대는 가장 이른 형식에 해당하는 견부가 미약하고 대각이 낮은 노형기대와 원저의 양이부호 및 횡구형 동체의 대부직구호로 보아 3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황성동고분군 5호 · 9호 · 12호 · 14호 · 33호, 황성동 강변로 19호 등의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Ⅲ-2단계

연대는 견부가 뚜렷해지고 대각이 높아지는 노형기대, 구경이 직립하고 구형과 장동형의 동체를 지닌 대부직구호, 평저의 양이부호 등으로 보아 4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황성동고분군 8호 · 13호 · 16호 · 17호 · 22호 · 25호 · 29호 · 30호 · 36호 · 59호 · 69호 등이 있다.

Ⅲ. 황성동 와질토기의 성격

앞에서 황성동에서 출토된 와질토기의 단계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단계설정을 토대로 Ⅲ장에서는 황성동과 주변에 위치한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출토양상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황성동 와질토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황성동 집단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토기의 경우 분묘의 구조와 위세품적인 성격이 강한 철기와 달리 출토양상과 특징만으로 집단의 성격과 위계를 환치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분묘의 구조와 위세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반영 정도는 덜하지만 토기도 일정한 위계를 바탕으로 부장되었을 것이므로 대체적인

경향성은 반영한다.

1. 황성동 와질토기의 출토양상과 특징

1) Ⅰ단계(고식와질토기, 서기전 1세기 후엽~2세기 중엽)

Ⅰ-1단계 목관묘의 경우 토기의 출토양상은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유개옹 등이 고르게 공반되는 경주지역의 다른 유적과 달리 황성동에서는 조합우각형파수부호가 부장되지 않고 주머니호만 부장된다. 또 토기의 수량도 복수로 부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점이 부장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다가 2세기 전엽과 2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Ⅰ-2단계와 Ⅰ-3단계가 되면 경주지역의 다른 유적과 유사하게 주머니호와 유개대부옹 및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등 2개체 이상의 토기가 부장된다. 그런데 이 시기 주거지 출토품의 경우 목관묘 출토품과 달리 옹과 호류가 주요한 기종이고 점토대토기 같은 이른 형식과 사격자문이 타날된 단경호 같은 늦은 형식도 동시에 보여 목관묘의 출토양상과 비교된다.

2) Ⅱ단계(신식와질토기, 서기전 2세기 후엽~3세기 중엽)

Ⅱ-1단계(2세기 후엽)에 들어서면 경주 황성동에서 목관묘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목곽묘가 나타나며 토기의 경우 신식와질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인 노형토기와 대부광구호가 부장되지 않고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특징은 경주지역에서는 등장기 목곽묘의 자료가 부족해 경주지역이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시기 황성동 토기의 특징인 점은 분명하다. 특히 황성동고분군 68호처럼 철기가 대량으로 부장되는 목곽묘에서조차 토기는 한두 점 정도 부장되는 것이 주목된다.

Ⅱ-2단계와 Ⅱ-3단계가 되면 영남지방의 다른 유적과 마찬가지로 신식와질토기의 전형적인 기종인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울산 하대와 포항 옥성리 같은 중심지구와 달리 강변로 1호 같은 몇몇 대형묘를 제외하고는 토기 기종이 다양하지 않고 대량으로 부장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또 강변로 구간에서는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가 주로 부장되는데 반해 황성동고분군에서는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는 별로 부장되지 않고 단경호를 중심으로 부장되는 차이[7]가 보인다.

3) Ⅲ단계(신식와질토기와 고식도질토기, 3세기 후엽~4세기 전엽)

Ⅲ단계는 세장방형의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나고 앞 시기의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는 점차 사라지고 대부직구호, 양이부호, 노형기대, 고배 등이 새롭게 부장되고 도질토기도 나타난다. 이 시기는 단경호의 출토 비중이 늘어나고 황성동고분군 22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질토기가 출토되는 분묘의 경우 토기의 수량도 많고 무덤의 규모도 크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징 이외 주변유적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

7) 안재호, 1995,「앞의 논문」.

2. 와질토기를 통해 본 황성동집단의 성격

경주 황성동에서는 서기전 1세기 후엽~2세기 중엽까지 고식와질토기가 나타나고 2세기 후엽에는 다른 영남지방과 마찬가지로 목곽묘와 신식와질토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2세기 후엽에 보이는 와질토기는 신식와질토기의 요소도 일부 보이지만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이 강하다. 이러한 점은 이 시기의 황성동 목곽묘의 특징인 목관계목곽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토기에서도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이 강하여 새로운 토기문화인 신식와질토기로의 전환이 영남지방의 다른 지역보다 느리게 진행된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3세기 전엽에 새로운 방형목곽묘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식와질토기가 부장되고 3세기 후엽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나면서 고식도질토기가 출토되지만 울산 하대와 포항 옥성리 같은 중심지구는 차치하더라도 경주지역의 다른 유적과 비교하여 결코 두드러지는 출토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경주 황성동이 발전하여 최고 정점에 이르는 3세기에도 경주지역의 다른 유적과 비교해 무덤의 규모도 크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위 위계에 속하는 집단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경주 월성과 덕천리 같은 중심지구나 지역의 거점지구와 달리 경주 황성동은 제철생산과 관련한 계층화된 철생산자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Ⅳ. 맺음말

황성동집단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경주 주변유적의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토기의 출토양상을 검토하였다. 각 유적의 출토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변화양상과 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황성동집단은 목관묘단계부터 적석목곽묘가 조성되는 긴 시간 동안 잔존하는 제철생산을 위해 형성된 보수적이고 전통이 강한 장인집단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변화에 느리게 반응하고 선대에 사용한 무덤을 파괴하지 않고 새로운 무덤을 조성하는 것[8] 또한 이러한 황성동 집단의 성격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8) 안재호, 1995,「앞의 논문」.

참고문헌

1. 논문

안재호, 1994,「三韓時代 後期 瓦質土器의 編年」『영남고고학』14.

_____, 1995,「慶州隍城洞 古墳群에 대하여」『신라문화』제12집.

_____, 2000,「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한국고대사와 고고학』.

이성주, 1999,「弁·辰韓地域墳墓 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영남고고학』24.

이재현, 1994,「영남지역 목곽묘의 구조」『영남고고학』15.

_____, 2003,「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史學科博士學位論文.

이재흥, 2001,「木棺系木槨墓의 등장과 배경」『영남문화재연구』14.

_____, 2006,「慶州地域 木槨墓 硏究 」,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임동재, 2005,『三韓時代 慶州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硏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최경규, 2004,『1~3世紀 慶州 隍城洞集團에 대한 硏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최종규, 1995,『三韓 考古學 硏究』, 서경문화사.

황창한, 2002,「考察」『隍城洞古墳群』,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博物館.

2. 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8,『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긴급발굴조사보고서Ⅲ)』, 학술연구총서23.

국립경주박물관, 2000,『옥성리고분군Ⅰ~Ⅲ』.

_____, 2000,『경주 조양동유적Ⅰ』.

_____, 2002,『경주황성동고분군Ⅱ-513·545번지』.

_____, 2003,『경주 조양동유적Ⅱ』.

경주대학교박물관, 2003,『경주황성동고분군Ⅲ』.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박물관, 2002,『경주황성동고분군』.

영남문화재연구원, 1998,『포항옥성리고분군Ⅰ·Ⅱ-나지구-』.

_____, 2001,『경주 사라리유적Ⅱ』.

_____, 2007,『경주 사라리유적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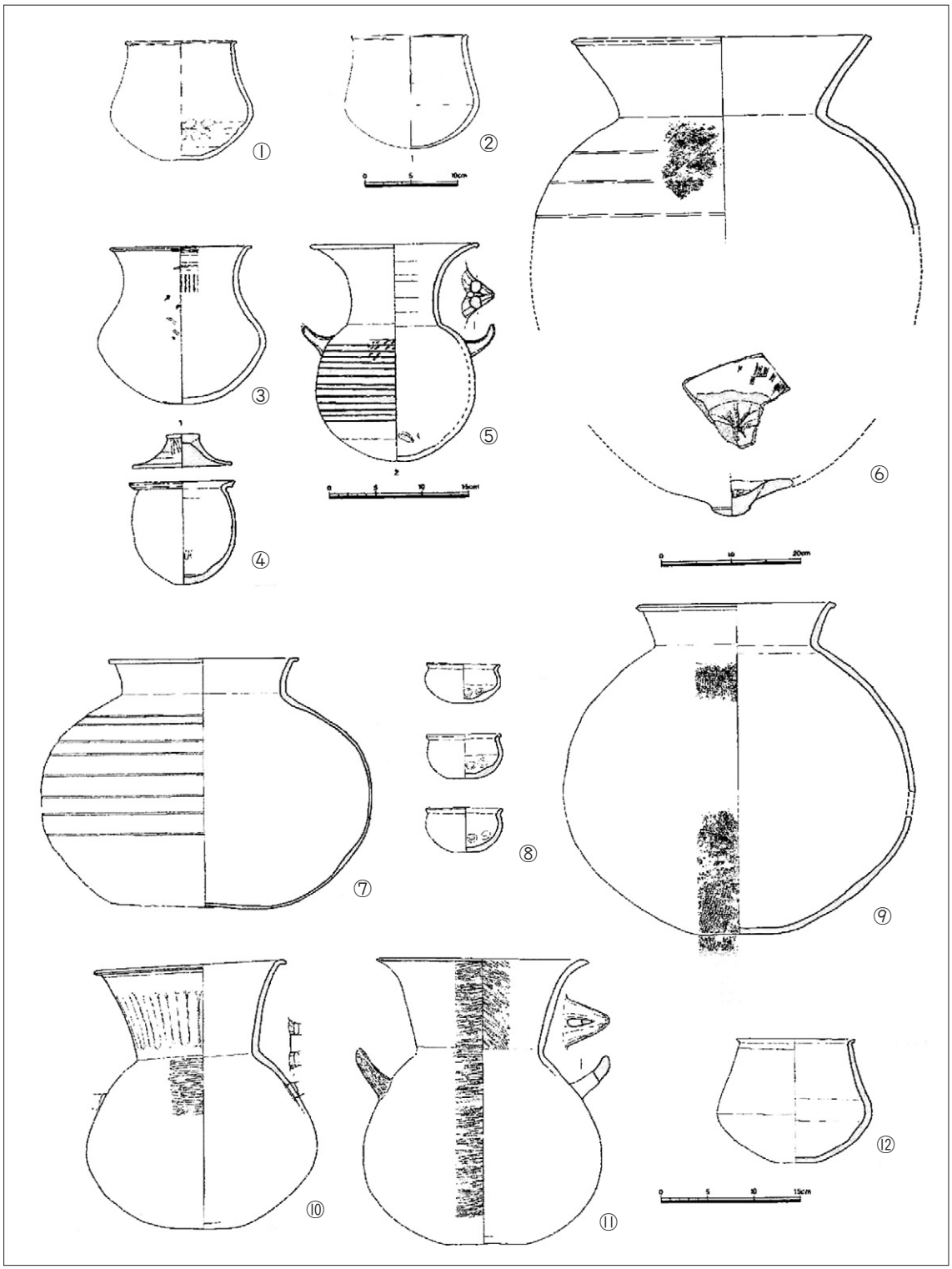
부산대학교박물관, 1997,『울산 하대유적-고분Ⅰ』.

_____, 1998,『울산 하대유적-고분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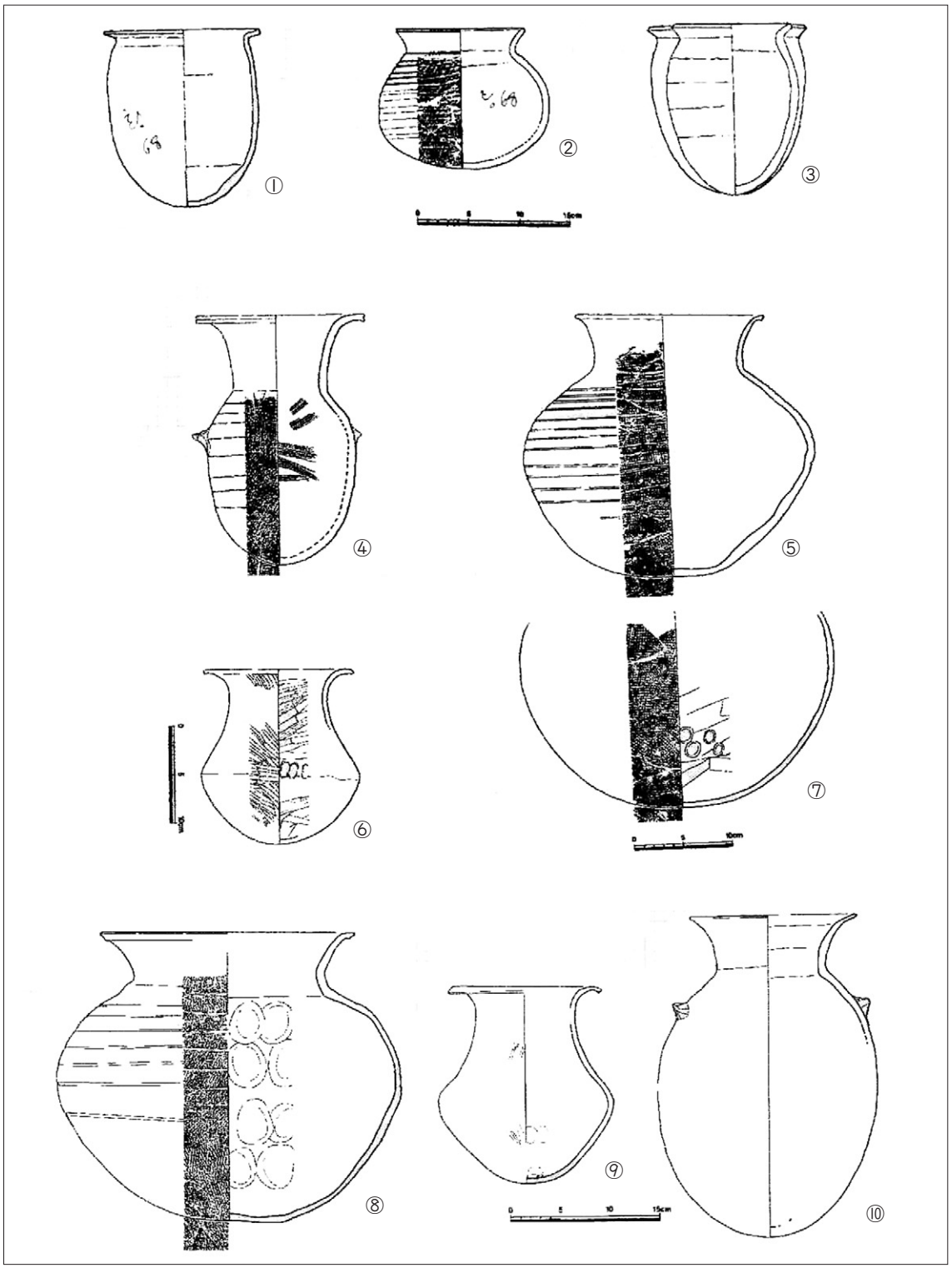
이건무·김홍주, 1985,「경주황성동유적발굴조사보고」『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17책, 국립중앙박물관, 63~102쪽.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경주황성동유적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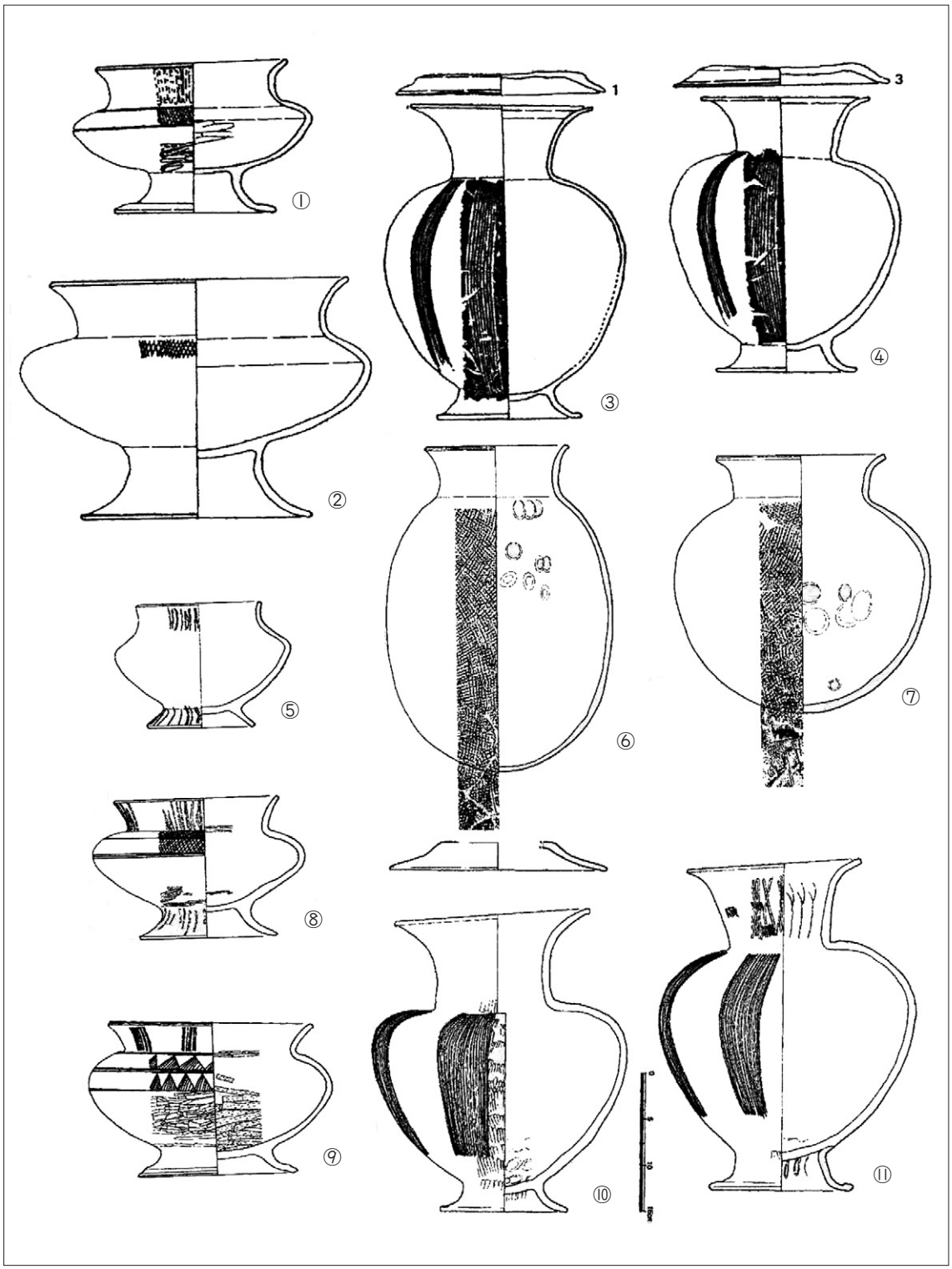
_____, 2005,『경주황성동유적Ⅱ~Ⅳ』.



도면 1. Ⅰ단계 분묘 출토유물(황성동2 · 4호 목관묘(① · ②), 사라리130호(③~⑥), 조양동38호(⑦~⑫))



도면 2. Ⅱ단계 분묘 출토유물(황성동68호(①~③), 사라리78호(④~⑦), 조양동60호(⑧~⑩))



도면 3. Ⅱ단계 분묘 출토유물(황성동634-1번지 2호(①~④), 옥성리78호(⑤~⑪))

토론

「경주 황성동 와질토기의 편년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권지영(울산문화재연구원)

황성동유적은 단일유적으로는 드물게 분묘와 주거지, 생산유구 등이 함께 조사되어 당시 사회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기에 아주 좋은 자료이다. 이 때문에 황성동유적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도 많이 축적되었다. 다양한 고고학 자료 가운데 토기는 기본적인 편년축을 설정할 수 있고 주변지역과 비교를 통해 지역성 문제에 접근이 가능한 자료이다. 또한, 생산과 분배를 통해 사회조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동 선생님의 발표문은 토기자료를 통한 또 다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 발표문은 황성동유적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출토양상과 특징을 통해 황성동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황성동유적은 총 3단계로 구분되는데, Ⅰ단계는 목관묘와 고식와질토기, Ⅱ단계는 방형 목곽묘와 신식와질토기, Ⅲ단계는 경주식 세장방형 목곽묘와 신식와질토기 · 고식도질토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목곽묘와 신식와질토기가 등장하는 Ⅱ단계가 되면 전단계인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어 새로운 토기문화인 신식와질토기로의 전환이 다소 더디며 이후 방형 · 세장방형 목곽묘단계에 본격적으로 신식와질토기와 고식도질토기가 등장한다. 유물 출토양상으로 볼 때, 황성동유적은 주변의 중심집단보다 위계가 낮았던 것으로 보았다. 즉, 황성동유적은 제철생산을 위해 조직된 보수성이 강한 하위 집단에 의해 형성된 유적으로 파악하였다. 대체적으로 발표자의 의견에 공감이 가지만 토론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1. 본 발표문은 제목처럼 황성동유적의 와질토기를 편년한 뒤 그 특징을 추출해 황성동유적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토기를 통해 단계를 설정한 뒤 황성동유적 집단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황성동유적 와질토기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연구성과에 비추어 보면 지역에 따라 와질토기의 기종구성과 문양의 종류, 기형, 계보 등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1]고 하므로 황성동유적 와질토기의 특징에 대한 보완 설명을 부탁한다.

1) 尹溫植, 2002,「영남 지방 원삼국시대 土器「樣式」論의 제기」『嶺南考古學』31.

2. 단계설정에 관한 내용 중에서 Ⅰ-1단계와 Ⅰ-2단계 사이에 일정기간 공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황성동유적 뿐만 아니라 조양동유적의 경우도 이 기간은 공백인 것으로 추정된다.[2] 굳이 동일한 기간이 아니라도 경주지역의 목관묘단계는 부분적으로 공백기간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이 조사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경주지역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현상인지 발표자의 견해를 묻고 싶다.

3. 단계설정에 관한 내용 가운데 Ⅱ-2 · 3단계에서 강변로구간과 황성동고분군의 기종구성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한다. 즉, 강변로구간에서는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가 부장되는 반면, 황성동고분군은 단경호를 중심으로 부장된다고 한다. 구체적인 분석치를 제시할 수 없지만 황성동고분군에 비해 강변로구간에는 비교적 분묘의 규모가 크며 부장유물이 많이 확인된다. 즉, 발표자가 제시한 기종구성의 차이는 동일한 집단 내에서 위계에 따른 부장양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집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발표자의 견해를 묻고 싶다.

4. 토기의 편년과 특징을 통해 황성동집단의 성격을 규명하였는데, 이는 황성동집단이 토기를 직접 생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다. 우선 실제로 그러한 전제로 출발하였는지 궁금하다. 또한 기존의 연구 성과 중에서 후기와질토기를 기점으로 분묘에는 전업적 생산체계에서 생산된 토기가 부장된다는 견해[3]가 제시되어 있다. 이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유물은 전업적으로 토기를 생산하는 집단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토기의 생산과 분배의 관점에서 생산을 담당한 집단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묻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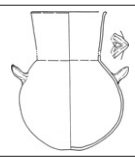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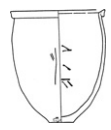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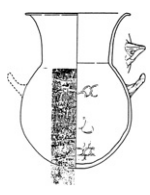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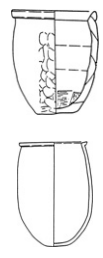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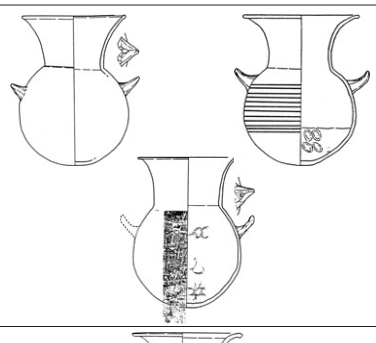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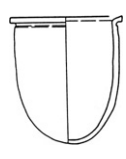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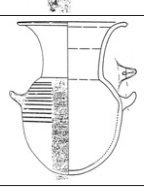
5. 마지막으로 논점에서 좀 비켜나간 질문이지만, 마지막 장에서 월성과 덕천리를 중심지구와 지역의 거점지구로 명명하였으며 황성동 집단을 하위 위계로 규정하였다. '중심지구', '거점지구' 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2) 권지영, 2006,「경주지역 와질토기 편년 검토」『석헌정징원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3) 李盛周, 1991,「原三國時代 土器의 類型 · 分類 · 編年 · 土器體系」『韓國古代史論叢』 2.

황성동 종합토론 참고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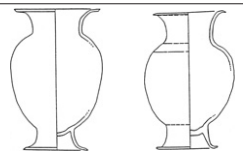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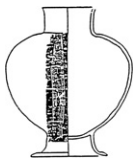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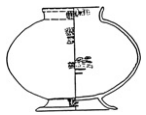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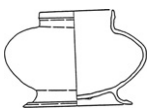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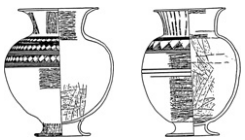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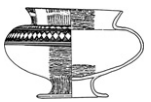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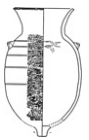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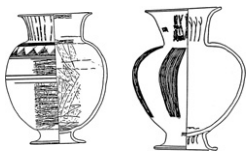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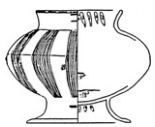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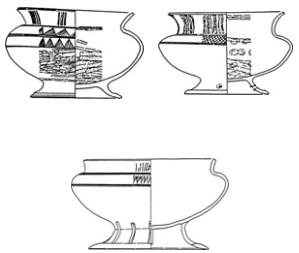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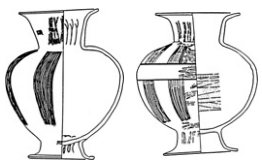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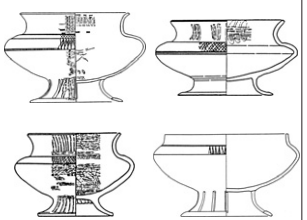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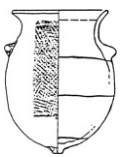
목관묘 시기의 단계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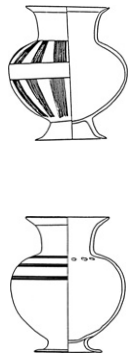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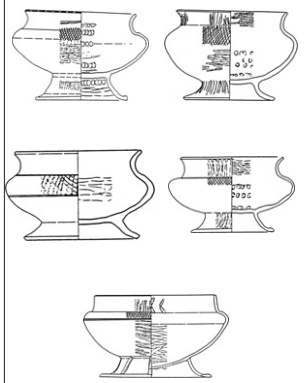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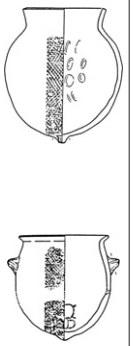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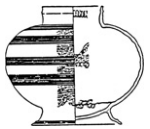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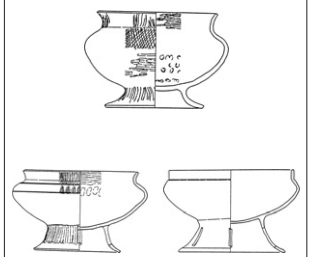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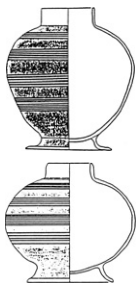
(이성주, 1999,「진 · 변한지역 분묘 출토 1~4세기 토기의 편년」『영남고고학』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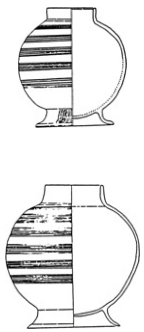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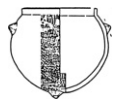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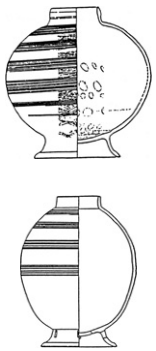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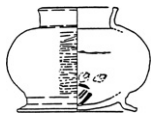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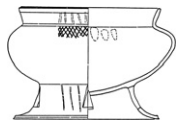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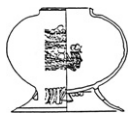
단계	장경호	주머니호	옹형토기	해당유구
Ⅰ-1단계				다호리 6, 12, 16, 34, 72
Ⅰ-2단계 (BC 1C 후반)				다호리 15, 18, 28, 35, 57, 58
Ⅰ-3단계 (AD 1C 전엽)				다호리 20, 24, 25, 26, 38, 51, 57, 59, 61, 62, 63 조양동 38호
Ⅰ-4단계 (AD 1C 중엽)				다호리 10, 22, 27, 29, 32, 37, 39, 40, 43, 47, 48, 52, 53, 54, 56, 67
Ⅰ-5단계 (AD 1C 후엽)				다호리 31, 49, 66, 68, 69, 71 사라리 130
Ⅰ-6단계 (AD 2C 전엽)				다호리 36, 70 양동리 17, 151, 양동리2(문)
Ⅰ-7단계 (AD 2C 중엽)				다호리 64 대성동 1-13 양동리 55, 99 다운동 나-19

목곽묘 시기의 단계구분

(이성주, 1999,「진 · 변한지역 분묘 출토 1~4세기 토기의 편년」『영남고고학』24)

단계구분		대부광구호	대부직구호			노형토기	첨저옹	해당유구
			대형	중형	소형			
Ⅱ-1 (2C 중엽 ~ 후반)	Ⅱ-1a							양동리 162/다운동 나-13, 나-15/옥성리 46, 60, 115, 130/중산리 Ⅶ-1/옥성리 112
	Ⅱ-1b							하대 1, 43, 44 중산리 Ⅶ-1 옥성리 112
Ⅱ-2 (3C 전엽)	Ⅱ-2a							옥성리 22, 36, 44, 58, 78, 84 하대 17
	Ⅱ-2b							중산리 Ⅷ-90 옥성리 69, 74 하대 23 노포동 35,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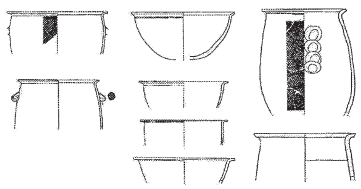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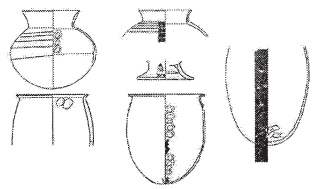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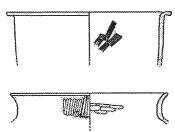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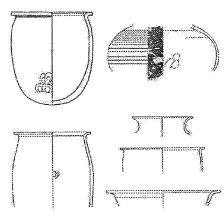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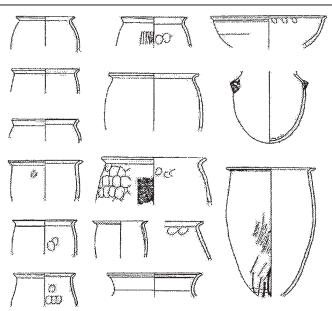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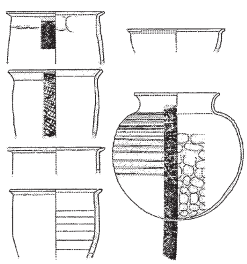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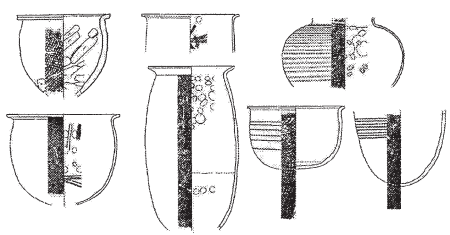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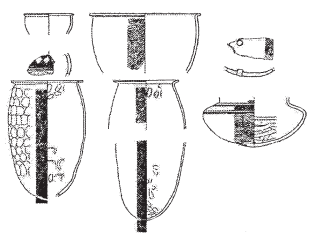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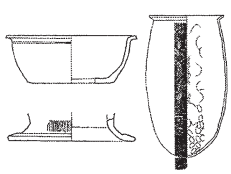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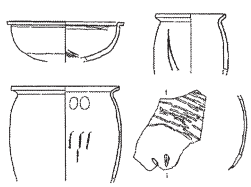
단계구분		대부광구호	대부직구호			노형토기	첨저옹	해당유구
			대형	중형	소형			
Ⅱ-3 (3C 중엽)	Ⅱ-3a							옥성리 1, 14, 62, 73 중산리 ⅠA-50, ⅠB-11, ⅠD-19 하대 2, 41
	Ⅱ-3b							중산리 ⅠC-3 하대 38 노포동 16, 22, 38
Ⅱ-4 (3C 후반)	Ⅱ-4a							하대 6 노포동 15, 21 중산리 ⅠD-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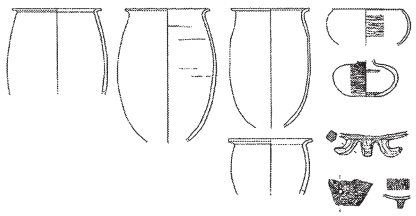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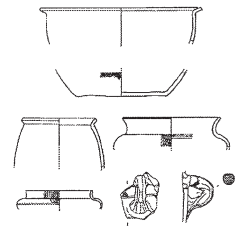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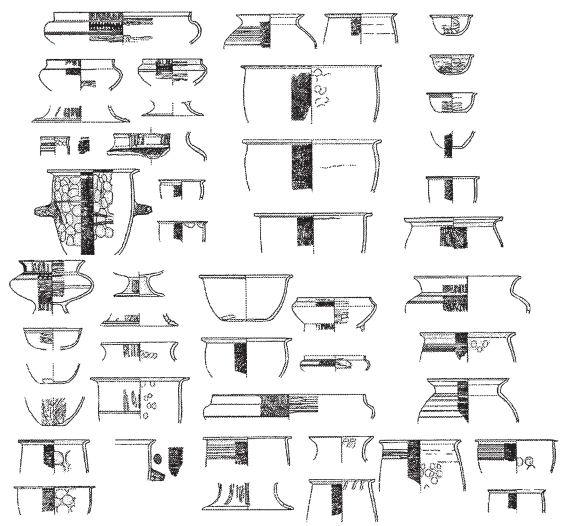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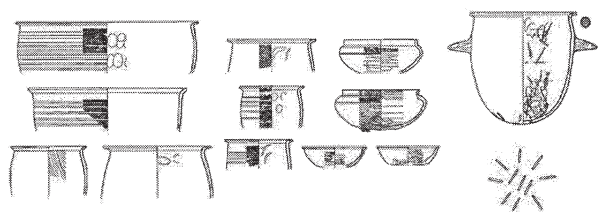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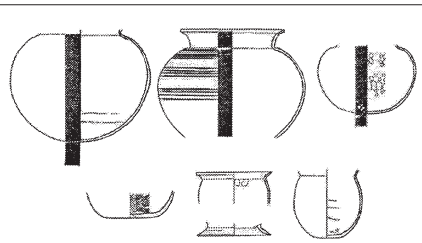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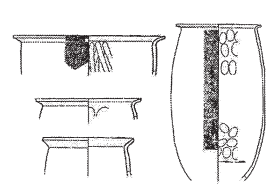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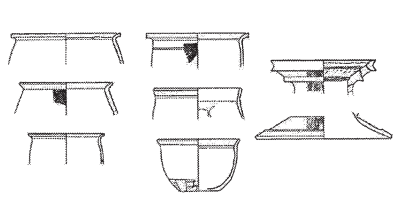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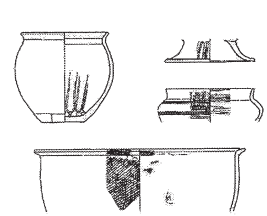
단계구분		대부광구호	대부직구호			노형토기	첨저옹	해당유구
			대형	중형	소형			
Ⅱ-4 (3C 후반)	Ⅱ-4b							노포동 31, 33 옥성리 39, 122
Ⅲ-1 (4C 전반)							 	옥성리 45, 65, 97 중산리 ⅠA-23, ⅠA-78, ⅠA-74 · 75 하대 46 예안리 74, 77, 90, 92, 93, 160
Ⅲ-2								옥성리 17, 29 월성로 가29 중산리 Ⅰ-D41 예안리 111, 138, 151 칠산동 32
Ⅲ-3								예안리 117 칠산동 27

황성동 종합토론 참고 자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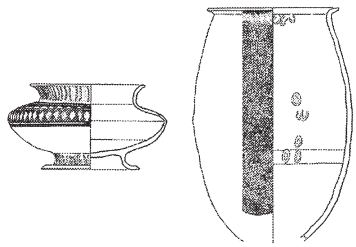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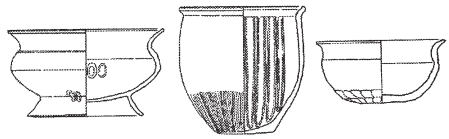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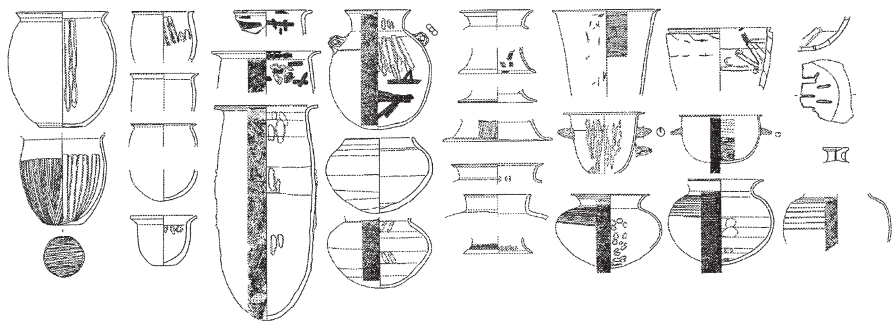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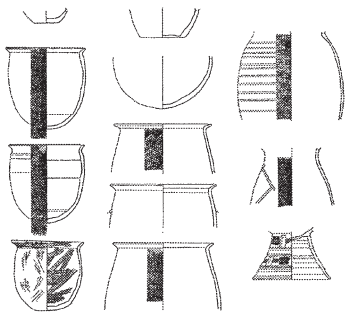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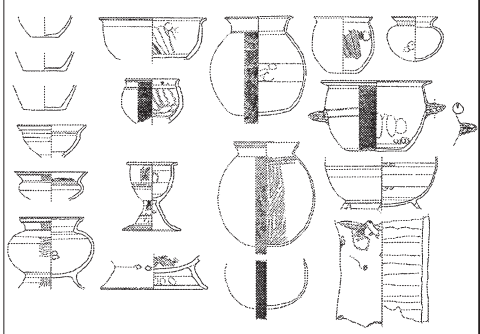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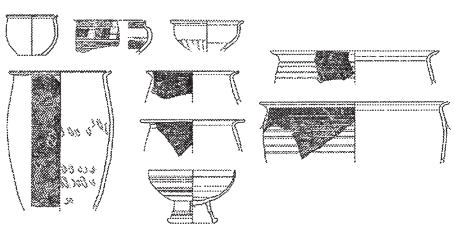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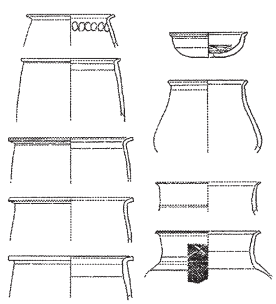
황성동 유적 출토 토기

가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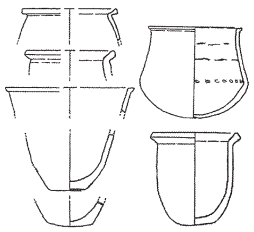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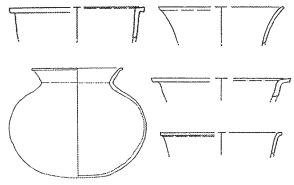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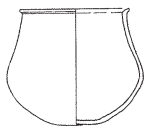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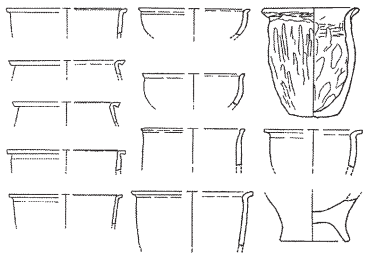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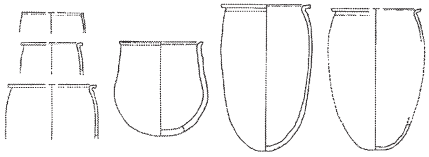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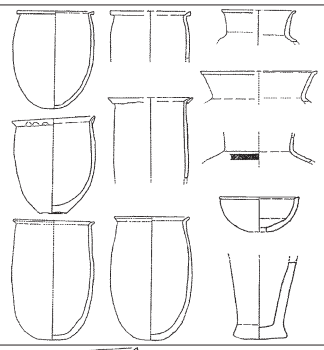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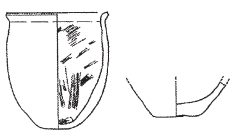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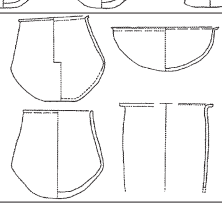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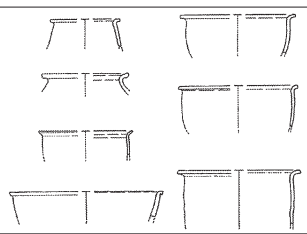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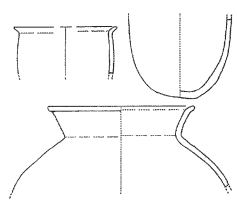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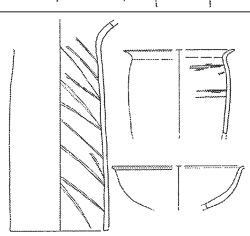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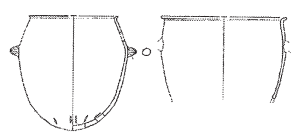
1-1		1-4	
1-10 (용해로)		1-13	
2-1		2-2	
2-3		2-4	
2-5		2-6	

2-7		2-9	
2-8			
2-10			
2-11		2-14	
2-16		2-20	

나지구

1-6		2-1	
2-2			
2-3		2-4	
2-5		2-7	

다지구

1-1		1-2	
1-8		1-11	
1-12		1-17	
2-4		2-5	
2-6		2-7	
고가 수조 구역 방형 유구		고가 수조 구역 주거지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제22회 조사연구회 발표자료집

원삼국시대 경주 황성동 유적의 성격

발행일 2009년 6월 27일

발행처 財團法人 嶺南文化財硏究院
718-912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221번지
전화 054-971-8084, 전송 054-971-8083
www.ynicp.or.kr

인 쇄 서재문화사 053-252-6445